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 보고서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강 대 구
소 속 기 관 : 순천대학교

농 림 부

제 출 문

농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최근 귀농 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12.

▣ 연구책임자 :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강대구
▣ 보 조 원 :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김경남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김민수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이 웅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변규식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귀농자들의 귀농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농업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인력 개발을 전제로 귀농자들의 특성별, 단계별 안정적 정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귀농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① 귀농, 귀촌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정리
② 최근의 귀농 동향 및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
③ 국내외 귀농 지원 정책 분석
④ 귀농단계별(귀농희망, 귀농준비,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정착기) 귀농과정과 문제점 파악
⑤ 귀농자의 유형별(U형, J형, I형) 귀농과정과 문제점 파악
⑥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Delphi 연구, 심층면접 및 전문가 집담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귀농 및 귀촌의 개념, 최근의 귀농 동향, 귀농 관련 연구의 동향, 국내외 귀농 지원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의 귀농 실태 및 이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귀농자를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층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U형, J형, I형으로 구분하여 11명의 귀농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방안의 합리성 및 실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Delphi 집단을 구성하고, 3차에 걸쳐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3. 귀농 실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가. 귀농과 귀촌의 의미

① 귀농 :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자신의 고향 농촌으로 돌아오는 U-turn 귀농, 타향의 농촌으로 돌아가는 J-turn 귀농,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는 I-turn 귀농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② 귀촌 : 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의미하며, 귀농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데 비해,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귀농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최근 귀농 동향

최근의 귀농 동향은 1990년 이후 2004년까지 22,703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8년과 1999년에 다른 시기의 10배 가까운 인력이 귀농가구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귀농 농가수는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강원의 순서이며, 귀농인의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전체 귀농인 중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종사분야에 따라서는 경종분야(54.5%), 원예(13.1%), 축산(11.7%)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의 귀농 동향을 분석한 결과, 30대와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자의 계층이 젊은 층이라기보다는 일정기간의 도시 경험을 거친 집단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50대와 60대의 귀농자들은 대부분 쾌적한 삶을 추구하거나 노후를 보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귀농 관련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귀농에 대한 연구는 귀농과정과 단계, 귀농의 동기나 유형, 귀농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변인에 따른 귀농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귀농과정 및 단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귀농자들이 귀농을 시작하기부터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일정한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계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귀농의 동기 및 유형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 및 선호, 밝은 농업전망, 부모님의 영농 승계 등이 주요한 귀농의 동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귀농의 유형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U-turn, J-turn, I-turn 및 기타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었다.

귀농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귀농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재배(사육)기술의 부족, 운영자금의 부족, 경영기술의 부족, 자녀교육의 문제 등이 주요한 장애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후 정착단계에서는 농기계 구입 및 토지구입 자금의 부족, 운영자금의 부족,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자녀교육의 문제, 생산물의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귀농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귀농자의 교육수준, 귀농 전 직업, 긍정적/부정적 귀농사유, 지역, 귀농에 대한 지원 정도 등의 변인이 귀농자들의 직업만족도 및 농촌적응도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국내외 귀농 지원 정책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귀농자나 취농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의 귀농 지원 정책은 그 유형 및 규모 등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귀농지원정책은 국가수준의 귀농자금, 귀농교육, 빈집정보 제공과 빈집 수리 지원 정도로 구분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귀농자만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역에의 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의 요구 및 필요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둘째, 현재, 귀농자들만을 위한 귀농자금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자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구입자금, 농기계 구입 자금, 운영 자금 등 자금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셋째, 귀농운동본부,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자체 등에서 귀농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력을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귀농단계별 실태 분석

이 연구에서는 귀농과정을 귀농인식단계, 귀농준비단계, 귀농단계(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전국을 4개 권역(서울·경기·강원/충·남북·대전/전남북·광주/경남북·부산·울산·대구)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40명씩 800명을 표집하여 조사자들이 방문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응답거부자와 주소불명자로 인하여 714명이 조사되었고, 자료정리과정을 통하여 692명(86.5%)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귀농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U-turn, J-turn, I-turn의 귀농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상자를 2~4명씩 선정하여 11명을 심층면접하여 설문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주요한 결과를 귀농단계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농인식단계

귀농인식단계에서는 귀농동기가 농촌생활 선호, 밝은 농업전망, 영농승계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농업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장래성 및 발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자녀에게도 농업에 종사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귀농동기가 퇴직 후의 삶, 인간다운 삶 등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그 인식 및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정보원에서도 전자는 농업관련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매스컴에 의존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귀농시 필요한 사항에서도 전자는 실질적인 경영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난 반면, 후자에서는 경영기술, 재배기술, 농촌의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귀농동기에 따라 그 준비 및 귀농과정에서의 지원이 매우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귀농준비단계

귀농준비단계의 응답자들은 영농능력 수준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면 등 전반적으로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귀농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운영자금의 문제, 재배(사육)기술의 문제, 농기계(시설) 자금의 문제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취농을 위한 정착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귀농단계

귀농단계의 응답자들은 귀농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초기에는 재배기술, 경영기술,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정착기로 갈수록 자금적인 문제와 노동력의 부족, 판로의 어려움 등을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계속 농업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귀농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취농 정보 제공 및 상담활동,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취농자 교육 및 연수 등이 가장 시급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5. 귀농 지원 방안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 연구에서는 귀농단계를 ① 귀농인식단계, ② 귀농탐색 및 결심단계, ③ 귀농준비단계, ④ 귀농실행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귀농인식단계

① 정규/비정규 교육기관의 귀농관련체험 활동 개설 지원
② 매스컴 종사자 대상 교양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③ 방송사의 귀농프로그램 편성 지원
④ 귀농성공사례집 발간 및 보급
⑤ 농업·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⑥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농업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나. 귀농탐색 및 결심단계

① 지역단위의 농업발전계획수립과 효과적 귀농모델 제시
② 농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비전 제시
③ 선도 귀농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④ 귀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⑤ 지역단위실습을 지도할 지도농업사 제도 도입
⑥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⑦ 귀농관련단체들의 귀농 탐색프로그램 운영 참여 지원

다. 귀농준비단계

① 인터넷을 통한 귀농종합포털사이트구축과 귀농정보제공, 운영
② 인정귀농자 제도 도입(자금, 포장, 지원체제, 상담과 교육, 컨설팅 제공, 귀농지원센터 전담자배치와 지원)
③ 귀농준비과정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지원(귀농컨설팅,지역컨설팅인력 육성, 농촌생활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귀농준비이후의 체계적 정보제공)

라. 귀농실행단계

① 빈집 정보 제공과 집수리 보수 비용 지원
② 농업전문기술교육에 대한 Voucher 제도 확대
③ 귀농자단체 조직 및 운영 지원
④ 귀농자 상담 카드제 도입
⑤ 귀농자금제도 개선(신규후계농업인 자금 운영 변경, 농지구입단가의 상향조정과 대출조건 조정, 귀농자금의 별도배정과 지원 활성화, 귀농자금 조건 완화, 농업경영자금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의 장기저리지원 또는 농기계 리스제도 도입)
⑥ 농기계 공동사용 지원
⑦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공동판매조직 구성과 운영조직, 농산물개인상표제나 귀농자 공동상표제,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개설지원)
⑧ 지역적응에 대한 지원(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부분을 교육과정에 반영, 귀농후견인제도 도입)
⑨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협약학교 운영지원, 교육과정의 자율편성과 임시강사제도의 허용, 자녀교육에 대한 Voucher지원, 귀농자 자녀들에 대한 기숙사와 기숙사비 제공)
⑩ 문화, 복지, 의료 지원(귀농자 할인카드제, 의료지원,문화상품권,사고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무상의료지원과 복지지원)

<목 차>

제출문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내용 및 방법 ····· 3
가. 연구내용 ····· 3
나. 연구방법 ····· 4
4. 용어의 정의 ····· 5
가. 귀농 ····· 5
Ⅱ. 이론적 배경 ····· 6
1. 귀농과 귀촌의 의미 ····· 6
2. 최근 귀농 동향 ····· 11
3. 귀농 관련 연구 동향 ····· 14
4. 우리나라의 귀농 지원 정책 ····· 26
5. 외국의 귀농 지원 정책 ····· 42
가. 일본 ····· 42
나. 미국 ····· 62
Ⅲ. 귀농단계별 실태 분석과 논의 ····· 80
1. 조사연구 ····· 80
가. 귀농인식단계 ····· 80
나. 귀농준비단계 ····· 98
다. 귀농단계 ····· 107
2. 심층 면접 사례와 논의 ····· 121
가. U형 귀농자 ····· 121
나. J형 귀농자 ····· 126
다. I형 귀농자 ····· 136
라. 귀농자 심층면접사례의 종합 요약 ····· 153
Ⅳ. 결론과 제언: 귀농지원 방안 ····· 157
1. 귀농자 지원 정책의 전제 ····· 157
2. 귀농 단계별 지원 방안 ····· 160
가. 귀농 인식 단계의 지원 방안 ····· 164
나. 귀농 탐색과 결심단계의 지원 정책 ····· 167
다. 귀농 준비단계의 지원 정책 ····· 173
라. 귀농 실행 단계의 지원 대책 ····· 178

※ 참고문헌 ····· 188
부록 1. 설문지 ····· 192
부록 2. 일본 각 현의 귀농 자료 ····· 205

<표목차>

<표 1> 귀농경로 ····· 8
<표 2> 연도별, 시도별 귀농 가구 수 분포 (2004.12.31현재) ····· 11
<표 3> 2004년도 귀농농가의 귀농가구별 시도별, 종사분야별, 연령집단별 분포 ····· 12
<표 4>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 ····· 12
<표 5>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 ····· 13
<표 6> 최근 5년간 연도별 귀농자 분포 ····· 13
<표 7> 최근 5년간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 ····· 13
<표 8> 최근 5년간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 ····· 14
<표 9> 영농규모(논 1.0ha 밭 0.3ha)에 따른 벼와 밭작물 경영모형 ····· 16
<표 10> 정착 소요 자금 및 연간 농가 운영비 ····· 16
<표 11> 2005년도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지역귀농학교의 교육 계획 ····· 26
<표 12>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의 교육내용 ····· 26
<표 13> 부산귀농학교의 귀농강좌(2005년) ····· 27
<표 14> 제10기 부산귀농학교 교육 강좌 내용 및 강사 안내(2005년). ····· 27
<표 15> 불교귀농전문학교 15기 교육내용 (2005년 8월 29일-10월 29일) ····· 28
<표 16> 불교귀농학교 17기 교육내용 계획 (2005년 9월 6일-11월 25일) ····· 29
<표 17> 2005년도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살림강좌 ····· 29
<표 18> 2005년도 전국귀농운동본부 회원 대상의 귀농 교육 ····· 30
<표 19> 각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귀농 관련 교육 ····· 31
<표 20> 각 시군별 자금 지원 현황 ····· 35
<표 21> 일부 시군의 주거관련 지원체제 ····· 39
<표 22> 일부 지역 귀농관련 인력과 정보제공 여부 ····· 40
<표 23> 기타 귀농자 지원 정책 ····· 41
<표 24> 이와테 현의 신규취농자 지원 대책 ····· 43
<표 25> 취농자에 대한 금융지원 ····· 45
<표 26> 일본 일부 지역의 취농 지원 정책 ····· 46
<표 27> 야마나시현 청년 농업자 육성 ····· 47
<표 28> 토야마 현의 취농까지의 지원 흐름 ····· 48
<표 29> 농업후계자 지역실천활동추진사업의 개요 ····· 49
<표 30> 몇 개 일본현 단위의 신규 취농자 지원 사업 ····· 49
<표 31> 나가노현의 신규취농자 관련 사업 ····· 50
<표 32> 이와테현의 초중학교에서의 농업체험 지원 사업 ····· 51
<표 33> 오키나와현의 지원 조치 내용 ····· 51
<표 34> 아오모리현의 신규취농장려사업 ····· 52
<표 35> 홋카이도의 신규취농자 지원조치 ····· 53
<표 36> 나가노현의 농업기술연수사업 ····· 54
<표 37> 톳토리현의 취농 지원 내용 ····· 55
<표 38> 아오모리 현내 지역별 취농사업 ····· 55

<표 39> 야마가타현의 지원 조치 내용 ····· 56
<표 40> 나가사키현의 지원 조치 내용 ····· 57
<표 41> 미국 마케팅론(marketing loan)의 가격지지효과 ····· 65
<표 42> 긴급대책 규모 ····· 66
<표 43> 미국의 연도별 농업소득과 정부보조금액 ····· 67
<표 44> 주요작물의 수입 구성 ····· 67
<표 45> 미국 연방정부 농장지원부서(FSA)의 농업자금 지원 유형 ····· 76
<표 46> 미국 연방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 현황 ····· 78
<표 4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포 ····· 81
<표 4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농업관 분포 ····· 81
<표 4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매력 인식. ····· 82
<표 5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업의 장래성 인식 ····· 82
<표 5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촌의 미래 발전가능성 ····· 83
<표 52>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자녀의 농업 종사 희망시 적극적 권유 정도 ····· 83
<표 53>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관련정보의 최초 정보원 ····· 84
<표 54>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최초 귀농정보원 ····· 84
<표 5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동기 ····· 85
<표 56>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인식 수준 ····· 85
<표 5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인식 정도 ····· 86
<표 5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희망 정도 ····· 86
<표 5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희망 정도 ····· 87
<표 6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현재의 귀농 준비 유형 ····· 87
<표 6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준비 유형 ····· 88
<표 62>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희망 귀농 시기 ····· 88
<표 63>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시기의 차이 검증 ····· 89
<표 64>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농사 경험 ····· 89
<표 6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사경험 ····· 90
<표 66>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영농능력 수준 ····· 90
<표 6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영농 계획 수립 능력 ····· 91
<표 6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재배(사육)기술 수준 ····· 91
<표 6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업경영능력 ····· 92
<표 7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 ····· 92
<표 7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경영 분석과 진단 능력 ····· 93
<표 72>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업정보수집과 활용능력 ····· 93
<표 73>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 94
<표 74>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기타 영농 능력 ····· 94
<표 7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교육 참가 의사 ····· 94
<표 76>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교육 참가 의사 ····· 95
<표 7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시 희망 주요 작목 ····· 95
<표 7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시 희망 작목 ····· 96

<표 7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가장 필요한 사항 ····· 97
<표 8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시 필요 사항 ····· 98
<표 81>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100
<표 82>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농업적 배경 ····· 101
<표 83>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지속적 접촉하여 영농 조언자 확보 여부 ····· 102
<표 84>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처음 귀농을 결심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 102
<표 85>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본인의 귀농 준비에 대한 주변 사람의 지원 정도 ····· 102
<표 86>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영농능력 수준 ····· 103
<표 87>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준비 정도 ····· 103
<표 88>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의향 정도 분포 ····· 104
<표 89>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예상 시기 분포 ····· 104
<표 90>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귀농 형태 ····· 104
<표 91>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귀농지 선택 ····· 105
<표 92>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선택 영농 작목(가축 포함) ····· 105
<표 93>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귀농 준비 시 가장 어려운 점 ····· 106
<표 94>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귀농 준비 기간 ····· 106
<표 95>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 ····· 107
<표 96>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 108
<표 97>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업적 배경 ····· 109
<표 98>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유형 ····· 110
<표 99>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남녀간의 차이 분석 ····· 110
<표 100>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전 직업의 교차분석 ····· 111
<표 101>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전 지속적 영농 조언자 존재 여부 ····· 112
<표 102>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처음 귀농 결정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 112
<표 103>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사에 대한 현재 주변 사람의 지원 정도 ····· 112
<표 104>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농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지원 정도 ····· 113
<표 105>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영농중 부족 부분의 해결 방법 ····· 113
<표 106>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초기 영농능력 수준 ····· 114
<표 107>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영농능력 수준 ····· 114
<표 108>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단계별 주요 작목 변화 ····· 115
<표 109>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농업 유형 ····· 115
<표 110> 귀농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귀농초기와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 ····· 116
<표 111>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소요 기간과 작목 변경 회수 ····· 116
<표 112>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소득 만족도 ····· 117
<표 113>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올해 농업소득 예상액 ····· 117
<표 114>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업 유지 의사 ····· 117
<표 115>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 118
<표 116>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지역에 대한 만족도 ····· 118
<표 117>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촌거주 의사 ····· 118
<표 118>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결정에 대한 평가 ····· 119

<표 119>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인력 유입에 필요한 정책 ····· 119
<표 120> 귀농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귀농자 선발과 지원 방안 ····· 120
<표 121> 귀농 유형에 따른 귀농자 심층 면담 분석 요약 ····· 154
<표 122> 귀농 시기별 귀농자가 겪었던 어려웠던 점 ····· 155
<표 123>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 대책 유형 ····· 161
<표 124> 귀농 인식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 167
<표 125> 귀농 탐색 및 결심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 173
<표 126> 귀농 준비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 178
<표 127> 귀농 실행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 187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모형 ····· 5
<그림 2> 귀농 과정 ····· 19
<그림 3> 귀농 적응의 2단계 과정 ····· 20
<그림 4> 카고시마현의 취농상담 지원 체계 ····· 60
<그림 5>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도 ····· 61
<그림 6> 미야기현의 신규 취농 흐름도 ····· 62
<그림 7>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 69
<그림 8>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 대책 유형 ····· 162
<그림 9> 귀농단계별 귀농지원방안 ····· 16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업은 WTO 체제의 출범과 FTA의 체결로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내만의 경쟁에서 전세계의 농산물과의 경쟁 단계로 변화하였고, 그 결과 농업도 세계일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산물 공급의 비탄력성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가능하고, 대상 농산물 역시 전세계의 농산물로 확대됨으로 우수한 품질과 낮은 가격이 농산물 가격 경쟁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은 도시 소비자들의 농산물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나,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세계의 농산물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농업 인력의 확보는 농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그로인하여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부녀화 현상의 가속화나, 농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점,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농업과 농촌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각종 채널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 농업이 처해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가격과 질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 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시급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 노동력은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 문제의 차원을 넘어 차세대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층 인력의 절대 부족과 그로 인한 농업 포기에 대한 우려감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농업직업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농업 인력의 부족과 노령화 현상을 극복할 것인가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농업인력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농가인구는 2004년 현재, 3,41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농림부, 2004). 이는 2003년에 비하여 12만 6천명정도가 감소하였고, 비율도 0.4%가 감소하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농가인구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당 인구수가 1985년의 4.42명에서 2004년에는 2.75명으로 줄었고, 농가가구수도 192만 5869가구에서 124만 406가구로 68만 5천가구 정도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510만명 정도가 1985년부터 2004년 사이에 감소되었다(농림부,2004). 연령구조에 있어서도 1985년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3.9%에 그치던 것이, 2004년 현재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40.3%를 차지하여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농림업주요통계,2005), 농업종사인구도 2004년 현재 174만9천명으로 1985년 355만4천명에서 180만5천명이 감소하여, 총인구에 대한 비율이 23.7%에서 7.8%로 감소하였고, 60세이상의 노령층이 1990년 21%였으나 2004년에는 농림수산업인구 2004년 4/4분기의 178만9천명중 52.8%로 급증하고 있다(농림부,2005). 이들 비율의 증가는 농업인구의 감소 결과로 나타난 측면도 있으나 노령인구의 총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예견된다.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10년에는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59만명으로,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한, 50대 이하의 농업인구는 69만5774명으로 그치게 되어 농업분야의 성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강대구,정철영,이근수,2003,p.74). 또한 농촌 인구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는 도시는 5.6%, 농촌이 14.7%였으나, 2005년 현재 전국이 9.0%이나, 농촌은 18.6%이고, 2010년에는 21.4%, 2015년은 23.3%, 2020년은 25.4%로, 도시보다 배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10%이상 높게 증가하고 있어(김경

덕, 2005,p.25), 농업의 유지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1990년에서 2000년 기간의 농업종사인구는 98만 여명이 감소되었으나, 40만 여명의 사망자수를 뺀다면 58만 여명에 달하는 감소 부분은 이들이 10년 사이에 농업을 포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실제로 귀농인구나 신규 취업자를 가산한 결과로 본다면 포기자의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견된다. 감소인구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34세 집단의 탈농 감소와 35-39세 집단의 증가, 50세 이후 연령 집단의 탈농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강대구, 정철영, 이근수, 2003,p.74). 이는 농업 인력으로 정착되는 단계가 병역을 마친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병역을 마치고 30대 초반에 영농을 시작하여 성공 여부에 따라 30대 중반 탈농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에 반하여 50대의 탈농 증가는 어느 정도 영농 정착에 성공한 집단이 농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숙달된 전문 인력의 유출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규 농업 인력의 확보와 기존 인력의 유지와 발전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말한다.

농업 인력의 육성 현황 및 문제점 등은 몇몇 연구(윤호섭,박동규,이영대, 1992; 안덕현외, 2001; 정철영외, 2001; 정철영, 2002; 정철영, 2003; 강대구,정철영,이근수, 2003,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 2004)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농업 인력의 확보 방안은 일부 연구에서 소극적 논의로 그치고 있다.

농업 인력의 유입은 주로 신규 인력의 유입으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창업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전업하는 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최초 창업인구라 할 수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의 즉각적인 유입은 우리나라 여건상 병역문제가 걸려있어 실제적으론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연령층은 학업과 병역 문제를 맞힌 후의 연령층으로, 창업 인력의 일부는 신규 창업이라기보다 다른 직업에서 전업한 재촌 전업자나 귀농자가 중심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순수한 의미의 재촌 전업자는 농촌의 산업적 불비로 인하여 실제적으론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을 것으로 예견되어 신규창업자의 대부분은 귀농자일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인력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22,703가구로 집계되고 있고, IMF가 시작되었던 199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까지 매년 1000가구 이상씩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부 내부자료, 2004). 특히 1995년까지에는 3285가구에 그쳤으나, 1996년 2060가구, 1998년 6409가구, 1999년 4118가구가 되어 1990년-1995년 기간의 귀농인구합계보다 그 이후 3년간의 유입 인구가 훨씬 많아 IMF로 인한 귀농인력이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대략 31-39세 집단의 연령이 42.8%로 가장 많으며, 40-49세 집단이 27.1%로 다음이었다. 또한 50-59세 집단은 15.6%이고, 29세 이하 집단은 8.4%, 60세 이상의 집단도 1392명으로 6.1%나 되고 있다. 이들 연령집단들의 귀농이유나 배경은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착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공주(2005)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귀농인들은 농촌생활자보다 도시생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46%정도로 반수 정도가 농사경험이 있었고, 농촌거주경험은 77%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위하여 귀농한 경우가 50.7%나 되었고, 그다음이 남은 인생동안 농촌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기 위해(39.8%)로 응답하여, 대안적 삶을 지향하거나 노후에 대한 대비자들이 새로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비율(28.4%)보다 많았음을 볼 때 귀농의 동기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0대 이상의 귀농자를 조사한 것으로 해석의 한계가 있을 것이나 귀농자들이 다양한 동기로 귀농하고 있으며, 농업을 직업으로서 삼아서 귀농하기보다, 농촌을 삶의 장소로 선택한 귀농자가 많았다. 정한모의 연

구(2002)는 1997년 이전의 귀농자와 그 이후의 귀농자는 귀농성향이나 동기가 다를 것으로 보았고, Rose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인구의 농촌이주자 유형을 쾌적 환경 추구 이주자, 조기퇴직이주자, 실직이주자, 대안문화추구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정한모는(2002) 귀농자의 귀농동인과, 과거의 직업세계의 경험과 주변 환경적 과정에 따라 귀농선택과 적응과정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결과적으로 귀농 동기나 귀농유형에 따른 정책 수단이 달라져야 하고, 정착 이후의 적절한 후속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하나, 정책 방안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며, 각 방안의 농업정착효과에 대한 증거도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각 귀농자의 귀농단계별 정책적 지원 사항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고령층은 농업보다는 농촌 거주를 목적으로 귀농하는 인구도 있으므로 이들도 귀농자로 포함하는가에 대한 규정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이 귀농자가 아닌 귀촌자라면 그에 따라 정책적 적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귀농 관련 연구들은 귀농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나, 귀농자 프로그램, 귀농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대체로 1998년도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귀농한 사람들의 귀농과정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며, 수집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귀농 동기나 귀농 단계를 고려한 정책적 제언이 제공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귀농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성이나 배경에 따른 정착 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IMF초기에 귀농한 사람들의 귀농 과정과 실태를 파악하여 새롭게 귀농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아직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종합자금제나 후계농업인 제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귀농자들의 귀농동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농업 인력의 확보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인력의 개발을 전제로 귀농자들의 특성별, 단계별 안정적 정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귀농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귀농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 방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이 연구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가) 귀농, 귀촌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정리
나) 귀농희망자의 귀농 동기, 교육 수준, 연령, 요구사항 등 실태 파악
다) 귀농자의 유형(J형, I형, U형)별 귀농과정과 문제점 파악
라) 귀농단계별(귀농희망, 귀농준비,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정착기) 귀농과정과 문제점 파악
마) 귀농자의 귀농 동기와 필요 능력의 진단과 필요한 지원 사항의 파악
바) 현존 귀농자 지원 정책과 실태의 파악
사)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나.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문헌연구

귀농과 귀촌 등의 귀농관련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관련논문, 연구보고서, 기타 관련 자료를 기초로 용어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어민 단체의 귀농관련 지원 활동을 각 귀농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귀농단계별(귀농 인식, 귀농 준비, 귀농(귀농초기, 귀농중기, 귀농정착기))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160명씩 800명을 표집 하였다. 표집은 귀농준비자는 인터넷 daum카페의 귀농사모 회원, 흙사람,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 졸업자들 중 카페를 가진 회원명단과, 부산귀농학교 졸업생 명단, 광주귀농학교 졸업생,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졸업생중 전국을 각 권역별(경기,강원권(서울포함), 충남북권(대전포함), 전남북(광주포함), 경남북(대구, 부산, 울산포함)권)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40명씩 16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귀농자는 농림부와 전국 시군의 협조를 받아 10명씩 추천받아서 귀농 경력별로 3년 이내, 3-5년, 6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경력 집단과 권역별로 2단계로 층화하여 160명씩 480명을 표집 하였다. 귀농인식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4개 권역과 학과유형(농업계 학과, 비농업계 학과), 성별(남/여)을 구분하여 귀농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을 조사요원이 질문하여 각 대학에서 각 권역별로 40명씩 160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다) Delphi 연구

전문가와 귀농 단체 담당자, 귀농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졸업자를 중심으로 추천을 받아 20명 정도를 선정하여 이들에게 귀농 정책에 대한 인식과 효과, 귀농 정책 방안에 대한 협의를 3회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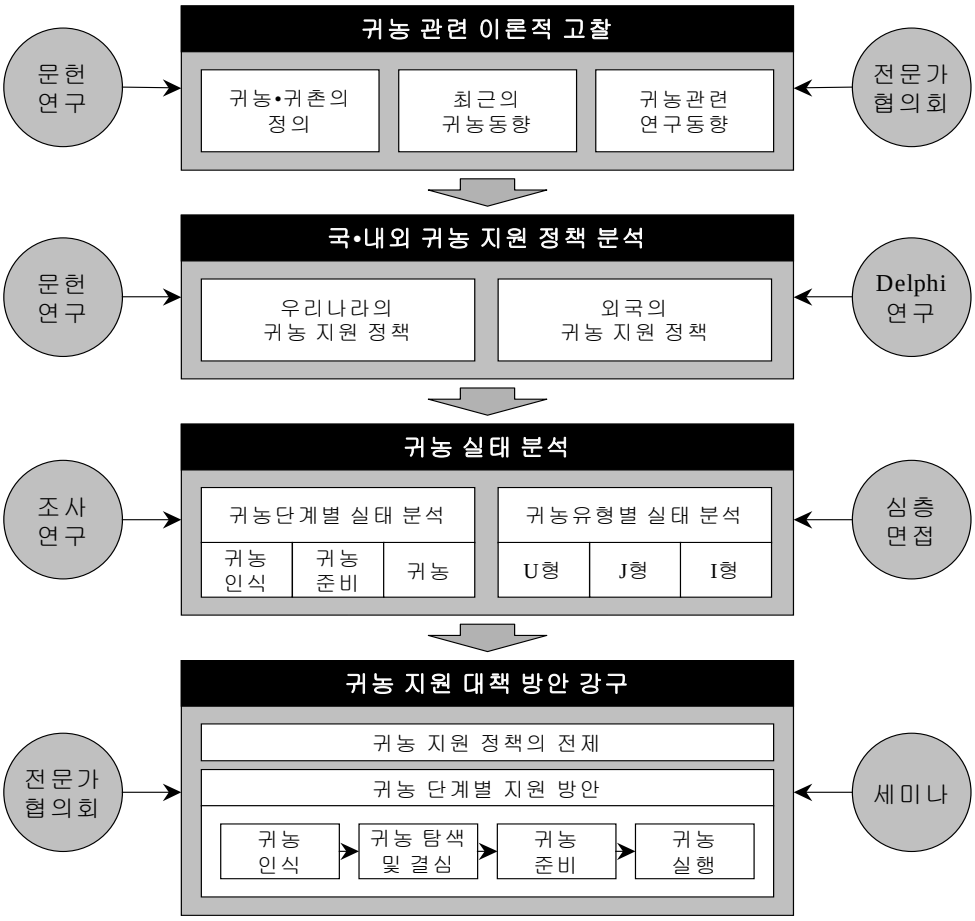
라) 심층면접

귀농자 집단을 귀농 유형을 U형, J형, I형으로 구분하여 11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2-3회 방문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마) 세미나

귀농단체와 귀농자, 귀농관련 연구자를 각 1명씩 선정하여 전문적인 집담회를 1회 개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내용과 연구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귀농

귀농은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업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귀농의 성격상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관점도 있고, 동시에 농업을 떠났던 사람이 농업을 다시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나, 넓게 본다면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에서의 삶을 향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정도는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농촌으로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을 가장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귀농의 정의로 보았고, 그중에서 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창업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농업을 운영하나 식량 공급을 기대하며 농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농업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농촌을 거주 장소로 선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단지 농촌에서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며 농업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농을 전통적으로 볼 때는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농업과의 관련을 보아서 귀농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거주 장소로서만 농촌을 택한 경우는 귀농과는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거주 장소로만 농촌을 택한 경우는 귀농보다는 귀촌으로 정의함이 타당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귀농과 귀촌의 의미

귀농이란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한다.[1] 이들 전제에는 이전에 농촌에 있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동안 그들이 농업을 영위하였는가의 여부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온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들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는가는 논외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일부 귀농연구자들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농촌에 살았던 사람도 언급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귀농이라는 용어에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건, 짓지 않았건,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박영일(1998)은 귀농인(귀농자)을 농촌 출신으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U-Turn자, 도시 출신 또는 재촌(在村) 비농업인으로서 다른 직업을 버리고 농촌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종사하는 취농자(取農者)로 분류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사전적 의미의 농촌에서의 탈출과 농촌으로의 귀환을 중심으로 한 정의에서 직업으로서의 농업종사로 정의하였고, 농촌에서의 떠남과 귀환이라는 도식을 상대적으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하여 이정관(1998)은 귀농자(urban-to-rural migrants)를 농촌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자가 농촌을 떠나 비농업적 직업을 갖고 타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농촌에 정착하여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농업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김주현(1999)은 귀농인(U-turn Farmers)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귀농은 반드시 농촌출신의 귀농(U-Turn)일 필요는 없고, 도시출신의 귀농(J-Turn)도 포함하고 있다. 김주현은 농촌출신이외의 취농자마저도 귀농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견해이다.

이동하(1998)는 귀농자(urban-to-rural migrants)를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거주지를 변화시키고 그 곳에서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형용(1998)은 귀농자를 과거에 농업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출했다가 다시 농촌에 돌아와 영농을 하는 자, 또는 과거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인이 농촌으로 가서 영농을 새로이 시작한 자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도시는 농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과거에 도시에 살면서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다가 이를 그만두고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겨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서규선・변재면(2000)은 귀농인의 유형을 도시와 농촌, 고향과 타향으로의 공간을 구분하여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 농촌으로 돌아 되돌아온 U턴 귀농자, U턴 귀농자와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한 J턴 귀농자,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

---

1) 두산동아, 동아 새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krdic.php?docid=17277 2006.1.7, 그에 비하여, 민중국어사전은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농촌으로 되돌아감'을 말한다. 귀농이라는 의미에는 그러므로 일시적 이농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한다.

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I턴 귀농자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정의는 농촌과 도시, 다시 농촌으로의 귀환을 전제하지 않은 I-turn 이주자를 귀농자의 유형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귀농에 대한 정의와는 다른 견해로 보인다.

남정덕(2000)은 귀농형 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이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귀농형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남정덕의 정의는 실버타운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관점과는 다르나, 노인이 은퇴후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농으로 파악한 것은 농업의 영위 여부에 관계없이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귀농을 보고 있음을 말한다.

천규석(1997)은 귀농을 본디 농사짓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 다시 예전의 자기 업인 농사짓는 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이농을 귀농의 전제요소로 보고 있음을 말한다. 그에 비하여 이병철(1999)은 귀농을 반자연적인 도시의 삶으로 멀어져버린 땅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규정하여 귀농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 귀농이 세상에서 달아나거나 사회의 관심을 덜 가지려는 것이 아닌, 생계와 건강과 삶의 가치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건강과 삶의 가치와 품위를 유지하며,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서의 귀농을 파악하여 귀농의 의미가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이 아닌 농업을 영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귀농에 관련된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에서도 귀농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조남철(1989)은 '귀농과 이농의 역설적 의미-1940년대 농민소설 연구'에서 귀농소설을 농촌으로 돌아간 도시지식인의 농촌 생활을 그린 것으로 한정하여 농촌과 농민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일관한 소설 논의를 통하여 귀농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 지식인의 농촌생활을 귀농으로 규정하여 귀농의 의미를 전통적 농업에 대한 의미와 자연과의 조화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며, 조남현은(1980)은 '지식인 귀농(歸農)의 모티프 생성과 표출'에서, 귀농이란 농촌출신이건, 도시출신이건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이는 조남철의 의미와도 유사한데, 농촌에서 살던 사람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지 않음을 말한다. 귀농(歸農)의 농(農)은 정신적·문화적으로 온통 뿌리가 드러난 식민지 치하의 현실을 상징하는 농촌 현실을 말한 것이며, 귀(歸)는 궁여지책이나 체념의 끝에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애향, 목적, 현실인식, 새로운 삶의 방식에의 지향 등등의 향일적 정신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의미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귀농은 자연에의 회귀와 새로운 삶의 방식, 애향 의식, 억압받는 구조하의 현실이라는 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학작품속에서는 귀농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논의도 파악할 수 있으나, 귀농을 자연에의 회귀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거의 농촌거주경험과는 무관하게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한다.

귀농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착, 농촌 정착을 결과로서 도출된다면 농업정착의 논의에서도 파악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 일의 주요대상은 농업후계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논의는 다수 있으나, 복근채(1999)의 연구를 보면 '농업후계자의 성공적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연구'에서 농업후계자를 정의하는데 부모가 농민인 경우만을 농업인 후계자라고 할 수 없으며, 미래에 농업직에 종사할 사람들로서 전체적, 국가적 의미에서 농업 내지 농민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로 이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귀농자를 농업인의 의미로만 파악한다면 귀농인은 일차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이들의 과거 경험을 무시한다면, 귀농한 후 농업직에 종사할 사람들로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귀농자가 농업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는 귀농의 성공적 결과로서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귀농자가 어떤 마음 자세이어야 하는가는 조남철이나 이병철, 조남현의 논의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농에 대한 의미는 장원(1998)의 글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땅의 죽음은 뭇생명의 죽음으로 규정하고, 귀농은 땅을 살리고, 밥을 살리고, 뭇생명을 살릴 것으로 파악하여, 귀농은 인간적인 삶을 살기위한 자발적인 선택이 되어야 하며,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 생산하는 범위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가난하고 보다 힘든 삶을 선택하는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귀농이 결과적으로 자연으로의 회귀만이 아닌 자연을 살리고 자연과의 긍정적 관계로의 회복을 말한다. 이를 장원은(1998) '살림의 문화', '상생의 문화'라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동하, 김주현, 김형용, 서규선・변재면 등은 도시에서 유입된 농촌경험이 없는 신규취농자마저도 귀농으로 파악하고 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농자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정관의 견해와는 달랐다. 그에 비하여 박영일은 귀농자를 전통적인 귀농자와 도시출신 신규창업자로 구분하여, 이동하, 김주현, 김형용, 서규선・변재면과 유사하게 귀농자를 파악하고 있다. 특이하게 신규창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에서 농업을 하려 돌아온 사람들은 농업을 직업으로 영위한 적이 없던 사람일 것이므로 창업자의 범주에 속할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귀농에 대한 경로나 과정을 제시한 연구들도 일부 있었는데, 농촌진흥청은(1998) 귀농경로를 <표 1>과 같이 전통적인 귀농의 정의처럼 농촌에서 나갔던 사람의 귀환만이 아닌 도시에서 유입된 인력, 그 외에 농촌에서만 살았고 떠났던 적이 없었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1> 귀농경로

구분	농촌→도시→고향농촌	농촌→도시→타향농촌	도시→농촌	이동 없음	기타	합계
가구 수(호)	205	50	99	6	6	366
구성비(%)	56.0	13.7	27.0	1.6	1.6	100.0

자료: 농촌진흥청, 1998.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U-turn 귀농자가 56%정도이고, J-turn 귀농자가 14%, I-turn 귀농자 27%로 구성되며, 이외에 이동 없는 경우와 기타까지를 귀농형태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동이 없던 농촌사람들은 농촌을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의미보다는, 농업을 안하거나, 농업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농업을 다시 시작한 창업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귀농을 '농업을 처음 시작한 경우까지로 확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귀농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촌자가 농촌을 떠났던 경험이 없이 농업을 처음 시작하였거나, 도시에서 유입하여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귀농의 의미보다는 창업[2]의 의미로 파악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도시에서 유입된 경우는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점에서는 귀농의 범주로 볼 수 있으나, 떠난 적이 없는 계층은 귀농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면 농촌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없이, 단지 농촌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하였다가 농촌에 돌아와 농업을 영위하

2)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강대구, 정철영, 이근수의 연구(2003)에서 파악할 수 있다. 창업농의 논의에서 처음 농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창업농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학교 졸업 후 처음 직업으로 농업을 선택한 경우와,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창업한 경우로 구분하여 창업농의 개념이 농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는 경우도 귀농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단지 농촌을 떠났다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파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다. 더구나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출신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볼 때 전통적 의미의 귀농자 계층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자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살려고 내려온 사람들을 귀농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는 농업의 영위를 귀농으로 전제할 때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귀농은 대상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분하여야 함을 말한다. 즉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다가 이농하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통적인 귀농의 형태일 것이며, 농촌에서 자라서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갔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전통적 귀농의 변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귀농은 귀농자의 선택 장소가 그들이 살던 농촌과 동일한 지역인가 아닌가에 따라 U-turn과 J-turn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외에 농촌에서 성장하였거나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를 귀농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는 귀농 정책의 대상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농촌에 와서 거주한다는 의미는 집만 얻어서 도회지로 출퇴근 하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종사도 성격에 따라 식량자급수준의 농업종사는 농촌에 거주하며 도시로 출근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성격상 부업이나 텃밭 수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들 모두를 귀농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정책의 선택문제가 제기될 것이다[3]. 전통적으로 귀농의 의미가 농촌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농촌에서 살면서 도시로 출퇴근 하는 사람 역시 귀농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이 단지 농촌거주 경험이 없는 도시에서 유입한 사람이라면 귀농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귀농은 농촌거주경험이 없는 도시출신자의 귀농은 일차적으로 농업종사가 전제로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의 형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는 농업의 복합산업화 과정에 있으므로 생산농업에 대한 종사만을 농업종사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정정도는 그 정도가 부업규모이건, 전업규모이건 가계 소득에 일정부분 기여하여야 하는 점이 전제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규 귀농자가 첫해부터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있으므로 일정기간내에 농업소득의 가능성이 있고, 농촌거주와 거주기간중 농업종사라는 점을 함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귀농자가 처음 농사를 짓는 경우는 창업농에 해당하므로 귀농자의 상당수는 창업농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들 범주는 I-turn 귀농자로서, 이들의 전직이 농업과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변형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농업과 무관한 도시 직장에 다니면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정의에 따른다면 귀농의 범주에 속하나,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귀농의 형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농촌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살면서 농업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귀촌자"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귀촌에 대

3) 이와같은 논의는 최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의 지역개발 방향으로서 인구과소화가 진행되는 농촌지역에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방안으로서 농촌에 살되 농업이외의 농촌관련일을 하거나, 도시에서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인구 유입 촉진 차원과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달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농업의 영위가 없는 농촌 귀환은 성격상 농촌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고, 이는 도시화 정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농촌이 농업이 주요 산업적 기반이 아니라면 성격상 농촌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하나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한 정의는 사전에 언급되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다. 귀촌(歸村)에 대한 정의는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뜻하는 용어로만 제시되고 있다.[4]. 이는 사전에 언급된 형태로서 농업의 영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거주 장소가 농촌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귀촌 역시 전통적 정의에 따른다면, 농업의 영위와는 무관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농업인의 정의가 종사 일수와 경지규모, 소득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으므로, 상당부분 귀촌자들은 귀농자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귀농자와 귀촌자는 그들의 경로에 따라, 농업에 대한 경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 적용 역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만 도시에서 직접 귀농한 사람들이나(I형 귀농자), 귀촌자는 성격상 농업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적을 것이므로, 일부 특징들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I형 귀농이나 귀촌은 농업에 대한 실제적 참여 경험이 아주 낮은 수준이거나 피상적 수준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귀농 유형별로 정책적 적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귀농동기가 농업종사에 대한 관심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집단별로 농업능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도 정책 지원이 달라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귀농과 귀촌은 농촌으로 돌아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농촌에서의 삶이 자연으로의 회귀를 전제한다는 공통적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농업영위 유무에 관계없이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돌아와서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귀농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U-turn귀농이 될 것이며,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귀농한 경우는 U-turn의 변형인 J-turn이다. I-turn은 농업종사를 위하여 도시에서 돌아온 경우도 귀농으로 볼 수 있으나, 거주를 목적으로 와서 농업을 부업수준으로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귀농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단지 귀촌 수준으로 농촌을 거주 장소로만 보았다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이주동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하여 귀촌이기는 하나 일정정도의 농업영위(부업수준이상의 농업영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은 귀농자들이 초기에는 수익을 내기 어려우므로, 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착에 성공한 이후의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e-hanja 검색 http://hanja.naver.com/hanja.naver?where=brow_word&id=144862 2006. 1. 7

2. 최근 귀농 동향

최근 귀농동향은 1990년 이후 2004년 12월까지 22703가구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 시도의 결과를 수집한 자료이나, 이들 중 얼마나 적응을 하여 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귀농인력의 유입이 많았던 때는 <표 2>과 같이, 가장 많은 귀농가구가 유입된 때는 1998년과 1999년으로 평소의 10배 가까운 인력이 유입되었다. 이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이들의 상당수가 IMF에 의한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연도별, 시도별 귀농 가구 수 분포 (2004.12.31현재)

구 분	합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부산	15	-	-	1	1	-	1	6	2	1	3	-	-	-	-	0
대구	52	5	5	6	8	11	8	4	3	2	-	-	-	-	-	0
인천	113	5	4	6	-	5	11	1	16	26	21	1	-	1	-	16
광주	67	-	-	-	-	-	-	-	4	-	49	3	-	-	5	6
대전	3	-	-	-	-	-	-	-	2	-	-	-	1	-	-	0
울산	24	-	-	-	-	-	-	-	12	6	6	-	-	-	-	0
경기	1,624	52	31	31	37	39	45	469	235	269	224	54	57	18	44	19
강원	2,084	23	15	21	45	80	88	176	125	470	330	151	151	26	156	227
충북	1,484	17	22	38	51	77	80	159	146	381	213	35	25	43	56	141
충남	1,866	21	27	28	40	34	52	104	172	610	382	111	28	74	46	137
전북	2,541	8	12	30	57	68	62	211	152	791	456	166	127	90	145	166
전남	3,759	28	26	51	69	70	101	108	160	1,636	1,048	230	77	67	51	37
경북	4,565	81	71	96	174	156	243	492	448	1,171	689	191	115	218	86	334
경남	3,827	130	81	101	133	119	229	294	309	902	489	119	243	210	265	203
제주	679	1	5	4	3	3	2	36	55	144	208	93	56	22	31	16
누 계	22,703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7,186	13,595	17,713	18,867	19,747	20,516	21,401	22,703
구성비 (%)	100	1.6	1.3	1.8	2.7	2.9	4.1	9.1	8.1	28.2	18.1	5.1	3.9	3.4	3.9	5.7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내부자료, '90년 이후 귀농현황

연도별, 시도별 귀농가구수의 분포는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인력은 경북, 경남, 전남, 전북과 강원의 순서로 많이 분포하였다. 광역시 이상에서의 귀농가구는 인천시가 113명으로 2004년까지 있었으며, 광주는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나오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는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은 경북, 강원, 경남의 순서였다. 이들은 200명이상이 유입된 경우였다. 귀농가구수의 분포를 보면 각 시도는 연도별로 유입의 규모가 달랐으며, 지역과 연도에 따라 귀농가구수의 변동이 있었다. 전남 지역은 1998년과 1999년도에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귀농이 이루어졌고, 경북은 90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다른 시도에 비하여 많은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었고, 2002년과 2004년에 다시 많은 귀농인구가 유입되었다. 그에 비하여 전북은 1996년부터 꾸준히 많은 귀농인구가 유입되었다.

귀농 농가의 시도별, 종사분야별, 연령집단별 분포는 <표 3>과 같이, 40-50대 귀농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종분야와 기타 분야가 많았다. 주 종사분야는 각 시도에 따라 많은 분야가 서로 차이가 있었다. 인천은 경종분야가 가장 많았고, 50대가 가장 많았다. 광주는 원예 분야로서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충남, 전북, 경남은 경종 분야로서 40대가 가장 많았다. 강원도와 충북은 경종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주축이었다. 전남은 경종 분야가 가장 많았고, 30-40대가 동수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경종 분야가 많았으나 과수분야도 많아서, 경종 분야의 1/2이하였으나, 연령집단은 50대가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기타가

가장 많았고, 40대가 주축이었다. 이는 대체로 경종을 중시하고 있었으나, 과수나 원예, 기타를 대상으로 중시하고 있었다.

<표 3> 2004년도 귀농농가의 귀농가구별 시도별, 종사분야별, 연령집단별 분포

시 도	가구 수	주 종 사 분 야						년 령 별					
		계	경종	원예	과수	축산	기타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1,302	1,302	723	142	135	98	204	1,302	34	243	402	423	200
부산	0												
대구	0												
인천	16	16	16					16		2	5	6	3
광주	6	6	1	3		1	1	6		2	3	1	
대전	0												
울산	0												
경기	19	19	11		1	2	5	19		2	7	6	4
강원	227	227	141	30	8	15	33	227	2	40	70	115	
충북	141	141	105	8	16	7	5	141	3	14	30	47	47
충남	137	137	71	16	10	19	21	137	2	24	51	39	21
전북	166	166	88	14	3	14	47	166	13	40	52	37	24
전남	37	37	23	5	1	2	6	37	4	11	11	6	5
경북	334	334	165	38	72	25	34	334	4	59	96	107	68
경남	203	203	102	28	21	11	41	203	3	48	67	57	28
제주	16	16			3	2	11	16	3	1	10	2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시도별 귀농농가 현황(2004.12.31), 내부자료.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 4>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로 20대가 낮은 비율에 비하여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유입되는 인력 비율이 감소하고 있었다. 연도별로도 유입 규모의 변화가 있었는데, 98년을 기점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귀농하였고, 99년까지는 4000명 이상이었으며, 2002년이 가장 적었다가, 2004년에는 1000명 이상이 귀농하였다.

<표 4>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22,703(100)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29이하	1,906(8.4)	22	12	22	48	57	96	111	105	809	361	65	38	62	64	34
30~39	9,706(42.8)	166	151	207	294	288	338	681	711	3,222	2,077	515	316	258	239	243
40~49	6,158(27.1)	90	64	110	130	136	206	596	492	1,544	1,206	391	293	238	260	402
50~59	3,541(15.6)	55	47	45	86	125	176	477	334	659	422	155	187	149	201	423
60이상	1,392(6.1)	38	25	9	60	56	106	195	199	175	52	28	46	62	121	200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 내부자료.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는 <표 5>와 같이, 경종 분야가 55%정도로 가장 많았고, 과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도 높아서 1998년 이후부터는 기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농업과 1998년 이후 새로운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와 2002년은 축산 종사자의 비율이 2위였으나, 1997년은 과수가 2위였고, 원예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2위였다. 2003년부터는 기타분야의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자 비율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농업을 새롭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말한다.

<표 5>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

구분	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22,703(100)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1,841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경종	12,370(54.5)	150	97	150	234	256	384	1,197	1,084	4,001	2,236	533	533	360	432	723
원예	2,984(13.1)	79	63	77	105	116	138	204	204	692	621	214	104	87	141	142
과수	2,105(9.3)	23	36	47	80	75	88	233	207	504	353	89	68	98	69	135
축산	2,656(11.7)	84	66	86	127	137	198	257	172	556	427	146	102	123	77	98
기타	2,588(11.4)	38	37	53	72	78	114	169	174	656	481	172	73	101	166	204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2004) 내부자료.

최근 5년간의 귀농자 분포는 <표 6>과 같이, 4990가구로 파악된다.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던 귀농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8년 귀농자들이 3년 이내의 정착을 결정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2002년부터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결과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표 6> 최근 5년간 연도별 귀농자 분포

구 분	계	'00	'01	'02	'03	'04
귀농 가구 수	4,990	1,154	880	769	885	1,302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2004) 내부자료.

최근 5년간의 귀농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표 7>과 같이, 30대와 40대가 32%로 가장 많고, 20대는 5.3%이며, 50대가 22%, 60세 이상이 9.2%를 차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귀농자의 계층이 젊은 층이라기보다 일정기간의 도시 경험을 거친 집단이 유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집단은 실직이나 정년퇴임의 과정을 거친 집단으로 보이며, 이들은 농업으로의 귀환이라는 의미보다는 삶의 조건으로 농촌을 선택한 집단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의 귀농 동기나 유형에 따라 적응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02년까지는 30대의 귀농이 가장 많았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40대와 50대의 귀농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의 귀농자들은 농업을 영위하려고 오는 사람이라기보다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귀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농업의 경쟁력을 추구하기보다 쾌적한 삶의 조건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판단된다.

<표 7> 최근 5년간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

구 분	계(%)	'00	'01	'02	'03	'04
계	4,990(100)	1,154	880	769	885	1,302
29이하	263(5.3)	65	38	62	64	34
30-39	1,571(31.5)	515	316	258	239	243
40-49	1,584(31.7)	391	293	238	260	402
50-59	1,115(22.3)	155	187	149	201	423
60이상	457(9.2)	28	46	62	121	200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2004) 내부자료.

이들의 동기는 최종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나, 귀농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고, 차별적 정책 적용이 요구될 것이다.

최근 5년간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는 <표 8>과 같이, 전반적으로는 경종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이전까지의 비중보다 감소되고 있으며, 원예가 2001년까지는 다음 순위였으나, 2002년은 축산이, 2003년부터는 기타 분야가 가장 많은 귀농가구를 흡수하고 있었다. 이는 이제까지의 귀농자들과는 다른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귀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분석이 되어야 하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유

입은 귀농과는 차이가 있는 집단이 유입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8> 최근 5년간 귀농자의 종사분야별 분포

구분	계(%)	'00	'01	'02	'03	'04
계	4,990(100)	1,154	880	769	885	1,302
경종	2,581(51.7)	533	533	360	432	723
원예	688(13.8)	214	104	87	141	142
과수	459(9.2)	89	68	98	69	135
축산	546(10.9)	146	102	123	77	98
기타	716(14.4)	172	73	101	166	204

자료: 농림부 경영인력과(2004) 내부자료.

3. 귀농 관련 연구 동향

우리나라에서 귀농에 대한 연구는 귀농과정과 단계, 귀농의 동기나 유형, 귀농 효과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정한모(2002)는 귀농자들이 겪는 농촌의 일상생활의 어려움들과 정착과정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귀농자들의 농촌생활 적응 및 효과적인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귀농인들의 생래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귀농동인(선택기제)에 따라 귀농적응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귀농을 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따라짓기(이웃의 농부의 영농방식을 모형으로 그대로 따라 해보는)' '발동냥(지역사회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 등 의 '모사학습'형태와 같은 비정형화된 학습과정을 갖는다고 하였다. 귀농전 귀농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 귀농인이 그렇지 못한 귀농인들에 비해 농촌의 삶과 경제적인 성취의 면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요인이며 귀농 최초에는 농촌·농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귀농하였으나 귀농간의 어려운 경험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 되었으며, 귀농간의 어려움이나 잘못을 외부세계에서 찾는 경향이 보였다. 그리고 귀농생활의 어려움들로 인해 정부의 영농정책 및 귀농정책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군, 면 등의 기관도 불신하게 되었다. 귀농자들의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농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하며, 귀농현상이나 귀농인의 특성과 상황에 기초한 정책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귀농현실과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영농 및 귀농 관련 정부정책수행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수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귀농연구와 더불어 영농 및 귀농 정책시행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윤순덕 외(2005)는 중년층의 귀농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직장 은퇴이후 농촌에 이주하여 살 수 있는 거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잠재력, 미래 도시에서 유입될 노인인구의 특성, 그리고 은퇴 인구 유인을 위한 변수들을 탐색하고자 전국 34개 특별·광역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농업관련 직종조사여부,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 등 농업·농촌관련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이들 중 58.2%가 은퇴 후 농촌이주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후 농촌이주 의사 결정요인을 탐색한 결과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농촌거주경험이 있고 농업·농촌관련 직종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하여 현재 농촌의 환경을 더 잘 가꾸고 보전하는 동시에 농촌생활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정정석(1998)은 귀농가의 귀농동기, 경영여건, 정착가능성, 정착소요기간 등을 분석하여 귀농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90년 이후부터 '96년 4월까지 경남도내에 귀농한 농가를 토대로 우편설문을 실시하였다. 귀농동기요인으로 영농희망, 영농승계, 농업성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귀농가의 영농자본금은 2000만 원 이하 농가가 50.5%로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농지회수로 인한 영농기반의 안정적 확보에 곤란이 정착에 가장 큰 문제로 여겨졌다. 귀농가의 안정정착 가능성은 경영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귀농년도가 오래 될수록 긍정반응이 높았으며, 귀농지역은 타향으로 귀농한 경우가 긍정반응이 약간 높았다. 한편 귀농자의 주요애로요인으로 영농기반여건의 부족, 작목선정, 경영·기술 상담 수준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나, 기관 단체 등에 귀농자 모임체 구성과 귀농자들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귀농가의 정착 최소소요기간을 영농자본, 농가소득, 정부시원 수혜여부, 귀농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등으로 추정한 결과 4-5년으로 판단되었다. 이런 귀농 상황을 살펴보아 귀농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요구되며 귀농자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조건을 현행 55세 기준에서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금상환 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정착소요기간을 감안한 4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언하고 있다.

구본석(1999)은 귀농자의 연령집단, 학력, 귀농년도, 귀농지역, 소득수준, 영농규모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귀농자중 30대가 61.9%로 젊은 층 귀농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고, 학력별로는 비농업계 고졸이 36.6%로 가장 높았다. 귀농년도는 IMF의 영향으로 1997-1998. 3월까지 귀농자가 가장 많았으며 고향으로 귀농 한자가 많았다. 현재의 영농규모는 3,000~6,000평(45%)으로, 귀농당시보다 경지의 규모를 점점 더 늘리며 정착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를 통하여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하기위해서 농업기반을 위한 투자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규모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자금의 지원이 요구되며, 귀농정보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에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또한 요구되며, 귀농운동의 목표가 도시 젊은이의 귀농을 촉진하고 그들이 농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귀농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이정관(1998)은 영농정착 과정 및 유형분석 결과로 귀농 정착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영농자금 조달, 작목선택,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이 대부분 이었고 농촌의 불편사항으로 문화적 여건, 의료여건, 편의시설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농에 종사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영농자금부족,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영농기술 부족, 농지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정착 자금 규모는 1천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아 대부분 소규모의 자금으로 영농을 시작하였음을 보였고, 부채규모와 부채용도와의 관계에서 부채규모가 작은 경우는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비용이 많고 부채규모가 큰 경우는 농지 또는 가축구입에 활용이 많았다. 이상으로 귀농자가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농토 또는 가축구입 등의 농업기반을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박영일(1998)은 귀농 전 후의 문제점을 보다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해 이미 농촌에 정착한 귀농자와 앞으로 귀농할 귀농희망자에 대한 설문을 병행하였는데, 귀농희망자가 귀향시

지참하는 영농창업자금 규모에 따라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농촌진흥청이 제공한 18개 모형[5]을 농업경영모델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9> 영농규모(논 1.0ha 밭 0.3ha)에 따른 벼와 밭작물 경영모형 <단위 : 천원>

작 물	경영규모	노동투하량 (시간)	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벼	1.0ha	310	9,280	3,020	6,260
고 추	0.1ha	218	1,286	356	930
단옥수수	0.1ha	104	1,137	329	808
가을배추	0.1ha	222	882	312	570
감 자	0.1ha		957	437	520
계	1.4ha	854	13,542	4,454	9,088

자료 : 농촌진흥청. 1998. 5월

<표 10> 정착 소요 자금 및 연간 농가 운영비 <단위 : 천원>

지대별	정착소유자금				연간운영비			합계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시 설 농기계	소계	농 업 경영비	가계비	소계	
도시근교	317,531	24,152	3,384	345,067	4,454	19,184	23,638	368,705
평 야	106,343	18,543	3,384	128,270	4,454	18,626	23,080	151,350
중 간	116,928	16,533	3,384	136,845	4,454	17,092	21,546	158,391
산 간	735,41	13,319	3,384	90,244	4,454	15,228	19,682	109,929

향후과제로서 귀농자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귀농희망자의 적성검사, 자가진단, 귀농자본규모, 노동력, 귀농지역과 작물선호도, 농업소득 등을 계량화하여 이를 다양화된 귀농경영모델과 연계시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하고 있다.

김주현(1999)은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 획득에 관한 실태와 활용에 파악하였는데, 귀농인들이 농업기술정보를 주로 제공받는 곳은 인근독농가나 작목반이 58.6%이었으며, 컴퓨터 이용이 8.9%, 귀농인 교육이 5.9%로 나타났다. 영농시 문제점이 생겼을 때의 해결책도 인근독농가나 작목반과 상의하는 것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 활용이 1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농산물 가격정보를 획득하는 곳은 매스컴이 47.0%, 농산물 도매시장 20.1%, 컴퓨터 10.4%의 비율을 보였다. 앞으로 농업기술정보를 획득하려는 곳은 현재 농업기술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받고 있는 이웃(인근독농가나 작목반)이 38.7%로 가장 높았으나, PC통신과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의견도 32.1%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컴퓨터 사용여부는 현재 컴퓨터를 활용 못한다가 56.8%로 나타났으며, 현재 컴퓨터 사용용도는 자녀교육용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업소프트웨어 이용이 4.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 사용용도는 농업정보검색 등 PC통신 46.9%, 자녀교육용 33.3% 순 이었으며,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이 81.7%였고, 앞으로 PC통신, 인터넷을 통한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76.3%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 제일 필요한 영농정보는 농업기술정보 3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귀농인의 이전 농사경험을 살펴본 결과 농사 경험이 없는 귀농인이 높은 비율로 나왔으며 이는 귀농인에게 적절한 농업기술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영농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먼저 농촌지역에 컴퓨터 보유와 사용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도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시급하며, 귀농인들의 컴퓨터 사용 및 활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아가 귀농인들에

5) 농촌진흥청, 귀농농가의 경영모형 길잡이. 1998. 5월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세분화하기 위해서 먼저 귀농관련 전문가를 유치하고 귀농인들이 귀농 후에도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농업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보고하였다.

김형용(1998)은 전남지역으로 귀농한 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하였는데, 조사농가의 귀농 연도별 구성을 보면, 1996년 이후 귀농가가 87.8%로 대부분을 점하였다. 특히 9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귀농이 전체 조사자의 32.0%를 점하여 IMF이후의 귀농비중이 매우 높았다. 귀농 세대주의 연령별 구성은 20대와 30대(68.5%)가 70.6%를 점하여 대부분의 귀농자가 청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은 불과 4.5%에 지나지 않았다. 귀농 세대주의 학력은 고졸이 57.2%가 과반수이상을 점하였으나,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자도 13.5%를 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였다. 귀농전 직업으로는 단순 노무자(기능자 포함)가 39.2%로 가장 높았고, 회사원・공무원 30.7% 이었으며, 상업을 포함한 자영업이 27.9%를 점하였다. 귀농자의 경지규모는 조사농가의 평균 호당 경지면적이 1.48ha로 나타나, 우리 농가 전체의 평균 호당 경지면적(1.32h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귀농자의 귀농 연고지는 자신의 출신지인 고향이 89.1%, 10.9%는 연고지가 아닌 타향으로 나타났다. 경영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고향연고지로의 귀향이 높게 나타났다. 귀농가의 영농분야를 보면, 벼농사가 42.8%, 채소 20.7%, 축산 14.0%, 과수 12.6%, 특용 9.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별로 보면, 채소, 축산, 특용분야는 경지규모가 낮은 계층에서 비중이 높았고, 과수는 경지규모가 높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1997년 귀농자들의 소득규모는 1,000-2,000만원 규모가 귀농가의 55.8%, 2,000만 원 이상 농가도 13.2%에 이르렀다.

귀농사유로는 “농업에 대한 장래의 기대소득”이 41.0%로 가장 높았고,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과 도시생활의 염증”(14.4%), “실직”(10.4%,), “단순한 생계수단”(1.3%) 등 경제적인 요인이 귀농동기의 67.1%를 점하여 대부분의 비중을 점하였다.

영농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이 23.4%, “정부의 자금지원 수혜의 어려움”이 21.2%, “영농정보취득의 어려움”이 20.3%, “농지구입 및 농지임차의 어려움”이 16.2%로 지적되었다.

영농정보의 입수방법은 “친지(부모, 형제, 친척, 친우 등)”이 36.9%로 가장 높았고, “TV, 라디오, PC통신, 인터넷”(24.3%),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영농교육”(20.3%) 등으로 나타났다.

농촌생활의 불편사항으로는 자녀교육의 어려움(39.2%), 문화적 생활의 제약(24.3%), 도로교통편의 어려움(18.9%), 의료 및 주거불편(15.8%)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자녀교육문제는 귀농후 농촌생활에 가장 큰 불편사항이면서 귀농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심사항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생활 및 귀농자교육의 만족도는 귀농자의 47.7%는 “만족한다”에 응답하여 “불 만족한다”는 14.4%의 응답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귀농자를 위한 각종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5.8%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자금지원의 획기적 증대(44.4%)로서 자금 지원의 내용은 “자금 지원액의 확대”, “농기계구입자금에 대한 융자 및 보조지원”, “생산 자재구입 지원”, “자금지원시기의 적절성”, “자금지원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 “영농자금 대출조건의 완화”, “자금지원의 형평성유지(대농위주 지원 지양)”,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융자에 있어 보증인 구비조건을 지양하고 보증보험회사의 활용” 등 실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었다.

다음은 “영농교육 및 상담의 충실”(26.6%) 로서 “전문 품목별 교육의 철저 및 교육의 지

속성 유지", "시군 읍면단위 지도공무원의 영농상담 및 정보제공", "상담요원의 친절과 폭넓은 상담", "귀농자에게 알맞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현재의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상담에 대해 앞으로의 기대와 개선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농지 구입 및 임대의 알선"(10.1%)으로 "농지구입 알선과 농지임대(휴경지, 간척지 등)" 등 농지확보에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 "체계적 귀농정책의 확립"(7.7%) 이다. "체계적 귀농관리대책의 마련", "귀농자 선정의 공정성과 귀농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정책의 일관성 유지", "귀농지원에 있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그밖에 11.2%의 기타 건의 사항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산지유통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 및 판로 확보시책 강구",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농촌도로망 확충", "영농정보 및 자료를 갖춘 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욕구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을 종합하여 영농교육 기회의 대폭적인 확대, 지역별 영농모델의 설정, "귀농지원센터"의 설립, 영농자금지원의 확대, TV, PC통신, 인터넷 등에 의한 영농정보의 개발 및 보급, 경지 임대차 및 휴경지의 알선, 귀농자 지원 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 귀농정착 특별법의 제정, 생산자조직가입의 알선, 농촌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등의 귀농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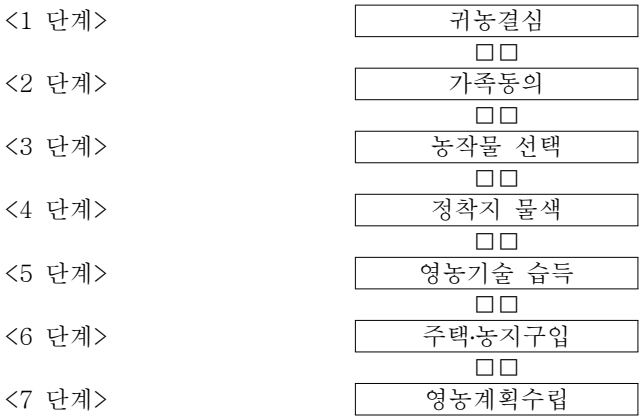
김재홍(1998)은 귀농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촌노임의 하락 현상, 휴경농지의 감소, 농지가격의 상승을 제시하였다. 귀농자의 증가로 농촌의 노임이 하락하면 노동으로 자본을 대체할 수 있어 자원절약형 농업, 지속적 농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임의 하락과 농업노동의 공급증가는 휴경농지를 감소시켰다. 귀농에 의한 농업노동력의 증가와 노임하락은 농지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귀농이 일반화되면 도시의 지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지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지가가 생산성을 반영하여 생산성이 높은 토지의 가격이 생산성이 낮은 토지의 가격보다 높게 상승할 것이다. 더구나 귀농자의 상당수가 경종을 선택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토지가격의 상승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1999) 대규모 귀농에 따라 농업·농촌부문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였다. 귀농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첫째, 농촌의 인력난 해소, 둘째, 돌아오는 농촌분위기 조성으로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셋째, 도시 실직자들의 고용안정대책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부정적인 측면은 첫째, IMF 영향은 도시산업에만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문에도 그 영향이 커서 영농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무분별한 귀농은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잠재해 있고, 둘째, 과학영농으로 변모된 영농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축척된 영농경험, 확고한 생산기반 없이는 영농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셋째, 귀농농가들도 결국은 임차농 또는 중·소농이 될 것이므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로 정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넷째, '안되면 농사나 짓자'라는 식의 농업비하적 인식과 농촌이 도시 실직자들의 피난처로 비춰지는 데 대한 기존 농업인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다.

박영일(1998)은 영농정착을 영농인이 농장운영에서 전적인 혹은 부분적인 책임을 갖고 있을 때를 일컫는다. 그 형태로서는 ①농장을 운영하여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②농장을 관리 운영하는 소작인, ③농장경영관리인, ④이상의 모든 형태에 속한다.

김성수 외(2004)는 영농정착 과정을 도시인 등으로서 농업의 특성을 알고 검토·분석·탐색 후, 계속적인 관심 속에서 영농정착을 위하여 준비하고, 토지·자본 등을 투자, 영농에

정착하여 자립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연속된 과정으로 말하고 있다. 신규창업을 위한 귀농자들이 귀농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림 2>과 같은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1998.02.21일자.

<그림 2> 귀농 과정

농촌진흥청은(1999) 귀농을 다음과 같은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이 다를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귀농실천단계 -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내려가 생소한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귀농을 하려할 때에는 사전에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귀농자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2-3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귀농문제를 신중하게 생각 한 후 자신감과 확신이 생길 때 귀농에 대한 결심을 굳혀야 한다.

-가족동의 단계 - 귀농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적응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수반된다. 때문에 농촌으로 내려가자고 할 때 선뜻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일단 아내와 자녀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작목선택단계 -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농사는 자본휘수기간이 길고, 농지구입 및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자본이 소요되며 고도의 영농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영능력과 자본을 고려하여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정착지 물색단계 - 작목선택을 한 후에는 자녀 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해야 한다. 정착지에 관한 정보는 농업관련기관, PC통신 등을 이용하여 수집할 수도 있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곳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농기술 습득단계 - 대상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그에 관한 영농기술을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운동본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는 귀농에 성공한 농가견학, 현장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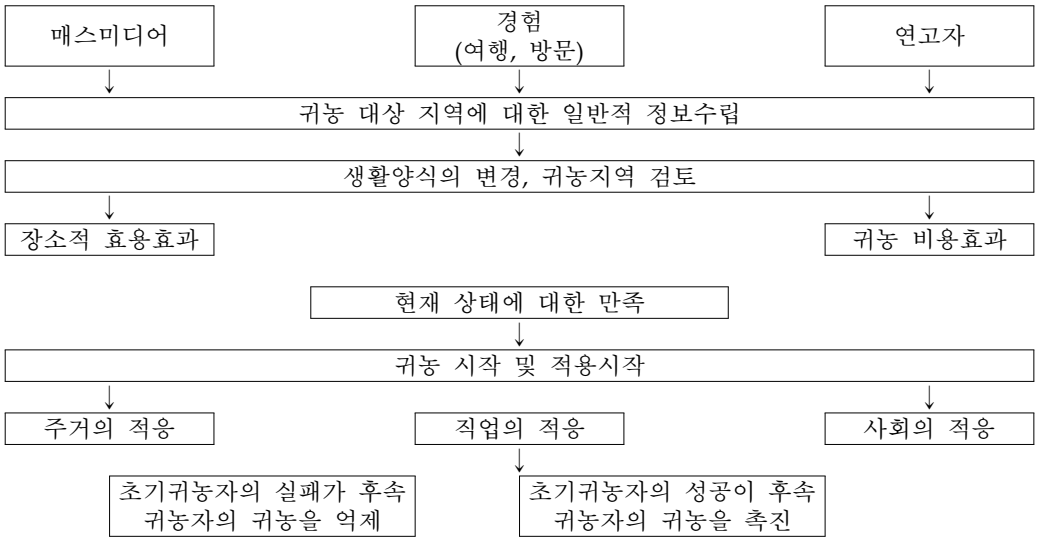
- 주택 및 농지구입 단계 - 정착지가 결정되면 거처할 주택이나 농사지을 땅을 장만해야 한다. 주택은 신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주택을 구입할 것인가, 신축할 경우 주택의 규모와 주택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지도 임차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매입할 것인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한다.

- 영농계획 수립 단계 - 끝으로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영농계획을 세워야 한다.

경제적 불경기로 인해 실업자의 돌파구로 농촌으로 돌아갈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귀농이 제2의 직업선 택인만큼 영농을 통해 정착하려는 잠재적 요인도 있다. 직업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적성, 직업에 대한 흥미, 성격상의 특성, 부모부양, 경제적 상황, 신체적 장애 여부 등과 직업만족도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Tolbert, 1974; 박영일, 1998 재인용). 또한 귀농은 일종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과정이다. 여기에도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귀농적응 및 유지발전 등의 직업발달과정을 겪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이주자들은 이입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즉, 지식, 기술, 정보, 농촌경험, 재산 등이 부족할수록 이주과정에서부터 이입지 정착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크게 이주과정에서의 노력과 이주 후 정착과정에서의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배성의 외 2인, 1998)

귀농은 또한 인구의 이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Fielding(1974)은 이주 과정을 이주 동기의 형성, 이주 의사결정, 이주 실행까지의 이주 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 적응단계로 나누었다. 특히 이주자가 이입지에서의 주거, 직업, 사회적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이동을 하거나 재이주를 할 수 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돕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은 후 귀농자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귀농 적응의 단계를 나타내면 <그림 3>와 같다.



출처:Fielding, 1974: 215.

<그림 3> 귀농 적응의 2단계 과정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귀농자의 귀농과정은 귀농 탐색단계, 귀농 준비단계, 귀농시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귀농과정으로는 귀농탐색, 귀농의사결정, 귀농준비, 귀농시행 및 적응 등 4단계 이상으로도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귀농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와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1999)은 IMF체제 이후에 귀농한 사람을 포함하여 기존 귀농인 636명에 대한 '귀농인 의식실태와 경영 기술적 특성'등을 분석하였다. 귀농 경영주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30대가 53.6%, 40대가 25.6%를 점하고 있어 대부분 젊은 층의 실직자들이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주 평균연령은 39.9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 50.2%, 대졸이상이 19.2%로 고졸학력자가 과반수이상을 점하였고, 호당 평균 가족 수는 4.2명, 영농조사자수는 2.3명으로 나타났다. 귀농가 주택형태를 보면 한옥스레트가 34.0%, 양옥 24.8%, 조립식 주택 6.3%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마련방법은 신축이 23.6%, 기존 주택 구입 21.4%, 기존 주택 임차 18.9% 등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귀농전 직업실태를 보면 장사 및 개인사업(자영업)이 26.2%, 회사사무직 21.1%, 회사생산직 17.4%, 건설건축직 13.7% 등으로 나타났으며, 생활거주지 이동 실태를 보면 농촌→도시→고향농촌이 61.3%, 도시→타향농촌이 15.3%, 농촌→도시→타향농촌이 12.1% 등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귀농을 최초로 결심한 사람은 남편이 59.3%, 부부가 함께 결심한 경우가 32.9% 등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의 귀농동기를 보면 맑은 공기 등 농촌생활선호 25.3%, 농업전망이 밝아서와 부모님 농사 상속이 각각 14.3%, 도시에서의 저소득 12.4% 등 66.3%가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농당시 총자본금은 3천만 원 미만이 61.5%로 대체로 자본금이 빈약한 실정이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준비자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당시 작목선택방법은 계속 재배하던 작목이 3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작목 26.6% 등으로 나타났다. 귀농당시 주작 목의 영농기술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 31.3%, 조금 낮은 수준 24.8%, 보통 수준 31.5% 등으로 조금 낮은 수준 이하가 56.1%를 차지하고 있어 귀농 초기에는 대체로 영농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조금 낮은 수준 이하가 34.7%로 그동안 영농경험에 의하여 기술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후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19.8%)한 주요인은 목표달성을 100%로 볼 때 적정 작목선택이 56.3%, 영농기술 23.0% 등이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58.7%로 훨씬 높았다. 그 주요인으로는 영농자금부족 42.9%, 영농 기술부족 20.4%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하(1998)의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보면, 개인적 배경에 있어서 연령과 연간소득변화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연간소득변화에 있어서는 귀농후 소득이 귀농전보다 2천만 원 소득변화를 보인 집단이 농촌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귀농탐색과 관련된 변인을 보면, 정보획득원과 주위친척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귀농자의 경우 주로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귀농지역을 선택할 때 주위에 도움 받을 친척이 있는 지역으로 귀농한 집단이 농촌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귀농결정과 관련된 변인을 보면, 귀농지 선택 이유와 귀농반대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고지를 선택한 사람이 기타지역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농촌적응을 잘 하였고, 반면에 귀농반대가 있는 집단은 농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실행과 관련된 변인을 보면, 귀농준비기간과 농토구입방법, 귀농시 도움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농촌 적응 전체에 대해 각 영역별 구성비를 보면, 생태적 적응영역이 46.7%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직업적 적응이 30.4%, 사회적 적응이 23.0%의 구성비를 보였다.

임혜영(1999)은 전라남도 9개 시·군의 귀농자들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귀농자가 가지는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귀농전반 배경, 생활환경 특성들을 각각의 복지문제와 관련시킨 후 그 변인들이 농촌적응에 미치는 영향정도 및 복지문제들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알아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귀농자의 바람직한 농촌적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귀농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농촌적응과의 관련 변인을 보면, 교육수준과 직업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며, 또 귀농 전 직업중 전문직+관리직에 종사했던 귀농자들의 직업만족도가 다른 직종에 종사했던 귀농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전반 배경과 농촌적응과의 관련 변인을 보면 긍정적인 귀농사유를 가진 귀농자들이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농촌적응을 잘하고 있었다. 생활환경변인과 농촌적응(농촌영주의사+귀농만족도+직업만족도)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녀교육에 불편함을 덜 느끼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사는 귀농자들이 농촌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자들이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적절한 배치와 지원이 요구된다.

신정수, 이병오(1999)는 춘천 YMCA에서 주최한 귀농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여 귀농의 과제와 귀농희망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교육생중 남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층은 50대가 47.1%, 40대가 32.2%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 및 대졸 이상 등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직사원과 자영업자가 많았다. 교육생들의 거주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많았고, 강원도가 고향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전체 교육생중 약 39%정도였으며, 이중 춘천이 37.3%를 차지하였다. 대다수가 과거의 영농경험이 없었으며, 귀농하고 싶은 이유는 '건강을 보살피면서 농촌에서 조용히 살려고', '농업에 대한 장래의 기대소득이 클 것 같아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귀농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영농기술 및 경험부족', '토지확보(구입, 임차)', '영농자금 부족', '주변 농민들과의 융화' 등 이었다. 귀농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자녀교육', '문화적 생활의 제약', '의료 및 주거불편' 등 이었다. 귀농교육 프로그램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현장견학'과 '대화의 시간', '귀농 성공사례'이었다. 귀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으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한 영농계획', '현장견학 실습의 확대', '좀 더 세분화된 교육과정'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건의사항은 '체계적 귀농정책 추진', '귀농자 영농정보 상담실 운영', '농지구입 및 임대 알선' 등이다. 귀농학교에 바라는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심도있는 구체적 기술교육', '관련기관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 '현장실습 강화 및 사후관리교육' 등이다.

조록환(1998)은 IMF체제 이전인 1996년 4월까지 귀농한 농가를 대상으로 귀농관련실태와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귀농관련 실태로서, 귀농 동기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66.1%, 자신/가족건강(24.3%), 농업의 전망이 좋음, 도시의 저소득, 정년/퇴직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 농토승계 등이었다. 귀농형태는 U턴 농가가 56.0%로 가장 많고, I턴 농가 27.0%, J턴 농가는 13.7%, 기타 3.2%순이었다.

귀농을 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은 귀농자금 마련 30.6%, 농사결험/기술부족 18.6%, 자녀교육, 친척/이웃의 부정적 평가, 가족반대, 소득향상 기대곤란 순이었다. 현재의 지역으로 온 이유는 부모의 생존지역/고향이 61.0%로 가장 많았고 귀농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비율이 55.2%였으며, 준비내용은 귀농지 정보수집, 농업기술습득, 토지구입 등의 순이었다. 귀농가구의 영농형태는 기존의 일반농가는 벼농사 위주인데 반하여 귀농가구는 소득 작목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귀농가구의 영농교육 수혜실태를 보면 영농교육을 받은 비율이 62.8%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교육기관은 농촌지도소로 그 비율이 85.1%정도였고, 그 밖에 농협, 귀농운동본부 등이 있었다.

귀농가구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귀농가구의 주거형태는 아파트・양옥 31.2%, 한옥(기와)

19.7%, 한옥(스레이트)33.1%, 기타 16.0%였다. 귀농후 생활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으로는 저소득(38.2%), 자녀교육(26.6%), 힘든 농업노동(19.1), 건강, 이웃과 관계, 노부모 부양 순이었다.

귀농 가구의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 결과 정착여부에 대한 대답은, 계속 정착하겠다는 농가가 67.8%였으며, 결정을 못한 경우는 26.8%이고, 재이촌・이농의 경우는 5.5%였다. 또한 농업직업 만족도는 만족 41.3%, 보통 45.6%, 불만 13.2%로 귀농가구는 농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략 40%의 귀농가가 만족하고 있고, 정착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은 2/3정도로 재탈농의 가능성도 5%정도나 되고 있었다. 귀농가구의 향후 계속 정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이촌을 희망하는 농가보다 연령이 높고, 귀농후 영농기간이 길고, 귀농반대이유가 적고, 귀농준비 건수가 많고, 가축규모나 경지면적이 많고 농업소득이 많았다.

계속 영농정착의지가 있는 사람은 농촌생활 만족도, 농사 직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귀농가들이 농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복근채(1999)는 농업후계자(農業後繼者)의 成功的 營農定着과 關聯된 特性分析 연구에서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방안을 제시하기 하기위해 보령시 지역의 농업인 후계자의 개인적 특성, 영농정착 과정 및 유형, 소득수준 및 만족도를 조사, 분석, 고찰하였다. 농업인 후계자의 개인적 특성에 있어 학력은 고졸 출신자가 많았으며, 영농경력은 11-20년 이하로서 벼를 주작목하는 농가가 많았으며, 경영자가 후계자 선정전과 현재와 비교하여 6000평 이상 경영자가 46.4%에서 74.9%로 증가하였다. 교육 및 지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재배 또는 사양기술 분야가 가장 높고 경영기법, 컴퓨터 이용, 판매활동 순이었다. 농업경영상의 가장 애로사항으로 영농기반 및 자금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들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들로 농업을 직업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가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작목선택 기술수준을 높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교육 및 지도 필요 분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영상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경영 발전 단계별에 따른 효율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컨설팅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농업인 후계자들이 영농을 하면서 부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외 소득원 발굴과 육성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정대영(2001)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의무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절반이상이었으며 영농조직 가입단체로는 4-H회가 가장 높으며, 주영농작목으로는 경종분야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본인의 적성에 맞추어 영농을 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수준은 전국 평균 농가소득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이 후계인력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선정 된 후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 중 젊은 인력이 농촌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향후 진로는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종사, 결정 못함, 농촌정착 농업외 취업, 이농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떠나는 이유로는 소득이 낮아, 농업에 대한 사회인식도가 낮아,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 농사일이 싫어서의 순이며, 진로결정의 어려움으로는 소득보장이 없어서, 결혼문제・자녀교육 등, 농촌생활 열학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촌정착을 정상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며

농업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와 사회복지, 생활 개선 등의 무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을 직업으로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념을 가진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영농기술 교육 및 지도필요분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산·정보 교육에 대한 특별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개인별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경영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정착 애로사항은 영농기반 미약 및 자금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므로 융자금 지원하여 영농기반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육성 분담을 일원화하여 명확한 관리와 기술지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보장과 생활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므로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원 개발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정덕(2000)은 귀농형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시설로써 귀농형 실버타운을 제안하였다. 귀농형 실버타운이란 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영농을 접목시켜 소비지향적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노인의 노동과 소득이 보장되는 생산적인 시설을 말한다. 즉, 유료노인복지시설 특히 유료노인복지주택의 형식에 귀농을 가미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부족으로 인해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료 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제한으로 인해 입소노인들의 시설내 생활이 지루한 점이 있고 각종 이용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참여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시설의 입지조건이 열악하고 의료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설 입소에 대한 욕구는 많으나 실수요는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입소자가 농사경험을 할 수 있는, 또는 농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실버타운에 적용시킨 것이 귀농형 실버타운이다.

귀농형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내의 여가 프로그램의 향상에 도움을 주며, 노인들의 전원생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귀농에 대한 욕구가 크기는 하나 그 위험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귀농을 위해 마련하는 농지구매와 농가 구매에 대한 비용은 실버타운에 보증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이러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실버타운 내의 농장시설에서 농업을 함으로써 노동의 기회가 부여되고, 시설 내에 배치하게 될 전문적인 영농기술사의 지도에 의해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즉 힘없는 노인, 자식의 부양 의무의 불이행, 돈 많은 노인들의 휴양지 등의 인식이 노인자신 및 부양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장소로 관점이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귀농형 실버타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귀농형 실버타운이 만들어질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상의 시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귀농형 실버타운의 대부료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농기술사와 농촌지도사를 귀농형 실버타운과 연계하며, 정부의 귀농자 지원이 귀농형 실버타운 입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귀농형 실버타운은 그 특성상 농업지역에 위치하게 되므로 지연의료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귀농형 실버타운도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귀농형 실버타운은 귀농 인력의 동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실버타운이 중노년층의 퇴직 후 형태로 본다면 귀농형태의 하나로서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주거지를 농촌으로 옮긴 형태이므로 귀촌의 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농업을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연령층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므로 귀농 동기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 등의 연구(2004)는 귀농전 영농경험이 있는 경우가 40.5%였고,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59.4%였으며, 귀농 동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19.1%), 사업실패(17.5%),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15.9%), 농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10.8%), 노후대비로(10.4%), 전원생활 및 건강(9.8%), 영농승계를 위하여(9.4%), 기타(7.1%)로 응답하여 Roseman의 분류를 따른다면 쾌적환경추구자가 25.7%, 대안문화추구자가 19.1%, 실직이주자가 17.5%, 조기퇴직 이주자는 10.4%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귀농자는 쾌적환경추구자나 대안문화추구자, 실직이주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적응도 다를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형용은(1998) 귀농 사유가 농업에 대한 장래성(41.0%), 부모의 영농승계(27.5%), 도시에서의 낮은 소득과 도시생활 염증(14.4%), 실직(10.4%), 건강상의 이유(1.8%), 단순한 생계수단(1.3%), 기타(3.6%)의 순으로 조사되어 김성수 등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농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나, 농업승계의 목적으로 유입되는 층이 있고, 쾌적한 환경 추구자 집단과, 실직자나 생계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농업을 선택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 김성수 등의 연구는 조사대상이 전국이고 최근의 결과이나, 김형용의 연구는 1998년의 결과이고, 전남이라는 지역적 한계와 시기적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비교가 곤란하나, 농업에 대하여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귀농한 집단과 실직자 집단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농한 집단, 쾌적 환경 추구나 대안문화를 추구하는 이농자 집단별로 연령이나 지역, 년대에 따라 귀농자 구성 비율이 다를 것이고, 이들의 농업 경험여부에 따라 적응과정이나 어려움이 다를 것으로 예견된다.

초기 창업집단에 속하는 30대의 귀농과 50대 이후의 귀농은 성격이 다를 것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역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에서 잘 적응한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하였고, 연고지로 귀농하였으며, 소득이 증가한 집단으로 판단되었고(이동하, 1998), 귀농지역에 대한 사전조사와 계획, 사전농촌생활경험이 필요하고, 귀농동인에 따라 귀농적응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주변사람들과의 협력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정착에 성공한 것으로 언급되어(정한모, 2002), 충분한 사전 준비와 교육, 귀농지역의 선정, 귀농지역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어떻게 적절하게 교육하고 준비시키며, 지원하는가는 귀농자의 정착에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귀농 초기에 정부나 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고, 이들의 조력으로 귀농초기단계를 거치나, 점차 정부의 정책이나 기관에 대한 기대가 귀농인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정부와 기관, 귀농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귀농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귀농지원정책은 귀농에 관련된 교육, 귀농 자금에 관련된 부분, 주거관련지원, 구분될 수 있다.

귀농에 대한 교육은 귀농자들만을 위한 교육은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각 지역 귀농학교의 교육과, 농업인교육원등에서 몇가지 코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11>을 보면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지역귀농학교들의 2005년도 귀농교육일정이 소개되어 있다. 전국귀농운동본부는 귀농교육만이 아닌 도시농부학교를 통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할 교사들을 육성하고 있고, 살림강좌를 1박2일정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통해서 창업자와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다.

<표 11> 2005년도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지역귀농학교의 교육 계획

구분	서울(경기)			전국	경남	전주	광주	울산	청주 감리교 불교 천주교 140	부산			귀농 전문		계
기수	32기	33기	35기	33기	6기		10기			15기	16기	17기	14기	15기	17회
기간	2월~ 4월	5월~ 6월	9 월~11 월	7월	6월~ 7월	10월	10 월~11 월	4월		4월~ 5 월	8월	9월 ~11월	3월~ 6월	8월~ 11월	
인원	50	50	50	50	40	20	30	20		50	30	50	50		650명

자료: 전국귀농운동본부. 2005년 기본사업계획, Retrieved 2006.1.7. from http://www.refarm.org/con_school01.php.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교육내용은 <표 12>과 같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과, 실습, 공동체의 강조, 여성이나 기타 귀농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강좌의 내용은 기별에 따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12>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의 교육내용

순서	강의명	
1	지금 왜 귀농 하는가?	
2	공생의 경제 살림의 경제	
3	생태위기의 극복	
4	자립하는 복합영농	
5	흙을 살리는 길	
6	심은 대로 거두는 밭농사	
7	현장실습	
	-귀농선배와의 만남 귀농과 여성	
9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농사	
10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	
11	귀농 길라잡이	
12	돌파리의 시골이야기	
13	농가의 살림살이	
14	생태적인 주거문화	
15	현장실습	
	-귀농선배와의 만남 오리농법과 마을 만들기	
17	밥상을 살리는 농도 공동체	
18	생태마을과 공동체적 영성	
19	성공하는 귀농 - 워크샵	
20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수료식	

<표 13>은 부산귀농학교의 교육내용으로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을 주로 하면서 다양한 삶의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체험 과정이 실습이나 견학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내용상 유기농에 대한 부분과 건강, 주택, 천연염색, 자녀교육과 같은 실제로 농촌에서의 삶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현장체험부분을 갖추고 있으나 성격상 농업에 대한 습득 부분이 부족하다.

<표 13> 부산귀농학교의 귀농강좌(2005년)

순서	날짜	강좌 주제	강사 및 기타
1강	3월 23일(화)	개강식:생태적위기와 대안문명	김종택(강화도 환경농민대표)
2강	3월 25일(목)	귀농,아름다운 삶을 찾아서	이병철 (전국귀농본부장)
3강	3월 30일(화)	흙을 살리는 길	이태근(흙살림 대표)
4강	4월 1일(목)	유기농산물의 직거래 방안	손동호 (부산생협이사)
5강	4월 6일(화)	공생, 유기적 벼농사	강대인 (정농회장)
6강	4월 8일(목)	생태적 밭농사	정경식 (전남 부안)
7강	4월 11일(일)	천연염색(현장학습)	김철희(김해 생림,부산귀농학교 5기)
8강	4월 13(화)	쉽게 짓을 수 있는 생태적 집	김재철 (전남 화순)
9강	4월 15일(목)	몸 스스로 돌보기	김동우 (한의사, 부산귀농학교 12기)
10강	4월 17(토)~18일(일)	현장학습 및 모둠별 발표	상주환경농업학교
11강	4월20일(화)	체험으로 느낀 나의 자녀교육	공양희(산청, 농부의 아내)
12강	4월 22일(목)	자립적 삶을 위한 농가살림	김준권 (농부)
13강	4월 25(일)	손수 씨 뿌리기 (체험)	부산귀농학교 동문회 (생명텃밭)
14강	4월 27일(화)	자연농법과 자연으로 가는 길	한원식 (전남승주)
15강	4월 29일(목)	귀농길라잡이	김형규 (귀농동문회장)
16강	5월 4일(화)	수료식	김희욱 (부산귀농학교장)

자료: 부산귀농학교(2006), Retrieved 2006.1.7. from http://www.busanrefarm.org/field/field02.php.

<표 14> 제10기 부산귀농학교 교육 강좌 내용 및 강사 안내(2005년).

순서	날짜	강좌 주제	강사 및 기타
1강	10월 1일(화)	왜 귀농인가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2강	10월 4일(목)	바람직한 도농관계	손동호 부산생협이사
3강	10월 6일(일)	땅 개간과 씨뿌림(현장체험1)	텃밭 농장에서
4강	10월 8일(화)	생태적 밭농사	강문필 울진 농꾼
5강	10월11일(금)	공생의 논농사	강대인 (전남 보성 농꾼)
6강	10월 15일(화)	위기의 농촌사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권영근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
7강	10월 18일(금)	귀농자 자녀교육	이해경 실상사 전문학교 교감
8강	10월 19~20일(토, 일)	귀농선배와의 대화(현장체험2)	김현섭1기, 박용화3기 경주산내
9강	10월 25일(금)	약초와 건강	권진우 경남 의령, 효소전문가
10강	10월 29일(화)	자립적 삶을 위한 농사	김준권(포천, 농꾼)
11강	11월 1일(금)	새로운 농촌문화를 위한 마을운동	허병섭(무주, 농꾼)
12강	11월 3일(일)	천연염색 현장체험3	김영석 경남 울주, 5기
13강	11월 5일(화)	헌집 고치는 기본적 방법	김재철 목수
14강	11월 8일(금)	수료식	김희욱 부산귀농학교장,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료: 부산귀농학교(2005),http://www.busanrefarm.org/bbs/view.php?id=school_pg&page=1&sn1 =&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

불교귀농학교는 서울의 불교귀농학교와 실상사의 귀농전문학교로 구분된다. 귀농전문학교는 전북 남원 실상사 인근에서 실제적 내용을 강의하고 있고, 취농율도 50%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학, 공동체적 삶에 대한 부분과, 생태 농업 기술과 실습 부분, 자치 살림 부분, 취미와 현장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부산귀농학교는 농촌문화나 농촌사회와 마을 개선 운동 부분, 귀농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 부분,

실제적 농사기술과 전통염색, 주택 수리 등의 실제적 기술 부분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마을운동 등의 부분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다.

불교 귀농학교는 귀농전문학교와는 달리 서울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표 16>과 같이 현장학습과 공동체 농장 실습, 생태적 삶에 대한 강의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진다. 도시 텃밭 가꾸기나 지역 적응 문제를 다루는 강의가 특징이다. 식생활 강의 등 생태적 농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적합한 다양한 실천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

<표 15> 불교귀농전문학교 15기 교육내용 (2005년 8월 29일-10월 29일)

분야	교육과목	담당강사	비고
생명농사와 철학	성찰과 화합	최환채	동사섭,돕는이 연구위원
	명상 이론과 실체(주1회)	중묵스님	교육원 원장
	발우공양(주1회)		
	생명농사와 철학	도법스님	실상사 귀농학교장
	귀농이란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공동체 삶	공동체란 무엇인가	최석민	한생명 생태농업센터 소장
	생태공동체의 현황과 모색	이근행	생태공동체운동센타
	공동체탐방		인드라망,한생명 각기관
	퍼머컬쳐	임경수	(주)이장대표
생태농업	생태농업의 기초이론	이향천	한생명 운영위원장
	흙과 퇴비	이진하	임실 삼상퇴비
	벼 재배 일반론	최석민	한생명 생태농업센터 소장
	밭작물 재배 원론	이향천	한생명 운영위원장
	농자재 만들기 실습	실습교사	한생명 생태농업센터
	복합영농 탐방	한원식	자연농업-농부, 승주
실습	생태농업 실습 (매주 2~3일)	실습교사	벼, 감자, 고추, 엽채류 등
자치살림	바른 몸만들기	김인중	복지문화센터-건강사랑방
	산야초 기행(1일)	전선혜	지역 귀농자
	천연염색 실습	박현옥	지역 귀농자
	효소 만들기 실습	이해경	한생명 운영위원장
	우리집짓기	김성철	목수
	음식과 건강	박양순	자연음식연구가
	동문 귀농정보	김종덕	귀농학교 총동문회 회장
	지리산 산행		2박 3일
개별현장학습	실상사 인근 및 개별 농가		1주일간
취미교실	풍물	손성진	주 1회
	요가	고홍덕	주 1회

자료: http://www.indramang.org/bbs/board.php?bo_table=indramang_edugeneral&wr_id=5.

전국귀농운동본부는 <표 17>, <표 18>과 같은 살림강좌나 회원대상 귀농교육을 하는데, 주말농사학교를 제외하고는 장기간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고, 취미 수준이나 봉사활동 차원의 내용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은 지역귀농학교와 본부귀농학교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귀농에 대한 이념적 지향을 교육하는데 치중하고 있고, 농업 기술에 대한 부분이나 실제로 귀농하였을 때 필요한 자금 확보나 주택, 지역 적응 부분에 대한 안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시도에서도 농업인이나 농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정보교육, 영농기술교육, 원격영농상담, 화상영농교육, 영농설계교육, 농기계 교육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활과학분야의 교육과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화리더과정등과 귀농교육을 개설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교육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교육은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들 상당수가 대개 무료로 제공되므로 교육에 대한 부담은 적은 상태이다. 다만 도시에 있는 경우 교육을 받기에는 농업인 중심이므로 귀농한 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 또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적은 실정이다. 정보화 교육 부분에서 컴퓨터의 사용이나 인터넷 정보 검색 정도의 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교육의 수준이 고급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표 16> 불교귀농학교 17기 교육내용 계획 (2005년 9월 6일-11월 25일)

강의수	날 짜	교육내용	강 사
1	9월 6일 불	입재식	
2	9월 9일 쇠	왜, 아직도 귀농인가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3	9월13일 불	인드라망의 세계, 緣起	백남석 (인드라망 공동대표)
4	9월23일 쇠	지역공동체 운동에 대하여	이향천 (한생명 운영위원장)
5	9월27일 불	평화로운 삶의 첫걸음, 귀농	이정호 (인드라망 사무처장)
6	10월 1일 흙	실상사 현장학습	김인중 (건강사랑방)
	10월 2일 해	실상사 현장학습	최석민 (농부)
	10월 3일 달	실상사 현장학습	김영길 (농부)
7	10월 7일 쇠	친환경 농장 만들기	임경수 (주)이장 대표
8	10월11일 불	2,000평으로 가꾸는 평화살림	정경식 (농부)
9	10월14일 쇠	생명의 경제, 공생의 경제	강수돌(고려대학교 교수)
10	10월18일 불	더불어 사는 생태적 삶	장창호 (농부)
11	10월21일 쇠	도시텃밭 가꾸기	안철환 (전국귀농운동본부)
12	10월25일 불	내 손으로 만드는 기쁨	이민향(인드라망 옷살림팀장)
13	10월28일 쇠	밥상머리 마음공부	김수현(식생활 전문강사)
14	11월 1일 불	농업이 무너져도 살 수 있을까	송동흠 (농어연 사무국장)
15	11월 4일 쇠	작은학교 이야기	이경재 (작은학교 대표교사)
16	11월 5일 흙	벼 베기 실습(강원도 횡성)	강대신 (농부)
	11월 6일 해	벼 베기 실습(강원도 횡성)	윤종상 (농부)
17	11월 8일 불	자급자족의 살림과 가족	공양희 (농부)
18	11월11일 쇠	협동조합의 원리	윤형근(모심과 살림사무국장)
19	11월15일 불	불교생협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일형 (불교생협 사무국장)
20	11월18일 쇠	아름다운 마을을 위하여	서혜란 (농부)
21	11월22일 불	나의 귀농 이야기	김홍수 (농부)
22	11월25일 쇠	회향식 / 모둠 발표회	

자료:http://www.indramang.org/bbs/board.php?bo_table=indramang_edugeneral&wr_id=1.

<표 17> 2005년도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살림강좌

강좌명	2005 계획	지역	강사	비고
햄·소세지·베이컨 만들기	2/18~20	양주	김준권	2박 3일
목공 강좌 (초급)	3월	이천	박종석	1박 2일
산나물 들나물	4/15~17	경주	최한실	2박 3일
자연달력 제철밥상 차리기	4월	무주	장영란	1일
요가 기본동작 배우기	5월	서울	임인혁	1일
생태 건축(흙집 짓기)	5월	원주	고재순	2박 3일
구들 놓기	6월	원주	고재순	1박 2일
양봉 강좌	6월	화천	임락경	1박 2일
뽕나무·오디 강좌	6월	수원	농촌진흥청	1일
천연염색 강좌	9월	무주	김영대	2박 3일
약초강좌	9월	미정	미정	2박 3일
유기농자재 만들기	10월	안산	안철환	1일
내 손으로 옷 만들기(초급)	10월	남원	박균순	4박 5일
목공 강좌 (중급)	11월	이천	박종석	1박 2일
발효음식 만들기	12월	장수	서혜란	2박 3일
차, 효소 만들기	미정			
새싹 식품 만들기				
된장, 장아찌 담그기				

자료: 전국귀농운동본부(2005). from http://www.refarm.org/con_intro03.php.

<표 18> 2005년도 전국귀농운동본부 회원 대상의 귀농 교육

제목	장소	구분	일시	강사	비고
회원 열린마당 ① 건강 강좌 ② 농사 이론 ③ 자녀 교육	서울	강좌	연중		연속성 있는 기획 강좌
주말 농사학교	벽제	1년 실습	3월~11월	안병덕	회원 대상 농사 학교
	안산			안철환	
	군포			정용수	
손 모내기 체험	괴산	탐방 체험	5월	이도운 윤영우 등	1일
벼 베기 체험	괴산	탐방 체험	10월		
친환경농업 일손 돕기 1차	미정	탐방 체험	6월	귀농자	1박 2일
친환경농업 일손 돕기 2차	미정	탐방 체험	10월	귀농자	
귀농식구 큰잔치	충청권	송년회	11월26~27일		1박 2일

자료: 전국귀농운동본부(2005), Retrieved from http://www.refarm.org/con_intro03.php.

현재 귀농자들만을 위한 귀농자금은 2000년에 잠시 제공되었다가 취농창업자금과 종합자금제로 통합되어 전국적인 별도의 자금은 없는 실정이다. 1998-2000년 사이의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 연령 제한에 따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및 농업종합자금제에 따른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 지원 부분은 취농에 관련된 각종형태의 자금이 있으며, 창업농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 종합자금제에 따른 자금, 농기계나 수리를 위한 비용등이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창업농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자들의 교육연수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농어촌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정착시 주택 수선비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거나,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에 대한 알선이나,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출산장려, 영유아 양육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체 임직원이나 대학생 전입시 기업과 학생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입자에 대한 차량등록비 지원 및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나,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을 위한 순환농업시범단체를 조성한 경우도 있었다.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말농장 경작안내와 영농자재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귀농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사항들은 귀농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귀농자의 필요에 따른 정책이라기보다 시군 자체의 인구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귀농자나 귀농희망자에 대한 그들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적 안내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 19> 각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귀농 관련 교육

교육	내 용(과 정)	기 간	인원수(명)	횟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농업(인)교육	기초반,중급반,생활개선반, 엑셀반,홈페이지반,이동버스 반	10달간 (2004년)	350명		합천군	관계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2~3일(합숙)	700명		영덕군	교육희망농업인	국비
	소득 작목 기술, 전문 농업, 농기계	2~5일(합숙)			영양군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	대부분 무료 일부과정자부담
	소득 작목 재배기술, 농촌생활자원활용, 전문 농업인	2~5일(합숙)	각 반당 30명 (전문농업인반 : 20명)		의성군	은퇴후 귀농희망자,도시소비자	수요별 개설
					남제주군		
	・작목별 심층기술교육 ・농촌자원개발·활용교육 ・농업기계자격증취득 등	10개월간			옥천군	품목별농업인 교육희망농업인	
	소득 작목(초급, 심화), 양봉, 전문농업, e-비즈니스, 농기계	21일간	조사 중		수원시	농업인 또는 교육 희망자	
	・작목별 심층기술교육 ・농촌자원개발·활용교육 ・농업기계자격증취득 등	2~5일(합숙)	700명		안산시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	
	기초반, 중급반	2~5일(합숙)	각기간별20명		안성시	불명	토, 일 제외
새해영농교육	종합반, 생활개선, 학습단체, 벼직파재배	한 달간	1,500명		거제군	불명	
		45일간			거창군	불명	
	식량작물, 소득작물, 생활개선	5일간	각 기당 1명		부산시	신규 농업인	1기, 2기
	친환경농업,축산,농촌자원개발	6일간	760명		창원시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	
	복숭아, 감	3일간	450명		경주시	불명	
		1월~2월	2,500명		영덕군	희망 농업인	
		1월~2월	5,700명		포항시	희망 농업인	
	영농기술, 농촌생활자원	30일간	3,720명	74회	남제주군	불명	
	감귤, 특작, 채소, 친환경농업, 여성농업인교육	하루씩		8회	북제주군	불명	
	시책교육,감귤재배기술,병해충,토양관리, 생활개선 교육, 시범교육, 한라봉재배기술	22일간			서귀포	희망 농업인	
		한 달간	2,150명	24회	제주시	농업인과 일반시민	
	벼,고추,사과,배,인삼,생활개선 등	13일간	총 2,000명	23회	보은군	농업인	시범강의
	영농기술분야	9일간	2,500명		옥천군	농업인	수요자에 따라 읍면별 교육과정 설정
	친환경농업, 벼, 고추, 양송이, 느타리, 표고, 한우, 양돈, 사슴, 농촌여성	16일간	3,500명		보령시	농업인	
	영농기술 반(벼, 한우등), 생활기술(소비자) 반	15일간	2,000명	18회	광주시	불명	
	식량작물,영농설계,생활개선,가정원예,친환경농업 등	14일간	1,600명	24회	남양주시	불명	
	친환경벼농사・채소,생활개선, 웰빙농업 등	하루씩	70~200명	6회	수원시	희망 시민	
	식량작물반, 품목기술반, 농촌생활자원반, 농업인단체반 등	약 한 달간	50~150명		양주시	불명	

교육	내 용(과 정)	기 간	인원수(명)	횟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정보화교육	자체교육-기초종합 중급교육-농업정보등	4일간	자체교육 300명 중급교육 120명		울진군	불명	
	정보화리더 교육	회당 3일간	35명	3회	청송군	농업인 및 경영주6)	
	컴퓨터 기초, 문서작성, 이메일, 인터넷 검색등	2월~11월	160명		포항시	정보화 교육 희망자	
	문서작성, 엑셀, 인터넷활용등	5일간	20명		부여군	불명	
		4일간			영동군	불명	
	초급:컴퓨터기초 중급:문서작성 고급:엑셀,농산물유통 등	1기-13기 각 기당 4일 (4시간/1일)	각 기당 15명		서천군	불명	
	사이버마켓구축 반 농산물출하정보 반 농촌지도자정보화 반	3일간			제천시	불명	
	·정보화의 농업활용 방안 ·농산물 전자상거래 이용방법 및 성공사례 ·e-농장경영	2일간	25명		음성군	불명	선착순 선발
	윈도우체계(윈도우XP),문서작성(한글2002),인터넷검색활용,전자메일등록 및 활용 등.	9일간	20명		남양주시	농업인	선착순 교육 및 교재비 무료
	윈도우 기초, E-mail 사용	10일간	20명		수원시	수원시농업인 및 전업주부	
	농업 정보전문사이트검색 및 E-mail 활용						
	기초반, 중급반	4일간	각과정당20명		안성시	불명	농가여건에 따라 교육 일정 변경
정보교육	컴퓨터 새내기. 한글타자 연습. 문서작성 등	3일간	50명	1기, 2기	거창군	불명	
	기초반:컴퓨터 기초 중급반:인터넷 농업정보활용	5일간	각 반별 20명		경산시	불명	교육비 전액 지원
	농업정보 활용, 인터넷 활용, 컴퓨터 활용, 컴퓨터 기초과정, 인터넷 정보검색	각 기당 3일	각 기당 15명 (4기는 20명)	1 ~ 6기	상주시	불명	
		2~12월	100명		영덕군	정보화교육희망자	
	컴퓨터 사용 기초, 한글 문서작성 및 꾸미기, 인터넷 농업정보 활용	5일간			문경시	불명	
	컴퓨터 활용 반 농업정보 활용 반	각 2일간		각 2회	봉화군	불명	
	기초과정, pc활용과정, 홈페이지 심화과정	8일간	160명 (반별 20명)		영주시	희망농업인	선착순 접수
	컴퓨터 인터넷 활용 및 농업정보검색법 등	3일간	15명		영천시	마을주민	이동 정보화 교육
	인터넷농업정보검색활용법등	4일간	17명		영천시	농대생 및 희망농업인	
	컴퓨터 활용, 농업정보 활용, 인터넷심화, 이동 교육	6일간	180명	9회	성주군	희망농업인	
영농기술교육		3~4일간(합숙)	90명(각)		영덕군,포항시	불명	7기 14과정
농업인전문교육					충청남도	불명	·영농사양성반 30만원상당 공구지급 ·신규농업인농기계반 5만원상당 공구지급 ·교육비 무료

교육	내 용(과 정)	기 간	인원수(명)	횟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사이버농업경영자과정(사이버영농교실)					예천군, 청송군	불명	인터넷 활용한 교육
		두 달간	500명 내외		보은,영동,청원,단양,대전시청,김포시 양주시	농업인[7]	3기
	오이, 고추, 토마토, 수박, 딸기, 느타리버섯, 사과, 배, 국화, 농산물유통 특강과 인터넷 e-비즈니스				안성시	불명	2기
화상영농교육					남양주시	농업인	
원격영농상담	상담	평일 2시간씩 운영		정기교육 36회, 신청교육 14회	하동군	불명	
					대전시청	불명	
		약 한 달간		8회	안성시	불명	
					고령시	농업전문가 농업인	
농기계교육		(총)1일~2주	총131,520명		영덕군	불명	
	농기계구조, 운전조작요령, 정비수리기술, 안전사용요령 등	5일간	16명		제주도청	귀농인 및 신규농업인	
		약 한 달간		16회	옥천군	불명	
	기본지식과 관계없이 기초부터 교육	2주간(합숙)			경기도 농업기술원	불명	경운기,이앙기,콤바인,트랙터(4개기본기종)
	·고장이 많은 기종의 취급조작 및 자가 정비교육 ·승용 및 소형기종 중심의 취급조작 및 작업 기술교육	하루	100명		수원시	농업인	
	농정 및 농기계시책, 교통안전 운행, 운전조작 및 정비수리 기술등	각 기당 5일	각 기당 1명		진해시		1기, 2기
영농설계교육	축산-가축질병, 채소-병해충, 생활개선, 친환경농업, 사과·고추-재배관리	하루씩 4시간/1일		6회	청송군	불명	
	농정시책 및 지역농업 발전방향, 농업인 의식개혁 등(고추, 배, 환경농업에 대해)	약 2달간	30~150명	14회	칠곡군	불명	
친환경농업기술	·농산물 친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환경농업 실천기술	하루			안성시	예비농업인, 독농가 등	

6)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농가의 경영주, 농산물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농업 전자상거래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

7) 오이, 고추, 토마토, 느타리버섯, 수박, 딸기, 사과, 배, 국화를 재배하거나 재배할 농업인

교육	내 용(과정)	기 간	인원수(명)	횟수	지 역	대상자	비 고
농촌여성교육	생활요리, 양재, 한문교실, 피부관리공예, 스포츠댄스 등	2개월	130명		영주시	불명	6과목
	궁중음식, 전통병과, 천연염색, 민요, 원예, 요가, 정보화 교육 등	주로 한 달	16~25명	10회	수원시	수원시내 여성농업인 및 도시소비자	수강료 무료 재료비 선납
귀농교육					경기도 농업기술원	불명	
		1주일(합숙)	350명		영덕군	신규 취농인 중 농기계운전, 정비기술 습득 희망자	
경영컨설팅교육	경영능력수준 진단분석, 농가경영개선, 품목별연구회 발전 방향 등	7월~8월	200명		포항시	농가 컨설팅 희망대상자	
					고양시	교육 희망자, 귀농희망농업인	
	친환경농업의 이해 및 실천사례 중심 교육	하루			안산시	시설원예농가	
경영정보화리더과정	e-비즈니스와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교육	9일간		3차	대전시	홈페이지 운영 농가 경영주	국비: 615,000원, 자부담:130,000원
			30명		김포시	농업인	
가정원예교육	분재, 관엽, 난, 국 화	약 5달간	120명		성남시	성남시민	가정원예교육
여성생활기술과학교육	궁중음식, 혼례음식, 토속음식, 김치밑반찬, 일상복 만들기, 규방공예, 천연염색	20일간	180명		성남시	희망 여성	재료비 : 자부담 주1회 2시간 실습
	장의 우수성, 장의 유래와 종류, 장 담그기, 장 관리법	2일간	100명	2회	성남시	불명	전통 장 담그기
	생활개선회(음식반)	15일간	15명		시흥시	불명	월과채 외 11종
	생활개선회(염색반)	두 달간	20명				천연염색이론 및 명주머풀러 만들기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외소득 및 농산물가공기술, 현지 문제해결 중심의 농작업 환경개선, 전통생활문화, 식문화, 소비자 교육 등 전문분야별 교육		총 1,080명	23회	안성시	생활개선회원, 향토음식연구회원, 여성농업인, 농촌주민	9과정
여성능력개발교육			총 220명	7회			4과정

자료: 각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현재 귀농자들만을 위한 귀농자금은 2000년에 잠시 제공되었다가 취농창업자금과 종합자금제로 통합되어 전국적인 별도의 자금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제주도와 전남의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별도의 자금의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1998-2000년 사이의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 연령 제한에 따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및 농업종합자금제에 따른 지원만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은 <표 20>과 같이 농업 취업에 관련된 각종형태의 자금이 있으며, 사업의 신규창업에 대한 지원과 40대이후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조건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자금제로 구분된다. 창업농 자금과 경영 자금 지원, 종합 자금제에 따른 자금, 농기계나 수리를 위한 비용 등이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창업농 수준에 맞추어 제공하

고 있으며, 귀농자들의 귀농교육연수비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표 20> 각 시군별 자금 지원 현황

자 금 명	대상자	총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귀농자 정착 지원 사업	각주8)		1인당 2천만원 내외			해남군	
			1인당 2천만 원			신안군	
		총 1,000백 만원 (5 0 호)				진도군	
	타시도에 거주하는 40세 이하 (1965.1.1 이후 출생자)					완도군	
						장성군	
	현 재 3 5 세 미 만 으 로 농 어 촌 지 역 에 영농정착중이거나,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여성		1인당 20~100백만 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 지원)	4.0%	5년거치10년 균분상환	제주도	
정착자금	35세 미만 귀농인		정착자금 2,000만~ 12,000만원 융자			양구군	
농 가 경 영 종합자금	35세 미만					원주시	
	35세 이상 귀농자		영농필요자금 융자				
농 어 촌 진 흥사업금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단체	4 0 0 억 원	개인 : 2억 원	시설자금 2%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영양군 , 영천시	영천시는 총 사업비가 없음
			농어업인 조직: 5억 원	운 영 자 금 2.5%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명품사업가9), 학사농업인10)	2 1 0 억 원	개인 : 5천만 원	연리 2%(학사농업인은 연리 1%), 연 체 이 율 10%	시설자금:2년 거치 3년균분상환	무안군	총 사업비중 자부담 10% 확보
			단체,학사농업인, 명품사업 개소당 2억 원		운영자금: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개인 50백만 원 단체 200백만 원이내	2%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신안군	

(단, 해남은 해남 지역으로 귀농한자, 시군수가 정착자로 인정한자)

8) 타도시에 거주하는 40세 이하(1965.1.1 이후 출생자)인 자 중 2005.1.1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남지역에 귀농하여 전 가족이 주소지를 옮기고 농업에 종사하고자하는 자로 1년 이내에 영농기반시설에 5천만 원 투자계획을 가진 자

9) 행정자치부에서 1지역1명품으로 선정한 각 시군의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등의 품목에 종사하는 자

10)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농대 재학시 전라남도로부터 01~04년에 학사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소정의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도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자 금 명	대상자	총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11]		창업농 1인당 50만원 지원, 연간 500만원 한도 후견인 지급			양양군	지원조건[12]
	후견인[13]						
농업인턴제 사업	인턴[14]		인턴 1인당 월50만원,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500만원 한도 선도농가에 지급			양양군	지원조건[15]
	선도농가[16]						
	인턴					경주시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수행(현장실습비 50%이내 월 50만원까지 지원)			완도군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지원비			1인당 월 30만원			장성군	
농림사업 투융자계획	관내 농업·임업인, 생산자 단체, 공동조직 등					군위군 영주시	
창업농지원사업	현재 35세 미만인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 및 여성		1인당 20~100백만 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지원)	4.0%	5년 거치 10년균분상환	상주시	100%국고융자금
	각주[17]					성주군	
후계농업인육성						고성군 무안군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여성 중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미만자		1인당 20~100백만 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지원)	4.0%	5년 거치10년균분상환	성주군	
농업종합자금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1인당 20~50백만 원 (영농설계에 따라 차등지원)	3.0%	시설자금:3년 거치10년균분상환	울진군	
					개보수자금:2년 거치3년균분상환		
					농기계구입 자금:1년 거치1~7년균분상환		
					운영 자금: 2년이내 일시 상환		

11) ´04 ~´05 창업농으로 선정된(예정) 자

12) 후견인은 사업 운영계획서(후견인 작성)에 준하여 연수 및 월5회 이상 창업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실시, 창업농은 의무적으로 경영일지 작성

13)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대교수 및 일정조건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체

14) 현재 만18~32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자

15) 선도농가는 인턴 사업 운영계획서(선도농가 작성)에 준하여 교육 및 연수 실시

16)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하는 일정조건을 갖춘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17)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 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연도 1월1일 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금 명	대상자	총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농기계 임대 사업장						해남군	
귀농자농촌주택 융자지원	노후, 불량주택을 소유한 자		20-30평(3,00만원), 18-19평(2,000만원), 15-17평(1,700만원), 14평 이하(1,500만원)	3.9%	5년 거치 15년분 할상환	신안군	
	각주18)		20평 기준:동당 3,000만원 융자지원	3.9%	5년 거치 15년 상환	음성군	농촌주택 개량
		1억 원	동당 2,000만원 융자지원	5.5%	5년 거치 15년 상환	청주시	2003년도 사업
농촌공가 알선 및 수리비 지원	귀농자로 공가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주택수리를 원하는 자		가구당 최대 250만원			신안군 장성군	
농업인신용보증제도	귀농자로 담보능력이 미약하여 신용보증제도 이용을 원하는 자		농림사업 1억 원 이하 대출시 수수료 연간 30만원 지원			신안군	
	신용보증 이용		수수료 30만원 지원			장성군	
귀농학교이수자 수강료 지원			1인당 월 30만원			장성군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장려금))	둘째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006년 5월말까지 지원금 10만원(1회)			창원시	
			2006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금 30만원(1회)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006년 5월말까지 지원금 20만원(1회)				
			2006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지원금 50만원(1회)				
	출생자		1인당 30만원(출생신고 후 1년 이후 지급) 3째부터 50만원			합천군	
	농어업인 또는 배우자로서 자녀출산		출산전후 90일 이내에 30일간 도우미 이용, 1인당 30일 사용시 72만원 지원			봉화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고성군	
	농촌에 거주19)		0세 : 155,500원 1세 : 154,500원 2세 : 127,000원 3~4세 : 79,000원 5세 : 158,000원			함양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10,000㎡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0~5세)		○ 보육료 만0~1세아 127,500원, 만2세아 105,500원, 만3~4세 : 65,500원 만5세아 : 131,000원			북 제 주 군	
			○ 교육비 만3~4세아 국공립유치원 11,000원, 사립유치원 55,000원 만5세아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수업료 납부액				

18) 읍 면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농촌주택 소유자가 구옥을 철거한 후 주거 전용면적 합계 66㎡(20평)이상 100㎡(30평) 이내로 개량을 희망자

19)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 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자 금 명	대상자	총 사업비	지원금	이 율	상 환	지 역	비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업인[20]		당해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경산시	
	경지소유규모 15,000㎡미만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군위군	
	농업계열대학에 재학중인 농업인자녀 및 농업인 본인		국·공립대학 2005년 2학기 등록금 50% 지원 사립대학교 등록금의 50%(87만원 이내) 지원			상주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봉화군	
	대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영양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	145천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영천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매학기 등록금 무이자 융자			보은군	
농어촌장학생	친권자가 농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연소득 2500만원 미만 친권자 전답 3,900평 이하 학생연령 만 24세 이하(전문대 입학생 및 재학생)		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경주시	
	생활이 어려운 농어가 자녀로서 2005 학년도 국내 대학의 전문대 이상 입학생 및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 전액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 때까지 지급)			포항시	
전입자 지원	가족단위 전입자 (의료보험지급자 제외)		이사비 지원 가구당 50만원			합천군	
	타 시도 전입자		차량이전비 지원 31,300원 지원				
	세대구성 전입자		의료보험료지급 월 40,000원 1년간				

자료: 각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지자체 차원에서 <표 21>과 같이 빈집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농어촌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정착시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에 대한 알선이나,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출산 장려, 영유아 양육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업체 임직원이나 대학생 전입시 기업과 학생회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입자에 대한 차량등록비 지원 및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나,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을 위한 순환농업시범단체를 조성한 경우도 있었다. 시군 홈페

20) 농어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 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이지를 통하여 주말농장 경작안내와 영농자재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표 22>와 같이 귀농자에 대한 상담센터나 지원 담당 요원을 배치하고 있는 시군이 33개 있었다. 이들은 일부시도만을 조사하였으므로 전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도 차이는 있으나 귀농에 관련된 담당인력과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완성도도 부족하고, 귀농자를 알아서 그들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인 업무 분장으로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귀농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귀농자의 필요에 따른 정책이라기보다 시군 자체의 인구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귀농자나 귀농희망자들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적 안내와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 21> 일부 시군의 주거관련 지원체제

시・군	빈집 자금 지원	빈집 정보 센터	대상자	비고
거제시		○		
거창군		○		
산청군		○		
김해시		○		
남해군	빈집 철거 비용 50만원 지원			
창녕군		○		
의령군		○		
경산시	소비자 농촌 웰빙 시범사업 총 사업비 : 500만원		도시소비자[21]	
고령군	빈집 정비 사업 지원비 50만원		1년 이상 빈집 소유자	
봉화군	소비자 농촌 웰빙 시범사업 총 사업비 : 500만원		도시소비자	
안동시	쓰레기봉투 6개월분,도배비 30만원,차 번호판 교체비 2만원		전입 가구 (차는 전입하는 대학생)	
성주군	빈집 정비 사업 지원비 40만원			주택 개량 사업 동당 3천만원 융자 (연리 3.9%)
영덕군		○		
청송군		○		
괴산군		○		
연기군	빈집 정리 동당 200만원 지원 총 32동 지원			주택 개량 사업 동당 3천만원 융자 (연리 3.9%)
금산군	철거 빈집당 40만원 지원		농어촌 빈집 소유자	
보령시	빈집 정비 사업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않는 농어촌 빈집	주택개량사업 동당 4천만원융자 (연리 3.4%)
청양군	빈집 정비 사업 동당 30만원 지원	○		
음성군	빈집 정비 사업 동당 40만원 지원			

자료: 각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21) 도시소비자
-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웰빙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소비자로 가족 구성원이 3인 이상인 자
- 주거지역은 대구 ・ 경북권 등 도시에 두고 5도2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소비자
- 농촌마을의 빈집을 구입하여 주거환경개선(증・개축) 및 농촌지역 마을에 가옥 신축으로 전원 생활하는 도시 소비자
- 5도 2촌 생활 붐 조성 및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확산할 수 있는 도시소비자

<표 22> 일부 지역 귀농관련 인력과 정보제공 여부

시 군명	귀농관련 겸임 인력	귀농 정보 여부(홈페이지)
전남 여수시	○	×
전남 순천시	○	×
전남 광양시	○	×
전남 담양군	○	×
전남 고흥군	○	×
전남 보성군	○ (귀농자 창업지도 명시)	×
전남 화순군	○	×
전남 강진군	×	○ (귀농자 장착지원사업 정보제공)
전남 해남군	○	○ (정보광장-귀농가이드)
전남 무안군	×	○ (농업정책-귀농진흥기금 지원 정보)
전남 함평군	○	×
전남 영광군	○	×
전남 장성군	×	○(귀농정책 정보)
전남 완도군	×	○(귀농정책 정보)
전남 진도군	○	○(귀농정책 정보)
전남 신안군	○	○ (열린마당-귀농가이드)
강원도 강릉시	○	○ 영농상담 궁금증-귀농정보
강원도 태백시	○	×
강원도 횡성군	○	×
강원도 영월군	○	×
강원도 평창군	○	×
강원도 정선군	○	×
강원도 인제군	○	정보 ○ (게시판-질문에 대한 답변)
강원도 양양군	○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나 귀농인 연구모임회 있음.
경기도 가평군	×	○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경기도 고양시	×	○
경기도 남양주시	×	× 폐농기계 수거
경기도 수원시	×	× 가정원예 정보제공
경기도 시흥시	○ (귀농인 교육훈련 및 영농상담)	×
경기도 안산시	×	× 가정원예 정보제공
경기도 의정부시	×	× 취미농업 정보제공
경기도 포천시	×	×
경기도 화성시	×	○(자료실-귀농) (농기계관리요령 상세하게 정보제공)

자료: 각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이들 외에도 <표 23>과 같이 일부 단체나 학교에서 귀농자 교육을 실시하거나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23> 기타 귀농자 지원 정책

	실시 지역	대상자	내용	지원 방법
실직자 귀농교육	경남 가나안농군학교	경남거주 실직자, 노숙자	귀농에 강한 의지를 지닌 자를 대상으로 개척정신과 근로, 봉사, 희생정신 교육	1주: 농군학교 정신교육, 2주: 농가실습교육(전액 무료)
귀농지원 원-스톱 서비스	전남도	전남 거주자	귀농 상담 및 단계별 귀농강좌와 선도농가에서 6개월-1년간 현장실습 병행	귀농 알선센터를 설치하고 영농정착을 위한 상담은 물론 귀농 희망가구별 전담안내 공무원을 배치(맞춤형 지원)
귀농자 의료지원	안동의료원	경북 거주 귀농자	귀농자 의료 지원	경북지역 생태 귀농인 150여 가구에 대한 농부증과 기타 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귀농자 의료지원	순천의료원	생태귀농자	의료비 무상진료	무상 진료

자료: 순천의료원, http://cafe.naver.com/jpsense/905, http://rda.haman.go.kr/program/publicboard/upload/128/주간동향-041001.hwp, http://www.namhae.go.kr/자료

5. 외국의 귀농 지원 정책

가. 일본

일본의 귀농지원정책은 취농 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취농 정책은 신규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항들이 귀농지원정책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각 지방단위의 취농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신규 인력의 확보에 관련된 정책

일본은 농업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인력을 농업분야로 유인하려는 몇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수행되는 대표적인 농업분야로의 유인책은 신규 취농 사업과 영농후계자 육성 사업이 있다.

가) 신규 영농취업사업

신규 취농사업은 전국 농업 회의소 내에 있는 전국 취농 가이드 센터를 중심으로 취농세미나, 취농 상담, 농업법인의 회사 설명회 등 농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각 현단위의 농업회의소가 있고, 현 단위로 재단법인 형태로 농림어업육성공사, 농업후계자 육성기금협회, 농업육성기구, 또는 현의 일부 부서에서 신규취농자들을 지원할 연수자금, 연수기관의 프로그램 안내, 취농상담, 취농체험과 실습을 도와줄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농업회의소와 신규취농상담센터등이 있고, 취농준비학교가 있다. 현단위에서는 신규취농자의 유치를 위하여 외부 취농자가 살수있는 주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이 시작된 1980년 중반은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어 국제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국내적으로는 「전후 총결산」이라는 형태로 전후 일본을 지탱해 왔던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 시기였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의 발상은 극히 단순하다. 농촌에서는 농지의 유휴화가 진행되고 있고, 도시에서는 농업ㆍ농촌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양측의 요구를 결합하기 위해 상담창구를 설치한 것이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신규 취농자를 육성ㆍ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ㆍ농촌을 매력 있게 하고, 청년이 영농취업을 하기 쉽도록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의 집적과 생산기반정비 등 구조정책의 추진, 생활환경의 정비, 연수교육 실시 등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규 영농취업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규 영농 취업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기술습득, 농지구입, 자금 확보의 3가지로 요약된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각종 대책이 강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원내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우선 기술습득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① 청년농업자의 영농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합의 도출, 선진 농가 현지연수
②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현 농업대학교에서의 단기 연수
③ 개량보급원을 통한 기술ㆍ경영 방법의 지도 강화
④ 농업대학교에서의 실천적 연수 교육
⑤ 국내외 선진농가에서의 파견 연수에 대한 지원
⑥ 농업개량자금 중 연수교육자금의 지원

농지확보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신규 영농취업 가이드 센타에서 농지정보 제공 및 영농취업 상담

② 신규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해 농지구입

③ 축산부문에 있어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통한 이농지 정비

자금 확보 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① 농업개량자금조성법 개정을 통한 청년 농업자 육성·확보자금제도의 신설
(경영개시에 필요한 무이자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농업취업자에게도 확대)

② 농림어업금융공고의 농지구입자금에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③ 농업근대화자금에 있어서 신규 영농취업 원활화자금(운전자금)제도의 신설

④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특례조치(농기계의 할증상각제도)

농림개량자금제도의 개정은 과거의 농업후계자육성자금을 개선·확충하여 새로이 청년 농업자 육성·확보자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농업 외로부터의 신규 영농 취업 청년이 농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대상에 추가되도록 하고, 아울러 지원한도액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농지구입자금에 있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신규 영농취업자에 대해 농업종사자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또한 경영 면적 요건을 취득 후 기준 면적 이상에서 5년 후 기준 면적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신규 영농취업시의 자금부담경감조치가 취해졌다.

다음은 이와테 현의 신규취농자 지원대책과 안내자료를 제시하였다(<표 24> 참고).

<표 24> 이와테 현의 신규취농자 지원 대책

■「기술」에 대한 지원책		
●농업개량보급센터에 의한 지도	→	개별 육성 프로그램에 근거한 계속적인 지도.
●농업대학교에 있어서의 체계적인 연수	→	신규취농자 연수로부터 영농 대학 강좌, 전문 강좌까지의 기술 익숙 정도에 응한 연수 실시.
●연구그룹활동사업	→	농촌 청년 클럽원 상호의 기술, 경영, 유통에 걸치는 연구 활동,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
●선진지유학연수제도	→	국내외의 선진지 농가에서의 실천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지원
■「농지」에 대한 지원책		
●농지보유합리화사업	→	이와테현 농업공사 등이 농지를 보유해, 신규취농자의 희망에 응하여 농지를, 원활히 제공하는 사업
●농업 위원회에 의한 알선	→	농업 법인 등에의 고용취농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신용력을 기르면서 주변의 유휴 농지 등의 알선 받음.
■「자금」에 대한 지원책		
●취농전의 연수 자금	→	농업 개시에 필요한 기술 등을 취득하기 위한 취농지원 자금
●취농시의 자금	→	농업 경영을 개시할 때의 기계의 구입, 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취농지원 자금(취농시설등 자금) 주거의 개량, 취득을 위한 근대화 자금 농지 취득을 위한 농림 어업 금융 공고 자금(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자료: http://www.pref.iwate.jp/~ninaite/new/kasituke.html.

이와테 현의 취농 지원 자금

항목	청년	중노년
1 대출 대상 연령	18세~40세 미만	40세~55세 미만
2 자금의 종류와 대출 한도액		
(1) 취농업연수자금(기술 습득을 위한 실무 연수 경비		
·농업 대학교등 (취학중)	5만 엔/월	5만 엔/월
·선진지 농가등 (해외)	15만 엔/월	15만 엔/월
·지도 연수(보급 센터 등의 지도)	200만 엔	-
(2) 취농준비자금(취농처의 조사, 주거이전경비등)	200만 엔	200만 엔
(3) 취농시설등 자금(시설의 설치, 기계의 구입등)	1년째 2800만 엔	1800만 엔
	2년째~900만 엔	900만 엔
3 상환 기간(거치 기간)		
(1) 취농연수자금, 취농준비자금		
·평장에 취농 하는 경우	12(4) 년 이내	7(2) 년 이내
·조건 불리 지역에 취농 했을 경우	20(9) 년 이내	12(5) 년 이내
(2) 취농시설등 자금	12(5) 년 이내	12(5) 년 이내

자료: http://www.pref.iwate.jp/~ninaite/new/kasituke.html.

●자금 지원 요건 등
·연수 계획이나 농업 경영 목표등이 포함된 '취농 계획'을 현지의 시읍면장에게 제출해, 이와테현 지사로부터 인정 취농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중노년은 지사가 인정했을 때 65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이와테 전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함.
·일시 상환 : 연수 종료 후 1년 경과후 미취농자는 일시 상환(빌린 자금을 전액 1회로 변제). 단, 연수를 겸한 농업 관련 사업 종사시는 3년 이내까지 연기

■이자:·무이자
■취농지원 자금의 상환 면제 조치
●대상자: 헤세이 16년 3월 말일까지 대출 결정을 받는 경우
●상환 면제 요건
다음의 조건 구비자는 취농 계획에 따라, 현내에 5년간 계속해 취농했을 경우, 취농업연수자금의 일부에 대한 상환 면제
(1) 비농가 출신자로, 제도 자금의 활용등으로 자본 장비를 실시한 사람
(2) 가족의 경영을 계승한 사람(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 경영의 규모 확대, 신규 부문의 개시 또는 자본 장비의 고도화를 실시한 사람
●면제 내용

자금 종류		면제 내용
취농연수자금	농업 대학교등으로 연수	2만 엔/월 이내
	선진 농가 등에서 연수	5만 엔/월 이내

●상환 면제의 수속
첫 회의 약정 상환 기일의 60일전까지 신청서를 현 농업 공사에 제출

신규 취농자를 비롯한 농업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5>에서 보는바와 같이 신규 취농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새롭게 농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등에 대해, 실천적인 연수에 의한 기술의 습득, 그 외 취농의 준비, 경영 시작시의 시설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취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농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농 계획을 작성하여 지사의 인정을 받으면 인정 취농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정 취농자로 선정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시 18세-55세미만으로 청년층의 취농과 중노년층의 취농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지사의 허가가 있다면 65세까지도 인정취농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체적 제한 연령은 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청년층의 취농과

중노년층의 취농에 대한 지원 차이는 지원 비용에 있어서의 일부 차이가 있다.

<표 25> 취농자에 대한 금융지원

용 도		융자한도액	이율 및 융자대상[4]	반환기간
취농지원자금[1]	취농농업연수	농업 대학교 등 → 월액 5만 엔 선진 농가 → 월액 15만 엔 지도 연수(청년만) → 200만 엔	무이자 농업기술·경영 수법 습득을 위한 실천적인 연수(농업 대학교 등의 연수교육 시설, 국내외의 선진 농가 등으로 실시하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 *수업료, 교재비, 시찰 연수비, 체재비,PC등 연수용 기기 등	·청년의 경우 평장 : 12년 이내 중 거치 기간 4년 조건불리지역 : 20년 이내 중 거치 기간 9년 ·중노년의 경우 평장 : 7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조건 불리 지역 : 12년 이내 중 거치기간 5년
	취농준비	200만 엔	무이자 취농처의 조사, 취농에 수반하는 주거의 이전, 자격의 취득 등 취농에 해당하는 사전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 *주거 이전비(이사대, 보증금·사례금 등), 자격 취득비, 취농처 조사 여비, 체재비 등	
	취농시설자금	청년의 경우 경영개시초년도 → 2,800만 엔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 (2-5년째까지) → 900만 엔	무이자 농업 경영을 개시할 때의 시설의 설치, 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기계의 구입비, 시설의 설치비, 가축 구입비, 각종 수선비·리스료, 종묘·비료비 등의 운용자금 *농협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도도부현의 농업 신용 기금 협회의 채무보증 제도의 대상임	·청년의 경우 평장 : 12년 이내중 거치 기간 5년
		중노년의 경우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 → 1,800만 엔 경영개시 차년도 이후[2] (2-5년째까지) → 900만 엔[2]		·중노년의 경우 평장 : 12년 이내 중 거치 기간 5년
농업근대화자금	신규취농 원활화 자금	축산·시설 원예 → 400만 엔 그 외 경영 → 200만 엔	1.6% 취농 후 3년간의 경영 자금 *인정 농업자의 경우는 취농 후 5년간	7년 이내 중거치 기간 3년
	특정 농가 주택 자금	1,800만 엔	1.6% 농가 주택의 개량, 조성 또는 취득 자금	15년 이내 중거치 기간 3년
농지 취득 자금 (개인의 경우)		500~7,000만 엔	실효금리 1.6% 농지등 (농지·채초 방목지등)의 구입	25년 이내
토지 이용형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개인의 경우)		1억 5,000만 엔 혹은 농업 사업비의80%	실효금리 1.6% 토지 이용형 농업 부문에서 경영 면적의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25년 이내
농업 경영 기반 강화자금 <슈퍼 L자금 > (개인의 경우)3)		1억 5,000만 엔 (특인 3억 엔)	실효금리 대부 기간에 따르고 1.05~1.60% 농지 취득이나 기계 시설 투자 등에 충당하는 장기자금	25년 이내 중 거치 기간 10년 이내
농업 경영 개선 촉진자금 <슈퍼 S자금 > (개인의 경우)[3]		채권최고액 500~2,000만 엔	1.4%(변동금리) 단기의 운용자금	상환 기간 1년 이내

주 1) 청년등 취농촉진법에 근거하는 인정취농자가 대부 대상, 청년의 경우(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 중노년의 경우(40세 이상 55세 미만, 지사특인으로 65세까지 가능).
주 2) 경영 개시 차년도 이후(2~5년도까지)는, 자금 수요의 2분의 1 이내.
주 3)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자금 및 농업 경영 개선 촉진 자금은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이 기초를 두는 인정취농자가 대부 대상
주 4) 이율은 평성 13년 5월 18일 현재. 이율은 공정보합의 개정 등에 의해 변동
자료 : 全國新規就農相談センター(2001). 新規就農ガイド事業. [On-line]. Available. http://www.nca.or.jp/guide/howto.html

1992년 6월에 공표된 「신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서는 앞으로의 농업경영체로

서 개별 경영체 이외에 생산조직·법인 등의 조직 경영체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농가자녀 이외의 자도 포함시키는 등 영농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농업자 육성·확보대책도 단순히 농가의 후계자대책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경영체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폭넓은 관점에서 청년농업자를 육성·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일본의 각 현은 <표 26>과 같이 취농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각 현의 홈페이지에서 취농과업단계나 유형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는 각 지역의 취농자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표 26> 일본 일부 지역의 취농 지원 정책

	취농상담센터운영	농업체험투어	취농지원정보코너	자체교육수기관운영	리턴농업연수	농지정보활용촉진사업	현립농학교운영	농업회의소	고향재발견투어	취농지원센터	자연속에서일하자캠페인	농업후계자육성지원	원예용렌탈하우스사업	농업인정보화교육	유학연수	취농지원자금융자및지원	농업종사자무료직업소개소	U·I턴페어개최	신규취농챌린지페어	농림·어업취업·취직페어	현립농업대학교	유기농업워크캠프	청년농업자육성센터사업
이와테현	●	●	●	●				●							●	●		●					
나가노현	●			●	●			●							●	●							
니가타현	●			●		●		●							●	●			●				
미야기현	●			●			●	●															
미에현	●			●				●							●					●	●		
아키타현	●			●				●				●			●								
에히메현	●			●				●								●							
야마나시현	●	●		●				●							●	●					●		●
오이타현	●			●				●	●							●							
와카야마현	●			●				●		●													
이시카와현	●	●		●				●			●									●			
카고시마현	●	●		●				●				●											
코치현	●			●			●	●				●	●	●									
쿠마모토현	●			●				●							●								
토야마현	●			●				●		●					●	●							
홋카이도	●	●		●			●	●															
효고현	●			●			●	●				●				●						●	
후쿠시마현	●			●				●							●	●							
히로시마현	●			●				●								●	●						

자료:이와테현: http://www.nca.or.jp/Be-farmer/iwate, 나가노현: http://www.nca.or.jp/Be-farmer /nagano, 니가타현: http://www.nca.or.jp/Be-farmer/niigata, 미야기현: http://www.nca.or.jp/ Be-farmer/miyagi, 미에현: http://www.nca.or.jp/Be-farmer/miel,아키타현:http://www.nca.or.jp/ Be-farmer/akita, 에히메현: http://www.nca.or.jp/Be-farmer/ehime, 야마나시현: http://www.nca.or.jp /Be-farmer/yamanasi,오이타현:http://www.nca.or.jp/Be-farmer/oita,와카야마현:http://www.nca.or.jp/ Be-farmer/wakayamahttp, 이시카와현: http://www.nca.or.jp/Be-farmer/ishikawa, 카고시마현:http://www.nca.or.jp/Be-farmer/kagosima,코치현: http://www.nca.or.jp/Be-farmer/kouchi. 쿠마모토현:http://www.nca.or.jp/Be-farmer/kumamoto,토야마현:http://www.nca.or.jp/Be-farmer/toyama, 홋카이도: http://www.nca.or.jp/Be-farmer/hokkaido, 효고현:http://www.nca.or.jp/Be-farmer/hyogo, 히로시마현:http://www.nca.or.jp/Be-farmer/hirosima, 후쿠시마현: http://www.nca.or.jp/Be-farmer/ fukusima.

나) 농업후계자 육성 사업

일본에서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56년의 농업개량보조금조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1964년부터 후계자 육성기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법은 농업개량자금제도에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을 설치하여 자금 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케 하고, 정부 및 도부현이 주관이 되어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최현주, 1994).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교육을 근간으로 하여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미래의 농업을 담당할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대책을 학교교육단계에서의 후계자대책, 농업후계자 연수교육, 농촌 청소년 조직 활동 조장, 농업사제도, 자금지원제도 등이 있다.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시책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고교졸업예정자에 대한 푸른 학원 개최사업, 고교 졸업 후에는 강좌제 연수사업을 통해 취업중 농업기술 습득에 대한 단계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농업후계자 육성자금제도를 통해 자금지원과 동시에 농업사의 인정으로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높여주고 생산실습, 교육용기자재 등 교육시설 이용에 역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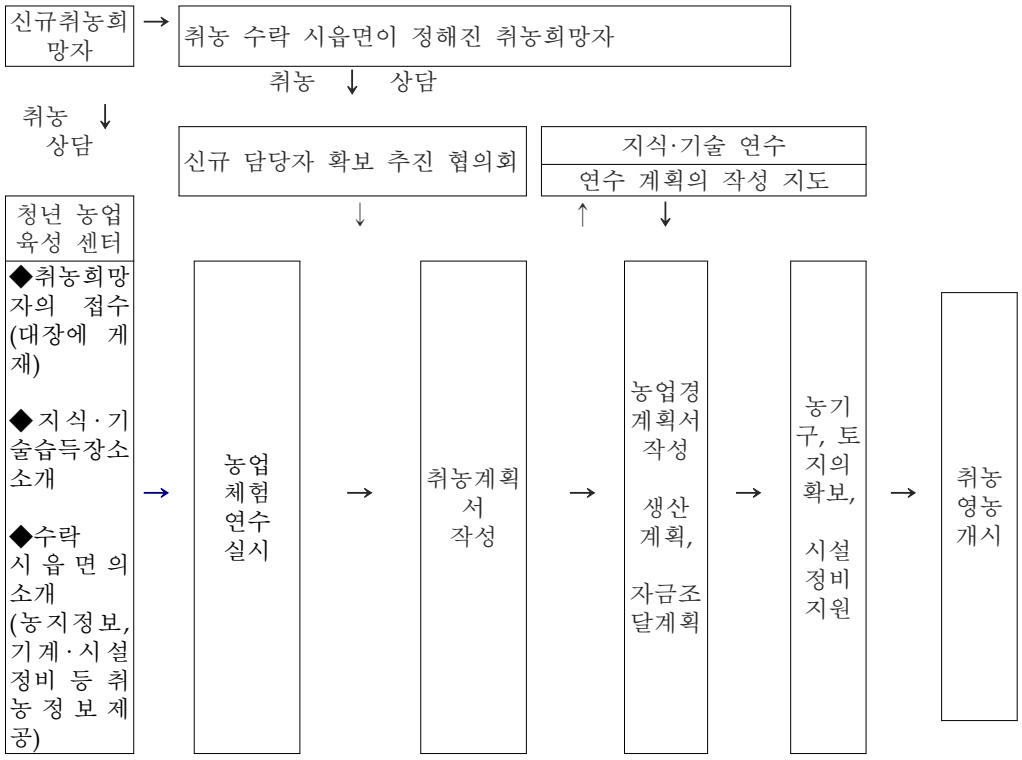
셋째,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농촌청소년에 대한 교육 사업은 정부 및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시설의 설치도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상의 특징 하에 사회교육의 형태로 추진되는 농업후계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체계화한 형태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표 27> 야마나시현 청년 농업자 육성

	활동 내용
신규 취농 촉진 지원 활동	취농 상담에 의한 상담활동 - 농업・생활, 취농 준비 고교생 농업 연수 자금 지원
농업 계발 활동	초중학교 아동 학생의 농업 체험 조성 일반 현민에게 농업 중요성 홍보 소비자와의 교류회 행사 - 청년농업자와 소비자, 관련업계와의 교류 지원: 농업이벤트
청년 농업자의 정착・촉진 활동	청년 농업자나 그룹 활동 조성금 지급 - 젊은 여성과의 교류회 개최비 - 결혼 상담원 활동 조성 청년 농업자 결혼 상담활동 조성금 지원 - 젊은 여성과의 교류회등, 개최비 일부 조성 청년 농업자의 해외 연수 조성비 지급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yamanasi/ippo.html.

<표 28> 토야마 현의 취농까지의 지원 흐름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toyama/ippo.html .

2) 학교교육사업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교육사업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래의 농업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푸른 학원 개최사업은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기 위해 취농 의사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인 고등학교 재학 시부터 장래 농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등을 이용하여 농업과 농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부현은 농업개량보급소, 고등학교, 농림수산성 및 현 농업자대학교 그리고 민간단체농업교육기관 등과 협조하여 푸른 학원을 개최하고 있다. 학습기간은 7일정도이며, 학습내용은 농업실무실습, 선진농가견학 등으로 이를 통해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후계자 지역실천활동추진사업은 학교교육과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단계별 즉 시정촌단계, 현 및 전국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각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정촌단계에서는 아동·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농업청년의 지역농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실천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 및 전국단계에서는 시정촌단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청년의 의향 및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소요예산의 1/2을 보조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시정촌단계·도도부현단계·전국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농업후계자 지역실천활동추진사업의 개요

지 역 별	내 용
시정촌 단계	- 학교교육과의 연계사업 · 농업입문서의 작성 활용 · 농업소년그룹의 활동 촉진 · 취업예정고교생의 학습활동 촉진 - 농업청년 지역활동추진사업 · 조사사업의 추진 · 농업청년 지역활동추진회의 개최 · 농업청년리더연수 실시
도도부현 단계	- 농업후계대책추진협의회 개최 - 농업후계자에 관한 조사 실시 - 비농가자제의 취업상담 실시 - 농업청소년그룹 대책 · 청소년그룹회의 개최 · 청소년그룹기술교환회 개최 · 청년농업경영자연구집회 개최
전국 단계	- 전국조사검토위원회의 개최 - 농업청년의 집단 활동 사례조사

몇 개 현 차원의 취농 인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면 다음 <표 30>,<표 31>,<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농자에 대한 국내외 장기연수비, 취농지원금, 농지임차료, 주거비의 지원과, 신규취농수양부모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장기연수나 취농지원금 등은 공통적인 지원 사항이나, 신규취농수양부모 연수는 영농종사를 조력하는 Mentor의 지도하에 실습을 하는 경우로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연수로 보여진다. 이들 외에도 일부는 무이자나 일정기간이상 해당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하였을 경우는 대출금의 탕감이나, 면제를 제공하기도 한다. 연령도 48세나 46세, 40세미만으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건으로 지원되기도 한다. 인정 취농자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인정취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60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경우를 볼 때 노령화를 고려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0> 몇 개 일본현 단위의 신규 취농자 지원 사업

	나가노현	홋카이도현	아오모리현	톳토리현	야마가타현	나가사키현	오키나와현
대상자 연령	40세미만 (신규취농)	18~46세미만	48세 이하	제한 없음	40세 이하	16~45세	40세미만
영농여부제한	△	×	△	○	×	×	×
금리(인정취농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무이자
상환기간	7~12년 이내	-	-	-	-	-	-
지원내용	*선진경영체 연수비조성 *취농지원금 지급 *농지 임차료 조성 *청년농업자의 주거비 조성 *취농준비 농업연수 *신규취농 수양 부모 지원 사업	*취농촉진의 홍보, 상담활동 *연수교육 체제의 정비 *실천적 농업연수지원사업 *신규취농우량농업경영자 표창사업 *취농지원 자금의 상환면제 *U턴, 신규취농자 기초 연수 *농장 리스 원활화 사업	*신규취농촉진자금대금상환면제사업 *취농준비자금상환면제사업 *신규취농자 농지 확보지원사업 *신규취농자 OJT사업 *[농업을 해보자]프로그램 추진 사업	*취농지원자금상환 면제사업 *취농기반정비사업 *농지임차료 조성사업 *취농주택설비 사업 *단현 농업 농촌정비사업	*야마가타현 농업 진흥기구 지원사업 *신규취농자 정착지원 리스 사업 *농업 대학교 특별 연수과정 사업 *농업 경영혁신 지원자 지도 사업	*신규취농지원 세미나 사업 *신규취농촉진 사업 *지역 취농지원 센터 활동 사업 *담당자 육성 강화 지원 사업 *실천 연수농장 등 추진 업	*농업 후계자 육성시설 연수지원 사업 *신규 취농 촉진 사업

<표 31> 나가노현의 신규취농자 관련 사업

사업명		실시 주체(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나가노현농업담당자육성기금조성사업	선진적 경영체 등에 있어서의 연수비 조성	(회사) 나가노현 농업 담당자 육성 기금 (026-236-2021)	1) 국내 장기 연수 대개 40세 미만으로, 실제로 취농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수 종료 후 3년 이내에 현내 취농전망자.	* 대상자 : 50명 * 조성액수 : 1개월 20천 엔 (1년을 한도)
			2) 해외 장기 연수 (회사) 국제 농업자 교류 협회의 농업 연수생 해외 파견 사업에 의해 파견되는 사람	* 대상자 : 4명 * 조성액 : 도항전 연수등과 관련된 부담금 및 도항비의1/2 이내
	취농 지원금의 지급		현내에 취농한 대체로 40세 미만의 신규취농가이드 사업 등으로 신규취농해, 취농 계획의 인정을 받은 사람. 필요한 농지를 확보해, 3년 이상 영농의 계속이 전망되는 사람.	* 대상자 : 독신자 4명, 기혼자10명 * 조성액수 : 200천 엔 (배우자도 취농했을 경우 세대당 250천 엔)
	농지 임차료의 조성		신규취농상담사업등을 통해서 현내에 취농해, 임차면적이 농지법으로 규정하는 면적 이상이며, 취농계획의 인정을 받아 임차 계약이 3년 이상의 사람.	대상자 : 15명 조성액 : 초년도의 임차료 상당액 보통밭 40천 엔 이내 수원지 85천 엔 이내 논 60천 엔 이내 (10a당 단가는, 시읍면이 정하는 표준 소작료로 한다)
	청년 농업자의 주거비 조성		대체로 40세 미만의 농업 후계자로, 주택 사정 등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사람, 또는 신규취농가이드 사업 등에 의한 신규취농자. 임대 주택에서, 영농 거점에 통근 가능한 것.	* 대상자 : 30명 정도 * 조성액수 : 월액 9천 엔 * 조성 기간 : 2년간 한도
취농준비 농업 연수		나가노현 ※문의처 (농업기술과) (026-235-7222)	나가노현내에서 취농을 희망하는 사람	1.아구 리턴 농업 연수 체험코스 농업 체험, 가이던스등 2.아구 리턴 농업 연수 입문코스 현장 연수, 강의
신규 취농 수양 부모 지원 사업				1.신규취농기초연수(수양부모앞기초 연수) 현 농업 대학교 연수부에 있어 취농희망자의 요구에 따른 농업 대학교의 강의와 농가 실습 등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재배 기술과 경영관리를 습득하는 1년 정도의 연수를 실시한다. 2.신규취농수양부모 지원 사업 I턴자등의 취농을 지원하는 의욕 있는 농업자 「수양부모」의 아래에서, 대체로 2년간에 농업 경영을 개시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nagano/shien.html.

학교 단계에서 농업에 대한 잠재적 후계인력을 위한 준비는 <표 32>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이와테현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체험학습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의 농업체험농장의 설치, 지역농업추진회의와 포럼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업체험학습을 추진하며,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농업연수, 홍보활동, 식농교육포럼 참가등이 그 예이다. 이는 지역단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역차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파악되며,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과정의 제공과 취농 상담, 인정 취농자 제도를 통하여 교육과 연수자금을 지원하여 교육을 받고, 취농자금을 지원하여 기초적인 취농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지원 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하여야 할 부분이다.

<표 32> 이와테현의 초중학교에서의 농업체험 지원 사업

1 학교1 농원 운동 추진 사업

1. 사업의 취지

현에서는 이와테현 농업 담당자 육성 중장기 비전에 대비하고, 초중등학생을 「농업에의 동경 형성기」로서 평가해 농업 체험 학습을 통한 농업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풍부한 인간성 육성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여 장래의 농업의 담당자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 체험 학습의 추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2. 사업 내용

(1)현 추진 사업

가. 학교 교육내에 있어서의 농업 체험 학습의 추진

·농업 체험 교육 농장의 설치.

·농업사등에 의한 농업 체험 학습의 지원.

나. 지역에 있어서의 농업 체험 학습의 추진

·지역 농업 체험 추진 회의의 개최.

·지역 농업 체험 포럼의 개최.

다.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농업 연수의 실시

·농업 교육의 추진에 대한 정보·의견교환 등의 실시

·현장을 사용한 농업 체험의 실습.

라. 홋카이도·북동북 3현에 의한 「식농 교육 포럼」참가

·헤세이 15년 11월 1일(토) 아키타현 노시로시에서 개최 예정.

·체험 학습 발표, 대적 상황 패널 전시등.

마. 농업 체험 학습에 관한 홍보 활동의 실시

(2) 시읍면 추진 사업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 체험 장소 정비, 농업자와의 교류 장소 제공, 농업 체험 학습 활동 발표회의 개최.

·H16 실시 시읍면 : 이사와쵸, 미야코시, 이와이즈미쵸, 니노헤시

3 사업 실시 주체·부담 구분

현, 시읍면, 농업 협동 조합등 국고 1/2

4 사업 실시 기간 헤세이 12년도~헤세이 16년도

5 헤세이 16년도 예산액 4, 330천엔

자료: [On-line available], http://www.pref.iwate.jp/~ninaite/new/sien.html.

<표 33> 오키나와현의 지원 조치 내용

사업명	실시주체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신규 취농 촉진 사업	(재) 오키나와현 농업 후계자 육성 기금 협회 (098-866-2280)	신규취농자, 지도 농업사 등	1. 농업 기초 기술의 습득에 의해 취농의욕을 높여 계속적 취농을 지원하기 위해(때문에), 연수에 필요한 경비 일부 조성. · 조성액수 : 월액 5만 엔 이내(1회 한정) · 연수처 : 농업 대학교, 선진 농가 · 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2. 지도 농업사 등이 신규 취농자의 연수를 수락하는데 필요한 경비 일부 조성 · 조성액수 : 월액 3만 엔 이내 · 기간 : 1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농업후계자 육성 시설 연수지원 사업		시읍면 또는 농업단체, 농업 생산 법인, 지도 농업사 등. 연수생은 취농의욕이 높다고 인정되는 40세 이하의 사람	· 시읍면 또는 농업 집단이 실시하는 농업 후계자 육성 시설 등의 연수생에 대해,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조성. 조성액은 월액 6만 엔 이내(6만 엔×12개월=72만 엔) 72만 엔을 상한으로 해, 연수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액수의 2분의 1 이내 지급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okinawa/shien.html.

<표 34> 아오모리현의 신규취농장려사업

사업명	실시 주체	대상자	지원 내용
신규취농촉진자금대부상환면제사업	(회사) 푸른 숲농림진흥 공사 (017-773-3131)	48세 이하의 인정취농자	· 취농초기에 필요한 영농비와 생활비를 75만 엔(신규 참가자는 100만 엔) 이내/1년-2년간 대출 · 아오모리현에 5년 이상 취농해, 5년후의 목표등을 달성tl, 상환 면제
취농준비자금상환면제사업			· 아오모리현에 거치 기간의 최장 5년 이상 취농해, 일정한 요건을 채웠을 경우, 상환 면제
신규취농자 농지확보 지원 사업			· 취농 5년 이내에 현 농촌 개발 공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해, 5년 이상 경작 하는 사람에게 농지 매입가격의 1/5을 공제(상한 15만 엔/10a, 또는 총액 160만 엔/인까지)
신규취농자 OJT 사업		48세 이하의 신규취농희망자를 3개월 이상 받아들이는 농가 등	·연수 농가등에게 연수조성자금지급 (연수생 1인당 5만 엔/월)
「농업을 해 보자」 프로그램 추진 사업	아오모리현 농림수산부 구조 정책과 (017-734-9463)	신규취농자	·「농업을 해 보자」 프로그램 연락 협의회의 개최 · 각종미디어를 활용한 본현 농업의 PR 및 현내외 취농상담회의 개최 · 지역 농업 개량 보급 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도팀에 의한 장기 정점 지도 실시 · 신규취농업연수회 개최·취농상담회 참가

* 인정취농자는, 취농 예정지의 도도부현 지사에 취농계획을 제출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연령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기술·경영을 배우기 위한 연수, 취농을 위한 준비, 시설의 설치나 기계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 가능.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aomori/shien.html.

<표 35> 홋카이도의 신규취농자 지원조치

사업명		실시주체(TEL)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홋카이도 농업 담당자 육성센터 사업	취농촉진의 홍보・상담 활동	사단법인 홋카이도 농업 담당자 육성센터 (011-271-2255) http://ninaite.or.jp/ nc@ninaite.or.jp 수도권 센터 (03-5212-2233) 칸사이 센터 (06-6344-2717	취농 희망자 ·인정 취농자 ·취농 희망자 및 신규 취농자 ·농업 연수자, 체험 실습자, 신규 취농자 등	1.삿포로, 도쿄, 오사카에 취농상담창구를 상설해, 취농상담 실시 2.미치소토 대도시에서의 취농 상담회 개최 3.홋카이도 농업이나 농촌 생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투어 실시 4.홋카이도 농업의 개요, 취농상담, 취농상담회의 개최 안내나 취농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 등(전자 메일에 의한 취농상담에도 대응) ・ 농업외로부터 신규 취농을 목표로 연수하고 있는 인정 취농자를 대상으로 전자 메일에 의한 동료 만들기나 경영관리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PC의 도입 경비의 일부를 조성 ・ 취농 희망자나 취농 후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취농자의 영농이나 생활에 관한 상담을 조언할 수 있는 취농 어드바이저 배치(17명) ・ 농업 연수자, 체험 실습자, 신규 취농자 등의 동료 만들기와 정보교환을 촉진하기위해 도내 각 지역에서 교류회를 개최
	연수교육 체제의 정비		인정취농자	・ 인정받은 취농계획에 근거해 선진 농가 등에서 연수 실시시 셋집에 입주하는 경우, 집세일부 지원
	실천적농업 연수지원사업		농업 연수자·체험 실습자를 받아 들여 지도하는 농가·법인	・ 농업 연수자(인정 취농자)나 체험 실습자를 받아들여 지도하는 농가 등에 대해서, 증가경비 등의 일부를 사례금으로 지급.
	신규취농우량 농업경영자 표창사업		취농 후 10년 이내의 신규취농자	・ 취농 희망자의 취농 계발과 신규 취농자의 경영개선 의욕의 고양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이 되는 우량한 농업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신규취농자 표창
	취농지원 자금 상환 면제		취농지원 자금수혜자 (취농계획 인정 신청시 18~46세 미만)	・ 취농계획에 근거해, 5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의해 상환의 일부를 면제
U턴・신규취농자 기초 연수		홋카이도립농업 대학교 (01562-4-2121)	U턴취농·신규참가자·참가희망자로 연수 실시자	1.기초지식, 기술, 경영관리 연수(농업 대학교) 2.농업기술 경영 실습(농가 연수), 통신교육
농장 리스 원활화 사업		(재) 홋카이도 농업 개발 공사 (011-241-5601)	낙농 부문 취농 희망자	1.농장의 일시 대출 후의 매도 2.영농 조건의 정비(농용지의 정비, 가축 관리용 시설의 정비, 중고 농업기계의 도입, 유용소의 도입) 3.경영 자금 이자 지급
21세기 농업 프런티어 융자 사업		홋카이도 농업 경제과 (011-231-4111) 내선27-272	홋카이도내에 거주하되, 농업생산기반이 거의 없고, 향후 새로 투자하여, 본격적인 농업을 실시하려는 40세 이하의 인정 농업자	1.슈퍼 L자금의 금리 인하로, 이자 조성 2.농협전대의 경우, 기금 협회의 채무보증 받음.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hokkaido/shien.html

3)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 현 농업자대학교, 농촌청년강좌제도, 농촌청소년 해외연수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의 연수비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는데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연수가 있다.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는 장래 농업을 짊어질 농업자상을 전망하고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농업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농업자를 육성한다는 목적 하에 1968년에 설립되었다. 입학정원은 각 년도 총 50명이며 교육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고 스스로 학습하는 마음자세를 기른다.

둘째, 3년의 교육기간을 통해 집합교육, 현장실습 등의 교육과정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 교육효과를 증대시킨다.

셋째, 소수정예교육에 의해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계발하고 적성을 살리기 위해 전공교육 지도관을 배치하는 동시에 교육ㆍ연구 및 지도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한다.

넷째, 집합교육기간중에는 전원 기숙사에 입학시켜 기숙생활을 통해 자기 확립과 집단 활동의 의의를 터득시켜 지역사회에 있어 중핵자로서의 인격형성을 도모한다.

<표 36> 나가노현의 농업기술연수사업

사업명	대상자	사업 개요
농업자 대학교 영농 학부	입학자	영농학과 : 작물(원예 작물을 포함한다)의 재배, 가축의 사육 및 농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농업경영자 양성. *연구·실과 : 농업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실용적 지식을 습득시켜, 농업 경영자를 양성한다.
선진적 농업경영체연수사업	대개 30세 미만의 사람	현내외의 선진적 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 및 농업 생산 법인 등으로의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 농업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득한다.
농업 연수생 해외파견사업	18세부터 30세까지의 청년	국제적 시야와 뛰어난 경영 능력을 기르기 위해, 미국 및 유럽에서의 1년-2간의 장기 연수 실시 실시 주체(회사) 국제 농업자 교류 협회
청년 농업자 연수 사업	대개 30세 미만의 농업 취업 청년	* 기초 강좌 : 농업 경영 및 농가 생활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 파머 육성 강좌(NF강좌) : 작 농별의 전문 기술, 지식의 습득과 경영관리 능력 및 실천 능력을 기른다. * 종합 강좌 : 지역 농업의 담당자 및 경영체의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고도의 이론을 학습한다.
숙년 농업자 강좌 개설 사업	대개 40세 이상 65세까지 농외산업 이직취농자	전문 기술의 시찰이나 작목별 전문 기술의 습득, 동료 만들기 등 농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격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강좌제 연수를 실시한다.
여성 농업자 세미나 개최 사업	대개 40세 미만의 여성 농업 종사자	농촌을 담당하는 농촌 여성으로서 필요한 농업 및 생활 등에 관한 기초적 지식 기술을 습득한다.
	대개 40세 이상의 여성 농업 종사자	작목별의 농업 경영·생산기술, 생활 기술급농촌의 당면하는 과제 해결을 위한 연수를 실시해, 지역 리더를 양성한다.
	강좌제 연수 수료생	농촌 생활개선 실천 집단의 조직화,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선진지에의 시찰 연수 등을 실시해, 지역의 톱 리더를 양성
농업기계이용 기능연수	실시 요령에 정한 자격구비자	트랙터등 농업기계의 구조·기능·조작의 기본, 안전 사용 등의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다. 대형 특수(농경차), 견인 면허의 취득 가능.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nagano/shien.html.

이들외에도 취농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일본 전역에 35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립 농업자 대학교도 있고, 현 취농지원센터도 있으며, 농업전문학교나 농업공사, 농업학원, 연수 센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37> 톳토리현의 취농 지원 내용

사업명		실시 주체(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인정취농자 종합지원사업	취농지원 자금 상환 면제 사업	(재) 톳토리현 농업 담당자 육성 기금 (0857-26-7276)	인정취농자로, 취농연수자금을 빌려 취농한 사람	· 취농업 연수자금의 차수자가 일정기간 취농했을 경우, 그 상환액의 7할을 한도로 면제
	취농기반 정비 사업	농업 협동 조합 시읍면 농업 공사 인정취농자	인정취농자	· 취농시(5년간을 한도)에 필요한 기계, 시설을 농협이 대여 또는 인정 취농자가 정비 * 사업비 : 1 인당 2,000만 엔을 한도 * 보조율 : 현1/3, 시읍면1/6
	농지 임차료 조성 사업	시읍면		· 농지를 차입해 취농 하는 경우, 농지의 임차료를 취농시부터 5년간 조성 * 조성액수 : 연 1명 당 20만 엔을 한도 * 보조율 : 현1/2, 시읍면1/2
	취농주택 설비 사업			· 시읍면이 빈 집 등의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수선, 개조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성, 또는 주택의 대차료를 취농으로부터 5년간 조성 * 조성액수 : 1호 당 100만 엔을 한도(수선, 개조비) 월액 2만 엔을 한도(임차료) * 보조율 : 현1/2, 시읍면 1/2
현 농업 농촌 정비 사업		시읍면 토지 개량구	신규취농자	· 신규취농자의 농지의 조건 정비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성 * 보조율 : 현 50%, 시읍면 30%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tottori/shien.html.

<표 38> 아오모리 현내 지역별 취농사업

시읍면	사업명	대상자·조건	지원 조치의 내용	창구·문의처
츠루타쵸	농업 후계자 신규 취농 조성 사업	1. 대상자 마을에 주소를 가지는 자 또는 가지는 것이 확실한 사람으로, 새롭게 농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사람, 농업에 대한 학습 의욕이 높은 일 2. 조건 (1) 아오모리현 21농업 실천 강좌의 수강 및 아오모리현 청년 농업기술사에 의한 현지 농업 기술지도 연수에의 참가 (2) 마을 농업 후계자회 「츠루타쵸 미도리의 회」에의 입회 (3) 연수 또는 농업에 대한 리포트 제출	· 취농시부터 월액 5만 엔의 보조를 12개월 받게 된다. 그외 각종 신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츠루타쵸 산업과 TEL : 0173-22-2111
이타야나기마치	신규취농자 주택 임대료 보조금	1. 대상자 (1) 18나이 이상 55세 미만 (2) 현 지사의 취농 계획 인정 2. 조건 취농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자	· 거주하는 셋집의 집세 월액(사례금, 보증금을 제외하다.)(으)로 해, 입주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에 월분의 집세를 대상으로 해, 40,000엔을 한도에,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를 보조한다.	이타야나기마치 경제과 TEL : 0173-73-2111
와키노사와무라	농업 실무 연수	1. 대상자 와키노사와무라에서 신규취농 하는 사람	· 희망 영농 유형에 응한 연수 코스를 설정해, 연수 기간 중(3년 이내)은 마을 농업 진흥 공사로부터 노동 보수를 지급한다.	와키노사와무라 산업 경제과 TEL : 0175-31-5051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aomori/shien.html.

<표 39> 야마가타현의 지원 조치 내용

사업명	실시 주체 (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야마가타현 농업 진흥 기구 지원 사업	(재) 야마가타현농업 진흥 기구 (023-635-0589)	야마가타현 농업종사자, 또는 예정자로 만 30세 미만자. 다만 U턴 및 신규 참가자는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사람. 인정취농자	1.뉴파마 경영 안정 가속 사업 · 경영을 개시할 때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사업비의 1/2 상당액). (상한 100만 엔) 5명
		야마가타현 농업종사자나, 예정자로 취농시설등 자금을 빌려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채무 보상을 받는 사람. 인정취농자	2.취농시설당자금보험료 보전 사업 · 기금 협회에 대해 지불하는 보증료와 동액을 조성한다. (보증료 0.29% 융자범위 2,000만 엔)
		국내 및 국외의 경영체에서, 대개 1년 이상의 연수,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현외, 국외의 선진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	3.연수등 활동 지원 사업 · 연수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경비 국내외에서의 장기 현지 연수에 대한 조성 (보조율 : 정액(상한 50만 엔)) 8명 · (독일) 농업자 대학교의 수학비에 대한 조성 (보조율 : 수학비의 6/10 이내) 10명 · 국경을 넘어 무사 수행 사업 브라질 2개월간 연수(현 국제실 관련 사업) (보조율 : 정액 30만 엔) 5명
		농림 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는 단체 및 집단.	.건강한 농업의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 · 신규취농의 지원, 인수태세 만들기에 대한 조성 (보조율 : 정액(상한 12만 엔)) 4개소
신규취농자 정착 지원 리스 사업	(재) 야마가타현 농업 공사 (023-641-1105)	농대의 특정 연수 과정, 또는 신규취농 희망자, 긴급 정착 사업에 의한 연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혹은 이에 동등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자로 인정된 자로 40세 이하. 인정 취농자	· 경영 개시에 임하여 농지, 농업용 기계·시설을 빌리는 경우, 차입대의 1/3 이내의 액(상한 533,000엔/년)을 3년간 조성
농업 대학교 특별 연수 과정 사업	야마가타현립 농업 대학교 (0233-22-1527)	신규취농희망자	· 취농에 필요한 기초적 기술(생산~판매) 습득 때문에, 실습을 주체로 한 학습을 실시하는(연수 기간 1년간)
농업 경영 혁신 지원자 지도 사업	야마가타현농업 회의 (023-622-8716)	야마가타현에의 신규취농희망자(40대까지)	1.농업 경영에 흥미가 있어, 타산업의 경영경험이나 지식있는 자를 본회에서 고용해, 월액 125,000엔을 지급. 2.야마가타현내에서 신규취농 또는 농업 법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을 선진 농가 등에 파견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yamagata/shien.htm l.

<표 40> 나가사키현의 지원 조치 내용

사업명	실시 주체(TEL)	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신규취농지원 세미나 사업	현 농업 경영과 (095-823-1180) 현립 농업 대학교 (0957-26-1016)	신규취농자 (3년째까지) 신규취농희망자	1) 신규 참가 코스(4일간×3회) 농업대학교에 대해 신규취농희망자에 대한 농업기초강좌 2) 청강생 코스(약 2개월) 개인별 커리큘럼으로 농업대학교의 강의의 청강 및 실습
신규취농촉진 사업	농업 회의 (095-822-9647)	신규취농희망자	1) 현내 헬로우워크 등과의 제휴해, 취농 지원 정보나 취농업연수 수업정보를 제공해 농업 종사에 대한 관심 조성 2) 취농희망자등이 취농후보지의 선진 농가나 농업법인등에서 반년간 정도의 실천 연수를 실시해, 취농촉진
지역 취농지원 센터 활동 사업	지역취농지원센터 (사무국 : 농업개량 보급 센터)	신규취농자 신규취농희망자	1) 취농후보지에 있고, 지역취농지원 센터(농업개량보급센터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가 신규취농 희망자의 취농계획에 대한 지도 조언과 취농 지원 실시 2) 신규취농자(취농 후 3년째까지)에 대해서, 카운슬링· 컨설팅을 통해 상세한 follow up 실시
담당자육성강화 지원 사업	시읍면	신규취농희망자	1) 신규 취농자 육성 사업 연수생의 연수 기간중의 최저 생활비를 조성
실천연수농장 등 추진 사업	시읍면	신규취농희망자	1) 연수 농장 설치 기획 추진비 2) 연수 농장 관리 운영비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nagasaki/shien.html.

현 농업자대학교는 각 현의 지역농업실정이나 사회정세에 맞는 농촌청소년에 대한 고도의 기술능력 및 경영관리능력을 습득시킴과 함께 농업자로서의 폭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협동정신을 증대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내용은 실천적인 영농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경영실천학습을 중심으로 하며 실습포장에서의 모델농장경영 또는 선진농가파견학습에 의하여 지역농업의 실정에 맞는 실천적 연수교육으로 하며, 그 연수예상자로는 고졸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2년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현 농업자대학교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을 둘러싼 주변 정세에 대응하여 적절하고 원활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현 농업자대학교 설치운영기획추진사업을 197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도부현이 사업실시주체가 되어 농민연수교육시설 운영기획회의개최와 농민연수교육실시에 대한 홍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청년 강좌제도는 농업후계자가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즉 기초강좌(농업경영ㆍ농가생활의 근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실무적인 지식 및 기술), 전문강좌(고도의 전문지식ㆍ기술 및 경영관리 조직화 등) 및 장래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강좌를 강좌내용으로 하는 농촌청년강좌제 연수사업이다. 이 제도는 농업개량보급소가 현 농업자대학교 및 시험장 등과 연계하여 관내 고졸 이상의 농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집합연수와 자가 학습을 병행하여 3년동안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농촌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은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선진국의 우수한 농가에 파견하여 선진농업경영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해외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청소년 해외연수는 농업실습생 파견사업과 단기연수가 있다.

농업실습생 파견 사업은 국제농우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52년 미국에 농업실습생을 처음 파견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덴마크,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 1년간 파견되어 우수한 농가에 들어가 농가의 일원이 되어 일하면서 학습하게 된다.

단기연수는 농업시찰을 주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가 주최하여 유럽 및 미국 지역에 3주내 외로 실시하는 농촌청년파견시찰연수제도가 있다. 단기연수는 농촌청년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다.

전국 농촌청소년교육진흥회는 1962년 설립되었으며 농촌 청소년의 농업 및 농사생활의 실천적 학습활동을 조장하여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연수, 농촌 청소년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 청소년 육성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全國 農村靑少年 敎育振興會, 2001).

① 청년 농업자의 집단육성 및 집단 활동의 조장에 관한 일
② 청년 농업자의 선진지역 유학 연수의 알선 및 원조에 관한 일
③ 청년 농업자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원조에 관한 일
④ 청년 농업자의 육성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정비에 관한 것
⑤ 청년 농업사 및 지도농업사의 활동조장에 관한 일
⑥ 청년 등의 취농에 대한 계발 및 연수에 관한 일
⑦ 취농지원자금의 관리사무의 수탁과 운영에 관한 일
⑧ 야츠가다케 연 수관에서의 청년 농업자교육에 대한 각종 연수에 관한 일
⑨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4) 농업후계자의 자주적 집단 활동조장

농업후계자에 대해 농촌사회인으로서의 협동정신을 증진하고 자질을 개발하는 동시에 농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집단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농촌청년이 실천을 통해 습득한 사업 활동의 결과를 교환하는 농촌청소년기술교환대회, 농업경영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법 및 발전방향을 현 또는 전국단계에서 연구ㆍ검토하는 청년농업자회의, 농촌청소년단체의 지도자에 대한 단체운영방법 등을 주로 현단계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농촌청소년지도자연수 등의 사업을 통해 농업후계자의 집단생활을 조장하고 있다.

5) 청년농업사제도

농업사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시켜 전업적 열등감을 없애주고 엘리트 농가를 선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자 1967년 나가노현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농업사제도는 청년농업사육성사업과 지도농업사활동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청년농업사육성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청년농업사제도는 농업자로서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자립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질을 향상시키고 연대감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농업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외에 현단계 또는 보급소단계에서 수시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년 1회 선진지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청년 농업사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청년농업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자교육실시에서 고교졸업과정이상의 연수교육 또는 강좌제연수를 이수한 자
② 일정한 영농경험을 갖고 장래에도 영농경험을 실천하여 지역농업의 추진자가 될 35세 미만의 자

③ 농촌청년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

④ 현부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

지금까지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과 취농자 유치 사업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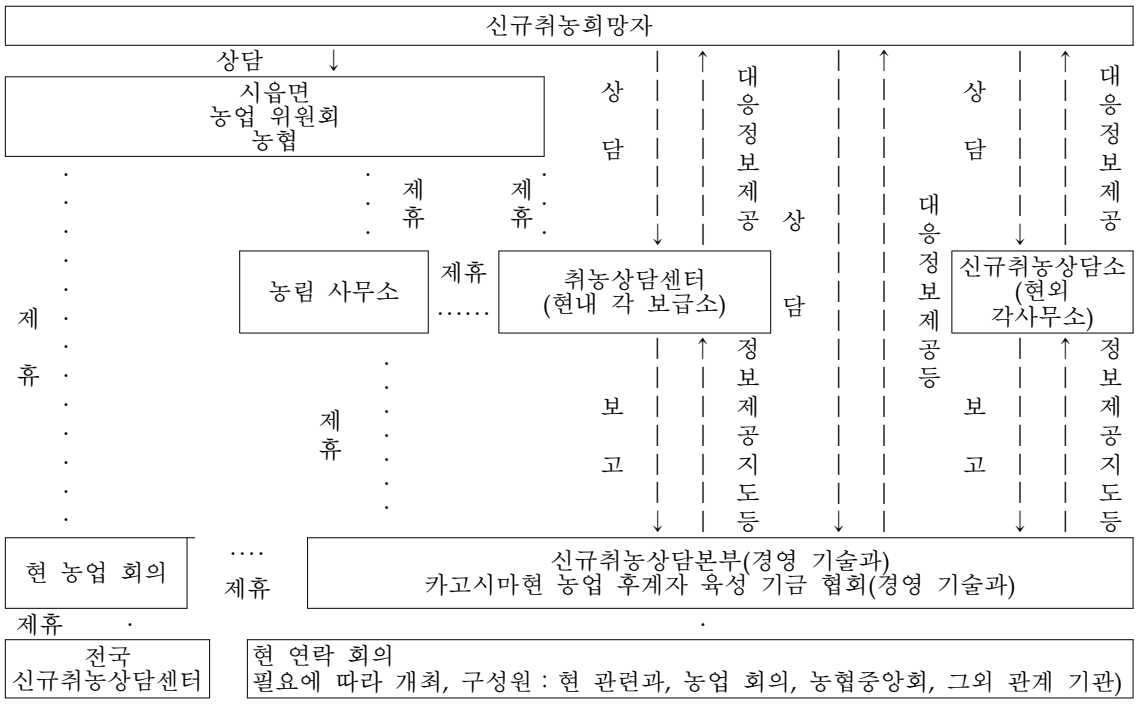
첫째, 성장단계별로 일괄적인 교육지도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농업에 대해 친근감을 갖도록 농업체험학교를 개최ㆍ운영하고, 고교졸업예정자에 대한 푸른학원 개최사업을, 고교 졸업 후 취농중인 자에게는 강좌제연수사업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후계자를 교육ㆍ지도하고 있다.

둘째, 지도력이 있고 영농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른 농촌청년에게 청년농업사제도를 통해 농촌청년의 사회적 평가를 제고시켜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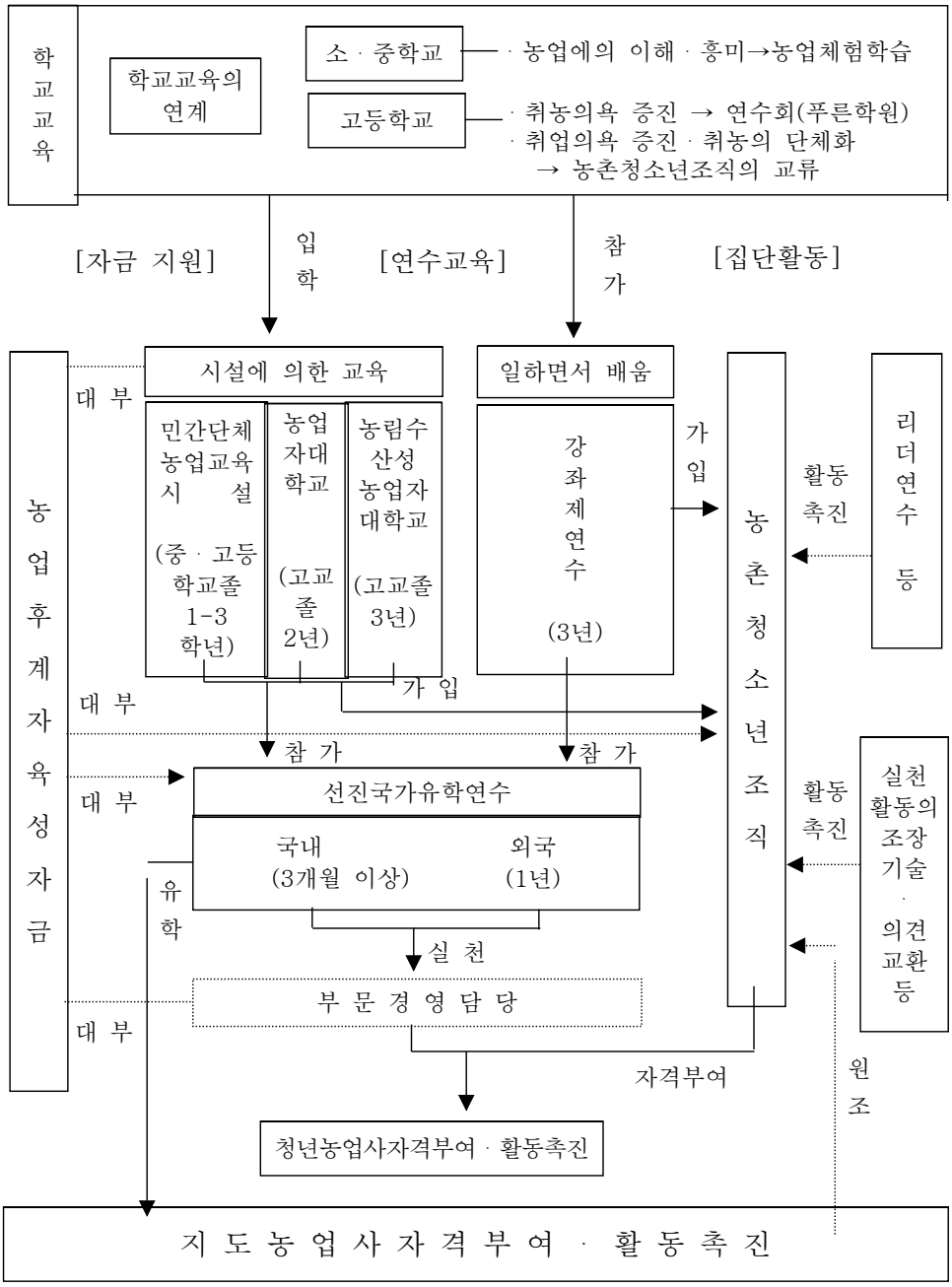
셋째, 각 도도부현은 다양한 취농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Homepage와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지정하여 전화나 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고, 각 도도부현의 홈페이지는 그 지역의 취농사례, 교육기관,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자금 지원, 취농상담센터의 전화번호와 주소등을 안내하며, 상담센터는 청년농업자육성센터, 농업회의, 농촌청소년 육성 재단등의 귀농인력육성이나 확보와 관련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행정 부서를 지정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의 협력을 통하여 취농에 대한 상담,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 및 연수 기관 안내, 자금 대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이들은 여러 관련부서들이 협력하여, 취농자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이들은 각 지역에 있는 취농준비학교나 프로그램과도 관련을 맺고 있으며,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조직은 전국적인 연계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착실히 정착되고 있다. 이는 자질이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ㆍ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매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 환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신규취농자의 확보를 지원하여 지역농업진흥의 중간적인 담당자로서 의욕과 능력을 갖춘 농업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시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kagosima/ippo.html.
<그림 4> 카고시마현의 취농상담 지원 체계



자료 : 조흥수 · 전영길(1991). 일본과 대만의 농업후계자 육성사업. 안성농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23호. p.20.

<그림 5> 일본의 영농후계자 육성 체계도

자료: http://www.nca.or.jp/Be-famer/miyagi/ippo.html.
<그림 6> 미야기현의 신규 취농 흐름도

나. 미국

미국은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은 없다. 다만 귀농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업분야 자금 지원과 각종 재해에 대한 자금 지원, 신규 창업자들에 대한 자금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농업분야의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의 사업들로 구분된다. 미국은 도시지역의 확대로 인하여 농촌과 도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농촌지역은 대개 인구가 적은 town 지역을 말하고, 도시와 도시간의 주변부 지역으로서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을 말한다. 농촌지역 학생수의 비율은 농촌을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나, 25000명이하의 인구가 핵심도시가 없는 주변부의 인구가 분산된 형태로 되어있는 지역을 농촌으로 파악하는데, 전체 학생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27%정도이다. 이들 지역은 학생수의 부족이나, 통학거리, 우수한 교사의 확보, 시설과 설비의 문제등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데, 이들 지역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각종 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이 있고[22], 이들 지역의 주민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harter School제도[23]나, 농촌지역 학교의 학업성취도 저하로 인한 학부모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Voucher 제도와 학교 선택권 제도, 농촌학교들의 성취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the Rural Education Achievement Program, REAP)의 운영[24], 지역 학교에 근무할 교사들의 질적 제고를 지원하는 보수나 비급여적 지원[25]등의 내용이 있다. 특히 귀농인들과 관련된 농업교육활동은 학교단계와 학교

22) 이에 대한 연구기관들은 Appalachia lab을 중심으로 the Rural School and Community Trust나, Rural Educational Laboratory, NCREL, 미국교육통계연구소 농촌 분과등이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아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다양한 농촌분야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3) 미국 교육통계센터의 학교와 교직원 조사(1999-2000)에 따르면 공립초등학교는 공립협약학교(public charter school)의 수가 586개교중 농촌이 69개교로, 특별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프로그램 60.2%, 영재프로그램 35.4%, 외국 언어 프로그램 11.6%, 규율이나 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32.4%, 의료보호서비스 13.7%, 방과전/후 주간보호나 연장보호프로그램은 34.6%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협약학교나 병설학교는 424개교중 농촌은 81개교가 있고, 특별수업방법 적용프로그램은 75.2%, 영재프로그램 27.3%, 외국언어프로그램 13.6%, 규율이나 부적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63.7%, 의료보호서비스 27.9%, 방과 전/후 주간보호서비스나 연장프로그램은 24.9%, 상급코스(Advanced Placement Course) 41.8%, 국제학사학위 0%, 전문진로아카데미는 29.1%, 전문화된 Tech-Prep프로그램은 20.6%였다.

24) REAP 프로그램은 NCLB법의 Title VI, part B자금을 말하는데, 농촌지역의 재정적 지원과 융통성을 제공하게 위하여 지원되었다. 농촌지역의 학생등록율에 따라 영향 받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성취를 개선하기 위한 자원제공을 말한다. 소규모와 저소득 지역의 자금보조와 다양한 연방자금을 통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에서 제공되는 자금은 교사자질자금, 지역교육공학 자금,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지원 자금, 학교 혁신자금등이며, 이들 자금을 통합하여 교사의 충원, 전문적 발달, 교육공학, 부모의 참여활동 지원, 안전하고 마약없는 학교 프로그램에 포함된 활동, Title I, Part A자금, 이중언어와 긴급이민자 교육과 같은 활동에 통합하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개 6000개의 학교들이 현재 REAP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5)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주는 급여의 상향, 보수 급여 기준 상향, 초임자의 최소급여기준 설정(23개주)등의 방법과 충원이 어려운 교과나(수학,과학, 외국어등), 지리적으로 불리한 학교 교사들에게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거나(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대학생에게 장학금이나 학자금 보조(28개주), 자금과 대출자금면제, 주택제공이나 주택자금의 저금리 대여, 이사와 재배치 지원(컴퓨터 및 이사비 보조), 교사를 위한 세금 지원, 전국자격 취득 신청 지원($2000; 39개주 200지구), 낮은 성취 지역 학교 근무 교사를 위한 보너스 지급(뉴욕주는 $10000, 캘리포니아주는 $20000지원)등의 장단기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Jimerson, 2003).

외 단계의 학습자들을 위한 각종 형태의 교육활동과 농촌지도활동이 관련될 것이다.

각 급 학교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탐색을 지원하는 미국영농학생회(Future Farmer in America, 약칭 FFA), 전국청년농부교육협회(National Young Farmer Educational Association), 미국중등후기농업학생조직(National Postsecondary Agricultural Student Organization, 약칭 PAS)와 4-H사업, 영농학생회 재단(FFA Foundation)을 비롯한 농업교육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인 TeamAgEd의 농업교육 지원 활동, 정규학교에서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탐색을 도와주는 교사모임들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운영이 있고, 청소년들의 과제자금 지원, 취농자들의 창업자금지원제도, 농업에 대한 각종 재해를 지원하는 재해 지원 사업과, 귀농자와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농촌학교 교육과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들이 이에 해당한다.

귀농자들에 관련된 정책은 일차적으로 농업정책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농업정책

미국의 농업정책은 1996년 농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식부면적의 적절한 통제와 소득 및 가격지지 정책을 통하여 농민의 소득을 지지함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지나친 가격 지지는 농산물 공급의 과잉 문제를 초래하여 재정적자 누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재고 누증과 수출 보조로 인한 세계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출 침체로 농산물협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UR 협상결과를 이행하던 1996년에 농업법을 제정하여 과거와는 달리 소득보상과 지원을 생산이나 가격에 연계시키지 않고(decoupled income support)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농정의 골격을 전환하였고, 예기치 못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안정 장치로 다양한 작물재해보험 정책을 도입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미국의 농업정책은 크게 재해 대책, 가격 정책, 소득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농가경영 및 소득 불안정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보험, 수입보험제도의 확충과 다양한 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재해대책이다. '96년 이전에 있었던 작물재해보험은 '96년 농업법 제정을 통하여 보조율이 증대되었고, 특히 '94년에 CAT (Catastrophic Insurance)를 제정하여 최저한도의 보험으로 작물별로 연간 $ 60을 내면 50%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보조율이 확대되었다.

둘째, 국내 및 세계시장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농민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융자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마케팅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와 융자부족지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를 통해 가격대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셋째, 이전에 미국 농정의 근간이 되었던 부족지불제도(1973년 농업법)와 생산조정제도(1933년 농업조정법)를 폐지하고, 식부의 자유화를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제도(생산자율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2000-2002년간 새로운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을 도입한 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농림부 농장 서비스부는 재해지원, 농장자금, 생태계보전, 가격지지, 상품, 환경, 상품신용회사, 원조계획, 담배정보등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하고 있다.

미국 농림부 농장 서비스부는(FSA) 농장 생산물과 보전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상적인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농민들에게 자금을 만들어준다. 원조계획프로그램 담당자는(The Outreach Programs Staff) 농장서비스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하여 농업인과 축산인에게 알려주며, 불리한 농부들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이나 소수민족집단의 구성원을 비롯한 FSA프로그램에서 덜 지원되었던 참여자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은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의 농부나 목부, 제한된 자원의 토지소유자나 경영자, 소수민족집단(아메리카인디언, 알래스카원주민, 알류산 사람들), 여성, 물리적으로 도전받는 집단이나 FSA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한된 이익을 받은 사람, 종교적 소수파 구성원, 소규모 특수작물 재배자, 유기농 재배자, 그 지역의 대다수 농부와는 다른 생산실제를 가진 농부들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

이들 외에 농림부 농촌개발부서는 주택구입에 대한 안내와 법인 사업에 대한 안내, 농기계와 장비판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소유재산으로서 단일가족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사업법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판매를 담당하며, 이들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농장자금프로그램으로서 농장서비스부서의 참여로 이루어진다.[26].

가) 가격대책

① 가격지지융자제도(1933년 농업조정법)

가격지지융자제도는 융자단가(loan rate)에 의하여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1933년 농업조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최저가격지지에 의한 소득보장효과가 있다.

농가는 농산물을 담보로 하여 상품신용공사(CCC)로부터 융자단가(loan rate) 수준으로 최대 9개월간의 단기융자를 받는다. 농가는 농산물 생산하여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높으면 시장에 판매하여 융자를 상환할 수 있다. 만약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보다 낮으면 농산물을 그대로 담보로 처리되어 상환한 것으로 간주된다.

융자단가의 수준은 1950년대까지는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농가의 소득보장수준에 시장가격을 유도하는 것으로는 수출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보장과 곡물의 시장가격 수준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융자단가에 소득보장기능을 가지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출 가능한 시장가격수준으로 융자단가를 인하하는 한편, 농가의 소득은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정책의 조합을 시도하였다. 1973년 농업법에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목표가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것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하회하면 융자단가)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부족불제도(loan deficiency payment)인 것이다. 시장가격이 융자단기를 상회할 때는 농가는 작물을 시장에 팔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부족불로서 수취한다. 또,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하회할 때는 농가는 작물을 융자단가로 담보 설정하고, 융자단가와 목표가격과의 차액을 부족불로서 수급한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는 시장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든 농가는 목표가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가가 획득한 목표가격 수준은 같아도 융자단가 수준을 변경하면, 목표가격을 구성하는 재정부담 부분과 소비자부담 부분이 변화한다. 낮은 융자단가는 낮은 시장가격을 유도하여 소비자부담이 경감되지만, 재정부담은 증대한다. 미국에서는 수출 가능한 수준으로 시장가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융자단가 수준을 인하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융자단가는 품목별로 과거 5년 중에서 최고와 최저년도를 제외한 3년

26) 이 부분은 http://www.resales.usda.gov/에서 판매중인 자산을 볼 수 있다.

간 평균가격의 85%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부족불제도는 소득보상과 동시에, 수출보조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② 마케팅론(marketing loan)제도(1983년 농업법)

마케팅론제도는 융자단가와 시장가격(또는 국제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융자단가보다 낮은 상환단가(repayment rate) 수준에서 재고를 처리하는 경우 농가에 융자단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국제가격 수준에서 농가의 재고처분을 촉진하여, 공공재고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융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은 수출보조금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생산조정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면 상품신용공사(CCC)에 재고가 누적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환단가를 융자단가보다 낮게 설정하고, 상환단가 수준에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수출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과잉재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쌀, 면화를 대상으로 1985년 농업법에서 제도화되어 90년 농업법에서는 대두 등 유지작물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 소맥과 사료곡물에 대해서도 농무성 장관의 재량으로 재고감축 필요에 따라 상환단가의 변경이라는 형태로 같은 내용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마케팅론의 품목별 가격지지효과는 <표 41>과 같다.

이처럼 미국은 가격지지에 의한 국내가격의 최저수준을 지지하면서, 융자단가보다 낮은 국제가격 수준의 상환단가를 설정하여 과잉생산을 일종의 덤핑수출로 해결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표 41> 미국 마케팅론(marketing loan)의 가격지지효과, 1999년 (단위:달러/부셀)

구분	평균 시장가격 (a)	마케팅론 이익 (b)	평균 단위당수익c(a+b)	1999년도 융자단가(d)	단위당 수익증가분(c - d)
옥수수	1.80	0.23	2.03	1.89	0.14
사탕수수	1.55	0.25	1.80	1.74	0.06
대맥	2.15	0.14	2.29	1.59	0.70
귀리	1.10	0.19	1.29	1.13	0.16
소맥	2.50	0.40	2.90	2.58	0.32
대두	4.65	0.85	5.50	5.26	0.24
쌀	6.10	1.80	7.90	6.50	1.40
면화	0.45	0.20	0.65	0.52	0.13

주 : 단위에서 쌀은 달러/cwt(=45.36kg), 면화는 달러/파운드임.
자료 : 김태곤(2001).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서울: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4.
원자료 : Analysis of the US Commodity Loan Program with Marketing Loan Programs, 2001

③ 융자부족불제도(1985년 농업법)

마케팅론과 동일한 정책의도를 가진 제도로서 1985년 농업법에서 도입되어 계속되고 있는 융자부족불제도(loan deficiency payment)가 있다. 이것은 가격지지융자를 받을 자격을 가진 생산자가 융자를 받지 않는 경우 융자단가와 상환단가(마케팅론의 상환면제 상당분)의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서 농가의 재고처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융자를 받지 않는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것이 특징이며, 곡물의 국제가격이 대폭으로 하락한 1998년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8년도는 전년도 이상으로 가격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지불단가, 적용수량 모두 증가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 등 3품목의 지불총액은 49억 93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소맥이 83%, 대두가 88%, 옥수수가 77%에 달하고 있다.

나) 소득대책

① 생산자율직불제도(1996년 농업법)

생산자율직불제(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는 1996년 농업법에 의하여 생산조정과 연계한 부족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고정된 금액을 매년 지불하는 직접지불제도로서 도입되었다. 1996-2002년 7년간 총액 356억 달러가 지불되었다.

이 제도는 ① 생산자율계약을 1996년부터 7년간 농무성(USDA) 장관과 생산자간에 체결하고, ② 자격자는 과거 5년간 생산조정과 연계한 가격지지 또는 부족불계획(소맥, 옥수수, 대맥, 수수, 귀리, 쌀, 면화)에 한 번이라도 참가한 적이 있는 자이며, ③ 적용대상은 계약면적(1995년 기준 면적)의 85%에 대하여 실시하며, 단가(부셀당 금액)는 매년 지불액을 계약생산량(계약면적×계획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수급조건은 '계약면적을 농지로 이용할 것'과 '보전준수 의무를 지킬 것' 등 2가지이다. 여기서, 보전준수(conservation compliance)란 침식받기 쉬운 토지가 농장내에 있는 경우는 토양보전국이 인정하는 토양보전방법을 사용하는 농법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1998년 이후 곡물가격하락으로 직접지불만으로는 소득손실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임시적인 긴급대책으로서 직접지불에 추가한 시장손실지불(market loss payment) 등을 매년 강구하고 있다<표 42 참조>.

농산물 가격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손실지불은 1998년부터 4년간 175억 달러나 지불되고 있다. 시장손실지불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재정상황에 따라 의회의 판단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이러한 성격의 시장손실지불에 대하여 부시정권하 농무성(USDA)는 2001년 6월 '감축대상정책(Amber Box)'으로 WTO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하락하는 가격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감축대상에 해당된다. 실제 처리방법은 일단 감축대상정책으로 인정한 후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용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은 WTO 협상 등에 있어서는 보호감축과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도 이를 강요하면서도 국내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서는 농업보호를 강화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표 42> 긴급대책 규모, 1998-01년산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2001년산	계
시장손실지불	29	55	55	46	185
기타	31	32	16	9	88
총 액	60	87	71	55	273

주 : 기타는 대두 · 축산 · 과수농가 지원, 재해보상(보험료보조) 등의 합계
자료 : 김태곤(2001).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6.

② 직접보조금 제도

미국정부의 농민들에 대한 직접보조금(생산자율계약 직접지불+융자부족불+긴급지원+토양보전지원 등)은 1996년의 73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233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표 43 참조>.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소득 보전정책에 따라 시장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0년도 농가 순소득은 456억 불로서 1999년보다 22억 불이 증가하였으나 이 금액은 증가된 정부 직접지원액 27억 불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43> 미국의 연도별 농업소득과 정부보조금액 (단위 : 10억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현금수입	199.1	207.6	196.6	188.6	194.5
정부직접보조(A)	7.3	7.5	12.2	20.6	23.3
생산자율계약제	6	6.1	6	5.4	5
융자부족불지불	-	-	1.7	5.9	7.2
긴급지원	-	-	2.8	7.8	8.9
기타	1.3	1.4	1.7	1.5	2.2
순 농업소득(B)	54.9	48.6	44.6	43.4	45.6
비율(A/B),%	13.3	15.4	27.4	47.5	51.1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P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자료: USDA/ERS Agricultural Income & Finance Situation and Outlook(2000)으로부터 재구성

정부 보조에의 의존도는 특히 곡물류에서 심해, 소맥은 농가 수입의 41.5%, 쌀은 50%가 보조금 수입이고, 면화도 44.6%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99년도 쌀농가의 총수입 25억 6,900만 달러 가운데, 실제로 시장판매수입은 절반인 12억 8,400만 달러이고, 나머지 절반은 직접지불 4억 6,600만 달러(18%), 긴급직접지불 4억 6,500억 달러(18%), 마케팅론 수입 3억 5,400만 달러(14%)로 구성되어 있다<표 44 참조>.

<표 44> 주요작물의 수입 구성 (1999곡물년도)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소맥	사료곡물	쌀	면화	합계
시장판매수입	5,756 (58.5)	19,650 (70.0)	1,284 (50.0)	3,673 (55.4)	30,363 (64.2)
직접고정지불	1,447 (14.7)	2,947 (10.4)	466 (18.1)	616 (9.3)	5,476 (11.6)
긴급직접지불	1,447 (14.7)	2,947 (10.4)	465 (18.1)	613 (9.2)	5,466 (11.6)
마케팅론지불	953 (9.7)	2,316 (8.2)	354 (13.8)	1,697 (25.6)	5,320 (11.3)
토양보전지불	235 (2.4)	392 (1.4)	- -	33 (0.5)	660 (1.4)
총수입	9,835 (100.0)	28,249 (100.0)	2,569 (100.0)	6,632 (100.0)	47,285 (100.0)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농정의 변화와 WTP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 USDA

③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ance Program)

2000-2002년간 새로운 보완적 소득지원정책(SIAP: Supplementary Income Assistence Program)를 도입하였다. SIAP의 도입배경은 국제농산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자 농가소득문제를 기존의 작물보험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농가가 품목별 수입보험에 가입하여 70%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지속적 가격하락국면이 1년에 그치지 않고 2-3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각한 소득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SIAP는 품목별로 예상조수입이 과거 5개년 평균 수입의 92% 이하 일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밀, 쌀, 면화, 유지종자, 옥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불금액의 크기는 작물년도 초기에 매년 정해지며, 농가지원은 농민의 실제 생산수준에 기초하여 지불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농업소득이 적은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농민당 지원 금액을 3만 달러 이내로 하고 있다. 2000년 예산은 6억불이었으며, 2001년에는 25억불로 증가하여, 2000-1년 동안 총 31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고, 이 정책

은 품목 특정적이며, 현재의 특정 품목 재배농가의 생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WTO 농업협정문의 허용대상정책(Green Policy)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초 미 농무부는 이것은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였으나 미 의회의 반발로 인해 최근 허용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WTO에 통보한 미국의 국내보조 내역은 아직도 1997년까지로 정확한 미국의 분류체계는 알 수 없다.

다) 재해대책

① 작물보험

현재 미국의 농업재해대책은 재해지원과 여러 작물재해보험(MPCI, CAT, GRP)으로 중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작물보험은 1938년 창설되어 '39년부터 보증을 시행하였으며, 몇 단계의 개편을 거쳐 현재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 MPCI(Multiple Peril Crop Insurance) : 통상적 작물보험

㉯ CAT(Catastrophic Insurance) : 최저한도의 보험으로 작물별로 연간 $60을 내면 50% 이상의 재해에 대해 보상

㉰ GRP(Group Risk Protection) : 지역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개인적으로 수확량 감소가 되지 않더라도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민의 재해 대비 노력에 유인

작물보험의 가입률은 초기에는 낮았으나, '80년 연방적물보험법 개정, 1994년의 연방작물보험개혁법에 따라 작물보험제도와 재해대책에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후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입률이 낮았던 이유는 재해가 있는 연도에 특별 입법조치로 정규예산외 특별재해원조(Ad hoc Disaster Assistance)가 실시되기 때문에, 농민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보험가입이 낮았기 때문이다.

1980년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은 작물생산량 위험보호를 위한 기본 형태로서 재해보상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보험 작물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 프레미엄의 30%까지 보조하고, 민간 보험회사와 에이전트가 작물보험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면적가입률이 '80년 10%에서 '91년 32%까지 높아졌다.

또한, 1994년 작물보험개선법(Crop Insurance Reform Act)을 제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수입보장을 하는 CAT를 도입하고(수확량 50%를 기준 가격의 55%를 적용하여 보증함), 추가보증(MPCI, buy-up)의 보험료 보조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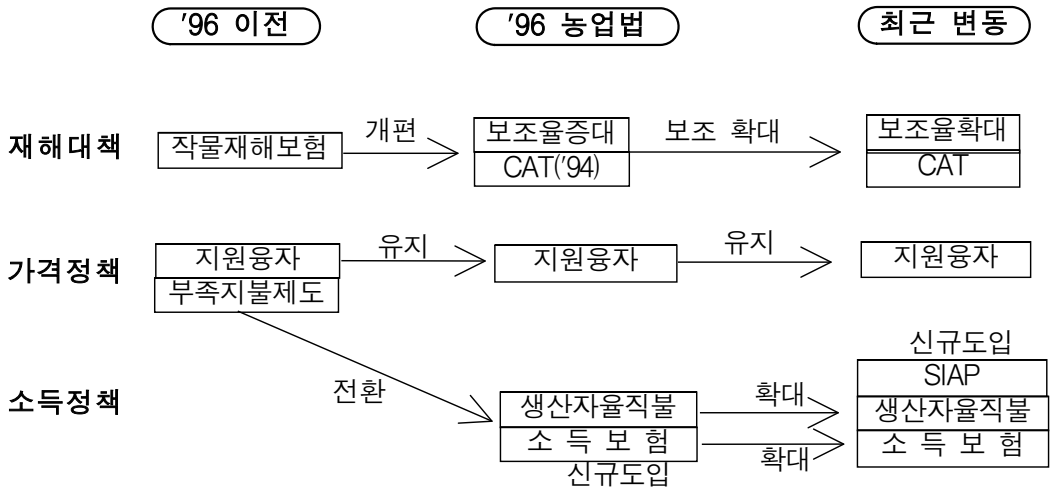
1998-99 회계년도에는 긴급지원보조(emergency assistance)를 실시하여 작물손실에 대해 재해보조금을 지급하고, 4억불의 추가 프레미엄 보조(buy up)를 허용하였다. 1998년의 긴급지원 수혜자는 1999-2000 식부작물에 대해 작물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② 수입 보험

수입보험은 '96년 농업법에 의한 부족불의 폐지에 대응한 경영리스크 관리대책으로서 도입되었다. 수입보험제도는 가격하락을 방지하거나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니며, 소득 변동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참가율은 보험료율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보험료율에 대한 정부보조를 실시하여 참가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참가율이 높은 옥수수도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입보험에 대한 정부보조는 더욱 확대되는 방향이어서, 소득보상적인 것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1996년 가격변동을 포함한 수입위험(risk)에 대응한 수입보험이 개시되자 이

제도로 전환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료 :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6.

<그림 7> 미국의 농업정책 변화

2) 농업인력 육성체계

미국의 농업·농촌은 산업화과정에서 수반되는 농촌인구의 계속적인 감소현상으로 인해 정체위기(crisis of identity)를 맞이하여 90년대 말에는 영농에 종사하는 인구가 10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90년대의 농민의 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량문제,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등의 심각성과 더불어 이농 인구의 감소 및 농촌귀환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 거주주민의 수는 증가하였다.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는 도시가 변두리지역까지 확장되면서 농촌인구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인구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농가인구는 1980년대에 비하여 1990년대에는 약 24.1%에 해당하는 150만 명 정도가 감소하였다(최민호, 1993).

1910년에는 농장에 거주하는 농민이 전체 국민의 34.8%에 달하였으나 1930년에는 25%수준으로 떨어졌고, 1960년에는 10%, 1970년 이후에는 전체의 5% 수준으로 떨어졌고, 1999년 기준으로 6,32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 인력의 부족현상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농촌과 도시의 인구 교체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 인력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였는데, 중서부에는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사스, 아이오아,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다, 위스컨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업 인력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의미하는데, 농업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전업농, 제일종 겸업농, 제이종 겸업농을 포함하는 '영농직'이고, 둘째, 목동직, 농기계 운전직, 농장관리직, 노임 노동직으로 포함하는 '영농 노동직'이며, 셋째, 유통시장업체, 가공공장, 농기계공장, 농화학 공장직을 포함하는 '농업 산업직(agri-business)'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공무원직, 농업 관계 협동 조합직, 공공 및 사설 농업 단체직을 포함하는 '농업전문직'이다. 이러한 농업 인력을 미국에서는 청년농민(young farmers)과 미래농민(future farm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학교를 졸업하여 영농직에 부분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을 의미하고, 후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칭하고 있

다. 여기서는 학교교육 중심의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가) 학교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현재 미국의 농업인력 육성은 고등학교나 지역사회대학 및 4년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농업교육은 종합중등학교의 농업과나 진로아카데미, 농업과학고등학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중등농업교육은 지도농업실습(Supervised Agricultural Experience)과 학생직업조직(전국FFA 조직, 전국청년농업자교육협회(NYFEA), 전국 중등 후기 단계 농업 학생조직등)), 교실/실험실수업(상황학습)으로 구성된다. 중등농업교육과 대학농업교육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을 개설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현재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성인, 농부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 영농학생회(Future Farmers of America)는 1900년대에 들어와 선도적인 주에서 주법으로 제정하여 농업교육 및 농촌지도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스미스-휴즈법이 공포된 1917년에는 약 800개의 청소년클럽이 결성되었는데, FFA는 지도성, 협력성, 선량한 시민성, 애국심의 함양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5년 현재 50개주와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한 50개주에 7210지부의 12-21세 연령집단의 회원 490,0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이 38%이고, 89%가 9-12학년생이며, 6%가 7-8학년, 5%가 고교 졸업생으로 구성되어있다. 회원의 27%가 농촌의 농장지역에 살고 있고, 39%는 농촌의 비 농장지대에 살고 있고, 나머지 34%는 도시나 도시근교에 거주한다. 20개의 대도시중 11개 대도시에 FFA지부가 있고,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오클라호마, 오하이오주가 가장 많은 주들이다. 11000명이상의 교사들이 혁신적이고 최첨단 통합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1년의 경우 92%는 농업과학, 71%는 고급농업과학과 생물공학기술, 59%는 농기계, 49%는 원예, 43%는 동물과학, 24%는 환경관련과목을 제공하였다. 농업교육졸업자의 59%는 교사직을 선택하였고, 유자격교사의 부족으로 35개 이상의 농업프로그램이 폐지되었고, 365명의 농업교사들은 1개교 이상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23%의 교사들은 5년 이하의 교직경험을 갖고 있다. 유자격 교사의 부족이 FFA와 농업교육이 직면한 문제이다(FFA Statistics,2006.1.6). FFA 회원들은 직접적인 노동경험으로 매년 40억$를 벌고 있고, 식품과학과 기술, 농업커뮤니케이션, 야생생물관리부터 생산농업에 걸친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한 45개 전국유창성영역에서 고급기술을 습득하고 배운다. 학생잡지의 리더쉽 연구에 따르면 87%의 학생들이 진로탐색에 관한 학습에 관심이 있고, 81%는 대학준비, 81%는 기술에 관한 관심이 있다. 또한 대중 연설, 환경과 자연자원, 식육 평가와 기술과 같은 23개 영역의 전국진로개발행사(Career Development Events)를 통하여 다양한 진로영역에 있어서의 지식을 검사하고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전국 FFA재단은 1944년이래로 자금이 1320억$이상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FFA와 농업프로그램과 활동을 위하여 1900개 후원조직들로부터 87억$를 제공하였다. FFA장학금은 220억$이상이 지급되었고, 2004년 1500명의 농업교육학생들이 FFA장학금을 받았으며, FFA는 과학, 사업, 농업기술분야의 300개 이상의 진로를 제공한다(FFA Statistics, 2006.1.6).

FFA는 FFA와 지도농업경험(Supervised Agricultural Experience Programs, SAE), 교실 수업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평가하는 수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의 농업학습, 지도력, 구성원으로서의 발달에 대한 인정으로 제공된다. FFA는 농업기업가정신, 농업과학상과 전시회(Agriscience Awards and Fair), FFA학위 프로그램[27], 진로발달행사(Career

27) American FFA Degree는 지도력, 농업교육, 지도농업경험에 있어서의 회원의 발전을 나타낸다. 이들 학위를 받기 위하여 학생들을 기준 조건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들 학위는 '발견', '녹색손', '지부', '주', '전국'으로 구분된 학위를 받는다.

Development Events; CDE), 대학농업대사프로그램(Collegiate Ag Anbassador Program)[28], 회원을 전 세계의 농업과 관련시키는 활동과 가상여행 및 여행 프로그램인 FFA Global, 전국 FFA주간, FFA나 농업교육의 계속적인 성공과 후원을 보여준 뛰어난 교사, 개인, 회사들에게 주는 명예상(Honorary Awards), 농업교육과 FFA의 다양성을 성취하고 촉진한 회원에게 주는 H.O. Sargent 상, 지부로서 완전하고 균형 있는 활동프로그램에 초점을 두어, 학생발전, 지부발전, 지역사회발전분야에서 우수기준을 성취한 FFA지부에게 주는 전국우수지부상(National Chapter Award Program), 새로운 세대의 농업인상, 지도농업경험에 적극적인 참여, 회원프로그램의 성장, 재정가치, 기술습득, 지도력 활동, 주요 성취 등의 분야에서 성취한 회원을 인정하는 숙달상(Proficiency Award), 위험관리보고서 경진대회, 장학금제도, 스타상(Stars Program)[29], 학점획득이나 FFA상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관심이 있는 농업직분야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계획한 지도농업실습을 운영하고 있다(National FFA Organization, 2005).

FFA는 21세기 성공을 위한 청년농부를 준비하는 신세기 농부프로그램[30]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농업직업을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기업가적 리더쉽, 융통성과 적응성, 기술적이고 기능적 지식, 비젼, 의사결정과 적용, 계속적인 개선분야에서 특히 지도력과 개인적이고 진로기술에 있어서의 개선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직업으로서 영농에 헌신하는 젊은 사람들을 개발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독점적이고 고도로 경쟁적인 프로그램이다. FFA재단의 특별프로젝트로서 워크샵이나 다양한 캠프로 구성되고 있다.

둘째, 학교수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중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활동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계 학교는 현장실습을 비롯한 실험실 수업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농업과학과 기술 영역으로 가르치거나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중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활동은 Wonacott(2001)에 따르면 진로지도프로그램으로서 44개의 종합적 진로개입활동을 조사하여 이들을 시간, 방식, 통제, 장소, 규모에 따라 도입단계의 개입, 조언적 개입, 교육과정기반, 일기반 개입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도입단계의 개입은 진로의 날과 진로축제(Career Fairs),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안내학습(Guidance Lesson on Personal/Social Development)과 현장실습, 적성검사, 진로발달, 학업계획 등의 방법을 예로 들었고, 조언적 개입 단계는 진로신분증(Career Passports), 컴퓨터 기반 진로지도, 학업과 진로상담, 진로중심의 학부모/학생 회의, 진로동료조언/개별교수, 진로지도, 진로성숙도와 흥미평가도구, 진로자료센터, 진로군/경로/전공, 기술증명서, 대학입학검사, 산학겸업등록(cooperative/dual enrollment), 정보면접, 직무탐색준비, 개인적/사회적 준비, 포트폴리오/개별적 진로계획, 외부훈련이나 상담/평가에 관한 자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기반 개입은 Tech-Prep과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s)을 중심으로 일의 세계에 관련된 수단과 내용을 통하여 학생의 필수 지식과 기술을 촉진하는 방안들을 말한다. 이들 외에도 교육과정에 융합된 진로정보, 진로/기술교육코스, 교육과정에 융합된 진로기술, 진로아카데미/진로마그넷학교, 학생클럽과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기반 개입 유형은 지역사회에 있는 노동

28) 지역사회수준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영향하고, 활성화시키며, 공유하도록 하는 지속적 농업인식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초점이 있다.

29) Star프로그램은 지부, 주, 전국수준에서 수상된다. 이들 학위를 통하여 회원작업으로 성취된다. 스타농부, 농업관계직스타, 농업채용스타(Star in Agricultural Placement), 농업과학스타로 구분된다.

30) 현재 이 부분은 영농학생회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운영되었다. 아이오와 데모인에서 5일간의 집중 회의와 워크샵, 주제토론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것으로 2005년도 사업에 명시되었다(http://www.ffa.org/programs/ncfarmer/index.html).

현장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생의 지식과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개별적 활동에 속하며, 2주이상의 기간으로 운영된다. 산학협동교육, 인턴쉽, 직업그림자, 직업코칭, 멘터링, 서비스학습/자원봉사프로그램, 일 경험학습, 청년 도제등의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다(Wonacott,2001).

지역단위 고급과정으로서의 농업교육기관인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2년제 초급대학 과정과 4년제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정규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겸한 현장중심 농업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학단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농업직에 대한 인식을 길러주는 것은 PAS(National Postsecondary Agricultural Student Organization)이다. 이 단체는 1979년 3월에 조직되었고, 1980년 3월 미주리 캔사스 시티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18개주의 56개지부 11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50개주의 약 550개 중등후기 교육기관의 농업, 농기업(agribusiness), 자연자원 프로그램에 재학한 학생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목적은 개인적 성장과 지도력, 진로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 농업 학생들을 위한 우수한 지도력과 진로 발달조직으로서 취업경험이나 코스 이수,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도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개인적 리더쉽 기술을 개발하고,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적 능력을 개발하며, 개인적 윤리의식을 배양하며, 다양성에 존재하는 시너지를 인식하고, 교육과 산업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조직은 미국 교육부가 진로기술교육의 필수적 부분으로 인정된 10개 진로기술학생조직의 하나이다.

대학단계의 농업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전국 FFA조직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단계의 FFA는 15개의 다른 대학단계의 농업조직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15개의 협력조직은 National Agricultural Communicators of Tomorrow(ACT), 미국미래농업(AFA), 알파감마로, 알파감마시그마, 알파타우알파(ATA), 알파제타, 불록앤블라이들(Block and Bridle), 농장 주택(Farm House), 전국 농업, 자연자원, 관련과학의 소수파(Minorities in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and Related Sciences;NAADA), 전국농업마켓팅협회(NAMA), 전국중등후기농업학생조직(PAS), 전문토지보호네트워크(Professional Landcare Network; Planet), 시그마알파, 대학 4-H모임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농업직업을 탐색하고,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준비자들에게는 FFA 장학금 기회를 안내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인력 육성은 농업교육관련단체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교육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for Agricultural Education)는 농업교육조직으로서, 진로기술교육협회의 농업교육분과(ACTE), AgroKnowledge(전국 농업과학과 기술교육센터), 미국농업교육협회(AAAE), 전국 농업교육자 협회(NAAE), 전국 농업교육장학자 협회(NASAE), 전국 FFA 졸업생협회(National FFA Alumni Association), 전국 FFA재단, 전국 FFA조직, 전국 농장목장사업경영교육협회(NFRBMEA), 전국 중등후기농업교육학생조직(PAS), 전국청년농업자교육협회(NYFEA)등의 관련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육자 집단과 학술단체, 청소년직업단체, 영농학생회 재단까지 자금을 갖고 있는 단체들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연합된 형태로 농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농업인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미국 농무성(USDA) , 4년제 농업계 대학, 2년제 농업계 전문대학, 주 단위기관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첫째, 미국 농무성(USDA) 부서인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USDA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 'USDA's Current Research Information System', 'USDA Extension Service Gopher Sit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Extension Service WWW

site', 'USDA-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업관련 정보 및 기술을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둘째, 4년제 농업계 대학 부설기관으로 있는 재교육 훈련기관에는 'Indiana Cooperative Extension at Purdue University', 'Iowa State University Extension', 'Kansas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tension', 'Langston Universtiy Research and Cooperative Extension', 'Mississii State University, Extension' 등이 있으며, 셋째, 2년제 농업계 대학 부설기관으로 있는 재교육 훈련기관은 'Delaware Valley College of Science and Agriculture'등이 있다. 넷째, 주 단위의 독립적인 농업인 재교육 훈련기관에는 'Nebraska County Extension Offices'등이 있다(정철영외,2002, pp.627-629).

나) 사회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미국의 농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서로 농촌 출신이며 농업에 흥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사교적ㆍ오락적인 모임이었으나 차츰 교육적인 활동이 첨가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FFA', '4-H회', '청년영농회'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미국영농학생연합회(Future Farmers of Americas : FFA)는 1925년에 버지니아주 연합회가 결성되면서 명칭도 Future Farmers of Virginia를 기초로 시작되었다. 그 후 각 지역별로 영농학생회 연합회가 차례로 구성되었으며, 1928년 가을에는 미조리주 캔사스시에서 미국영농학생연합회(Future Farmers of Americas : FFA)가 본격적으로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학교교육체계의 FFA는 선진적인 주에서 주법을 제정하여 농업교육 및 농촌지도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청소년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 스미즈-휴즈법(The Smith-Hughs Act)이 공포된 1917년에는 800개의 클럽이 결성되었다. FFA의 목적은 지도성, 협력성, 선량한 시민성, 그리고 애국심의 함양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전국 4-H위원회(National 4-H Council)는 전국 4-H본부, 미국 농무성 CSREES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and Land-Grant University Cooperating Extension Service)과 비영리적 사설협력단체이다.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서 집단 활동이 활발해지고 확대됨에 따라 스미스-레버법(Smith-Lever Act)이 통과되어, 주립농과대학이 제도적으로 농촌청소년지도사업을 전개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전국 4-H회는 전국 4-H 청소년 회의센터를 운영하며, 4-H 방과후학교, 미국 4-H웹사이트, 4-H커뮤니티 자금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의 청소년발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03년에 101년이 되었다. 1960년까지는 4-H참여자의 반 이상이 비농업인 청소년이었으나 오늘날은 43%가 농촌과 10000명이내의 읍출신이고, 57%는 대도시, 도시근교, 대규모도시 출신이다. 31%는 소수인종출신으로 구성이 다양하다. 4-H프로그램은 7백만 명의 청소년, 572,834명의 자원지도자, 3600명의 전문 인력, 105개 주립대학, 주와 지방정부, 사립협력자, 주와 지방단위의 4-H재단, 전국 4-H위원회, 농무성산하의 CSREES의 전국4-H본부등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4-H프로그램은 3,051개 카운티에서 수행되며, 89,636개 4-H클럽의 1,572,235명의 회원이 있고, 102,594개 4-H특별관심집단에 2,380,717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다. 4,114,522명이 145,582개 4-H학교집단에 속하며, 66,492명이 4-H개별학습프로그램에 속해

있고, 4-H교육TV에 21,437명이 등록되어 있다. 5,889개의 학령아동보호에 91,443명이 있으며, 4-H가 주관하는 캠프에 297,842명이 등록하였다.

4-H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농업경영계획, 가정경제, 시민성 및 자아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학습하게 된다.[31]. 군단위 4-H 조직체는 단위 내에 속해 있는 4-H 클럽을 지원하며 자원지도자, 4-H 회원,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은 군지도요원들과 4-H 프로그램을 계획하기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이러한 4-H 조직은 지도자 선택 및 훈련, 군단위행사 및 지역집단활동지원, 그리고 사업가, 산업가, 그리고 회원부모와 함께 일을 한다. 군 행사의 예를 들면 캠프, 전시회, 품평회, 그리고 여행 등인데 이러한 행사는 지역프로그램을 강화해준다. 회원이나 지도자가 훌륭한 일을 했을 때는 포상도 주어진다.

주 단위 4-H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면 주립대학에 주재하고 있는 주농촌지도사업요원은 군 단위요원을 훈련시키고 평가하며, 출판물 및 여러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주회의, 활동 및 행사에 리더쉽을 부여하며, 4-H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한다. 또한 전국 4-H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는데 조언을 해주며 4-H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하기위하여 전국 4-H 클럽의 후원회 및 전국 4-H 서비스위원회와 더불어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는 청년영농교육협회(National Young Farmers Educational Association: NYFEA)로서 이들은 미국농업지도자교육연합회의 목적에 따라, 지도력훈련, 농업진로교육, 지역사회봉사기회를 핵심으로 삼는다. 이 조직은 미국 교육부로부터 농업교육을 위한 공식적인 성인교육조직으로 인정되었다. 이 조직은 청년들의 개인적 전문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청년농부와 농업지도자를 위한 사이트이다. Nichols(1952)는 미국의 청년농민교육은 미래농민교육(future farmer education)의 계속교육으로 보아야 하며, 보다 더 실제적으로는 ①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한 준비성, ② 행복한 가정의 조성 능력, ③ 협동적 태도와 인격, ④ 지역사회 봉사정신, ⑤ 지도력, ⑥ 건전한 오락의 향유, ⑦ 절약 습관과 내용에 대한 자질들을 길러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청년영농회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농업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단체인데 이 단체는 청년 '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조직이다. 청년영농회의 설립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의 하나는 성인 영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나 농업 경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관심을 둔다. 따라서 청년영농조직은 가끔 FFA 조직과 성인영농자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그들 자신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영농에 대한 지도력과 경영 참여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농업교사가 농업교사의 주별 모임에서 조직방법을 습득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영농인들에게 청년영농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면서 조직하기도 하며 또한 청년영농회원들이 인근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조직에 관해 설명해 주고의 모임에 참석토록 초대한다.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조직에 관해 이해하게 한 다음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모임을 조직하도록 하기도 한다. 조직에는 주 청년영농회와 둘 이상의 단위를 지닌 지역청년영농회가 있는데 청소년 영농회의 회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서기, 회계, 섭외, 봉사, 2인 이상의 감사, 1명이상의 고문으로 구성된다. 청년영농회의 주요활동(Utah 주)은 크게 경제활동, 지역사회개선활동, 지도력 배양, 그리고 사교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정철영,2002,pp.612-614).

---

31) 4-H의 교육내용은 시간과 인구적 변화에 따라 확대되었다. 1개 이상의 교과영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내용은 시민정신과 시민교육,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예술, 소비자와 가족과학, 환경교육과 지구과학, 건강한 생애교육, 개인적 발달과 리더쉽, 식물과 동물, 과학과 기술 등의 영역을 교육한다.

3) 영농후계자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시책

가) 연방정부의 영농후계자육성법

(1) 영농신용법

영농신용법의 발의는 농업과 농촌지역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농민들에게 신용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영농재정기반을 견실하게 하고 영농기술이 향상을 꾀하여 미래에 자립영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 특히 미래의 영농후계자와 농장주(rancher)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영농후계자들에게 금융대출을 신용만으로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영농신용법의 핵심조항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영농후계자(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에 대한 신용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영농후계자와 목장주에게 영농설비의 대여 혹은 손쉬운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지원행정기구(Farmers Home Administration)의 수립과 세부 프로그램의 진행

② 영농후계자들의 신규 농지구입에 대한 지가대여지원 및 대출에 대한 새로운 관리 프로그램 수립

③ 영농후계자의 대여 신청 시 신속한 처리절차 수립

④ 농민의 부채지원을 법규에 수립된 필요수준으로 수정

⑤ 공인된 대출 프로그램 수립

⑥ 영농후계자의 지원을 위한 연방과 주간 협력체계(제휴)수립

⑦ 농가지원행정기구에 의해 보증된 재정지원자에게 대부 차용의 촉진

⑧ 10년까지 FHA 직접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제한

⑨ 총 15년까지 직접적 또는 보증된 대부 프로그램에의 접근 제한

⑩ 50만 달러 혹은 그 이하의 보증대부에 대한 간소화된 신청서 필요

⑪ 농가지원행정기구는 성별로 신청자를 분류

특히 이 법안은 미래의 성공적인 자립농가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대출과 함께 농민들이 일정한 영농기술교육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대출지원 이전의 5년간 농가가 성공적인 영농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을 것을 기본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영농교육 프로그램은 대출 후 대출금 사용관리, 재정평가 과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주정부의 농무장관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영농에 대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나) 창업자나 가족 규모 농가를 위한 농업자금 지원

미국 농무성은 농장지원부서(Farm Service Agency)를 통하여 농장상품과 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정상적인 대출을 얻을 수 없는 농업인에게 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증해준다. 그 외에도 농장의 생산과 관리의 장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자와 협력하고, 재상환이나 연기, 이자율을 낮추고, 부채감소를 위하여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의 보존완화의 수용, 부채를 현재 시장가치로 삭감하는 것 등을 한다. 이 부서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을 시작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농장 구입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또는 운영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농장소유권 확보 자금, 운영자금, 청소년자금, 창업자금, 사회적으로 불리한 농부 대출자금, 긴급자금대출(emergency loan), 분할자

금에 대한 직접 대출이 있고, 대출자금보증이 있다. 이들 외에도 농업분야에 대한 자금 대출을 지원할 대여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다. 2004년 10월 24일 현재 1032개 종류에서 6억 5천 7백만 불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5 참조>. 자금은 주별로도 다양한 농업자금이 존재하고 있다.

<표 45> 미국 연방정부 농장지원부서(FSA)의 농업자금 지원 유형

프로그램유형	최대 자금 한도	이자율과 조건	용도	자격요건
직접 농장 구입 자금 대출	$200,000	-최대 40년까지 대출 가능 -기관의 대출비용에 따른 이자 -정상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임시적으로 제한된 이자 가능 -총대출액의 50%가 타 대출자에 의해 제공된다면 이자율 5% 4.875%(2005년 11.1이자율)	-토지구입 -건물건축이나 개량 -토양과 수질 보전	-다른 곳에서 신용을 얻을 수 없는 사람 -농장성공에 필요한 관리능력을 시범할 농장관리와 운영에 대한 경험,훈련,교육 -미국시민 -대출의무에 대한 법적능력 -수용가능한 신용증거 -자금 종료 후 가족농장의 운영자나 임차운영자 -기관에 대한 손해의 원인이 되는 이전 부채가 없어야 함 -연방부채 체납이 없을 것
창업 농 최초분 할 자금 대출(농장구입)	구입가격이나 평가분의 40%이하 구입자금과 운영자금: $200,000 보증 : $852,000	기간: 15년, 이자율: 4% 이하 4.00%(2005.11.1.현재) 잔액을 사설금융으로 얻는다면 95%보증. 보증비 면제 구입액/평가액은 $250,000이하 구입가격이나 평가액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함 조인트 자금부담계획 있음	농장과 목장 구입 (FSA가 구입한 농장을 창업농이, 구입후 135일 이내에 평가시장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우선권부여. 단 2인 이상의 창업농이 있을 때는 무선으로 선택)	-농장분할구입자금은 은퇴농민이 미래세대에 토지를 이전하도록 하는 수단 제공 -구입가격의 최소 10% 현금지불 요구됨. -구입가격이나 평가가격중 낮은 값으로 최대 40%제공. 대출기간 15년, 고정이자 4% -잔액은 사금융이용. FSA는 95%까지 보증함. 보증료 면제. -구입가격이나 평가가격이나 $250,000이하.
창업 자금 (농장구입자금)	$200,000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농장구입자금요구조건 충족 -3-10년 미만의 농장운영 경험자 -그 지역 평균농장규모의 30%이상의 농장을 소유하지 않은 자 법인은 모든 구성원이 결혼이나 혈연관계이고, 모든 구성원이 창업 수준이어야 함
창업자금(운영자금) 대출	$200,000	직접운영자금과 동일	직접운영자금과 동일	10년 이상 농장운영하여야 함 법인은 구성원 모두 결혼이나 혈연관계이고 모두 창업농이어야 함
직접 운영 자금 대출	$200,000	1-7년 기관의 대출비용에 따른 이자율 변화 정상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일시적 제한 이자가능 4.50%(2005.11.1.기준)	-가축, 가금, 장비, 사료, 종자, 농약, 기타 농업자재 구입 -토양과 수질보전 -제한적 부채 보충 -비농장 기업 사용불가	직접 농장구입자금대출과 동일

직 접 긴 급자금	실제손실액 100%나 최대 $500,000 (목적, 상환능력, 담보물에 따름)	-부동산 목적이 아닌 경우 1-7년 -실물손실은 40년까지 -이자율: 3.75%	-필수재산의 복구나 대체비 지원 -재해년도 생산비의 일부나 전부 지불 -필수 가족생계비 지불 -농장운영의 재조직 -제한적 부채 상환 가능	-수용가능한농장기록구비 -그들이 개발하여 지역 FSA가 동의한 농장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 -재정관리훈련프로그램 참가와 작물보험 요구됨 -일시적 보조임
운 영 자 금보증	$852,000(매년 인플레 반영 조정)	1-7년, 대개 금액 90%까지 가능(단, 위험률에 따르며, 대출목적이 직접 FSA농장신용프로그램부채의 보충이나 창업농의 분할자금프로그램에 참여하기위한 것은 95%보증가능) -대여자가 평균적 농장고객에게 부과된 이자이내. -정상이자가 어려운 사람은 4%의 이자율 보조	부채 보충에 사용가능함을 제외하곤 직접운영자금과 동일	-미국시민 -대여자가 규정한 신용경력 -부채의무 담당할 법적능력자 -보증없이 대출불가능자 -3가지이상의 부채면제조건으로 보증부서의 손실원인이 되지 않는 자 -연방부채 체납자가 아닐것 -대출금이 끝난 후; -운영자금보증은 가족농장의 운영자 -농장구입자금보증은 농장소유자
농 장 구 입 자 금 보증	$852,000(매년 인플레 반영조정)	40년까지 대여자가 평균적 농장고객에게 부과한 이자이내	부채보충에 사용가능함을 제외하곤 직접농장구입자금과 동일	
청소년자금	최대 $5,000	상환에 대한 서명(본인, 보조자) 중간정도의 프로젝트(물리적 크기, 자본요구, 전반적 목표에서)에만 자금 지원가능 자금담보는 판매용 작물, 가축, 장비, 기타 자금으로 구입한 항목 상환기간은 과제의 유형에 따라 다름. 상환계획은 FSA와 수립함. 농촌청년에게 4-H나 FFA, 기타 조직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중규모 생산과제의 성립과 운영을 지원함. 각 과제는 지도실습프로그램의 부분이며, 조직 지도자의 도움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하고, 자금을 상환할만한 소득을 산출하고, 청소년에게 실제적 사업적,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	가축, 장비, 자재의 구입비 필요한 장비의 구입, 대여, 수리비 과제 진행을 위한 운영비	-10-20세 지원자 -미국시민 -10000 명미만의 지역 거주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지도직업프로그램에서 보통 규모의 생산과제 수행자 -거의 모든 과제에 해당. 가축과 작물생산, 잔디와 정원서비스, 수리점, 도로변점포를 포함 -과제지도자의 지도하에 과제계획,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과제지도자는 과제와 자금을 추천하여야 하고,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사회적 불리농업인 자금	농장구입자금 농장운영자금	직접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은 1-7년이나 담보보장에 따르며, 이자율은 정부대출율에 따름. 직접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은 40년까지 자금보증의 이자는 대여자에 의하여 결정되나 평균농업대출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접자금(운영, 구입자금) 모두 FSA가 지원 -보증농장자금은 연방이나 주의 감독을 받는 대출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FSA의 보증을 받음. 일부주는 FSA보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농장자금을 운영. 전형적으로 FSA는 자금이 실패하였을 때 발생할 손실의 90-95%를 보증	-농장구입자금은 농장구입과 확대, 농장운영에 필요한 도로나 지역권의 구입, 건물의 신축이나 개량, 토양과 물 보전과 개량촉진, 폐지비의 지불에 사용. -제한된 직접농장구입자금은 농장구입에만 사용됨 -농장구입보증자금은 부채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 -농장운영자금은 가축, 가금, 농장장비, 사료, 종자, 연료, 비료, 농약, 우박과,기타 작물보험, 식품, 옷, 의료보호, 고용인력을 구입에 사용가능 -,부채상환, 가정용 용수 시스템 설치와 개선, 가축이나 관개, 기타 개선에 사용 가능.	사회적 불리자(인종, 종족, 성의 편견을 겪는 사람(알래스카원주민, 인디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지역출신미국인)로서 가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운영에 직접, 주로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임. 다음조건을 요구함 -신용에 대한 이력 -충분한 교육경험(직접운영자금은 최근5년내의 1년 이상의 농장운영관리나 운영경험,훈련,교육경험; 직접구입자금은 3년 이상의 농장사업운영참여) -미국시민 -합리적이율과 실제요구를 충족시킬 기간으로는 다른 곳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 -대출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갖출 것 -법인의 경우에 다수의 관심을 가진 구성원들은 동일한 이용조건을 충족해야함. 농장운영권을 가져야 하며, 소유주는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구성원이 법인에서 다수의 관심을 지지하여야 함. 법인의 다수관심을 갖는 개인들이 가족관계라면 운영은 혈연관계나 결혼한 가족 중에서 한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집단은 다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농장 운영하여야 함.

자료: 미국 USDA, Farm Service Agency, Retrieved 2006,1.3. from http://www.fsa.usda.gov/pas/publication/facts/html/farmloaninfo04.htm.

<표 46> 미국 연방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2006회계 연도 배정액	사용금액 (2005/12월29기준)	총 미사용 금액	자금수
직접 운영 자금	$643,497,000	$95,193,000	$548,304,000	2,690
운영 자금 보증 - 비 보조	$1,138,500,000	$105,576,000	$1,032,924,000	651
운영 자금 보증 - 이자 보조	$271,885,000	$116,893,000	$154,992,000	566
직접 농장 구입 자금	$205,927,000	$52,285,000	$153,642,000	417
농장 구입 자금 보증	$1,386,000,000	$198,260,000	$1,187,740,000	622
긴급 자금	$173,675,000	$3,569,000	$170,088,000	52
Boll Weevil	$100,000,000	$0	$100,000,000	0
인디언 토지 구입	$1,999,000	$0	$1,999,000	0
국가 전체	$3,921,465,000	$571,776,000	$3,349,689,000	4,998

출처: 미국 FSA, Retrieved 2006.1.3 from: http://www.fsa.usda.gov/dafl/funding.htm.

다)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

영농후계자, 농장주 지원 법률은 법인보다는 영농이나 농장운영을 하는 농민을 지원하는데 있다. 지원대상자는 첫째, 혈연이나 결혼으로 관계를 맺은 소유주와 구성원 모두, 둘째,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장소유주와 그 구성원들로 하고 있다.

농민은 계속적인 영농이나 농장경영을 위해 해당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이 항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지원을 받은 농장 및 농민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5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농장운영방식
② 농장운영에 의해 나타난 농산물의 양과 유형
③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될 생산방법과 실제
④ 농장운영에 의해 전개된 생산방법과 실제
⑤ 농장운영의 유지수단
⑥ 농장운영에 필요한 장비
(개인이 소유한 장비, 임대장비, 타목적에 의해 구입한 장비의 일체)
⑦ 농장의 기대수입과 운영비
⑧ 농장운영에 필요한 신용
⑨ 농장운영에 필요한 부지

미국의 귀농에 대한 지원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국의 농업분야 취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농업 인력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단계에서 영농학생회 활동을 하며, 이들에게 과제 수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과제를 통하여 실제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교육이 직업으로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의 정책은 School-To-Work법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에서의 수업과 실험실습, 현장학습,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과제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인정할 기회를 주는 Career Development Event행사, 고교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닌 대학 단계의 PAS모임까지 청소년들의 직업 탐색과 준비, 학습능력의 개발과 이들의 공로에 대한 시상과 State Fair 단위에서의 자신들의 기능 평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농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농업분야의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단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우리나라의 FFK행사는 2년제 대학이나 대학까지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층의 농업종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단계에서와 각주의 농무성을 중심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층의 과제 자금의 지원이 $5000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들 과제의 이수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취농에 필요한 실제적 능력을 습득한다는 점이다. 4-H모임은 대체로 도시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되나, 이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리더쉽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바른 지도 방법의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농업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재해보험제도와 자금 지원제도가 정립되어 있고, 이자를 지불하기 곤란한 집단들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Ⅲ. 귀농단계별 실태 분석과 논의

1. 조사연구

조사연구는 귀농과정을 직업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귀농인식단계, 귀농준비단계, 귀농단계로 구분하였고, 귀농단계는 3년 미만의 귀농초기단계, 3-6년의 귀농중기단계, 6년 이상의 귀농정착단계로 세분하여 각 집단별로 서울, 경기, 강원권, 충남북(대전포함)권, 전남북(광주포함)권, 경남북(부산, 대구, 울산포함)권의 4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40명씩 160명을 5개 단계별로 구분하여 총 800명을 표집대상으로 선정·조사하였다. 귀농인식단계는 졸업 후 취업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농과계와 비농과계 학과 재학생중 귀농에 대한 관심이나 들어본 학생들을 각 권역별 학교로 가서 남녀의 비율을 비슷하게 표집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귀농준비단계는 각 귀농학교 졸업생 모임이나 학교의 협조를 받아 졸업생중 귀농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받아 조사하거나,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과 전남북 지역에서는 현지에서 귀농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행사로 모이거나, 인터넷 귀농 모임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학교 졸업생중 추천을 받아서 권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귀농자는 농림부와 각 시군의 추천받아서 이들 명단에서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나, 응답거부자, 조사시 부재자, 주소 불명자가 있는 경우, 마을 이장이나 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농림부의 명단에 있는 이외의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응답자 수의 부족으로 30명 정도를 귀농학교 행사시에 참석한 귀농학교 졸업생중 귀농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가. 귀농인식단계

귀농에 대한 정보를 받았거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160명을 서울.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으로 구분하여 4개권역으로 나누어 농과계열 학과 학생들과 비 농과계열 학과 학생들로 구분하여 남녀 학생들을 동수로 무선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7>와 같다.

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특성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집단 구성은 남자와 여성의 비율이 남성이 53%로 약간 많은 실정이며, 농업계 학과 출신자는 56.5%로 비 농업계 학과 학생들보다 약간 많이 응답되었다. 연령 분포는 20세 이하가 39.8%, 21-24세 집단이 33.5%, 25세 이상이 26.7%로 응답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연령분포를 고려할 때 추정될 수 있는 연령이 될 것이다.

<표 4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포

		빈도수(명)	백분율(%)
성별	남	85	52.8
	여	76	47.2
학교유형	농업계 학과 출신자	91	56.5
	비 농업계 학과 출신자	70	43.5
연령분포	20세 이하	64	39.8
	21-24세	54	33.5
	25세 이상	43	26.7
합계		161	100.0

2) 귀농인식단계 응답자의 농업관

귀농인식단계 응답자의 농업관은 어떤가를 파악한 결과 <표 48>과 같이, 직업으로서 농업의 매력과 농촌의 발전가능성은 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나 장래성 있는 산업이라는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집단이 다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할 때는 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농업 종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견은 반대가 많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도 자녀의 농업 종사에 대한 적극적 권유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업의 직업적 매력이나 농촌의 발전가능성은 이해하나, 자녀들이 그 분야에 종사하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을 꼭 긍정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농업관 분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무응답	계
직업으로서의 농업은 매력있다.	4(2.5%)	49(30.4%)	84(52.2%)	24(14.9%)	0	161(100.0)
농업은 장래성 있는 산업이다.	5(3.1%)	62(38.5%)	60(37.3%)	33(20.5%)	1(0.6%)	161(100.0)
앞으로 농촌은 발전가능성이 있다.	2(1.2%)	50(31.1%)	78(48.4%)	30(18.6%)	1(0.6)	161(100.0)
자녀가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이다.	21(13.0%)	70(43.5%)	50(31.1%)	19(11.8%)	1(0.6%)	161(100.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로 농업관의 각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9>, <표 50>,<표 51>,<표 52>에 나타나 있다.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매력은 퇴직 후나 인간다운 삶으로서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관점이 다수였으나 그 외의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농업의 장래성에 대한 인식은 건강, 퇴직 후,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는 농업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나 그 외의 집단은 농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표 4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직업으로서의 농업의 매력 인식.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전혀 그렇지 않다	0 .0%	1 2.9%	0 .0%	0 .0%	0 .0%	0 .0%	1 4.0%	2 11.8%	4 2.5%
그렇지 않은 편	7 33.3%	20 58.8%	2 13.3%	0 .0%	2 16.7%	4 16.0%	9 36.0%	5 29.4%	49 30.4%
그런편이다.	11 52.4%	12 35.3%	13 86.7%	9 75.0%	6 50.0%	16 64.0%	8 32.0%	9 52.9%	84 52.2%
정말 그렇다	3 14.3%	1 2.9%	0 .0%	3 25.0%	4 33.3%	5 20.0%	7 28.0%	1 5.9%	24 14.9%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45.547, **p<.01

<표 5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업의 장래성 인식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삶	기타	계
무응답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9%	1 .6%
전혀 그렇지 않다	0 .0%	1 2.9%	0 .0%	0 .0%	0 .0%	0 .0%	3 12.0%	1 5.9%	5 3.1%
그렇지 않은 편	11 52.4%	19 55.9%	5 33.3%	1 8.3%	2 16.7%	7 28.0%	11 44.0%	6 35.3%	62 38.5%
그런편이다.	7 33.3%	11 32.4%	9 60.0%	7 58.3%	5 41.7%	7 28.0%	7 28.0%	7 41.2%	60 37.3%
정말 그렇다.	3 14.3%	3 8.8%	1 6.7%	4 33.3%	5 41.7%	11 44.0%	4 16.0%	2 11.8%	33 20.5%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47.366, **p<.01

그에 비하여 농촌의 미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유의차가 없이 농촌의 미래발전가능성을인식하고 있었다. <표 51>과 같이 자녀들이 농업종사를 희망할 때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서는 농촌생활선호, 밝은 농업전망, 영농승계로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으나, 다른 집단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으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이 동일하게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 가장 대립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표 5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촌의 미래 발전가능성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9%	1 .6%
전혀그렇지않다	0 .0%	0 .0%	0 .0%	0 .0%	0 .0%	0 .0%	1 4.0%	1 5.9%	2 1.2%
그렇지 않은편	10 47.6%	13 38.2%	6 40.0%	1 8.3%	2 16.7%	4 16.0%	8 32.0%	6 35.3%	50 31.1%
그런편이다.	8 38.1%	17 50.0%	9 60.0%	6 50.0%	6 50.0%	12 48.0%	12 48.0%	8 47.1%	78 48.4%
정말 그렇다.	3 14.3%	4 11.8%	0 .0%	5 41.7%	4 33.3%	9 36.0%	4 16.0%	1 5.9%	30 18.6%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37.172 p>.05

<표 52>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자녀의 농업 종사 희망시 적극적 권유 정도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9%	1 .6%
전혀그렇지 않다	2 9.5%	7 20.6%	1 6.7%	0 .0%	1 8.3%	1 4.0%	5 20.0%	4 23.5%	21 13.0%
그렇지 않은편	10 47.6%	22 64.7%	10 66.7%	2 16.7%	3 25.0%	7 28.0%	8 32.0%	8 47.1%	70 43.5%
그런편이다.	5 23.8%	5 14.7%	4 26.7%	6 50.0%	6 50.0%	13 52.0%	8 32.0%	3 17.6%	50 31.1%
정말 그렇다.	4 19.0%	0 .0%	0 .0%	4 33.3%	2 16.7%	4 16.0%	4 16.0%	1 5.9%	19 11.8%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50.487, **p<.01

3) 귀농정보원

귀농정보를 얻는 최초 정보원은 <표 53>과 같이 매스컴으로 나타나 매스컴의 농업에 대한 바른 묘사가 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경로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의 영향력도 높았으며, 농업관련교육 역시 21%정도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스컴과 가족, 친구 및 이웃, 농업관련교육이 88%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서 귀농정보를 매스컴과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해서, 농업관련교육을 통해서 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 가족, 친구, 이웃을 통한 귀농정보의 습득은 실제적인 정보의 형태로 판단되며, 신뢰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를 어떻게 신뢰롭게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배 귀농자를 방문하여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귀농계획과 귀농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이미 귀농한 선배 귀농자와의 연계는 추가 귀농자의 지역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3>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관련정보의 최초 정보원

	빈도수(명)	백분율(%)
매스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69	42.9
가족, 친구 및 이웃	40	24.8
PC통신 및 인터넷	13	8.1
농업 관련 교육	33	20.5
기타	2	1.2
학교	2	1.2
모르겠음.	2	1.2
합계	161	100.0

귀농동기별 응답자들의 귀농정보 최초 정보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 퇴직후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 기타 집단은 귀농정보를 매스컴을 통하여 얻었으며, 농촌생활선호와 영농승계집단,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귀농정보를 얻었고,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농업관련 교육에서 귀농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정보의 제공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공하여야 함을 말한다.

<표 54>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최초 귀농정보원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 계	인간다 운 삶	기타	계
매스컴	8 38.1%	20 58.8%	12 80.0%	3 25.0%	4 33.3%	4 16.0%	8 32.0%	10 58.8%	69 42.9%
가족, 친구, 이웃	4 19.0%	7 20.6%	2 13.3%	5 41.7%	1 8.3%	10 40.0%	10 40.0%	1 5.9%	40 24.8%
PC통신 및 인터넷	3 14.3%	3 8.8%	1 6.7%	0 .0%	2 16.7%	2 8.0%	1 4.0%	1 5.9%	13 8.1%
농업관련교육	4 19.0%	4 11.8%	0 .0%	4 33.3%	5 41.7%	9 36.0%	5 20.0%	2 11.8%	33 20.5%
기타	1 4.8%	0 .0%	0 .0%	0 .0%	0 .0%	0 .0%	0 .0%	1 5.9%	2 1.2%
학교	0 .0%	0 .0%	0 .0%	0 .0%	0 .0%	0 .0%	1 4.0%	1 5.9%	2 1.2%
모르겠음	1 4.8%	0 .0%	0 .0%	0 .0%	0 .0%	0 .0%	0 .0%	1 5.9%	2 1.2%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59.468 p>.01

4) 귀농인식단계 응답자의 귀농동기와 인식수준

귀농인식단계 응답자의 귀농을 생각하는 동기는 <표 55>와 같이, 퇴직후 여생을 위해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가 21%로 다수이고,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13%, 영농승계를 위해서 10%였다. 영농 승계는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와 성격상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15.6%는 영농승계라는 점이 귀농의 주요 동기가 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인간다운 삶이나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15.6%에 해당하고 있어서 영농승계라는 전제와 비슷한 규모의 생태귀농형 귀농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가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출신자들이 주로 모여 있는 남원 산내면은 경지 규모에 있어서는 적으나 다양한 형태의 귀농자들이 모여서

지역농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혀 귀농을 생각해보지 않은 집단도 6.8%나 되고 있으며, 농촌이 좋고, 농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도 15%가 되었으며, 도시생활의 어려움이나 취업을 못해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도 10.5%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퇴직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귀농동기가 될 것이나, 그 외에도 이상적 삶이나, 농업의 전망이 밝거나, 농촌생활을 동경하여 귀농하거나, 건강을 위하여나 영농승계를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공통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 적용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5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동기

	빈도수(명)	백분율(%)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21	13.0
퇴직 후 여생을 위해	34	21.1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15	9.3
농촌 생활이 좋아서	12	7.5
농업 전망이 밝아서	12	7.5
취업을 못해서	2	1.2
영농 승계를 위해서	17	10.6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8	5.0
인간다운 삶을 위해	13	8.1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	12	7.5
생각해 본적 없음	11	6.8
농고출신	1	.6
무응답	3	1.9
합계	161	100.0

귀농인식단계의 응답자들의 귀농에 대한 인식수준과 귀농희망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56>, <표 57>과 같다. 귀농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알고만 있는 정도가 45%이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가 37%,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9%정도이고, 귀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8%정도이다. 그러므로 대개의 귀농을 인식하는 단계의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경우이나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경우로 비교적 수동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표 56>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인식 수준

	빈도수(명)	백분율(%)
귀농에 대해 알고만 있다.	73	45.3
귀농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60	37.3
귀농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중이다.	15	9.3
귀농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13	8.1
합계	161	100.0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인식수준을 파악한 결과 <표 57>과 같이 귀농동기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으며, 귀농에 대하여 알고만 있는 경우는 건강 때문에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와 기타 동기의 경우였고,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와 농촌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귀농에 대하여 알고만 있거나 귀농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나 밝은 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을 생각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경우는 귀농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다수였다. 귀농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영농승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수준이었다.

<표 5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인식 정도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귀농을 알고만 있음.	14 66.7%	16 47.1%	7 46.7%	5 41.7%	2 16.7%	6 24.0%	8 32.0%	15 88.2%	73 45.3%
귀농을 생각해본 적 있음	4 19.0%	16 47.1%	8 53.3%	5 41.7%	5 41.7%	9 36.0%	11 44.0%	2 11.8%	60 37.3%
귀농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중	1 4.8%	1 2.9%	0 .0%	1 8.3%	4 33.3%	4 16.0%	4 16.0%	0 .0%	15 9.3%
귀농을 구체적 준비중	2 9.5%	1 2.9%	0 .0%	1 8.3%	1 8.3%	6 24.0%	2 8.0%	0 .0%	13 8.1%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48.301, **p<.01

그에 비하여 귀농을 희망하는 정도는 어떠한가를 조사한 결과는 높은 편이나 매우 높은 경우는 30%정도이고, 적은 편은 35%정도로 희망정도가 낮은 실정이며,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정도로 개별로는 다수였으나 비교적 귀농을 희망하는 정도가 낮은 수준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귀농인식단계의 사람들이 1/3정도는 귀농을 희망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17%로 귀농희망자의 1/2은 귀농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얼마나 귀농희망자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책의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표 5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희망 정도

	빈도수(명)	백분율(%)
매우 적은 편	15	9.3
적은 편	41	25.5
보통	57	35.4
높은 편	31	19.3
매우 높음	17	10.6
합계	161	100.0

귀농동기별 귀농희망정도는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귀농에 대한 희망정도가 매우 낮은 정도는 농촌생활선호로 귀농을 희망하는 경우였고, 영농승계나 인간다운 삶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귀농희망정도가 적은 편이었으며, 건강이나 퇴직 후 귀농,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귀농희망정도가 보통정도였으며,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한 경우는 적은 편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기타 동기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높은 편이 다수였다. 결과적으로 귀농인식단계의 귀농희망은 보통정도이고, 30%정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우가 건강이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가 비교적 높았으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다수인 집단들은 귀농으로 바뀔 경향이 있을 것이다.

<표 5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희망 정도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매우적음	2 9.5%	1 2.9%	0 .0%	5 41.7%	1 8.3%	4 16.0%	2 8.0%	0 .0%	15 9.3%
적은편	3 14.3%	5 14.7%	2 13.3%	3 25.0%	5 41.7%	12 48.0%	10 40.0%	1 5.9%	41 25.5%
보통.	8 38.1%	19 55.9%	11 73.3%	4 33.3%	5 41.7%	6 24.0%	4 16.0%	0 .0%	57 35.4%
높은편.	5 23.8%	6 17.6%	1 6.7%	0 .0%	0 .0%	2 8.0%	7 28.0%	10 58.8%	31 19.3%
매우높음	3 14.3%	3 8.8%	1 6.7%	0 .0%	1 8.3%	1 4.0%	2 8.0%	6 35.3%	17 10.6%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88.936, **p<.01

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준비 정도

이들의 귀농준비정도 역시 <표 60>와 같이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5%정도이고, 귀농교육을 계획 중이거나 수료한 경우가 22%정도이고, 농업관련활동중인 경우가 19%, 귀농관련책을 구입한 경우 12%, 귀농관련인터넷 동호회 활동 중인 경우가 6%정도로 귀농교육을 받았거나 농업관련활동이나 귀농관련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거나 관련책자를 구입한 경우가 60%정도의 응답자가 귀농에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전과를 생각하고 있거나, 귀농예정자나 귀농자의 가족인경우도 있어서 귀농이 이들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얼마나 귀농으로 이어질지는 많은 변수가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나 그들의 귀농 예정 시간을 조사한다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표 6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현재의 귀농 준비 유형

	빈도수(명)	백분율(%)
귀농 관련 인터넷 동호회 활동	10	6.2
귀농과 관련된 책의 구입	20	12.4
귀농교육을 계획 중이거나 수료	35	21.7
현재 농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동 중	31	19.3
아무런 준비 않고 있다.(생각해 본적 없다.)	56	34.8
농업관련 학과로 전과준비, 농학전공	2	1.2
귀농할 예정, 집이 귀농	2	1.2
무응답	5	3.1
합계	161	100.0

귀농동기별 귀농준비 유형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수인 집단은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과 도시생활회의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 기타 집단으로 퇴직 후 귀농자나 도시생활회의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들은 준비가 없으므로 나이든 연령층의 교육 기회 제공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농촌생활을 선호하여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이나 영농승계로 하는 경우는 농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동 중에 있으며, 인간다운 삶으로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귀농교육을 계획 중이거나 수료한 집단에 속한다. 건강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귀농에 관련된 책을 구입하거나 현재 농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동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귀농관련 책을 구입하거나 귀농교육

을 준비하는 형태였다.

<표 6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준비 유형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1 4.8%	2 5.9%	1 6.7%	0 .0%	0 .0%	0 .0%	1 4.0%	0 .0%	5 3.1%
귀농 관련 인터넷 동호회 활동	2 9.5%	2 5.9%	2 13.3%	1 8.3%	0 .0%	2 8.0%	0 .0%	1 5.9%	10 6.2%
귀농관련 책자구입	5 23.8%	2 5.9%	1 6.7%	1 8.3%	4 33.3%	3 12.0%	3 12.0%	1 5.9%	20 12.4%
귀농교육계획중/수료	4 19.0%	6 17.6%	3 20.0%	2 16.7%	4 33.3%	7 28.0%	8 32.0%	1 5.9%	35 21.7%
현재 농업관련하여 직접 활동 중	5 23.8%	2 5.9%	1 6.7%	5 41.7%	2 16.7%	9 36.0%	7 28.0%	0 .0%	31 19.3%
아무런 준비 없음	3 14.3%	20 58.8%	7 46.7%	3 25.0%	1 8.3%	2 8.0%	6 24.0%	14 82.4%	56 34.8%
농업관련 학과로 전과준비	0 .0%	0 .0%	0 .0%	0 .0%	1 8.3%	1 4.0%	0 .0%	0 .0%	2 1.2%
귀농할 예정, 집이 귀농	1 4.8%	0 .0%	0 .0%	0 .0%	0 .0%	1 4.0%	0 .0%	0 .0%	2 1.2%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78.750, **p<.0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희망 귀농 시기는 1-5년 이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22%나 되었으며, 6-10년 이내가 16%정도로 이들을 합하면 37%가 10년 이내 귀농을 희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대가 2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30대 초반까지 38%정도가 귀농을 예정하고 있고, 40대 후반에서 50대에서 16%정도가 귀농을 예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2%정도가 나이 들어서 귀농을 결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초반기의 귀농집단과 후반기의 귀농집단이 서로 다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후반기 귀농 희망자는 은퇴를 전제로 한 귀농 집단으로 보여 농업을 생업으로서 영위하기 보다는 노후 생활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30대 초반의 귀농 희망자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여 이들 집단별로 정책적 집행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평균적으로는 희망귀농시기가 17년 정도로 24세정도가 응답자의 평균연령임을 고려할 때, 40대 초반에 귀농을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창업농중심의 취농 자금은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지원받기 어려움을 말한다.

<표 62>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희망 귀농 시기

	빈도	백분율(%)
무응답	22	13.7
1-5년	36	22.4
6-10년	25	15.5
11-15년	5	3.1
16-20년	13	8.1
21-25년	8	5.0
26-30년	26	16.1
31-35년	1	.6
36-40년	16	9.9
41년 이상	9	5.6
계	161	100.0

*평균:17.72년, 표준편차:16.97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 시기는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한 집단은 30년 이후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농촌생활을 선호하여 귀농하거나 영농승계를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는 6년,7년 이후 귀농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귀농동기에 따라 귀농에 대한 준비를 다르게 제공하여야 함을 말한다.

<표 63>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시기의 차이 검증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Scheffe의 사후검정
건강	21	17.10	15.659			ab
퇴직 후	34	30.56	13.360			b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15	23.20	15.608			ab
농촌생활 선호	12	6.25	6.649			a
밝은 농업 전망	12	12.33	28.202	6.592	.000	ab
영농 승계	25	7.64	7.756			a
인간다운 삶을 위해	25	15.28	11.957			ab
기타	17	18.29	21.085			ab
계	161	17.72	16.977			

***p<.001

6) 귀농인식단계 응답자의 영농능력과 희망 작목

귀농자가 귀농을 결심한 후 부딪치는 첫 번째 문제는 귀농하여 농사를 지을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기술적 능력은 교육과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조사는 농사경험 여부와 영농능력을 영역별로 조사하였다. 또한 영농능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가를 파악하여 귀농인식단계의 학생들이 얼마나 귀농단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귀농자들이 선호하는 작목 역시 그들의 적응이나 교육지원을 파악할 때 중요한 예측 요소이므로 파악하였다.

귀농 인식 단계 응답자들의 농사 경험 유무를 질문한 결과 <표 64>과 같이 농사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32%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2/3는 농사경험이 없는 경우였다. 이는 인식단계의 인력들이 취농을 하기 위해서는 영농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농사 기술 교육이 필요함을 말한다.

<표 64>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농사 경험

	빈도수(명)	백분율(%)
있음	51	31.7
없음	110	68.3
합계	161	100.0

귀농동기에 따른 농사경험은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을 생각하고 있거나 영농 승계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농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인간다운 삶이나 도시생활 회의,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이나 기타 집단은 농사경험이 적은 실정이며, 건강이나 농촌생활 선호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도 농사경험을 적게 갖고 있었으나 일부는 농사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사경험이 적은 집단은 그들을 대상으로 귀농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6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사경험

	건강	퇴직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있음	9 42.9%	5 14.7%	2 13.3%	4 33.3%	7 58.3%	14 56.0%	7 28.0%	3 17.6%	51 31.7%
없음	12 57.1%	29 85.3%	13 86.7%	8 66.7%	5 41.7%	11 44.0%	18 72.0%	14 82.4%	110 68.3%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20.561, **p<.01

실제로 귀농 인식 단계 응답자들의 영농 능력 수준을 영농 계획 수립, 재배(사육)기술, 농업 경영 능력,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 경영 분석과 진단 능력, 농업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 낮다고 응답한 항목들이 다수인 것은 영농 계획 수립, 재배(사육) 기술, 농업 경영 능력, 경영 분석과 진단 능력, 농업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이 낮았으며,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은 보통이나, 매우 낮다고 대답한 경우도 29%나 되어 농산물의 판매와 구매 능력 역시 비교적 필요한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항목으로는 자금 확보가 응답되었으나, 수준은 보통 수준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금의 확보는 기술이라기보다 다양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금 부분은 적절한 지원정책의 부분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표 66>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영농능력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약간 낮음	매우 낮음	무응답	계
영농계획수립	6(3.7)	14(8.7)	39(24.2)	42(26.1)	56(34.8)	4(2.5)	161
재배(사육)기술	5(3.1)	16(9.9)	24(14.9)	45(28.0)	67(41.6)	4(2.5)	161
농업경영능력	5(3.1)	17(10.6)	35(21.7)	33(20.5)	67(41.6)	4(2.5)	161
농산물 판매와 구매능력	4(2.5)	26(16.1)	49(30.4)	31(19.3)	47(29.2)	4(2.5)	161
경영분석과 진단능력	4(2.5)	21(13.0)	39(24.2)	35(21.7)	57(35.4)	5(3.1)	161
농업정보수집과 활용능력	6(3.7)	24(14.9)	42(26.1)	39(24.2)	45(28.0)	5(3.1)	161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 능력	25(15.5)	33(20.5)	49(30.4)	21(13.0)	28(17.4)	5(3.1)	161
기타(자금확보)	-	-	1(0.6)	-	-	160(99.4)	161

귀농동기에 따른 인식단계 응답자들의 영농계획수립능력은 <표 67>과 같이 건강, 인간다운 삶, 기타이유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영농계획수립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도시생활회의나 영농승계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영농계획수립능력이 보통수준이었으며, 퇴직후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경우는 보통과 우수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6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영농 계획 수립 능력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1 4.8%	1 2.9%	0 .0%	1 8.3%	0 .0%	0 .0%	1 4.0%	0 .0%	4 2.5%
매우 낮음	7 33.3%	14 41.2%	5 33.3%	1 8.3%	3 25.0%	3 12.0%	13 52.0%	10 58.8%	56 34.8%
약간 낮음	5 23.8%	15 44.1%	2 13.3%	3 25.0%	1 8.3%	7 28.0%	4 16.0%	5 29.4%	42 26.1%
보통	6 28.6%	3 8.8%	7 46.7%	5 41.7%	4 33.3%	8 32.0%	5 20.0%	1 5.9%	39 24.2%
우수	0 .0%	1 2.9%	1 6.7%	1 8.3%	4 33.3%	5 20.0%	1 4.0%	1 5.9%	14 8.7%
매우우수	2 9.5%	0 .0%	0 .0%	1 8.3%	0 .0%	2 8.0%	1 4.0%	0 .0%	6 3.7%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58.114, **p<.01

재배나 사육기술 수준은 건강이나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인간다운 삶, 기타 이유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농촌생활 선호하여 귀농하는 경우는 보통 수준이었고,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매우 낮음, 보통, 우수에 모두 다수 응답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농승계는 약간 낮음 정도가 다수였다.

<표 6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재배(사육)기술 수준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1 4.8%	1 2.9%	0 .0%	1 8.3%	0 .0%	0 .0%	1 4.0%	0 .0%	4 2.5%
매우 낮음	10 47.6%	20 58.8%	7 46.7%	1 8.3%	3 25.0%	3 12.0%	12 48.0%	11 64.7%	67 41.6%
약간 낮음	4 19.0%	9 26.5%	5 33.3%	2 16.7%	2 16.7%	9 36.0%	8 32.0%	6 35.3%	45 28.0%
보통	4 19.0%	3 8.8%	1 6.7%	7 58.3%	3 25.0%	5 20.0%	1 4.0%	0 .0%	24 14.9%
우수	1 4.8%	1 2.9%	1 6.7%	0 .0%	3 25.0%	8 32.0%	2 8.0%	0 .0%	16 9.9%
매우우수	1 4.8%	0 .0%	1 6.7%	1 8.3%	1 8.3%	0 .0%	1 4.0%	0 .0%	5 3.1%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69.797, **p<.01

귀농동기별 농업경영능력은 <표 69>과 같이,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인간다운 삶, 기타 이유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매우 낮음 수준이었고, 농촌생활 선호와 영농승계로 귀농하기를 생각하는 집단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다수가 응답하였다. 이는 밝은 농업 전망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농촌생활을 선호하여 귀농하거나 영농 승계로 귀농을 결심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업이나 농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표 6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업경영능력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1 4.8%	1 2.9%	0 .0%	1 8.3%	0 .0%	0 .0%	1 4.0%	0 .0%	4 2.5%
매우 낮음	7 33.3%	21 61.8%	7 46.7%	0 .0%	3 25.0%	2 8.0%	15 60.0%	12 70.6%	67 41.6%
약간 낮음	5 23.8%	6 17.6%	4 26.7%	4 33.3%	2 16.7%	5 20.0%	3 12.0%	4 23.5%	33 20.5%
보통	5 23.8%	4 11.8%	2 13.3%	6 50.0%	1 8.3%	12 48.0%	4 16.0%	1 5.9%	35 21.7%
우수	3 14.3%	1 2.9%	2 13.3%	1 8.3%	4 33.3%	5 20.0%	1 4.0%	0 .0%	17 10.6%
매우우수	0 .0%	1 2.9%	0 .0%	0 .0%	2 16.7%	1 4.0%	1 4.0%	0 .0%	5 3.1%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68.541, **p<.01

농산물 판매와 구매능력은 <표 70>와 같이, 건강이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매우 낮은 실정이고, 농촌생활 선호나 영농승계, 기타 이유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매우 낮음과 약간 낮음에 다수가 응답하였다.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매우 낮음과 보통으로 판단한 집단이 다수였다.

<표 7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1 4.8%	1 2.9%	0 .0%	1 8.3%	0 .0%	0 .0%	1 4.0%	0 .0%	4 2.5%
매우 낮음	7 33.3%	11 32.4%	5 33.3%	1 8.3%	3 25.0%	4 16.0%	10 40.0%	6 35.3%	47 29.2%
약간 낮음	1 4.8%	11 32.4%	2 13.3%	3 25.0%	1 8.3%	6 24.0%	5 20.0%	2 11.8%	31 19.3%
보통	6 28.6%	6 17.6%	5 33.3%	5 41.7%	4 33.3%	9 36.0%	7 28.0%	7 41.2%	49 30.4%
우수	6 28.6%	4 11.8%	3 20.0%	2 16.7%	4 33.3%	4 16.0%	1 4.0%	2 11.8%	26 16.1%
매우우수	0 .0%	1 2.9%	0 .0%	0 .0%	0 .0%	2 8.0%	1 4.0%	0 .0%	4 2.5%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32.135, p>.05

경영분석과 진단능력은 퇴직 후,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인간다운 삶, 기타 이유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들은 경영분석과 진단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다수가 판단하고 있으며, 농촌생활 선호, 밝은 농업전망, 영농 승계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보통 수준으로 다수가 판단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여 건강으로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집단은 매우 낮음으로 판단한 집단과 우수로 판단한 집단이 다수였다. 이는 건강상의 목적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경영분석과 진단능력에 있어서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퇴직 후나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여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들은 경영분석과 진단 능

력이 부족함으로 이들 부분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귀농을 결심하는 집단은 경영분석과 진단능력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집단에 고르게 제공되어야 함을 말한다.

<표 7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경영 분석과 진단 능력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1 4.8%	1 2.9%	1 6.7%	1 8.3%	0 .0%	0 .0%	1 4.0%	0 .0%	5 3.1%
매우 낮음	7 33.3%	14 41.2%	7 46.7%	3 25.0%	2 16.7%	2 8.0%	13 52.0%	9 52.9%	57 35.4%
약간 낮음	3 14.3%	10 29.4%	2 13.3%	3 25.0%	1 8.3%	8 32.0%	4 16.0%	4 23.5%	35 21.7%
보통	3 14.3%	8 23.5%	3 20.0%	4 33.3%	5 41.7%	9 36.0%	4 16.0%	3 17.6%	39 24.2%
우수	7 33.3%	1 2.9%	2 13.3%	0 .0%	3 25.0%	5 20.0%	2 8.0%	1 5.9%	21 13.0%
매우우수	0 .0%	0 .0%	0 .0%	1 8.3%	1 8.3%	1 4.0%	1 4.0%	0 .0%	4 2.5%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44.879, p>.05

농업정보수집과 활용능력은 <표 72>과 같이,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농업정보수집과 활용능력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2 9.5%	1 2.9%	0 .0%	1 8.3%	0 .0%	0 .0%	1 4.0%	0 .0%	5 3.1%
매우 낮음	8 38.1%	11 32.4%	5 33.3%	1 8.3%	2 16.7%	1 4.0%	9 36.0%	8 47.1%	45 28.0%
약간 낮음	5 23.8%	5 14.7%	6 40.0%	5 41.7%	4 33.3%	6 24.0%	6 24.0%	2 11.8%	39 24.2%
보통	4 19.0%	11 32.4%	4 26.7%	3 25.0%	3 25.0%	9 36.0%	3 12.0%	5 29.4%	42 26.1%
우수	1 4.8%	6 17.6%	0 .0%	2 16.7%	2 16.7%	7 28.0%	5 20.0%	1 5.9%	24 14.9%
매우우수	1 4.8%	0 .0%	0 .0%	0 .0%	1 8.3%	2 8.0%	1 4.0%	1 5.9%	6 3.7%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39.613, p>.05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은 귀농시 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술습득이나 구체적 영농기술의 습득을 통한 지역 정착에 중요하므로, 귀농동기에 따라 귀농인식단계의 응답자들에 있어서 능력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73>과 같이,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이 가장 많았으며, 각 집단별로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었으나,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 능력 외에 기타 영농능력으로 제시된 것은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에서 제시되었다. 이들 외에 다른 집단에서 응답이 없었으므로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그 정도는

보통정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3>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1 4.8%	2 5.9%	0 .0%	1 8.3%	0 .0%	0 .0%	1 4.0%	0 .0%	5 3.1%
매우 낮음	2 9.5%	3 8.8%	3 20.0%	3 25.0%	2 16.7%	3 12.0%	7 28.0%	5 29.4%	28 17.4%
약간 낮음	2 9.5%	5 14.7%	5 33.3%	1 8.3%	0 .0%	4 16.0%	2 8.0%	2 11.8%	21 13.0%
보통	8 38.1%	15 44.1%	3 20.0%	4 33.3%	3 25.0%	8 32.0%	6 24.0%	2 11.8%	49 30.4%
우수	3 14.3%	5 14.7%	1 6.7%	2 16.7%	6 50.0%	5 20.0%	7 28.0%	4 23.5%	33 20.5%
매우 우수	5 23.8%	4 11.8%	3 20.0%	1 8.3%	1 8.3%	5 20.0%	2 8.0%	4 23.5%	25 15.5%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35.792, p>.05

<표 74>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기타 영농 능력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삶	기타	계
무응답	21 100.0%	33 97.1%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0 99.4%
보통	0 .0%	1 2.9%	0 .0%	0 .0%	0 .0%	0 .0%	0 .0%	0 .0%	1 .6%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3.759, p>.0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의 영농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들 보충할 귀농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귀농 교육에 대한 참가의사는 있다는 의견이 63%, 없다는 의견이 37%로 귀농교육에 대한 참가자가 2/3정도로 비교적 귀농교육에 대한 참가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의사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을 것이나, 참가의사가 있으므로 귀농자들이나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농교육을 제공하여 영농능력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75>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교육 참가 의사

	빈도수(명)	백분율(%)
있음	102	63.4
없음	59	36.6
합계	161	100.0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교육 참가 의사를 분석한 결과 <표 76>과 같이 농촌생활을 선호하여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이나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을 생각하여 귀농하는 집단은 압도적으로 귀농교육 참여 의사가 있으며, 건강이나 도시생활회의로 귀농하는 집단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정도가 반반이며, 기타 동기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귀농교육의 참여의사가 아주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적 내용

에 따라 귀농교육의 참가자가 다를 것으로 예견된다면, 귀농교육의 참여의사는 동기유발된 집단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학습자의 동기에 따라 교육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져야 함을 말한다.

<표 76>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교육 참가 의사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있음	13 61.9%	17 50.0%	8 53.3%	11 91.7%	8 66.7%	21 84.0%	22 88.0%	2 11.8%	102 63.4%
없음	8 38.1%	17 50.0%	7 46.7%	1 8.3%	4 33.3%	4 16.0%	3 12.0%	15 88.2%	59 36.6%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38.098, **p<.01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이 귀농시에 희망하는 주요 작목은 <표 77>과 같이 화훼 분야와 과수 분야, 특용 작물 분야에 77%정도로 2/3이상이 희망하고 있으며, 벼를 선택하는 경우는 2%에 지나지 않았으며 채소도 16%정도였다. 그 외에는 대가축 사육을 작목으로 선정한 경우가 4%정도였고, 두류/서류/잡곡이나 조경을 희망 작목으로 선정한 경우는 1.2%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수익을 생산할 수 있는 작목 교육을 귀농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한다. 앞으로 생태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사를 짓는 벼농사 집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시장지향 농업이 귀농자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고, 농업의 영위가 수익을 내지 못할 때 귀농희망자의 감소를 예견할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7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시 희망 주요 작목

	빈도수(명)	백분율(%)
논 벼	3	1.9
채 소	25	15.5
과 수	37	23.0
화 훼	56	34.8
특용작물	32	19.9
두류/서류/잡곡	1	0.6
대가축 사육	6	3.7
조 경	1	0.6
합계	161	100.0

귀농인식단계의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주요 작목이 귀농동기에 따라 다른가를 검증한 결과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 작목이 귀농동기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작물에 대한 선호는 경제성을 고려한 접근이 주요 유형임을 말한다.

<표 78>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시 희망 작목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 회의	농촌생활 선호	밝은농업 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논벼	0 .0%	0 .0%	0 .0%	0 .0%	0 .0%	1 4.0%	2 8.0%	0 .0%	3 1.9%
채소	2 9.5%	11 32.4%	1 6.7%	2 16.7%	2 16.7%	1 4.0%	5 20.0%	1 5.9%	25 15.5%
과수	5 23.8%	8 23.5%	3 20.0%	0 .0%	1 8.3%	4 16.0%	7 28.0%	9 52.9%	37 23.0%
화훼	10 47.6%	8 23.5%	4 26.7%	8 66.7%	4 33.3%	13 52.0%	4 16.0%	5 29.4%	56 34.8%
특용작물	3 14.3%	7 20.6%	7 46.7%	2 16.7%	4 33.3%	5 20.0%	3 12.0%	1 5.9%	32 19.9%
두류/서류/잡곡	0 .0%	0 .0%	0 .0%	0 .0%	0 .0%	0 .0%	1 4.0%	0 .0%	1 .6%
대가축	1 4.8%	0 .0%	0 .0%	0 .0%	1 8.3%	1 4.0%	2 8.0%	1 5.9%	6 3.7%
조경	0 .0%	0 .0%	0 .0%	0 .0%	0 .0%	0 .0%	1 4.0%	0 .0%	1 .6%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65.613, p>.05

7)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시 가장 필요한 사항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이 귀농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를 조사한 결과 <표 79>과 같다. 일반적으로 경영기술문제가 23%, 재배(사육)기술 문제가 22%이며, 운영자금 문제가 14%로 경영과 재배기술, 자금의 3가지가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그 외에는 마을사람들과의 관계형성 문제, 농업, 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 변화의 문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이는 귀농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기술과 경영능력, 자금의 문제가 중요하며, 이들 외에도 마을사람들과의 조화, 농업 및 농촌 정책과 환경변화, 신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농업과 농촌정책의 변화는 귀농자 개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적응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기술, 경영능력, 자금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이들 외에 마을 주민과의 관계 형성, 확고한 신념을 기르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79>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가장 필요한 사항

	빈도수(명)	백분율(%)
재배(사육)기술 문제	35	21.7
경영 기술 문제	37	23.0
판매 기술 부족	6	3.7
운영자금 문제	23	14.3
토지구입자금 문제	6	3.7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1	0.6
노동력 확보 문제	3	1.9
생산물 판로 문제	3	1.9
기술 조언자 확보 문제	1	0.6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10	6.2
작목 선택 문제	8	5.0
자녀교육문제	1	0.6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5	3.1
의료 · 복지시설부족	1	0.6
농업 · 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10	6.2
확고한 신념	10	6.2
무응답	1	0.6
합계	161	100.0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시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표 80>와 같이,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귀농동기에 따라 귀농시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말한다.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나 농촌생활 선호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경영기술의 문제를 다수가 선택하였고, 건강문제로 귀농을 생각하거나 퇴직 후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은 재배(사육)기술을 가장 중시하였다. 기타 이유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운영자금 확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밝은 농업의 전망이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필요사항을 경영기술, 운영자금, 토지구입자금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은 재배기술, 경영기술, 농업 · 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를 주요한 요소로 선택하였다. 이는 귀농동기에 따라 그들의 귀농에 필요한 사항이 다름을 말한다. 운영자금이나 토지구입자금등의 금전적 요소도 중요하나, 재배기술이나 경영기술도 중요하므로 대상자들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가르치는 문제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표 80> 귀농인식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 시 필요 사항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기타	계
무응답	0 .0%	0 .0%	0 .0%	0 .0%	0 .0%	1 4.0%	0 .0%	0 .0%	1 .6%
재배(사육)기술 문제	9 42.9%	8 23.5%	3 20.0%	3 25.0%	1 8.3%	5 20.0%	4 16.0%	2 11.8%	35 21.7%
경영 기술 문제	5 23.8%	7 20.6%	4 26.7%	4 33.3%	2 16.7%	8 32.0%	4 16.0%	3 17.6%	37 23.0%
판매 기술 부족	0 .0%	0 .0%	1 6.7%	1 8.3%	1 8.3%	3 12.0%	0 .0%	0 .0%	6 3.7%
운영자금 문제	1 4.8%	5 14.7%	1 6.7%	2 16.7%	2 16.7%	3 12.0%	3 12.0%	6 35.3%	23 14.3%
토지구입자금 문제	2 9.5%	0 .0%	0 .0%	0 .0%	2 16.7%	0 .0%	2 8.0%	0 .0%	6 3.7%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0 .0%	0 .0%	0 .0%	0 .0%	0 .0%	1 4.0%	0 .0%	0 .0%	1 .6%
노동력 확보 문제	0 .0%	0 .0%	1 6.7%	2 16.7%	0 .0%	0 .0%	0 .0%	0 .0%	3 1.9%
생산물 판로 문제	1 4.8%	1 2.9%	0 .0%	0 .0%	0 .0%	0 .0%	1 4.0%	0 .0%	3 1.9%
기술 조언자 확보 문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9%	1 .6%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문제	0 .0%	5 14.7%	0 .0%	0 .0%	0 .0%	0 .0%	3 12.0%	2 11.8%	10 6.2%
작목 선택 문제	1 4.8%	0 .0%	2 13.3%	0 .0%	1 8.3%	1 4.0%	3 12.0%	0 .0%	8 5.0%
자녀교육문제	1 4.8%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6%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0 .0%	1 2.9%	1 6.7%	0 .0%	1 8.3%	0 .0%	1 4.0%	1 5.9%	5 3.1%
의료 · 복지시설부족	0 .0%	1 2.9%	0 .0%	0 .0%	0 .0%	0 .0%	0 .0%	0 .0%	1 .6%
농업 · 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1 4.8%	2 5.9%	1 6.7%	0 .0%	1 8.3%	0 .0%	4 16.0%	1 5.9%	10 6.2%
확고한 신념	0 .0%	4 11.8%	1 6.7%	0 .0%	1 8.3%	3 12.0%	0 .0%	1 5.9%	10 6.2%
계	21 100.0%	34 100.0%	15 100.0%	12 100.0%	12 100.0%	25 100.0%	25 100.0%	17 100.0%	161 100.0%

x^2=126.937, **p<.01

나. 귀농준비단계

귀농준비자는 귀농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과 충남북(대전 포함) 지역, 경남북(울산, 부산, 대구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지역으로 구분하여 인터넷의 귀농모임과 귀농학교 졸업생 중 각 학교에 협력을 요청하여 명단을 확보한 사람들 중에서 주소가 각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권역별로 40명씩 160명을 표집하여 방문 면접 조사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귀농모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59명이었으나 자료 정리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55명이었다.

1) 귀농준비자의 일반적 특성

귀농준비자들은 성격상 귀농에 대한 결심을 하고 준비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귀농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생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또는 귀농모임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귀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귀농준비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81>과 같이, 남자가 81%였고, 여자가 18%였으며, 현재의 직업은 자영업 24%, 사무직이 23%, 주부가 12%정도였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재의 연령은 28세부터 69세까지 걸쳐있었고, 평균나이는 46세 정도였고, 처음 귀농정보를 접한 연령은 20세부터 67세까지 걸쳐있으며 평균 41세 정도였다.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3세에서 65세까지 걸쳐있었으며, 평균 43세정 도였다. 그러므로 처음 귀농정보를 접하고 2년 후에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하여 현재 3년 정도 지난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귀농동기는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가 22%, 퇴직 후 귀농하는 경우가 21%였으며, 농촌생활이 좋아서 귀농하는 경우는 18%정도였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11%였고, 건강이 9.7%였다. 그에 비하여 영농 승계나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귀농을 결심한 응답자는 1.3%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귀농의 결심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나 대략 도시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삶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40대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 후 귀농이 주요 동향일 것이며, 이상이나 농촌생활, 인간다운 삶은 귀농학교 출신자들이 많음을 고려할 때 추정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학력은 대학중퇴에서 대졸 집단이 45%, 고중퇴에서 고졸집단이 39%로 다음 순서였다. 학력집단이 비교적 고학력으로 농촌지역에 유입되었을 때 유능한 인력의 유입으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집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81>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무응답	1	0.6
	남	126	81.3
	여	28	18.1
현재 직업	자영업	37	23.9
	사무직	36	23.2
	영업직	12	7.7
	공무원	7	4.5
	주부	18	11.6
	퇴직	12	7.7
	실직	14	9.0
	학생	9	5.8
	기타	8	5.2
	무응답	2	1.3
귀농 결심 이유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5	3.2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해	15	9.7
	퇴직 후 여생을 위해	33	21.3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9	5.8
	농촌 생활이 좋아서	28	18.1
	농업 전망이 밝아서	4	2.6
	취업을 못해서	1	0.6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2	1.3
	인간다운 삶을 위해	17	11.0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34	21.9
	기타	7	4.5
최종 학력	중졸이하	9	5.8
	고 중퇴-고졸	60	38.7
	전문대 중퇴-전문대졸	10	6.5
	대학 중퇴-대졸	69	44.5
	대학원 졸 이상	7	4.5
계		155	100.0

항목	최고	최소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
응답자의 나이	69	28	46.36	8.750	0
귀농 정보를 처음 접한 시기	67	20	41.26	8.705	6
귀농결심하고 준비시작 시기	65	3	43.49	9.176	14

2) 귀농준비자의 농업적 배경

귀농준비집단의 농업적 배경은 농사경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정도, 직업의 농업관련성, 농업교육이수, 부모님의 직업을 파악하였다. 직접 농사경험은 <표 8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있는 경우가 54%로 약간 많았으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은 아주 많음이 43%, 많은 편이 39%로 82%정도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이는 자신이 귀농을 결심하였거나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인 결과로 보인다.

<표 82>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농업적 배경

		빈도	백분율(%)
농업농촌관심도	아주 적음	4	2.6
	적은 편	5	3.2
	보통	20	12.9
	많은 편	60	38.7
	아주 많음	66	42.6
직접농사경험	무응답	1	0.6
	있음	84	54.2
	없음	70	45.2
부모님의 직업	농업	94	60.6
	비농업	61	39.4
농업계학교출신	예	16	10.3
	아님	139	89.7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정도	무응답	1	0.6
	거의 없음	33	21.3
	없는 편	36	23.2
	조금 있음	71	45.8
	많은 편	13	8.4
	매우 많음	1	0.6
현직업의 농업관련성	무응답	3	1.9
	전혀 무관	82	52.9
	적은 편	42	27.1
	보통	11	7.1
	높은 편	12	7.7
	매우 관련 높음	5	3.2
계		155	100.0

부모님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는 61%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농업계 학교 출신자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농업관련교육을 이수한 정도는 조금 있는 경우가 46%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없거나 없는 편도 45%정도로 농업관련교육을 이수한 응답자가 55%정도로 과반수이나, 현직업의 농업 관련성은 전혀 무관한 경우가 53%로 다수였고, 관련이 적은 편도 27%로 관련이 높거나 매우 관련이 높은 경우 11%보다 많은 편이었다. 이는 귀농을 준비하는 집단이 농업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가지고 있으나, 농업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농업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귀농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귀농준비단계 응답자의 귀농 준비

귀농준비는 영농능력이나 귀농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영농조언자를 확보한 경우는 41%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농조언자가 없는 경우가 59%나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귀농준비자들이 지속적 접촉을 통하여 귀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표 83>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지속적 접촉하여 영농 조언자 확보 여부

	빈도	백분율(%)
예	64	41.3
아니오	91	58.7
계	155	100.0

귀농을 처음 결심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의 지원은 귀농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귀농 결심시 주변사람들의 반응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84>과 같이 반대하는 편이 41%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찬성하는 편은 28%정도에 그쳐, 그 다음이었고, 적극 찬성까지 합하여도 찬성은 31%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귀농준비 집단에 있어서 귀농 결정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반대는 1/2수준으로 반대의 극복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귀농을 결정한 시기가 평균적으로 43세정도임을 볼 때 자녀교육이나 기타 일들로 지출이 많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농업에 대한 경험도 적고, 관련 직업도 아닌 사람들이 귀농을 결정한 것은 주변사람들에게 힘든 일로 생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84>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처음 귀농을 결심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빈도	백분율(%)
적극 반대	14	9.0
반대하는 편	63	40.6
보통	30	19.4
찬성하는 편	44	28.4
적극 찬성	4	2.6
계	155	100.0

현재의 나이가 평균 46세로 귀농을 결심한 후 평균 3년 정도 지난 시기이므로 현재 주변 사람들의 지원정도는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주변에 대한 설득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한 결과 <표 85>와 같이 보통이 가장 많았고, 지원하는 편이 27%정도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지원하는 편이나 적극 지원하는 편의 비율이 31.5%정도로 처음 귀농 결심시 찬성 집단 31%와 구성비율에 있어서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원 않는 집단은 31.8%로 반대와 적극반대의 비율인 49.6%보다는 상당수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비율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대개의 반대자들이 중립적으로 바뀐 결과로 보인다. 이는 적극적 지원보다는 처음의 격심한 반대가 포기와 방관의 단계로 바뀐 결과로 보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귀농 실천의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표 85>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본인의 귀농 준비에 대한 주변 사람의 지원 정도

	빈도	백분율(%)
무응답	3	1.9
거의 지원 안함	26	16.8
지원하지 않는 편	23	14.8
보통	54	34.8
지원하는 편	42	27.1
적극 지원	7	4.5
계	155	100.0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영농능력은 <표 86>과 같이, 영농계획수립, 경영분석과 진단능력,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은 평균적인 농업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농업정보수집과 활용능력은 비슷한 수준과 약간 낮은 수준이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그에 비하여 재배(사육)기술, 농업경영능력은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판매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재배(사육)기술 능력과 농업경영능력을 개선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판매능력은 유통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유통단체와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준비정도는 귀농과 관련된 정신적 무장, 자금, 재배(사육) 지식과 기술, 경영기법, 주변사람의 지지, 귀농지역 선정, 농지의 확보, 거주지 확보, 농기계와 시설의 확보, 교육시설의 확보, 농촌지역주민과의 관계 준비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준비가 잘된 편이 가장 많은 내용은 귀농과 관련된 정신적 무장, 귀농지역 선정, 농지확보, 거주지 확보, 농촌지역주민과의 관계 준비 등이 잘된 편으로 응답되었고, 정착자금 확보와 주변사람의 지지확보가 보통이었으며, 재배(사육)기술과 경영기법이 미흡한 편이었고, 농기계와 시설의 확보와 교육시설의 확보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재배기술과 경영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기계와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운영이나 대여 제도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시설의 확보는 자녀들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전반적으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응답한 비율이 40%를 넘는다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표 86>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영농능력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비슷한 수준	약간 낮음	매우 낮음	무응답	계
영농 계획 수립	8(5.2)	29(18.7)	47(30.3)	35(22.6)	30(19.4)	6(3.9)	155
재배 (사육) 기술	6(3.9)	18(11.6)	38(24.5)	48(31.0)	40(25.8)	5(3.2)	155
농업 경영 능력	1(0.6)	20(12.9)	42(27.1)	48(31.0)	38(24.5)	6(3.9)	155
판매 능력	5(3.2)	18(11.6)	45(29.0)	35(22.6)	47(30.3)	5(3.2)	155
경영 분석과 진단 능력	1(0.6)	24(15.5)	50(32.3)	31(20.0)	42(27.1)	7(4.5)	155
농업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4(2.6)	35(22.6)	40(25.8)	40(25.8)	30(19.4)	6(3.9)	155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10(6.5)	27(17.4)	43(27.7)	34(21.9)	33(21.3)	8(5.2)	155
기타 (자금 확보)	-	-	1(0.6)	-	-	154(99.4)	155

<표 87>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준비 정도

	매우 잘됨	잘된 편	보통	미흡한 편	매우 미흡	무응답	계
귀농과 관련된 정신적 무장	30(19.4)	69(44.5)	44(28.4)	9(5.8)	3(1.9)	0(0.0)	155
정착 자금의 확보	17(11.0)	44(28.4)	53(34.2)	28(18.1)	13(8.4)	0(0.0)	155
재배(사육)지식과 기술	2(1.3)	38(24.5)	37(23.9)	42(27.1)	35(22.6)	1(0.6)	155
경영기법(의사결정/유통망 파악)	8(5.2)	34(21.9)	36(23.2)	45(29.0)	31(20.0)	1(0.6)	155
주변 사람의 지지	2(1.3)	45(29.0)	55(35.5)	30(19.4)	23(14.8)	0(0.0)	155
귀농 지역 선정	17(11.0)	46(29.7)	40(25.8)	25(16.1)	27(17.4)	0(0.0)	155
농지의 확보	15(9.7)	46(29.7)	28(18.1)	34(21.9)	32(20.6)	0(0.0)	155
거주지 확보	16(10.3)	38(24.5)	35(22.6)	29(18.7)	36(23.2)	1(0.6)	155
농기계와 시설의 확보	4(2.6)	19(12.3)	28(18.1)	47(30.3)	55(35.5)	2(1.3)	155
교육 시설의 확보	3(1.9)	22(14.2)	38(24.5)	40(25.8)	50(32.3)	2(1.3)	155
농촌지역 주민과의 관계 준비	20(12.9)	46(29.7)	31(20.0)	22(14.2)	34(21.9)	2(1.3)	155
기타(구체적으로:)	-	-	-	-	-	155	155

4)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희망과 계획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의향정도는 비슷한 수준이 52%를 차지하고 있었고, 매우 높은 집단은 11%, 약간 높은 집단이 36%정도로 46%정도만 높은 수준이었다. 귀농에 대한 주변의 지원이 낮다면 결과적으로 귀농을 결심한 사람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의 문제이므로 귀농에 대한 의향이 높을수록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88>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의향 정도 분포

	빈도	백분율(%)
무응답	2	1.3
매우 높음	17	11.0
약간 높음	56	36.1
비슷한 수준	80	51.6
계	155	100.0

귀농예상시기는 2년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표 89>과 같이, 3-4년 이내가 가장 많았고, 5-6년 이내까지를 합하면 81%정도가 귀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하기 시작한 시기가 현재 3년이 되었으므로 이 결과에 따른다면 10년 이내에는 귀농준비자들 모두 귀농한다고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89>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예상 시기 분포

	빈도	백분율(%)
무응답	3	1.9
1-2년 이내	40	25.8
3-4년 이내	47	30.3
5-6년 이내	40	25.8
7-8년 이내	9	5.8
9-10년 이내	7	4.5
10년 이상	9	5.8
계	155	100.0

이들이 귀농시 귀농형태는 <표 90>와 같이 신규창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농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17%, 협업하는 경우가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창업자금의 대상을 귀농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이는 퇴직 후 귀농을 희망하는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기술이나 경영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창업하기 보다 보조자로 취업하거나 협업, 도제형태의 실습 기간을 지난 후 창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협업이나 노동자로 취업, 실습자겸 보조자로 취업하는 경우의 방안들이 현재의 여건에서 적절한 선택으로 보인다.

<표 90>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귀농 형태

	빈도	백분율(%)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농업을 승계	26	16.8
신규 창업	93	60.0
일용 노동자로 농업 취업	4	2.6
친구, 친지와 협업	16	10.3
아는 분의 집에 실습자겸 보조자로 취업	12	7.7
기타	4	2.6
계	155	100.0

귀농시 어느 곳을 귀농지로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표 91>와 같이 전혀 무관한 농촌을 48%나 선택하였다. 고향이나 고향 인근의 농촌도 46%나 선택하여 귀농지가 고향이나 고향인근의 농촌과 함께 전혀 무관한 지역도 선택됨을 볼 수 있다. 이는 귀농자들의 지역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고향이나 고향 인근의 농촌은 지역과 관계를 맺을 때 귀농자의 배경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무관한 지역인 경우는 귀농자의 노력이 있어야 지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표 91>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귀농지 선택

	빈도	백분율(%)
고향	40	25.8
고향 인근의 농촌	31	20.0
전혀 무관한 농촌	75	48.4
기타	9	5.8
계	155	100.0

귀농지 선택작목은 <표 92>과 같이, 과수가 27%, 채소가 19%, 화훼가 18%의 순서였다. 희망하는 작목은 다양하였으나, 대체로 수익이 가능한 작목을 선택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다수였던 벼를 재배하겠다는 희망은 1명으로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이들의 희망 작목을 고려할 때 지역에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영농인들이 없다면 주변에서 기술적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일 것이므로 관심 있는 작목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원하는 작목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목이 아닌 한 전문적인 농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 92>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시 선택 영농 작목(가축 포함)

	빈도	백분율(%)
논벼	1	0.6
채소	29	18.7
과수	42	27.1
화훼	28	18.1
특용작물	7	4.5
두류/서류/잡곡	14	9.0
대가축 사육	8	5.2
양돈	5	3.2
양계	1	0.6
양잠/양어	3	1.9
기타	17	11.0
계	155	100.0

귀농준비집단의 귀농 준비시 가장 어려운 점을 파악한 결과 <표 93>과 같이, 운영자금 문제가 21%, 재배(사육)기술문제가 14%,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13%의 순으로 자금과 농기계나 시설, 기술문제가 귀농 준비시 가장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토지구입자금과 같이 생산기반과 기술, 농기계 등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귀농할 때나 귀농준비과정에 있어서 기술 습득의 문제와 자금의 확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한다.

<표 93>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귀농 준비 시 가장 어려운 점

	빈도	백분율(%)
재배(사육)기술 문제	22	14.2
경영 기술 문제	8	5.2
판매 기술 부족	3	1.9
운영자금 문제	33	21.3
토지구입자금 문제	12	7.7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20	12.9
노동력 확보 문제	9	5.8
생산물 판로 문제	9	5.8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4	2.6
작목 선택 문제	4	2.6
자녀교육문제	7	4.5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2	1.3
농업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7	4.5
확고한 신념	6	3.9
기타	9	5.8
계	155	100.0

귀농 결심후 귀농하기까지 필요한 준비기간을 조사한 결과 <표 94>과 같이 5년이 39%, 3년이 23%, 10년이 11%로, 5년 이내의 기간이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략 5년 이내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귀농을 결심한 후 실천하기까지의 기간은 길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물론 기술 습득 기간이나 자금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작목에 획일적인 기간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귀농 결심후 5년 정도의 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교육과 자금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94>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귀농 준비 기간

	빈도	백분율(%)
0년	6	3.9
1년	4	2.6
2년	12	7.7
3년	35	22.6
4년	7	4.5
5년	60	38.7
6년	3	1.9
7년	9	5.8
10년	17	11.0
15년	1	0.6
무응답	1	0.6
총 계	155	100.0

5) 귀농인력 유입 정책 방안

귀농준비단계의 응답자들이 생각한 귀농인력 유입방안은 <표 95>와 같이 취농정착자금에 대한 지원이 41.3%였고,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이 15%, 취농 정보제공과 상담 활동이 11% 순서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 적절한 대책이란 있을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자금의 지원과 영농상담과 컨설팅, 정보제공과 상담활동은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들 외에도 취농자교육과 연수, 농가 농장체험프로그램 제공, 정기적인 농사기술교육과 지도 등의 내용은 취농자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므로 기술교육의 문제와 농지구입정보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는 취농 정보의 제공은 중요한 지원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95> 귀농준비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인력의 유입을 위한 정책 방안

	빈도	백분율(%)
정기적인 취농 박람회 개최	3	1.9
농가 농장체험프로그램 제공	8	5.2
취농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17	11.0
취농자 교육 및 연수	10	6.5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64	41.3
농지 구입 정보 제공	8	5.2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23	14.8
지역주민과의 인간관계 형성지원	4	2.6
주거지 정보 안내와 지원	3	1.9
정기적인 농사기술교육과 지도	8	5.2
기타	7	4.5
계	155	100.0

다. 귀농단계

귀농자는 농림부의 명단을 기초로 귀농단계를 초기단계(3년 미만), 중기단계(3-6년), 정착단계(6년 이상)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160명씩 480명을 서울, 경기, 강원권, 충남북(대전포함), 전남북(광주포함), 경남북(대구, 부산, 울산포함)권역별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각 시군에서 추천한 10명내외의 명단을 기초로 귀농단계별로 40명씩 120명을 무선 표집하였다. 또한 이들 외에 귀농학교 행사에 참여한 귀농자 30명을 추가 조사하였다. 그러나 주소불명이나 연락 불통으로 조사에서 제외된 명단이 있는 관계로 395명이 응답되었고, 자료 정리과정을 통하여 20명이 2개 항목이상 무응답이 있어서 제외하고, 375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1) 귀농자의 일반적 특성

귀농단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96>과 같다. 남자가 88%였고, 여자는 12%에 지나지 않았으며, 학력은 고중퇴-고졸 학력 집단이 47%로 다수였고, 대학중퇴-대졸의 학력은 21.1%로 다음이었으며 중졸이하의 학력도 20.5%나 되었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농업인들의 학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문대이상의 학력자들이 32%나 되므로 전문적인 인력들이 귀농형태로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귀농이 농촌인력의 질적 개선을 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귀농자들의 귀농 전 직업은 자영업이 33%, 사무직 18%, 영업직 12%의 순이었고, 퇴직, 실직, 무직자를 합하면 14.9%나 되어 직업이 없어서 귀농한 경우도 있었다.

주요 귀농이유는 농촌생활선호와 밝은 농업전망으로 귀농한 경우는 20%, 사업실패나 실직, 미취업과 도시생활 어려움에 따른 귀농은 29.3%, 퇴직 후 귀농은 12.5%, 추구하는 이상과 인간다운 삶은 18.7%, 영농승계와 부모의 농업종사, 결혼 후 신랑 따라는 13.6%로 구성되어, 농촌생활선호로 귀농한 집단이 1/5, 도시생활에 대한 실패로 귀농한 경우가 1/3, 이상적 삶을 위한 귀농층은 1/5, 영농승계는 1/10, 건강 목적과 퇴직 후 귀농은 18.4%로 1/5정도로 구성되었다.

<표 96>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31	88.3
	여	44	11.7
학력	중졸이하	77	20.5
	고 중퇴-고졸	176	46.9
	전문대 중퇴-전문대 졸	32	8.5
	대학중퇴-대졸	79	21.1
	대학원 졸 이상	11	2.9
귀농전 직업상태	자영업	122	32.5
	사무직	67	17.9
	영업직	45	12.0
	공무원	24	6.4
	주 부	18	4.8
	퇴 직	27	7.2
	실 직	20	5.3
	무 직	9	2.4
	생산직	1	0.3
	건축업	8	2.1
	서비스직	9	2.4
	기 타	25	6.7
주요 귀농이유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56	14.9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22	5.9
	퇴직 후 여생을 위해	47	12.5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49	13.1
	농촌 생활이 좋아서	63	16.8
	농업 전망이 밝아서	12	3.2
	취업을 못해서	5	1.3
	영농 승계를 위해서	16	4.3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20	5.3
	인간다운 삶을 위해	24	6.4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	46	12.3
	기타(결혼 후, 신랑 따라 등)	15	4.0
합계		375	100.0

항목	최고	최소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
응답자의 현재 나이	77	25	50.40	8.632	0
처음 귀농시기	15	69	41.00	10.065	0
귀농을 알고 귀농하기까지 소요시간(년)	30	0	3.33	3.280	11

귀농자들의 현재 나이는 25세부터 77세까지 분포되었고, 평균나이는 50세였으며, 처음 귀농시기는 41세로서 평균적으로 10년이 지난 형편이었다. 귀농을 알고 귀농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은 평균적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귀농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3년 이내의 귀농을 전제하여 준비하도록 함이 필요함을 말한다.

2)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업적 배경

귀농자들의 농업배경은 <표 97>과 같이, 직접 농사경험은 58%가 갖고 있으며, 부모님의 직업이 73%가 농업이었다. 농업계 학교 출신은 16%에 지나지 않았으나, 농업관련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55.7%가 거의 없었고, 조금 있거나 많은 편은 41.3%에 지나지 않았다. 귀농전 농업관련사회생활경험은 조금 있거나 많은 편, 또는 매우 많은 편에 대답한 경우는 10.6%에 지나지 않았고, 거의 없거나 없는 편은 43%나 되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농업관련직장이나

자영업에 종사한 사람이 귀농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와 농사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귀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7>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업적 배경

		빈도	백분율(%)
직접농사경험	있음	218	58.1
	없음	157	41.9
부모님의 직업	농업	273	72.8
	비농업	102	27.2
농업계학교출신	예	58	15.5
	아님	315	84.0
	무응답	2	0.5
농업관련교육이수정도	무응답	2	0.5
	거의 없음	138	36.8
	없는 편	71	18.9
	조금 있음	125	33.3
	많은 편	30	8.0
	매우 많음	9	2.4
귀농전 농업관련 사회생활경험(직장, 자영업 등)	무응답	170	45.3
	거의 없음	80	21.3
	없는 편	85	22.7
	조금 있음	30	8.0
	많은 편	8	2.1
	매우 많음	2	0.5
계		375	100.0

3) 귀농 단계 응답자의 귀농 형태와 여건

귀농자들의 귀농형태는 초기자본투자 구성과 귀농유형, 초기귀농형태, 귀농 조언자 확보 여부, 주변의 지원, 마을사람의 지원, 영농중 부족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영농능력, 주요 작목을 주로 파악하였다.

귀농자들의 초기 자본투자는 주택에 1483만원, 농장에 3340만원, 기타 436만원으로 5259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물론 투자액의 편차가 커서 액수가 많은 경우도 있었다. 자본의 구성은 자기자본은 평균 64%, 금융기관 대출이 14%, 사채 1%, 기타 5%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합은 100%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들보다는 자기자본비율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표 98>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유형

		빈도	백분율(%)
귀농유형	어릴 때 농촌 거주->교육받은 후 도시 취업->고향 농촌으로 귀향	177	47.2
	어릴 때 농촌 거주->교육받은 후 도시 취업->타 지역 농촌으로 귀향	108	28.8
	출생이후 도시에서 자람->농업 관련 단체 취업->농촌 정착	3	0.8
	출생이후 도시에서 자람->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농촌 정착	10	2.7
	출생이후 도시에서 자람->농업과 무관 업무에 종사->농촌 정착	67	17.9
	계속 농촌에서 삶	6	1.6
	기타	3	0.8
	무응답	1	0.3
최초귀농형태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농업을 승계	139	37.1
	신규 창업	167	44.5
	일용 노동자로 농업 취업	11	2.9
	친구, 친지와 협업	22	5.9
	아는 분의 집에 실습자겸 보조자로 취업	11	2.9
	공동체 가족으로	7	1.9
	농사지으며 자영업	3	0.8
	결혼	2	0.5
	교육기관(귀농학교) 졸업후, 또는 기관에서	6	1.6
	기타	7	1.9
합계		375	100.0

항목	최고	최소	평균	표준편차	무응답
귀농당시 초기자본투자(주택, 만원)	30000	0	1483.43	2713.034	0
귀농당시 초기자본투자(농장, 만원)	50000	0	3340.22	5502.604	0
귀농당시 초기자본투자(기타, 만원)	30000	0	436.06	2529.809	0
초기자본조달(자기자본비율,%)	100	0	63.62	38.754	0
초기자본조달(금융기관대출,%)	100	0	13.96	23.072	0
초기자본조달(사채,%)	50	0	0.75	5.117	0
초기자본조달(기타,%)	100	0	4.67	16.002	0

귀농유형은 U-turn귀농이 47%로 가장 많았고, J-turn귀농자가 29%, I-turn귀농자가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계속 농촌에서 사는 경우도 1.6%나 되었다. I-turn귀농자중에서 농업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던 경우가 18%나 되어 세 번째로 많은 집단이 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배경을 가진 U-turn 귀농자나 J-turn 귀농자와는 달리 I-turn 귀농자는 농업에 대한 배경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영농조언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귀농자의 귀농동기별 남녀간의 차이는 <표 99>과 같이, 0.1%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남자는 사업실패,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 농업전만,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이상추구를 위하여 귀농하나 여자는 그 외의 이유로 귀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9>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남녀간의 차이 분석

	사업실패	건강	퇴직 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이상추구	기타	계
남	56 100.0%	15 68.2%	47 100.0%	47 95.9%	55 87.3%	17 100.0%	31 86.1%	20 83.3%	36 78.3%	7 46.7%	331 88.3%
여	0 .0%	7 31.8%	0 .0%	2 4.1%	8 12.7%	0 .0%	5 13.9%	4 16.7%	10 21.7%	8 53.3%	44 11.7%
계	56 100.0%	22 100.0%	47 100.0%	49 100.0%	63 100.0%	17 100.0%	36 100.0%	24 100.0%	46 100.0%	15 100.0%	375 100.0%

x^2=51.938 *** p<.001

귀농동기에 따라 귀농전 직업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표 100>과 같이, 0.1%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농촌생활 선호, 사업실패, 도시생활 회의, 건강, 이상 추구가 주요 귀농동기였으며, 귀농전 직업에 따른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0.1%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는데, 자영업자는 사업실패,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 선호의 순서이고, 사무직은 퇴직 후, 기타, 이상추구의 순이었으며, 영업직은 밝은 농업전망, 영농승계, 도시생활회의 순이었다. 공무원은 밝은 농업전망, 건강, 퇴직 후 귀농하고 있었으며, 주부는 기타나 건강문제로 귀농하고 있었다. 퇴직자는 퇴직 후, 실직자는 사업실패와 밝은 농업전망으로, 무직자는 이상 추구나 밝은 농업전망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생산직은 인간다운 삶을 주요 동기로, 건축직은 건강과 밝은 농업전망으로, 서비스직은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로, 기타는 영농승계나 인간다운 삶을 주요 동기로 귀농하고 있었다.

<표 100>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동기별 귀농전 직업의 교차분석

	사업실패	건강	퇴직후	도시생활회의	농촌생활선호	밝은농업전망	영농승계	인간다운 삶	이상추구	기타	계
자영업	27 48.2%	8 36.4%	7 14.9%	20 40.8%	25 39.7%	2 11.8%	9 25.0%	6 25.0%	15 32.6%	3 20.0%	122 32.5%
사무직	6 10.7%	3 13.6%	14 29.8%	7 14.3%	13 20.6%	1 5.9%	3 8.3%	5 20.8%	11 23.9%	4 26.7%	67 17.9%
영업직	5 8.9%	1 4.5%	0 .0%	10 20.4%	8 12.7%	5 29.4%	9 25.0%	4 16.7%	2 4.3%	1 6.7%	45 12.0%
공무원	2 3.6%	3 13.6%	6 12.8%	1 2.0%	1 1.6%	3 17.6%	1 2.8%	2 8.3%	4 8.7%	1 6.7%	24 6.4%
주부	0 .0%	4 18.2%	0 .0%	1 2.0%	2 3.2%	0 .0%	3 8.3%	1 4.2%	3 6.5%	4 26.7%	18 4.8%
퇴직	0 .0%	0 .0%	19 40.4%	0 .0%	5 7.9%	1 5.9%	0 .0%	0 .0%	2 4.3%	0 .0%	27 7.2%
실직	11 19.6%	0 .0%	0 .0%	2 4.1%	0 .0%	2 11.8%	3 8.3%	0 .0%	1 2.2%	1 6.7%	20 5.3%
무직	1 1.8%	0 .0%	0 .0%	1 2.0%	1 1.6%	1 5.9%	1 2.8%	1 4.2%	3 6.5%	0 .0%	9 2.4%
생산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4.2%	0 .0%	0 .0%	1 .3%
건축직	1 1.8%	2 9.1%	0 .0%	2 4.1%	0 .0%	1 5.9%	1 2.8%	0 .0%	1 2.2%	0 .0%	8 2.1%
서비스직	0 .0%	0 .0%	0 .0%	4 8.2%	3 4.8%	0 .0%	1 2.8%	0 .0%	1 2.2%	0 .0%	9 2.4%
기타	3 5.4%	1 4.5%	1 2.1%	1 2.0%	5 7.9%	1 5.9%	5 13.9%	4 16.7%	3 6.5%	1 6.7%	25 6.7%
계	56 100.0%	22 100.0%	47 100.0%	49 100.0%	63 100.0%	17 100.0%	36 100.0%	24 100.0%	46 100.0%	15 100.0%	375 100.0%

x^2=202.782 *** p<.001

귀농자들의 최초 귀농형태는 신규 창업이 45%나 되었고, 농업승계 형태가 37%로 창업과 승계가 81%나 되어 기술 습득이 없이 바로 창업이나 승계 형태로 진행되어 기술적, 사회적 적응 과정이 요구되는 집단인 경우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예견된다. 농사를 일용노동자나 협업이나 보조자, 공동체 가족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경우는 13.6%정도로 극히 적은 실정으로서 이들에 비하여 다른 집단은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초기에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귀농 전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영농조언자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기술적, 심리적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1>을 보면, 있었던 경우는 1/3에 지나지 않았고, 2/3가 영농조언자를 갖고 있지 못하여 초기 적응에 있어서 기술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귀농자들이 농업에 대한 배경이 적은 상태에서 지역과의 관련성도 없는 지역에 내려왔을 때 정착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부분은 귀농자 자신의 성격에도 관련이 있으나 귀농자들의 학력수준과 도시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귀농자들의 지원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표 101>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전 지속적 영농 조언자 존재 여부

	빈도	백분율(%)
예	128	34.1
아니오	246	65.6
무응답	1	0.3
합계	375	100.0

귀농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이 가족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대체로 귀농을 결정한 시기가 41세 정도이므로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주변사람들의 지원은 귀농 결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표 102>와 같이 반대하는 편이 32%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 비율이 47%로 찬성 비율 33.1%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표 102>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처음 귀농 결정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

	빈도	백분율(%)
적극 반대하였다.	60	16.0
반대하는 편이었다.	118	31.5
보통이다.	73	19.5
찬성하는 편이었다.	97	25.9
적극 찬성하였다.	27	7.2
합계	375	100.0

현재 주변사람들의 지원정도는 어떤가를 보면 <표 103>와 같이 지원하는 편과 적극 지원하는 편이 60%정도로 바뀌어서, 지원 않는 13%보다는 여건이 보다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재 귀농한 이후 9년 정도가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원하지 않는 13%의 대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103>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사에 대한 현재 주변 사람의 지원 정도

	빈도	백분율(%)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	23	6.1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27	7.2
보통이다.	98	26.1
지원하는 편이다.	165	44.0
적극 지원한다.	61	16.3
무응답	1	0.3
합계	375	100.0

성격상 U-turn이 47.2%이고 농촌에서 계속 산 경우가 1.6%로 49%정도는 마을의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I-turn이나 J-turn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4>을 보면 71%가 지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8%정도로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적 지역 적응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표 104>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농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지원 정도

	빈도	백분율(%)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	13	3.5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16	4.3
보통이다.	78	20.8
지원하는 편이다.	203	54.1
적극 지원한다.	63	16.8
무응답	2	0.5
합계	375	100.0

귀농자들의 영농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보면 <표 105>과 같이, 마을 사람들과의 상담이 36%이고, 관련책자 검색 15%, 인터넷 검색 11%, 교육, 연수참가 10%, 관련기관 방문 9.6%, 선도농가와 상담 9.1%등 적극적 방법으로 영농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귀농자의 학력을 볼 때 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농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인터넷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웹문서 형태의 제공과 메일이나 가상전문가를 만들어 상담에 응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문제에 따라 검사하면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시군농업기술센터나 면단위의 농어민 상담소에 화상시스템이나 팩스와 전화, 메일시스템을 제공하여 원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귀농지원센터의 설치는 의의가 있는 방안이다.

<표 105>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영농중 부족 부분의 해결 방법

	빈도	백분율(%)
관련 책자 검색	57	15.2
인터넷 검색	41	10.9
교육, 연수 참가	39	10.4
관련기관 방문	36	9.6
전문가와 상담	24	6.4
선도농가와 상담	34	9.1
마을사람과 상담	134	35.7
스스로 깨우침	4	1.1
기타	5	1.3
무응답	1	.3
합계	375	100.0

4) 귀농단계에 따른 귀농 형태와 능력의 변화

귀농형태와 능력의 변화는 귀농자들의 영농능력 수준의 변화와 작목의 변화, 귀농초기의 문제점과 현재의 문제점, 귀농후 정착 소요기간, 적절한 귀농준비기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귀농초기의 영농능력수준은 농산물판매와 구매능력, 경영분석과 진단능력, 농업정보수집과 활용능력,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능력에 있어서는 이웃농가와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다수로서 30%정도 였고, 재배(사육)기술과 농업경영능력에서는 약간 낮음으로 평가하였으며, 영농계획수립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과 우수하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로 판단한 응답자보다 약간 낮음이나 매우 낮음이라고 대답한 집단이 높았다. 특히 영농계획수립이나 재배(사육)기술, 농업

경영능력, 농산물판매와 구매능력, 경영분석과 진단능력은 낮음으로 평가한 집단이 50%이상이었다.

<표 106>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초기 영농능력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비슷한 수준	약간 낮음	매우 낮음	무응답	계
영농 계획 수립	14(3.7)	49(30.4)	114(30.4)	106(28.3)	85(22.7)	7(3.9)	375
재배 (사육) 기술	3(0.8)	29(7.7)	103(27.5)	125(33.3)	109(29.1)	6(1.6)	375
농업 경영 능력	11(2.9)	36(9.6)	108(28.8)	133(35.5)	81(21.6)	6(1.6)	375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	11(2.9)	38(10.1)	119(31.7)	107(28.5)	94(25.1)	6(1.6)	375
경영 분석과 진단 능력	9(2.4)	45(12.0)	119(31.7)	115(30.7)	80(21.3)	7(1.9)	375
농업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13(3.5)	52(13.9)	126(33.6)	100(26.7)	77(20.5)	7(1.9)	375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34(9.1)	54(14.4)	135(36.0)	82(21.9)	60(16.0)	10(2.7)	375
기타 (자금 확보)	-	-	2(0.5)	2(0.5)	-	371(99.0)	375

그에 비하여 현재의 능력은 <표 10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산물 판매와 구매능력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30%이상 나왔으며, 농산물판매와 구매능력은 약간 낮음으로 판단한 응답자가 40%로 가장 높았다. '우수'와 '매우 우수'로 응답한 응답자보다, '약간 낮음', '매우 낮음'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농업경영능력의 38.6%를 제외하면 20% 미만으로서 매우 우수나 우수라는 집단의 비율인 30%이상보다 낮았다.

<표 107>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영농능력 수준

	매우 우수	우수	비슷한 수준	약간 낮음	매우 낮음	무응답	계
영농 계획 수립	36(9.6)	114(30.4)	148(39.5)	47(12.5)	17(4.5)	13(3.5)	375
재배 (사육) 기술	32(8.5)	118(31.5)	138(36.8)	54(14.4)	22(5.9)	11(2.9)	375
농업 경영 능력	37(9.9)	112(29.9)	141(37.6)	53(14.1)	20(24.5)	12(3.2)	375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	13(3.4)	30(8.0)	118(31.5)	151(40.3)	45(12.0)	18(4.8)	375
경영 분석과 진단 능력	34(9.1)	111(29.6)	145(38.7)	52(13.9)	19(5.1)	14(3.7)	375
농업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42(11.2)	111(29.6)	149(39.7)	42(11.2)	17(4.5)	14(3.7)	375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74(19.7)	114(30.4)	127(33.9)	30(8.0)	11(2.9)	19(5.0)	375
기타 (자금 확보)	-	-	2(0.5)	-	-	375(99.5)	375

귀농단계별 주요작목의 변화는 귀농초기와 현재의 주요 작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표 108>과 같이 귀농초기에는 논벼의 재배가 36%수준이었으나, 그 비율이 28%로 7.5%정도 감소되었으며, 두류/서류/잡곡류의 재배도 0.8%감소하였다. 그에 비하여 과수가 1.6%, 특용작물이 1.1%, 채소가 0.8%, 화훼가 0.3%증가하였다. 이는 응답자 비율의 변화로 추정한 것이므로 이들이 재배면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규모의 변화를 제시할 수 없으나 귀농자들의 주요 작목이 시장지향적 작목으로 미미하지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08>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단계별 주요 작목 변화

	귀농초기	현재	변화%
	빈도(%)	빈도(%)	
논　　벼	133(35.5)	105(28.0)	-7.5
채　　소	76(20.3)	79(21.1)	0.8
과　　수	70(18.7)	76(20.3)	1.6
화　　훼	9(2.4)	10(2.7)	0.3
특용작물	29(7.7)	33(8.8)	1.1
두류/서류/잡곡	11(2.9)	8(2.1)	-0.8
대가축 사육	22(5.9)	24(6.4)	0.5
양　　돈	6(1.6)	6(1.6)	0
양　　계	9(2.4)	9(2.4)	0
양잠/양어	1(0.3)	1(0.3)	0
기　　타	8(2.1)	3(0.8)	-0.3
무응답	1(0.3)	1(0.3)	0
합계	375(100.0)	375(100.0)	0

귀농자들의 현재 농업유형은 <표 109>과 같이, 농산물의 생산 판매로 소득을 얻는 정도가 62%, 식량하고 약간 남는 것을 파는 정도가 21%, 자가 식량만을 생산하는 집단이 12%였다.

<표 109>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농업 유형

	빈도	백분율(%)
농사는 짓고 있으나 자가 소비 식량만 생산함	43	11.5
농사를 지어 식량하고 조금 남은 것을 팔고 있음	78	20.8
농산물을 생산·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있음	232	61.9
농촌에서 거주하나 농업과 무관한 일을 함(텃밭을 이용하는 정도)	10	2.7
농사는 짓지 않으나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음	3	0.8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음	2	0.5
회사와 겸업	2	0.5
기타	1	0.3
무응답	4	1.1
합계	375	100.0

이들외에 농사를 짓지 않는 집단이 4%정도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귀농자들이 생각하는 귀농초기와 현재의 어려움은 <표 110>와 같이, 재배(사육)기술문제나 운영자금문제였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감소하고, 노동력 확보 문제,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자녀교육문제, 생산물 판로문제, 판매기술 문제, 농업·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 변화 등이 증가하였다. 이는 귀농정착이 진행되면서 초기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귀농정착을 위해서는 각 단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함이 필요하다.

<표 110> 귀농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귀농초기와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

	귀농초기	현재	변화%
	빈도(%)	빈도(%)	
재배(사육)기술 문제	84(22.4)	53(14.1)	-8.3
경영 기술 문제	26(6.9)	19(5.1)	-1.8
판매 기술 부족	11(2.9)	18(4.8)	1.9
운영자금 문제	75(20.0)	74(19.7)	-0.3
토지구입자금 문제	20(5.3)	8(2.1)	-3.2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29(7.7)	38(10.1)	2.4
노동력 확보 문제	17(4.5)	35(9.3)	4.8
생산물 판로 문제	15(4.0)	22(5.9)	1.9
기술 조언자 확보 문제	7(1.9)	5(1.3)	-0.6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7(1.9)	4(1.1)	-0.8
마을 분위기 적응 문제	5(1.3)	2(0.5)	-0.8
작목 선택 문제	7(1.9)	5(1.3)	-0.6
자녀교육문제	24(6.4)	32(8.5)	2.1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6(1.6)	9(2.4)	0.8
의료ㆍ복지시설부족	5(1.3)	10(2.7)	1.4
농업ㆍ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10(2.7)	16(4.3)	1.6
확고한 신념	6(1.6)	8(2.1)	0.5
농산물 가격	5(1.3)	-	-1.3
어려움 없다.	8(2.1)	10(2.7)	0.6
기타	6(1.6)	4(1.1)	-0.5
무응답	2(0.5)	3(0.8)	0.3
합계	375(100.0)	375(100.0)	0

귀농자들의 귀농인식부터 귀농까지 소요기간은 0-30년까지 있고, 평균적으로는 3.33년이었으며, 귀농후 주작목 변경회수는 10회까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1.04회로 1회 정도 변경하고 있으며, 올해 농업소득의 귀농목표달성도를 추정한 결과 200%까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64%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귀농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년이고, 귀농준비기간이 3.68년임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의 평균 귀농후 기간이 8년으로 귀농 정착후 5년이 지났음에도 귀농목표에 겨우 2/3정도 도달한 것으로 보여, 귀농에서 농업소득으로 목표를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귀농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좀 더 길게 허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다.

<표 111>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소요 기간과 작목 변경 회수

	무응답자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귀농인식부터 귀농까지 소요기간(년)	11	0	30	3.33	3.280
귀농후 주작목 변경 회수(회)	52	0	10	1.04	1.562
올해 농업소득의 귀농목표달성정도(%)	11	0	200	63.69	23.226
귀농정착 소요기간(년)	4	1	15	4.03	2.301
귀농 결심후 귀농까지의 필요한 귀농준비기간(년)	3	0	20	3.68	2.706

5) 귀농단계 응답자의 귀농 결과

귀농자들의 귀농지와 마을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농업계획, 소득, 귀농 평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귀농자의 소득만족도는 귀농목표의 64%정도를 달성하였으나, 이들의 만족도는 24%정도가 불만족하는 편이고, 39%정도가 만족하는 편으로 전반적으로는 만족하는 편이 많았으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단일 집단으로는 가장 많았으므로 1/3정도가 만족하고 있고, 1/4정도는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2>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소득 만족도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한다.	20	5.3
불만족하는 편이다.	71	18.9
보통이다.	134	35.7
만족하는 편이다.	126	33.6
아주 만족한다	23	6.1
무응답	1	.3
합 계	375	100.0

이들의 올해 농업소득 예상액은 1000-2000만원 수준이 34%정도로, 1000만 원 이하의 농업소득자들이 37%나 되어, 귀농자들이 적절한 소득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일부 집단은 소수이기는 하나 4000만 원 이상이 8%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13>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올해 농업소득 예상액

	빈도	백분율(%)
500만 원 이하	72	19.2
500만원-1000만원	69	18.4
1000만원-2000만원	126	33.6
2000만원-3000만원	57	15.2
3000-4000만원	21	5.6
4000만원-5000만원	11	2.9
5000만원-6000만원	2	0.5
6000만원-7000만원	4	1.1
7000만원-8000만원	3	0.8
8000만원-9000만원	1	0.3
9000만원-1억	3	0.8
1억 이상	3	0.8
무응답	3	0.8
합 계	375	100.0

귀농자들의 농업유지의사는 <표 114>과 같이, 확대 의견이 35%, 유지 의견이 48%, 작목변경이 6%정도로 88%정도가 농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거나 작목변경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반하여, 규모축소나 부업을 희망하는 집단도 9.9%나 되었으며, 농업을 포기한다는 의견도 1.1%나 되어 10%정도는 농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14>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업 유지 의사

	빈도	백분율(%)
농사규모나 종류를 확대하여 농업을 계속할 것이다.	131	34.9
농사규모나 종류를 그대로 유지하며 농업을 계속할 것이다.	179	47.7
농사규모는 유지하되 농사작목을 바꿀 것이다.	22	5.9
농사규모나 농사작목을 줄일 것이다.	16	4.3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다른 부업을 가질 것이다.	9	2.4
다른 직업을 갖고 농업을 부업으로 할 것이다.	12	3.2
농업을 포기할 것이다.	4	1.1
무응답	2	.5
합계	375	100.0

이와 같은 결과는 귀농인들이 지역과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귀농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영역을 분석하였다.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는 <표 115>과 같이, 만족하는 편이 57%였고, 매우 만족이 25%로 81%가 만족하는 집단이었고,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은 2.4%였다. 귀농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표 115>과 같이 불만족하는 비율이 3.7%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만족하는 편도 80%로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이는 귀농자들이 모두 정착에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소수의 불만족자들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115>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현재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스럽다.	5	1.3
불만족하는 편이다.	4	1.1
보통이다.	62	16.5
만족하는 편이다.	212	56.5
매우 만족한다.	92	24.5
합 계	375	100.0

<표 116>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지역에 대한 만족도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스럽다.	3	0.8
불만족하는 편이다.	11	2.9
보통이다.	61	16.3
만족하는 편이다.	202	53.9
매우 만족한다.	98	26.1
합 계	375	100.0

귀농자들의 농촌거주의사는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적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거주의사는 농촌에 살겠다는 비율이 78%이고 상대적 농촌 선호는 18%였고, 상대적 도시 선호는 3.7%, 도시로 가겠다는 의견은 0.3%로 극히 적은 수이기는 하나 역 귀농층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7>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농촌거주 의사

	빈도	백분율(%)
앞으로도 농촌에 살겠다.	291	77.6
가능하면 농촌에 살겠다.	68	18.1
가능하면 도시로 가겠다.	14	3.7
곧 도시로 가겠다.	1	0.3
무응답	1	0.3
합 계	375	100.0

귀농자들의 귀농 평가는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다수집단은 잘한 편(48%), 아주 잘한 결정(26%)이었으나,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6.4%나 되어, 앞의 결과를 고려할 때 4-6%정도의 귀농실패자가 존재하여 역귀농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118>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 결정에 대한 평가

	빈도	백분율(%)
아주 잘못한 결정이다.	7	1.9
약간 잘못한 편이다.	17	4.5
보통이다.	74	19.7
잘한 편이다.	179	47.7
아주 잘한 결정이다.	97	25.9
무응답	1	0.3
합 계	375	100.0

6) 귀농단계 응답자의 귀농 지원 정책

귀농자들이 생각하는 귀농지원정책을 파악한 결과 <표 119>과 같이, 취농 정착 자금의 융자지원이 37%로 가장 많았고, 취농 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농가·농장체험프로그램 제공, 취농자 교육 및 연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표 119> 귀농단계 응답자들의 귀농인력 유입에 필요한 정책

	빈도	백분율(%)
정기적인 취농 박람회 개최	19	5.1
농가ㆍ농장 체험프로그램 제공	33	8.8
취농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42	11.2
취농자 교육 및 연수	30	8.0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139	37.1
농지 구입 정보 제공	14	3.7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35	9.3
지역주민과의 인간관계 형성지원	8	2.1
주거지 정보 안내와 지원	9	2.4
정기적인 농사기술교육과 지도	20	5.3
판로문제	7	1.9
초기 정착 사업 계획에서 서류 절차 간소화	2	0.5
모르겠다.	9	2.4
기타(1이하 응답)	6	1.6
무응답	2	0.5
합계	375	100.0

귀농자 선발과 지원방안에 대한 자유 반응형 질문에서는 <표 120>와 같이, 나타났다. 자금지원, 신념, 농업정책개선, 정보제공과 귀농교육, 기술 개발과 보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20> 귀농단계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귀농자 선발과 지원 방안

방안	빈도	백분율(%)
귀농 시 확실한 신념 필요	10	2.67
귀농 시 부부가 같은 생각	1	0.26
농업 정책 개선	9	2.4
농업의 비젼	2	0.53
자금지원(융자지원)	22	5.87
영농 상담	3	0.8
기술 개발 및 보급	6	1.6
정보 제공	6	1.6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삼	1	0.26
지역 공무원의 자세	2	0.53
귀농에 관한 교육 실시	6	1.6
귀농 시 공동으로 귀농	1	0.26
저리금리	4	1.06
농업 관련 기관의 협조	3	0.8
지자체에서 정착 자금 지원	1	0.26
귀농자 선발은 자유	1	0.26
귀농하고자 하는 자 모두 선정	1	0.26
농업의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	1	0.26
사향적인 농촌 개발	1	0.26
이자를 없애고 보조금 형태로	1	0.26
사람들에게 융자금이나 보조금 계획을 공개	1	0.26
자녀 교육 문제	5	1.3
초기 토지구입이 어려움	4	1.06
특작하는 사람에게 도움	1	0.26
판로 개척	4	1.06
자금지원과 확인과정의 변화	1	0.26
대출 정책 미흡	1	0.26
현 시행 시책의 곤란성	1	0.26
농촌보다 도시 지원	1	0.26
무분별한 정부지원이 파산 원인	1	0.26
선별 귀농	1	0.26
토종작물 재배	1	0.26
시설(문화) 확충	1	0.26
농산물 가격 안정	2	0.53
겸업을 위한 제도	1	0.26
농기계에 관한 문제	3	0.8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3	0.8
대학의 농업관련과 확장	1	0.26
국가 정책의 입법화	1	0.26
농산물 수입에 대한 대책	2	0.53
귀농시의 절차 간소화	2	0.53
텃세를 줄이는 방안	1	0.26
토지 소유자에 한해서 지원	1	0.26
공공기관과 실질적 교육과 맞지 않음	1	0.26
일손 부족	1	0.26
농업에 수시로 관심과 교육	1	0.26
정부의 계획과 실천이 맞지 않음	1	0.26
귀농의 연령제한 확대	2	0.53
일정 교육 이수 후 정책 지원	1	0.26
귀농 단계별 지원	1	0.26
응답자	94	25.1
무 응답자	281	74.9
계	375	100.0

※여러 개를 복수로 응답한 경우 포함.

2. 심층 면접 사례와 논의

귀농자를 U형, J형, I형으로 나누어 심층면접을 하였다. U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생활을 하였고, 이후에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한 사람들이었고, J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한 후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귀농을 한 사람들이다. I형의 경우는 농촌·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곧장 귀농을 한사람들 이었다.

가. U형 귀농자

귀농자 K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하여 과수학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2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50살에 명예퇴임을 하고 귀농을 하였다. 귀농자 G씨는 IMF로 인해 회사의 문을 닫고 귀농하였다.

처음 귀농을 할 당시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가족들을 설득하여 귀농을 하였으며 K씨와 G씨 모두 혼자서 먼저 귀농을 한 뒤 나중에 가족들이 전체 귀농한 지역으로 옮겨왔다.

고향으로 귀농하였기에 J형, I형들이 겪는 마을사람들과의 적응 갈등 문제는 없었다. K씨의 경우 지역의 부조합장을 맡고 있었으며, G씨 또한 마을 이장을 맡아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귀농 당시 K씨의 경우 대학교때 과수학을 전공하였으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좁은 땅에서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버섯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G씨는 부도가 나기 이전 고향에 사두었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집, 농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하려고 해도 대출이나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으나 귀농해서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없고, 처음 귀농하여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K씨, G씨 모두 귀농을 하여 영농기술을 익혔으며, 영농기술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귀농학교, 전국귀농운동본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영농기술과 작목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얻고 있었으며, K씨의 경우는 아들이 버섯농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 G씨는 아들이 농업계학교에 입학하도록 허가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아들은 전주농업고등학교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다.

1) K씨

(귀농 10년차, 귀농유형 : U형, 귀농 지역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질문자 :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 62세예요.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졌죠.

질문자 : 집이 농촌이셨어요?

귀농자 : 농촌이죠. 여기가 내 고향이예요.

질문자 : 귀농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 귀농이라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그전에 젊었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동네에 애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재미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직에서 20년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젊었을 때 항상 '농사를 한번 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상록수라는 소설 있잖아요. 채영심, 박동혁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고 그래서 당시 농촌이 어렵던 때였고 내가 한번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어떤 낭만적인 생각이 있었지요.

질문자 : 정년퇴임 하신게...

귀농자 : 정년퇴임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여러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서 퇴직 한 거예요. 50살이 되는 해에 그만두었는데, 50이 더 넘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농사를 져보고 싶어도 못 짓잖아요. 그전에도 여러 번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50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교직에 머물러 있으면 기운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때 그만둘 적에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반대했겠지만 특히 안사람, 어머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지. 그래도 아버지는 이해를 하시고,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둘이 울면서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히려 설득을 시켰어요. 주위 분들의 반대보다는 아내의 반대가 많았죠. 뭐 하러 교무주임 생활 다하면서 그 다음 순서적으로 보면 그 단계로 올라가고 할 단계인데, 그 당시에 애들이 주르륵 고등학교에 다 다녔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연년생에다가 쌍둥이에다가 이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한참 돈 들어가는 때인데 선생님을 하면 전부 학비가 면제가 되었거든요. 그것을 그만두고 나가면 당장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애들 고등학교나 졸업하고 그만두라. 그러면 내가 50이 넘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다음에 내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뭐 교장을 하든 뭐하든 정년퇴직을 하면 그때는 경로당을 다녀야 하는데 경로당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생활의 안정을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것 하나 못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시켰죠.

질문자 : 귀농하시면서 주위의 반대이외에 다른 힘든 적은 없으셨어요?

귀농자 : 다른 것은 별로 힘든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안사람이 특히 반대했죠.

질문자 : 그럼 왜 작목을 버섯으로 선택하셨어요?

귀농자 : 버섯을 한 것은 나도 농업을 공부했어요. 처음 학교를 갈 때는 법대 정치외교학과를 갔는데 2년 정도 다니다가 회의를 느꼈어요. 적성에 안 맞는 것 보다도 처음에 야망이나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단순하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또 내 주위들에 친구들을 사겨보니깐 허황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도 또 그런 쪽보다는 흙, 농촌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전과를 했어요. 2학년까지는 정치외교과를 다니고 그 다음에 농대로 전과를 했어요. 내가 농대에 가서도 과수를 전공했어요. 퇴직해서 막상 농사지으려 하니깐 적어도 3000평 이상의 땅이 있어야 과수를 심어요. 그런데 막상하다 보니깐 그런 땅이 내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6남매에 제가 막내이다 보니깐 땅이 있어도 내 차지가 돌아오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깐 넓은 땅은 없고, 작은 땅에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나 생각하다 보니깐 그게 버섯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학교를 오고가면서 버섯농가 지어놓은 것 있으면 둘러보고 관심을 많이 가졌죠.

질문자 : 처음 귀농하실 때 초기자본은 어느 정도였죠?

귀농자 : 초기자본도 많지 않았어요. 뭐냐면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도 연금처리 했죠. 연금처리하고 나머지 갖고 나오는 돈이 3~4000만원 정도였죠. 지금 3~만원 4000만원보다는 낫지. 그게 10년 전이니깐...

질문자 : 집도 이곳에 와서 다 지으신 거예요?

귀농자 : 내가 살림은 장호원에선 놨거든. 여기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신 땅이 1200평정도 있어요. 이 농장 있는 게. 여기 농장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50평짜리 하나짓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출퇴근했죠.

질문자 :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신 거예요?

귀농자 : 그렇죠. 버섯장 있는 근처에 가서 묻고, 무슨 버섯이라는 것은 몰랐으니깐.

그리고 나는 또 그만둘 무렵에도 버섯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어떤 농사든 농사짓겠다.'라고 퇴직 한거죠. 그래도 그때 많이 관심을 가진 것이 버섯이었죠. 과수는 하고 싶었는데 할 만한 땅이 없고. 그러니깐 적은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는 것을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버섯이다 해서 버섯농장에도 가보고 참나무로 하는 표고버섯 하는데도 가보고 느타리버섯 하는데도 가보고 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죠.

질문자 : 귀농하셔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귀농자 : 내가 처음에 팽이버섯 농장을 했고 현재는 새송이 버섯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톱밥표고라는 것을 했는데, 톱밥을 메주 떼기 마냥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기술 이예요. 처음에 그 당시 연암대학에 아시는 교수님이 있어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톱밥표고를 소개해주더라고요.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발전을 시켜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리로 가야하기 때문에 실험중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열심히 찾아다녔죠. 그런데 교수님이 이거는 아직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냐. 아직 이것이 농가에서 할 만큼 실증실험이 된 항목이 아니라 권해줄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잘 아는 새송이 버섯 농장을 소개해서 내가 거기서 엿새 동안 일해주면서 배웠죠. 배우고서 보니깐 결론적으로 자본이 2억 정도는 있어야 자그마하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로서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가서 톱밥표고를 분양해달라고 했죠. 지금까지 그나마 원만하게 해 온 것도 그 교수님을 앞으로 해 온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시작해서 1년째는 50평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심지어는 환풍기 달다 같이 떨어져서 가슴에 환풍기를 같이 끌어안고 벗겨지고 뭐해도 그러면서도 혼자 빈 벌판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했죠. 저 톱밥표고를 기반으로 해서 팽이버섯을 하고 팽이버섯을 해서 새송이 버섯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50평이라는 작은 것이지만 남보다 안하는 것, 아직 아무 농가에서 안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한번 해본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것을 하면서 표고는 산림청 소관이야.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한다고 해서 가보고 하니깐 톱밥표고를 하고 하더라고. 이천 농업센터에서도 버섯교육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배우고 질문하고 그러다보니깐 내가 철분과 버섯과의 관계를 물어보니깐, 대답을 얼른 못하셔. 그래서 톱밥표고를 하고 있다 얘기하니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대. 그래서 다음날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알게 되고, 우리 집에 드나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저쪽 건물 25평짜리를 지원 받았어요. 성의껏 하다보니깐 상도주시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하면 좋다고 길을 가르쳐주시더라고요. 표고버섯도 저것 해봐라 하시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1년째는 완전히 적자고 그 다음 3번째 가서는 그 당시 수익이 꽤 나왔어요. 이런데서 농사짓는 사람들 1년 수익이 몇 달 사이에 나온 거예요. 요거 하나에 400g만 나와도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600g이 나왔어요. 근데 임업연구원에 다니면서 교육받고 질문하다보니깐 그분들 하고도 사귀게 되었죠. 내가 이런 것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러냐 하시면서 오셔서 보시고는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것들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과장한테 말하고 그래서 전체로 와서 보시고는 그 동안의 데이터, 실습일지 이런 것 재조사해 가시고는 성공했다고 성공사례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나의 톱밥재배기'를 써서 냈더니 임원연구지에 나온 거야. 그게 배포가 되니깐 알려지게 되고, 서울에 이천동에 농촌기술협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겨울동계 농민대학이라고 해서 농업강좌가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번에 열렸어요. 거기에 강사로 오라고 했어 이태동안 갔어요. 그리고 벌써 그동안에 한다고 돈을 다 써버리고 없는 거야. 그래도 소득이 있는 게 뭐냐면 경기도에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선정이 되었어. 그렇게 되면 5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돈이 다 떨어져가는 찰나에 그게 나왔어. 그거는 또 내 무조건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야. 농장에 다 근거가 있어야 해. 그래서 25평짜리를 보조 준 것을 60평으로 키웠지. 거기도 내 돈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기계시설을 하고 자금을 받아서, 그러다가 팽이를 바라보게 된 거야. 톱밥표고는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완전히 기술이 정착이 안되었어. 이런 열악한 비닐하우스 시설에서는 온도를 잡기가 힘들고 또 그러려면 냉방장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벽에 부딪히고, 농사라는

질문자 : 순수익은?

귀농자 : 그동안은 번 게 없어요. 번 것이 많긴 한데 내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는 전기세 낼 것도 없고 해서 애들이 모아놓은 빨간색 저금통도 갈라서 동전 세려서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그래도 아버지나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나갔으니깐 어려움점이 많았죠. 심지어는 내가 있던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 근처에 갔는데 소문이 망했다고 나가지고 그때 어머니 회장들이 모여 있다가 위로를 하는데 선생님 몸만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때는 마침 팽이버섯으로 소득이 나오던 때여. 한 달 모아가지고 빚 갚고 빚 갚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공장을 하면서 빚진 게 많거든. 업자들에게 줘야 할 것이 많고, 계약서 쓸 때는 완공하면서 전액 지불한다고 하면서도 그분들과 인간관계 맺으면서 정이 싸여서 그렇게도 못하고...그리고 IMF가 터진 것이 나한테는 오히려 좋았어. 어떤 면에서는 IMF가 터지니깐, 이분들이 다 잘못하면 돈을 다 못 받을 판이여. 아니 안 줄판인데 나는 그분들한테 판넬이면 판넬, 철골이면 철골 다 업자들이 달라. 난 날짜를 정해서 다는 못줘도 꼭 조금씩이라도 드렸지. 그 돈이라도 받아가면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가. 그때 팽이 버섯이 돈이 좋았어. 그래서 신문이고 뭐고 돈 지출 있는 것은 다 끊고 그 돈들 모아서 드려서 꼭

신용을 지켰지.

질문자 : 몇 년 만에 부채를 다 갚은 신거예요?

귀농자 : 정부융자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깐, 개인 부채는 1년 반 사이에 다 갚았지. 운이라는 게 또 따르는 것 같아. 길이 나가지고 보상이 나오고, 저기 집이 20여 평 들어가는데 2500만원이 나오고 어려울 때 그때그때 딱 떨어져서 숨통이 트여지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 : 지금은 이 생활에 만족하신 거죠?

귀농자 : 나는 힘들지 않다고 하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서 잘 되니깐 우리 집사람도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나한테 그래요. "당신 머리 좋아!" 라고... 그럼 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머리 좋은 게 아녀. 내가 머리가 나쁜거야. 머리가 좋으면 이렇게 밀고 나올 수가 없었을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그렇다는 거지. 머리가 좋으면 이리저리 따지게 되고, 감히 덤벼들지 못하지

질문자 : 귀농하시려는 분들 많이 찾아오시고 그러잖아요.

귀농자 : 많이 찾아오죠. 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버섯을 한다고 귀농을 했다고 찾아와요.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해도 이분들이 잘 모르잖아. 그러면 그곳에서 나를 찾아가라고 알려줘. 그러면 와서 나랑 이야기 하지. "전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업으로 하다가 되면 전업으로 할 겁니까?" 물어보면 우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덤벼들어야지요. 그런 생각으로 하려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 아니면 난 망한다. 내 인생은 이것을 못시키면 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해야지. 막연하게 오는 사람들은 버섯은 진짜 안돼요. 버섯은 재배하는 것이 과학적 이어야해. 온도, 습도, 환기 모든 것이 맞고 심지어 바깥공기까지 연관하고 심지어 물 이런 것 까지 해서 세심한 관찰로 해야 되지. 막연한 생각으로는 안 돼요.

2) 귀농자 G씨

(귀농 8년차, 귀농유형 : U형, 귀농 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지사면 방계리)

질문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귀농자: 45살입니다.

질문자: 귀농 한지 얼마나 되셨나요?

귀농자: 만 8년 되었습니다.

질문자: 귀농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요?

귀농자: IMF 때문에 귀농했습니다. 한보 그룹 하청 업체로 공장을 했다가 한보가 부도가 나서 저도 그만 공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마을 이장님이시면 마을 사람들과 친하겠네요?

귀농자: 네.

질문자: 처음에 귀농했을 때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은 없었나요?

귀농자: 고향이라서 다 아는 사람이고 해서 갈등은 없었습니다. 물론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타 지역으로 가면 마을 주민들과 갈등도 생기고 그러겠죠. 저는 고향이라도 귀농 하고 2~3년 정도는 마을 사람들과 지역에 동화되기 위해서 지역에서 일을 많이 했죠.

질문자: 고향지역을 택하게 된 동기라도 있습니까?

귀농자: 여기에 나의 땅이 있었고, 고향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쉽게 적응하기도 쉬워서

고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귀농한다고 했을 때 부인이나 가족들의 반응은요?

귀농자: 반대가 심했지만 설득했지요. 도시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도 희망도 없었기에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 고향을 찾았습니다.

질문자: 귀농 당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귀농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돈입니다. 농지, 집, 농기계 다 돈입니다. 어디서 대출 받고 그 돈을 어디에 쓰고 또 어떻게 갚아야 하는 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질문자: 초기 자본은 얼마를 가지고 귀농 하셨나요?

귀농자: 4천만 원을 가지고 초기 자본으로 시작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질문자: 그렇다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귀농한다면 얼마 정도 있어야 할까요?

귀농자: 농사를 지으려면 1억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내 돈 이어여야지 빌리면 이자주고 하면 돈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 준비 기간은 얼마인가요?

귀농자: 1년 정도 됩니다. 그 동안 귀농센터 본부에서 자료도 구하고 이곳저곳 학교도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질문자: 논농사 규모는?

귀농자: 논농사 8천 평, 과수 4천 평, 채소1만 평 합니다.

질문자: 귀농은 가족 분들과 다 같이 오셨나요?

귀농자: 아니요. 제가 6개월 먼저 내려 왔습니다. 먼저 내려와서 기반을 먼저 잡았죠.

질문자: 규모가 엄청 크게 하시네요. 작물도 다양하고요.

귀농자: 네. 많이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실패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크게 합니다.

질문자: 귀농 하시고 어느 정도 지나야지 정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귀농자: 5년 정도 지나야 정착 단계에 이른다고 봅니다.

질문자: 귀농 하시고 초기에 어려운 점은요?

귀농자: 농사라는 게 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깐 투자만 하고 거두어 들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바로 바로 결과를 볼 수 없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질문자: 정부의 지원은 없었나요?

귀농자: 전혀 없었습니다.

질문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귀농자: 개인적으로 3천 평 이상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자: 주변의 다른 분들이 귀농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농자: 말릴 것입니다.

질문자: 귀농 하신다는 분께 하고 싶은 말은요?

귀농자: 우선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화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농사는 혼자서는 지을 수도 없고 팔수도 없다고 봅니다.

질문자: 농지가 이렇게 많은데요. 자녀분들은 농사를 짓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귀농자: 농업이 안정적이지 않는 나라에서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농업을 물려주긴 싫습니다.

질문자: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정부의 귀농 관련 정책적인 방안은요?

귀농자: 초기 투자비용을 철저하게 줄여주어야 합니다. 비어 있는 집, 놀고 있는 땅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배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면서 귀농을 하라고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J형 귀농자

귀농자 J씨는 대학시절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다니면서 농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는 것을 느끼고, 대학을 졸업 후 1999년에 귀농을 하였다가 경제적 이유로 다시 도시로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귀농을 준비하여 재귀농 하였다. 귀농자 S씨와 K씨는 도시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귀농을 생각하게 되었고, M씨는 평소 관심을 가졌던 유산양을 직접 키우기 위해서 귀농을 하였다.

귀농자 J씨의 경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귀농을 한 것에 대해 '실패자'로 생각하는 시선이 싫어서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귀농을 선택하게 되었다. S씨는 땅값이 싼 곳으로 귀농하였으며, K씨의 경우는 아시는 분이 이미 귀농하여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같은 지역으로 귀농하였으며, M씨는 유산양을 키우기 적합한 장소인 곳으로 영동에 귀농하였다.

처음 귀농을 하여 J씨, S씨, K씨는 마을사람들의 텃세와 경계심으로 마을에 적응하고, 마을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M씨의 경우 유산양을 키우는 것에 대한 영농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외딴 지역에 따로 떨어져 있었기에 마을사람들과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S씨는 초기 자본에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갔으며, K씨는 땅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K씨의 경우 임대한 땅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경영이 되지 않고, 언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위해 계획 중이다. J씨는 양계, M씨는 산양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문제는 경종에 종사중인 사람들에 비해 농지에 대한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귀농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광주 귀농학교를 다닌 J씨, 유산양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했던 M씨는 일에 대한 적응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귀농 준비기간이 짧은 S씨(1달 준비), K씨(직장 사표낸 후 귀농)는 준비없는 귀농으로 작목선택과 농사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 영농기술에 관련된 내용과 정보습득을 언론매체, 인터넷, 책 등에 의존하였으며 이들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M씨를 제외하고 J씨, S씨, K씨 모두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판매망이 개척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K씨는 지난 9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구축 후에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주문하고 있어 판매망을 개척해나가고 있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K씨의 경우, 자녀와 함께 놀아줄 상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J형 귀농자 모두 농협이나, 친구, 친척들에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1) 귀농자 J씨

(귀농 2년차, 귀농유형 : J형, 귀농 지역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질문자 :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 지금 35살이요.

질문자 : 귀농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귀농자 : 작년 2월 달에 귀농했습니다.

질문자 : 나이도 젊은 신데 귀농을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 저는 적성에 맞아요.

질문자 : 기존에 직업이 어떤 것이었어요?

귀농자 : 음... 대학 졸업하기 이전에 이미 귀농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귀농했어요. 99년도에 그런데 귀농 준비가 부족했고,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다시 도시로 나와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질문자 : 그때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귀농자 : 농산물로 돈을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일 년 동안 생산한 농산물은 얼마 되지 않고,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 이상씩 나가고, 수익이 있어야 생활을 하는데, 수익이 거의 없는 거죠

질문자 : 그리고 다시 작년에 귀농하셨구나.. 그럼 고향으로 귀농하신 거예요?

귀농자 : 아니 ,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 귀농했어요. 고향은 승주 주암 인데 화순으로 귀농했어요.

질문자2 : 저기 죄송한데요. 학교 다니실 때 귀농에 관해서 정보들은 어떻게 얻으셨어요?

귀농자 : 대학교 농활이란 거 있잖아요. 농활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농활 가고 나서 그것이 진로가 결정된 거죠. 다른 많은 일을 해봐도 농활 와서 느꼈을 때 느낌하고는 비교가 안 돼 더라고요. 그래서 내 성격은 흙하고 제일 가깝겠구나... 농활에서 많이 느끼고 배웠어요.

질문자 : 그럼 그때 99년도에도 귀농하신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이 반대 안하셨어요?

귀농자 : 엄청 많이 하죠. 다들 호적 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 이예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의 이런 심정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리 명분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잘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이해해줄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직 우리 세대가 그런 어떤 샛길로 샌다는 것에 대한 관대한 입장이 아니에요.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이 정말 뜻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적어도 박수는 못 쳐도 뒷다리를 잡거나 반대는 안해야 되는데 무조건 못 가게 해요. 그게 이제 부모님 눈길이라든가 사람들 눈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안 만나게 되요. 친구들도 안 만나게 되고, 친척들 모이는 자리도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안 가게 되요. 왜냐하면 그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요. 정말 젊은 사람이 귀농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 거의 다 귀농 관련 모임에는 가지 옛날 친구들은 되도록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만나게 되면 너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사냐...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몇 번 만나면 나 생각이 있어서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안 만나죠.

질문자 : 부인께서는 반대 안하셨어요?

귀농자 : 그 부분에서 저는 다행인 것이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만날 때 미리 계획을 말해 놓고 만났어요. '나는 농사지을 거다.'라고 오픈 하고 만났기 때문에... 집사람의 반대가 없었던 것이 쉬운 부분이었어요. 우리 농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여자들이 '농촌 총각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베트남 여자들이나 연변 여자와 국제결혼을 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도시로 나가서 일순위로 목표를 정한 것이 결혼 이예요. '일단 결혼을 하고 내려오자' 그래서 99년도에서부터 열심히 연애를 해서 2000년도에 결혼을 먼저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한 총각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질문자 : 지금 사시는 화순 마을 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귀농자 : 밖(시내)에 나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를 거 있으면 잘 날라주고, 도와주고... 시골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외지인들이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골에서는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은 객관적으로 일관적으로 봤을 때 명확히 보여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귀농하는 사람들이 적응 못하는 이유는 시골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하고 묻어가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봤을 때 자주 틀린 이야기니까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찍히는 거죠. 저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이거든요.. 그게 횟수가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방인 이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부분이 이렇다. 저부분이 저렇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마 1~2년 안에 다시 나가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실감 가지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고 콩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많이 줘요.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입장이니깐, 그런데 항상 결정적일 때는 저를 절대 안 챙겨줘요. 이게 잘못 됐다.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농촌사회가……. 그것을 알고 생활하는 거하고 그렇게 생활 안하는 경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섞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깐 귀농을 하게 되면 농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홀로 독야청청 할 사람처럼 보이고, 혼자 잘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귀농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귀농하면은 항상 다른 것을 배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신은 농약 뿌리는데 우리는 농약 안하거든……. 그러면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자기들이 농사지었을 때도 농약을 안 쓰는 게 더 맞거든... 할 말은 없어도 그래도 농약 안치고 가격이 더 확보되면 "우리가 농약 치고 싶어서 친다니!" 이런 식이잖아요.

질문자 : 99년도 귀농할 당시에는 곧장 들어가셨고 이번에는 어느 준비를 하시시고 귀농하셨어요?

귀농자 : 99년도에는 제가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때부터 도시로 와서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잡더라도 시골에 내려가서 도움이이 될 만한, 그러니까 두부공장에 가서 두부 만들고, 빵공장 가서 빵 만들고, 내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된다고 해서 제봉, 내 집은 내가 지어야 하니까 한옥일, 이게 좀 시골에 내려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녔죠.

질문자 : 지금 생활에 만족 하고 계세요?

귀농자 : 지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들이 일정부분 나타나니까... 안사람도 만족하죠.

질문자 : 전부 유기농으로 재배 하시는 거예요?

귀농자 : 거의 100%유기농이고, 방법은 유정란이죠. 아직 배합 사료는 다 산거고

거기에다가 항생제 이런 것들 전혀 안 들어가는 자가 사료를 섞여서 먹이고 있어요.

질문자 : 그런 경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귀농 많이 하잖아요.

귀농자 : 귀농학교 친구들 불러서 마음 맞는 사람들 끼리 모여서 화순에 3명 나주에 1명 담양에 1명. 이렇게 양계장을 지었어요.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일하고,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질문자 : 귀농학교는 어떻게 알고 가신 거예요?

귀농자 : 99년도 실패해서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99년도 하반기에 공교롭게도 광주에 살았을 때 가톨릭 농민센터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생태귀농학교 한다고 그래서 99년도 들어가서 지금껏 귀농학교 활동을 하고 있죠.

질문자 : 귀농 초기에 어려운 점은?

귀농자 :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주위 분들, 설득 시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가만 놔두면 되지 않냐 싶은데...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건드니까, 또 안 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나보니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 집안이 부실하거나 직장생활 좀 해서 목돈이 마련되어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또 전혀 안되잖아요. 학창시절 때는 가능 한데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입장에서는 현실의 무게가 가장 큽니다. 아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현실 앞에서는 정말 그 때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질문자 : 현재 양계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거는 없으세요?

귀농자 : 양계뿐만이 아니라 모두 판로가 문제 예요. 농산물 모두...

질문자 : 양계기술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귀농자 : 저희 귀농학교 안에서 정보 제공을 얻고, '자연 양계'라고 자연 농법이라고 있어요. 그 학교를 다 졸업했고... 이론적인 부분들은 특별히 다 배운 거죠. 귀농학교 속에서도 했지만 자연양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양계만을 하는 센터에 가서 전문 교육원을 일주일정도 받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양계를 우리나라에서 조안구씨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야마기시즘 양계 농법이고요. 그 사람이 일본에서 그것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 재래 전통 농법하고 결합을 시키고, 그 농법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자연 양계고...

질문자 : 개인적으로 판로를 개척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귀농자 : 우리의 목표가 가톨릭농민회도 가장 큰 도식인데 우리는 자연단위제로 하려고... 우리 작목반은 맨투맨... 우리가 생산한 것을 개인 직거래로 곧장 판매하려고요.

질문자 :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귀농자 : 많이 들죠. 제 양계장이45평 한 동인데, 짓는데 재료비만 한 2백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포함 하면은 한 동 짓는데 천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는 품앗이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비용이 안 들고, 자제비만 해서 6백만 원 들었어요.

질문자 : 만약 다른 사람이 귀농한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귀농자 : 일단은 적성에 맞아야 돼요. 그 부분이 없으면 절대 안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귀농을 보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귀농하거든요. 사회운동 했던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농촌운동으로 전환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하려고 들어오고... 보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귀농했을 때 가장 문제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적성!!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명분을 가지고 내려간다 해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땅을 파고 일을 한다는 것에 적성이 맞아야 하고 그 부분은 스스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질문자 : 처음부터 양계를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귀농자 : 처음에는 콩을 했는데. 도저히 돈이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자연양계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게 더 주 수입원이 된 거죠. 선택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질문자 : 양계 말고 지금 다른 것도 하고 계세요?

귀농자 : 올해 고추도 많이 했어요.

질문자 : 월수입 물어봐도 되요?

귀농자 : 지금 양계로는 2백 가까이 될 겁니다. 매출해서..

질문자 : 부채 같은걸 없으시고요?

귀농자 : 저도 부채죠. 옛날 우리전통 농가들... 그러니까 아버님과 같은 시대는 빚이 조금 밖에 없을 거예요. 완전 자급자족 이니까... 그분들 빼놓고는 다 부채에 시달려요. 농가부채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농촌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바깥의 인식 이예요. 도시민들이 농촌 문제를 바라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쌀 문제 터져서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하나가 망하면, 빨리 공적자금 투자해서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농가 부채로 농민들 망해가면은 농가 부채는 개인이 진 빚인데 왜 공책자금 들어가느냐... 그런 농촌을 바라보는 밖의 시선이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대우 이런 기업은 그런 큰 그룹들은 사기업이고 자기들 책임 이익에 의해서 굴러가고 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가 부채를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농가 정책이 잘못 되었다 말해요. 다시 말해서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여기다 토마토 농사지으면 더 낫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렇게 한다 말예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다보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 이예요.

2) 귀농자 S씨

(귀농 9년차, 귀농유형 : J형, 귀농 지역 : 경북 봉화군 명호면)

질문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44살입니다.

질문자: 귀농은 언제 하셨어요?

귀농자: 1997년에 했으니깐 만 8년 되었습니다.

질문자: 원래 이곳이 고향이세요?

귀농자: 아니요. 경남 진해에서 타 지역으로 했습니다.

질문자: 타 지역인데.. 처음 귀농했을 때에 마을 사람들과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귀농자: 사람들 간에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귀농했을 때에는 어떤 경계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자: 귀농하신지 9년 되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은 잡으셨어요?

귀농자: 아직까지 확실한 기반은 잡지 못했어요.

질문자: 귀농 시에 가족들끼리 갈등은 없었나요?

귀농자: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은 농사를 안 짓고 그림만 그린다고 했고 저는 그에 합의 했습니다.

질문자: 귀농 전에 직업은?

귀농자: 출판사에서 일했습니다. 농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이죠.

질문자: 귀농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귀농자: 인터넷,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얻었습니다.

질문자: 그런 것만 가지고 귀농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귀농자: 네. 언론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믿고 막상 실행 하기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도 많고 실질적으로 적용 했을 때 그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귀농자: 학력은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나왔습니다.

질문자: 귀농 준비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나요?

귀농자: 급작스럽게 해서 1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생각은 많이 했지만 실제 적으로 1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왜 이 곳을 선택 하셨는지요?

귀농자: 땅 값이 싸고 개발도 덜 되고 깨끗한 곳을 찾았습니다. 강원도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가

질문자: 정착 초기에 초기 자본은 얼마정도 되나요?

귀농자: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농기계, 집 등 마련했지만 토지가 가장 비쌌습니다.

질문자: 농사 규모는 얼마정도 되나요?

귀농자: 작게는 5천 평에서 많게는 1만 3천 평으로 봅니다.

질문자: 귀농 초기에 돈은 어떤 방식으로 버셨나요?

귀농자: 처음에는 공판장으로 많이 갔습니다.

질문자: 귀농하실 때 기술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귀농자: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 받기도 했고 농협에서도 받았습니다.

질문자: 귀농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귀농자: 네.

질문자: 초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귀농자: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귀농을 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 씩 하나 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헤쳐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질문자: 귀농 하신 것이 만족 하시나요?

귀농자: 아직 정착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내가 원해서 귀농한 것이니까요.

질문자: 귀농자금을 빌렸다는데 다 갚았나요?

귀농자: 아니요.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질문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귀농자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귀농자: 지금 느끼는데 정부가 돈을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사람만 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귀농 할 여건을 마련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단 귀농자 수치만 올릴 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농촌에 대한 지원을 통한 귀농을 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역시 미비 합니다. 귀농 할 때만 도와주지 말고 귀농 후에도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귀농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제도 장치의 마련도 있었으면 합니다.

3) 귀농자 K씨

(귀농 4년차, 귀농유형 : J형, 귀농 지역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질문자: 귀농 계기는요?

귀농자: 그냥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30대 중반 쯤에 아내가 강원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원래 시골 출신으로 시골에서 자랐고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 요인의 작용이 컸다고 봅니다.

질문자: 원래 도시 사람 아니신가요?

귀농자: 아닙니다. 서울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곳은 제가 살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더라고요. 논이고 산이고 돌아다니다가 도시로 나가니깐 발길에 채이는 게 사람들이고...아파트에서 생활하는데도 너무 답답하고 직장생활도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골 가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도시로 가든 어디를 가든 30분정도 밖에 안 걸려서 그런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좋고요.

질문자: 언제 귀농을 하셨어요?

귀농자: 38살 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선 농촌에서의 어려운 삶을 아니깐 더 귀농을 하기 쉬웠던 같아요. 이것저것 조건을 따진다면 귀농을 못해요. '조건을 다 갖춰서 와야지'라면 귀농을 못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귀농이 꼭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만이 귀농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연에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귀농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 집도 제가 손수 짓고 자연과 어울러져 사는 것, 도시에서 돈 주고도 못 느끼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게 귀농의 참맛이고 느끼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삶의 질이라 말하고 싶어요. 삶의 질이 꼭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만을 본다면 귀농은 위험하죠. 그리고 애들 교육 문제를 생각하면 좀 답답한 점은 있어요. 시골 선택할 때도 애들을 도시적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서울에서 애들을 너무 조르지 말자. 여유를 주고 싶었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내가 부모로서 그것밖에 없나. 아이들에게 다른 삶의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랬죠. 제 어릴 적 환상도 있어요. 제가 겪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많이 틀려요. 요즘 농촌은 산으로, 들로 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 5개 학교가 있는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합쳐도 40명이 안돼요. 딸내미 또래가 6명. 그 여섯 명을 5개 마을에 풀어놔 보세요. 놀러를 갈려고 해도 다른 동네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교육열이 여기까지 미쳐서 학원들을 다 다니고 있어요.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고 나서 하는 말이 "심심해"예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해도 재미가 없고, 온갖 것에 흥미를 잃어가더라고요. 또래들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아이가 농촌에 대해서 농촌체험을 온 아이들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사주고, "네가 찍고 싶은 것들을 찍어라"구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직거래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어디를 가도 카메라를 챙겨 다니고, 예전에는 꿈이 연예인 이었는데, 지금은 사진작가라고 말을 해요. 처음에는 매일 꽃만 찍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동생 웃는 얼굴도 찍고, 우는 얼굴도 찍고 다양해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잘 되었다 싶어요.

질문자: 귀농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일은요?

귀농자: 처음에 산거라고는 300평 텃밭하고 집만 샀는데... 땅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죠.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게 가장 서러웠고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놀리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600평정도 했나 봐요.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지만 그건 그거고.. 아내 등쳐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업농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통해 살고 있어야 하는데 생기는데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드니깐 초조하고 막막했습니다.

질문자: 얼마정도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귀농자: 연 2천만 원정도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월 180만 원 정도요. 그리고 도시에서의 180만원과 농촌의 180만원은 틀리죠. 가치가 다르죠. 자급자족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소비상태도 다르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연봉 2000만원 올라가는 게 제 목표예요. 첫해는 조그맣게 했고, 둘째 해에는 땅을 구했는데. 자기들이 짓기 어려운 땅을 주죠. 그렇게 2~3000평정도 했어요. 호미, 삽, 예취기 등 하나하나 농기구 다 샀죠. 그리고 지금은 품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품삯은 둘째 치고 그만한 규모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없고요. 그래서 혼자서 기계들을 사는데... 비닐을 덮는 게 200만원 정도해요.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질문자: 귀농한 뒤에 어려운 점은요?

귀농자: 처음에 왔을 때 기존 분들이 들깻잎을 10년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들깨농사를 했는데... 매일 따줘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그러지를 못하고...상품성이 떨어지죠. 막상 생산해도 팔 곳이 없으니 막막했습니다. 판매망이 개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물은 보관이 잘 안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더라도 무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추와 감자농사를 짓고 있어요.

질문자: 아내의 반대는 없었나요?

귀농자: 처음엔 전원생활 한다고 했습니다. 집만 여기서 있고...그러다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 하니깐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과정 과정을 넘겨왔어요. 그래서 농사지으면서 차츰 규모를 늘려갔죠. 제가 첫해 와서 150만원을 벌었고, 둘째 해가 400만원 들깨, 콩 이런 것만 해서요. 그리고 작년에 1000만 원 정도 벌었고, 올해가 2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쓰는 돈이 워낙 많아서요. 올해서야 돈 쓰고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질문자: 지금 현재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농자: 작년까지는 90%가 생협으로 나갔어요. 올해는 1/5정도고 다 직거래로 했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생협에서 유기농 감자 한 박스에 12000원 정도인데..가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는 분들께 전화해서 판매를 했고 또 우리감자가 맛있어요. 20kg에 2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질문자 : 작목 선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 야콘도 많이 하시던데..

귀농자 : 여기도 작년에 브로콜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올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브로콜리를 심어서 완전히 망했죠. 그만큼 수요가 안 되죠. 그리고 관에서 하라고 하는 것 반대로 가야해요. 이번에 쌀 박살났잖아요. 이때 쌀을 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손을 놓으니깐...

질문자: 귀농해서 기반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귀농자: 농사로 살아가려면 자기 판매망이 확실하면 되요. 그리고 자기 판매망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소비자와의 관계가 상품을 매개로 한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 신뢰관계라 생각해요. 물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으면, 물건값 12,000원 차이가 나도 사게 되요. 그래서 만든 게 홈페이지예요. 유기농이라 해서 단순히 인증마크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구나! 라고 공감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올해 9월 9일 날 홈페이지 열었는데, 얼마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많이 팔았어요.

질문자 : 시골에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귀농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그게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아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이 진실로 대하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노인분인데 젊은 사람이 오면 좋아하죠. 여기가 집성촌이라 마을차원에서의 텃세는 있었죠.

질문자 : 농사짓는데 어려움은?

귀농자 : 과정상의 어려움은 있고요. 기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을 어른 분들께 물어서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와서 가르쳐줘요. 답답하니깐... 잘 가르쳐 주시고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구요.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추농사를 짓는데, 여기서는 시설에서 고추농사를 짓는 데가 없어요. 저는 유기농으로 하고 마을 분들은 농약치고 해도 생산량은 제가 더 낫거든요. 제가 다른 특이한 것으로 해서 잘하면 몰라도 같은 것 해서 더 잘하니깐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오히려 물어보시기도 하시고요.

질문자 : 귀농 하시려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귀농자 : 제일 먼저 체력이 되냐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농촌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싶냐" 그런 마음상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아는 게 병이라고' 어떤 직업이든 쉬운 일들이 있을까 싶어요. 농업만 힘들다고 보지 않아요.

질문자 : 이곳으로 귀농하시게 된 이유가?

귀농자 : 아시는 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깐 살만하더라고요. 그 집도 애들 키우고 하니깐..

질문자 :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세요?

귀농자 : 정착은 했다라고 생각해요. 정착은 했는데, 내가 요구하는 정도의... 가만히 보면 첫해는 600평, 둘째 해 2000평, 셋째 해 5000평, 넷째 해 7000평. 평수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저도 제가 어디까지를 농사지을 수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임대농이니깐 언제 뺏길지 모르니깐 우선은 계속 규모를 늘리는 거죠.

질문자 : 귀농 초기 때 얼마나 자본이 들던가요?

귀농자 : 우선 혼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기계가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트랙터 중고 530만원 주고 샀어요. 중고사면 4~5년 정도 가요. 저는 3년차에 트랙터 구입했는데, 그전에는 빌려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평수가 늘어나니깐 트랙터 빌리고 주는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트랙터를 구입했죠.

질문자 : 처음 귀농하면서 땅을 사는 것이 나을까요?

귀농자 : 아뇨. 저도 이곳에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여긴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비탈지 밭을 1000평을 구입해도..실제 쓸 수 있는 게 500평 밖에 안돼요. 농사짓는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따져서 옮기려고 생각중이예요. 그리고 진작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준비가 말로의 준비가 아니라 1~2년이라도 실제 살아봐야 생각해요. 말로만 듣고는 안 맞아요.

질문자 : 앞으로의 농업계획은?

귀농자 : 홈페이지도 있고, 소량 다품종으로 나가려고 해요. 소비자들의 욕구도 있고요.

질문자 : 귀농정책에 있어서 정부나 기관에 바라는 점은 없으세요?

귀농자 : 근본적인 문제는 관에서는 농촌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있죠. 농촌은 농사짓는 사람들만의 터전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더 연대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지원을 행정단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것이 꼭 "도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아라."는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농촌이

다양화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아니라 농사로 이야기하라. 농민들이 농사해서 잘 살 수 있으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고 봐요. 농촌 살리기 하는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곁다리에 있는 사람들만 살리는 거죠. 농업운영자금의 경우도 이자가 3%정도잖아요. 그것을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필요 없는, 그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해줘요. 저는 행정기관이 빨리 변해야 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농사를 보지 않고, 뭐 '친환경 단지 만든다! 이런 것은 성과는 날지 모르지만 실제로 농민들한테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4) 귀농자 M씨

(귀농 8년차, 귀농유형 : J형, 귀농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질문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46살입니다.

질문자: 언제 귀농 하셨어요?

귀농자: 39살부터 귀농 했습니다.

질문자: 귀농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농자: 대전에 있는 농협에서 일했습니다.

질문자: 고향은 어디신데요?

귀농자: 충남 부여가 고향입니다.

질문자: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라도?

귀농자: 산양 키우기 위해서 이 지역을 왔습니다.

질문자: 이 지역은 고향이 아닌데 망설임은 없었나요?

귀농자: 가축을 키우기 위해 망설임 없었습니다.

질문자: 그럼 처음 귀농 하셨을 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나요?

귀농자: 마을 사람들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정으로 거들어 주는 수준입니다. 실제 목장을 운영 하는 것은 거의 혼자서 하는 것이지 마을 사람들의 절실한 도움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문자: 유산양은 얼마나 합니까?

귀농자: 대략 500마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초기 자본은 얼마 정도였는지?

귀농자: 15년간 모은 돈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돈 1억과 가족, 친척, 친구들이 나를 믿고 무이자로 빌려준 2억 5천을 더해서 약 3억 5천정도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료비 같은 건 일단 빚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문자: 판매는 어떻게 하십니까?

귀농자: 생산만 하면 인근 공장에서 가져갑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와서 회수해 갑니다. 저를 낙농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낙농을 카우 밀크만이 낙농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산양 젖을 생산하는 것도 낙농입니다. 사막지역은 낙타 젖을 많이 먹고

이렇게 젖을 생산하는 농업을 낙농이지 않습니까. 저도 낙농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양 젖을 많이 먹기는 먹는데 농가에서 생산이 국민들의 공급을 따라 가지 못하니깐 국가에서 양을 수입해서 젖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 귀농을 여기로 했는데 작물을 선택 안 하시고 유산양을 한 이유가 있는지?

귀농자: 우리나라 농업에는 모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귀농을 생각하면 무조건 밭이나 논을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귀농 했을 때 처음 아이템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귀농자의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국민소득이 1만 불이 안 되지만 소비욕구는 2만 불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봅니다. 즉 적게 먹어도 영양가가 높고 먹어도 살이 안찌고 내 몸에 건강을 찾습니다. 그리고 점점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굳이 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귀농을 할 때에는 확실한 성공보장이 있는 그럼 아이템을 들고 귀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농사짓는 게 귀농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일하고 어리석은 귀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귀농도 자금을 갖춘 상태에서 귀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추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 친환경 상추를 재배해서 무조건 우리 농민이 한 거니깐 먹어 라고만 하지 소비자의 심리나 동향을 살피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주문형 농산물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추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형을 해서 반 가공형태로 해서 생산자의 충성 고객들이 생겨야 합니다. 상추를 그냥 도매업자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내 상추가 아니면 상추를 안 먹는 충성 고객들을 찾아야 합니다.

고도의 성장 속에서 희생된 것이 농업입니다. 학생이 지금 오면서 버스타고 온 도로가 예전에는 다 농토였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온 것도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온 농토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그런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안 되는 농업은 과감히 포기 하고 되는 것은 더욱더 살려야 하는데 안 되는 농업을 살리려고 하니깐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꼴이 됩니다. 구걸 농업은 경쟁이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 날 수 있는 농업만이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면 농민들이 울기만 하면 정부는 항상 사탕만 줘서 달래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울면 사탕만 주고 아우성을 치면 농민들한테 사탕을 주니깐 농민들이 더욱 더 아우성 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도 농민들한테도 불만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농민들은 사탕에만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질문자: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농민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업은 종합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가축을 키우는 농민이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작물도 알아야 등... 도시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업에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농업고등학교나 농업전문대학은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업고등학교나 농업전문대학은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현실인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다. I형 귀농자

귀농자 L씨는 귀농 10년 전부터 귀농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직장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해서 귀농을 선택하게 되었다. H씨는 이미 귀농을 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 1년후 귀농을 하였으며, S씨는 4년 정도 주말농사를 짓고 있던 중 IMF로 인해 회사 문을 닫은 후 귀농을 선택하였다. J씨는 도시생활에 힘이 들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서 귀농을 선택하게 되었고, N씨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귀농을 하였다.

귀농을 할 당시 H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귀농자금에 대한 정책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J씨의 경우 늦게사 귀농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늦게 알게 되어 혜택을 보지 못했다.

처음 귀농하여 농사의 흐름을 몰라서 주위사람들이 하는데도 그대로 따라서 짓고, 주위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서 눈치껏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귀농주택의 경우 오래된 빈집들이어서 불편하였으므로 그곳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였으며, 그 비용부담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영농기술의 경우 일반적인 벼농사, 밭작물 같은 작목의 경우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짓고 있었지만, 사과, 복숭아 등의 과수나 유기농업 등의 특수한 작목이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작목반, 기타 관련 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마을과 떨어져 집이 있는 L씨, 남편이 노령화가 심한 지역에 이미 귀농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H씨를 제외하고는 마을사람들과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J씨를 제외한 L씨, H씨, S씨, N씨는 모두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는데 마을사람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걱정을 하거나, '돈이 남아돌아서 유기농업을 하는 구나'라는 잘못된 시선으로 비춰져 적응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생활에서 형성된 지인들에게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귀농초기에는 농업소득보다 농외소득에 의존하였다. H씨의 경우 여성농업인 센터의 보조인력으로 공부방 선생님, J씨 산불감시원, 막노동 등, J씨의 부인은 공부방 선생님으로 소득을 얻었다.

H씨와 N씨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앞의 J유형의 K씨처럼 임대농지의 비효율성 때문에 처음 귀농지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하여 왔다. 임대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의 가격상승과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농지의 불안전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L씨와 S씨의 경우 과수를 재배하고 있어서 3~5년 정도는 계속 투입을 해야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기에 도달하기 까지는 소득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1) 귀농자 L씨

(귀농 6년차, 귀농유형 : I형, 귀농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질문자 :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 전 46살입니다.

질문자 : 그럼.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귀농자 : 2명이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질문자 : 귀농을 처음 생각하게 되신 때가?

귀농자 :음. 30대 중반부터 귀농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귀농을 하게 된 건 40살부터 했죠.

질문자 :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시기가 힘들었을 텐데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귀농자 : 젊었을 때부터 귀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인생의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원래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질문자 : 귀농을 하게 되시면서 필요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귀농자 : 책 등을 통해서 얻었는데, 원래부터 귀농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질문자 : 지금 하시고 계시는 농사는 어떤 것인지요?

귀농자 : 사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 어떻게 사과농사를 하시게 되었는지요?

귀농자 : 원래 사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질문자 : 여기 명함을 보니까 인삼사과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건 특허를 내서 하신건가요?

귀농자 : 네. 현재는 저농약으로 하고 있어요. 농약을 일반 농가보다 절반이하를 쓰고요. 친환경 자제를 쓰죠. 목초액 이라든지 미생물제 들이요.

질문자 : 그럼 지금 농사를 부인과 두 분이서 하시는 건가요?

귀농자 : 네. 우리 둘이서 하고 있거든요 . 7000평정도 인데... 5000평 정도는 이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요. 2000평 정도는 이것저것 농사짓고 있습니다.

질문자 : 사과농사를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귀농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번 교육을 한때 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죠. 시대에 따라 유행이 바뀌듯이 소비자의 인식도 바뀌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매번 가서 배워요.

질문자 : 대단하시네요. 지금 그럼 사과를 재배하구 출하하시는데 출하하시는 경로는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 판매유형에는 밭 전체를 파는 포전판매, 도매시장, 인터넷 판매, 백화점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인터넷 판매와 직거래를 혼합하면서 가을에 출하시기에 맞게 사과 따기 체험농장을 하고 있죠. 사과 따기 체험농장에 참여하신분들이 또 고객이 되는 거죠.

질문자 : 인터넷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건가요?

귀농자 : 네. 직접 운영하고 있고 가을체험농장도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 그렇군요. 그럼 직거래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귀농자 : 지인들에 의해서도 하고 백화점에도 납품하고, 순천농협에 가면 저희 인삼사과에 있을 거예요.

질문자 :전국에 귀농할 만 곳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 부석리 까지 들어오게 되셨어요?

귀농자 : 여기 영주가 사과 유명하잖아요. 사과를 재배하기에 좋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질문자 : 귀농을 하신지 6년 정도 되셨는데요. 처음에 귀농하실 때 어려웠던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귀농자 : 처음에 귀농할 때는 귀농에 대한 지원정책도 없어서 좀 그랬죠.

질문자 : 들어오실 때 돈과 관련된 문제는 벌어서 오신건가요? 아님 뭐 지원을 받아서 오신건가요?

귀농자 :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서 왔죠.

질문자 : 주민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나눈다든지 그런 건 안하셨어요?

귀농자 : 네. 여기가 그냥 한마을이었다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지금 여기는 마을이 여러 개로 된 면단위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질문자 :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귀농자 : 네. 지금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질문자 : 귀농을 하실 때 가족분이 많이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귀농자 : 부인이 반대를 좀 해서 마찰이 있었지만 설득을 잘해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되었죠.

질문자 : 지금 우리나라가 농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농자 : 지금 개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개방에 대해서 무대책 이죠. 정부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농민들에게 알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농민들도 손을 쓸 수가 없죠. 개방을 하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3~5년 정도 수입된 물품이 우리나라농업을 흔들어 놓고 서서히 정착을 하는데요. 그 3~5년 사이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자 : 참..요새 쌀개방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정책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귀농자 : 이런 개방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되겠고요.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요즘 뭐 이런저런 이유로 토지를 못 팔도록 하는데요.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탈락되면 도시인에게 그 땅을 팔 수 있게 해서 살도록 해야죠. 그리고 정부가 농민들이 파는 토지를 다 사서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들에게 어느 기간을 주어 임대를 해주고,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팔고, 또 도시인에게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팔고 해서 좀 유연성이 있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너무 유연성 없이 해서 어느 정도 자본이 없거나 하면 농사를 짓을 수 없거든요.

2) 귀농자 H씨

(귀농 5년차, 귀농유형 : I형, 귀농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질문자 : 언제 귀농 하셨어요?

귀농자 : 저는 귀농을 조금 특이한 형태로 했어요. 신랑이 먼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신랑이 5년 정도 귀농준비를 해서 98년 2월에 내려왔어요. IMF 터지기 전에 자신은 농사일이 맞겠다 싶어서 총각인 상태로 농사를 지으러 내려와서 그해 가을에 저를 만났어요. 그때 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혼자서 지리산엘 갔는데 그곳에서 신랑을 만났어요. 그렇게 우연히 만났고, 그 당시에 전 농사에 대해 생각도 전혀 없고, 유기농업을 한다고 하기에 "왜 그 힘든 유기농을 하냐?" 그렇게 말했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저는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 있고, 주말마다 내려와서 반찬 챙겨주곤 했는데 신랑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 정리하고 저는 2000년 3월 달에 내려왔어요. 친정이랑 시댁을 합쳐서 농사를 짓는 데는 없고요.

질문자 : 남편 분께서 5년 정도 귀농준비를 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귀농자 : 경제적인 부분에서 귀농자금을 마련했죠. 벽돌 쌓는 기술 그러니깐 노가다로 돈을 준비했어요. 노가다 하면서 5000만원 모았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 부분이 결혼하는데 크게 작용했어요. 신랑이 5000만 원 정도 모으고, 제가 전세금 마련한 것 2, 3000만원이었어요. 그때는 여기 서해안이 투기바람이 없어서 그 정도면 자가농 수준의 논밭을 어느 정도 사고, 나머지 임대를 한다면 충분히 시골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해 졌고요.

첫해는 농사지어서 판로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그땐 지금 살던 집이

아니라 홍성에서 좀 외딴 산골에 살았는데 버스 내려서 30분정도 걸어가야 집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거기 집을 임대해서 논을 3000평, 밭을 1000평정도 임대했어요. 논농사 보통 3000평이면 유기농으로 해서 30가마정도 수확량을 얻는 게 평균인데 저희가 여름에 풀을 못 잡아서 결국 제초제를 한번 쳤어요. 그때 신랑이 많이 괴로워했었고 저희가 쌀을 판매할 때 한번 농약을 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유기농이 일반화 되지 않았고, 인증마크는 있었는데 인증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 그 해 농사를 지어서 저희가 700만원을 벌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그 정도 규모면 저희 둘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규모예요. 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도 되는데 밭 같은 경우는 두 명의 노동력으로 1000평 정도는 조금 부대끼는 규모거든요.

질문자 : 처음에 홍성으로 귀농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귀농자 : 첫 번째 살았던 지역은 신랑 아는 선배의 처가 동네에서 소개를 받아서 들어간 경우예요. 그리고 보통 귀농을 해서 지역이 까다롭지만 않으면 빈집을 얻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현재는 귀농이 많아서 어려운데... 팔지는 않으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 나와요. 굳이 고향땅을 팔 이유는 없고 그러다보니깐 임대로 내놓은 집들이예요.

질문자 : 그럼 첫해 농사지어서 판매는 어떻게 하셨어요?

귀농자 : 첫해 생산한 것은 다 직거래로 판매했어요. 귀농하면 좋은 점이 친척이나 형제,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토박이들에 비해서는 판매에 있어서 더 좋은 편이라 생각돼요. 판매를 다해서 700만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투자자본이 많이 필요해요. 농기계만이 아니라 시골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안 쓴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는데, 촌에 사니깐 일단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시골사람들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하는 것에는 습관이 안됐어요. 하루에 4대가 들어오는데 그것에 맞춰 살기에는 우리는 이미 너무 빠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린다 생각돼요. 차있어야 되죠. 농사지으려면 경운기 있어야 되죠. 아주 작은 승용차를 가지고 왔는데 경기가 풀리니깐 또 욕심이 나요. 끊임없이 필요 한 게 생기고 2000만원 지원을 받았던 게, 그때 한참 IMF 터지고 나서 98년도에 귀농자금을 줬었어요.

우선 기계가 필요하니깐 중고로 트랙터를 6~700만원을 주고 샀다가 거의 써보지도 못하고 팔 때는 30만원, 고물 값으로 판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귀농을 한 사람들이 먼저 기계욕심부터 내다보니깐 기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자 : 농사기술은 어디에서 습득하셨어요?

귀농자 : 농사기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유기농은 따로 공부를 좀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농사기술들은 동네 분들이랑 친해지면 다 해결이 되요.

질문자 : 처음부터 적응을 잘 했다는 거네요?

귀농자 : 적응하는 것은 성격문제일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느 사람들이랑 문제없이 어울리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한 면으로 잘난 체를 하거나 아니면 말이 많거나 좀 시골스럽지 않게 생활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있는 것도 없었고 저희 신랑은 누구나 다 잘 지내는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총각 생활을 1년 정도 했잖아요. 동네사람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굉장히 예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더더욱 산골이라 정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계셔서, 저도 조금 사회성도 있고, 동네아주머니 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적응의 문제는 조금 개인적 성향의 문제도 있어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중이 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지 자기중심 없이는 귀농하기 쫌 어렵다고 보고요. 그 중심이 종교든 철학이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고 자기중심이 뚜렷하면 귀농하세요. 워낙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가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는 유기농이란 단어도 모르고, 약 안친다고 하니깐 어르신들 다 걱정하시고 오며가며 이정도면 물을 빼라 대라. 다 관리를 해주세요. 가끔 술이라도 한잔 드리면 농사이야기는 더 길어지고 가르쳐주는데 즐거움을 아셔요. 마을 사람들 이야기가 다 틀려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필요한 선택적인 부분과 유기농 공부를 따로 하고 잘 조합해서 선택해서 결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2, 3년 지나니깐 그렇게 농사기술에 대한 어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노동력에 부쳐서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기술의 문제는 그냥 관행농을 해도 자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 분들이 인정해주셨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귀농하고 그 다음해에 엄청난 봄 가뭄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때 논이 천수답이었어요. 마을 꼭대기에 있는 논만 있었는데 물을 못 대는 거예요. 모는 자라서 끝이 노랗게 타들어 가는데, 모심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밑에 관정이 있는 집들은 물을 퍼서 모내기 하고 남으면 그 바로 위의 논으로 틀고 해서 관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내기를 6월 21일 날 했어요. 하지 첫날. 보통 옛날에는 하지 때도 모내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5월 달에 모내기를 들어가는데 한 달 동안 비한방울 안 내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문적옥답이 되겠어요. 수돗물을 틀어서 논에 대는데 '새 발의 피'인데도 그렇게라도 안하면 내가 녹이 쓸 것 같아가지고 그해 수돗물을 전기로 터는데 전기세 엄청나왔어요. 진짜 2, 3주일을 그 수도꼭지 하나로 물을 댈 정도로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그 농심이라는 게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밑에 물 안 준분들도 원망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 심정을 적나라하게 느꼈어요. 늦게사 모내기를 할 때 홍성지역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열 몇 명이 지원 오셔서 같이 모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앙기로 심으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일찍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모를 심었는데, 그해 6월 21날 잊지를 못해요. 그때 마을 분들이 오셔서... 젊은 사람들이니깐 줄잡는 것도 잘 모르니깐 윗집 아저씨, 아랫집 아저씨 논에 들어가서 도와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마을사람이랑 별문제 없이 친해져 갔었어요. 그리고 오며가며 경운기 이런 것 빠지면 누가 꺼내줘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전화와요. 가서 꺼내드리고 이러면 그걸로 마을에서는 이미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웬만큼 문제 되지 않으면 크게 배척하지 않아요.

무주 이런데 가면 저희만큼의 규모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규모자체가 작고 좀 도인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생활이 되고 가족단위로 귀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오면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술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로 마을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니깐 아이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되고 하니깐 갈수록 귀농 정착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땅을 못산 사람들은 빨리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귀농경험이 있으니깐 어디가든 자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깐 빨리 빨리 다른 지역도 좀 살만한, 귀농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지요. 뭐 하여튼 홍성은 귀농해서 역귀농 하는 사례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판로문제 또한 생협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질문자 : 처음부터 생강을 재배하셨나요?

귀농자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의 이것저것 밭작물도 다 심어보고 했는데 생강 같은 경우는 풀무생협이 여기 유기농 생산자 협의회가 있어서요. 처음에 귀농한 누군가가 생강을 한번 해보자해서 몇 명 귀농자들이 모여서 생강을 했는데, 돈이 되니깐 이게 많이 확대되고 지금은 12가정 그중에 귀농자는 70%~80,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해서 12가구 정도가 생강을 재배해서 풀무 생협에 물건을 내는 거죠. 김장때 특히 생강이 많이 나가고요. 생강은 4월 6일에 심어서 10월 말, 11월초까지 수확해요. 생강이 워낙 거름을 많이 하는 작물이라 풀들도 잘 자라요. 풀 메는게 좀 어렵고요.

질문자 : 심는 시기도 다를 꺼고 3월 달에 영농자금을 받아도 가을에12월 전에 상환하지 않나요?

귀농자 : 요즘은 그 제도가 조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12월에 요즘은 이자도 3%라서 별로 이자부담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우리처럼 영농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금리가 컸잖아요. 그 돈을 빌려서 자식들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 은행에 넣는다든지 마을에서 어차피 협의해서 나눠 쓰는 체제가 되다보니깐 굳이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가져가는, 요즘은 이율이 떨어져서 경쟁률은 덜해요. 이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실제로 영농자금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런 금리가 차이가 나다보니깐... 갚을 때 이자 3%정도 계산해서 갚았고요. 귀농자금 하고는 또 틀릴 거예요. 영농자금이 처음 귀농할 때는 5%였고 지금은 3%인데 농협이 정부를 대리하는 형태로요.

보통 겨울 내내 누워서 밭에 심었다 뽑았다를 생각하며 결정하는데 둘째 해는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지었어요. 신랑도 논농사가 조끔 익숙해져 있고 제초제 문제로 그 다음해에 심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초장에 풀을 잡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경험에서 나왔고, 그리고 귀농을 하면 1, 2년 정도는 도시에 있던 인간관계는 모두 내려옵니다. 모두들 한 번씩 놀러오고, 너무 궁금해 하고 그래서 1, 2년 정도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도 앓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힘도 많이 얻어요. 선배들 놀러 와서 이야기하고 또 도시에서 밖에서 술 마시는 것하고 집에서 술 마시는 것하고 이야기 깊이가 틀려지고 좀 더 깊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둘째 해는 그렇게 농사를 집중해서 지었던 것 같아요. 논농사도 무리 없이, 모내기가 늦어져서 마음고생은 좀 했는데 농심이라는 단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해에는 고추가 참 잘 되었어요.

질문자 : 그러면 고추판매는 어떻게 했어요?

귀농자 : 저희는 다 직거래해요.

질문자 : 어디, 생협을 통해서요?

귀농자 : 아뇨. 생협에 내는 것은 생협 출하라고 이야기 하고, 저희가 직접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직거래라고 하는데..

질문자 : 개별농가 단위로 다 연결을 하신 거예요?

귀농자 : 아뇨. 제가 키운 것은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파는 것을 저는 직거래라 부르거든요. 저희랑 거래하는 가구가 지금은 4~50가구가 되는데, 그때는 20가구 이었어요. 아는 선배 몇 명이서 알아서 주문을 다 받아줘요. '우리 집에 몇 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질문자 : 주로 고추와 쌀을 판매대상으로 하였습니까?

귀농자 : 네. 생강은 생협을 통해서 판매하고요. 생강은 생협 출하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고, 고추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해도도 유기농이라 없어서 못 팔정도였으니깐...그때는 제가 2000주를 심어서 300근 가까이 따서 태양초로 직접 다 말렸거든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농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제가 농사가 많이 느는 한해가 되었어요. 그해는 제가 1200만원을 번 것 같아요.

질문자 : 이쪽 광천으로 오신 것은 언제십니까?

귀농자 : 그해 농사 끝나고 나서왔어요. 그때는 자가 노동으로 품사는 일이 없었어요.

질문자 : 광천으로 와서도 다 임대였어요?

귀농자 : 예. 다 임대였죠. 임대료는 굉장히 쌌어요. 저승골이고 천수답이어서 아마, 도지라고 하는데 홍동 여기는 논 마지기당 한가마예요. 80kg. 저희가 사는 광천은 한 마지기당 60kg이예요. 처음 살던 그 동네는 마지기당 40kg이었어요. 그때는 논이 열 마지기 이였으니깐 도지가 5가마잖아요. 그때는 쌀 한 가마에 17만 원 정도 갔으니깐 그 당시는 돈 백만 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1200만원 벌어서 도지랑 기계 값 주고, 융자금은 별로 생각 안했는데, 그렇게 2~300만 원 정도 나가요. 900만원 정도면 두 식구 살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품을 안사니깐 자가 노동으로 하고요. 유기농업이 지금처럼 까다로운 지역이 아니어서 다 거름을 다 쓸 수 있었어요. 여기 거름 값도 꽤 비싸거든요. 자가 노동으로 별 기계구입하지 않고 경우기 한 대 정도 사서 두 식구 먹고살기에 좋아요. 그 해는 저금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선 별로 생활비 드는 일이 없어요. 차 유지비가 크게 들고요. 생활비 규모가 작다보니깐, 가끔 장봐서 육류나 어류, 가끔 주류도 그 외에는 크게 돈 드는 일이 없어요. 식구들이 아프지만 않는 조건이 라면요. 저희도 지금도 아궁이에 불 때고 살거든요. 연료비가 크게 차지하는데 연료비 안 들죠. 그때는 생활비 명목으로 인터넷도 안 쓰고, 그 당시 의료보험이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졌고요. 그 당시 국민연금은 수입이 없다고 해서 현재 안내고 있거든요. 그것내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혹시 아플까봐 보험금을 넣었는데, 지금은 보험금이 끝났는데 6만원 들어가는데도 큰 부담이었고요. 생활비 문제는 주로 시댁에 시할머니가 계신데 용돈 5만원 보내드리는데, 사실 매달 보내 드리는 게 부담이 되요. 그 당시에만 해도 3~40만원은 만져보지도 못하고나가는 돈이었을 것이고, 제가 20, 30만원을 현금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니깐 그 해 정산을 하면 돈이 남았을 거예요.

질문자 : 처음 남편 분께서 돈(귀농자금)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융자 같은 것 하나도 안하고, 땅은 빌렸지만... 그 문제 해결되었으니깐 그 뒤에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귀농자 : 근데 농사를 짓다보면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마을에서 아무리 예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돌아서서는 '내 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돌아서서는 마을사람들도 느끼고 우리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도 땅을 한 평이라도 사게 되면 느낌이 틀려져요. '저 사람 이제 여기있을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이 되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땅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어보고 사겠다.'라는 안정적인 수를 썼는데... 그러고 나서 인제 광천에 저희가 지금 살던 집을 저희 신랑이랑 같이 귀농한 사람이 4년 만에 여러 이유로 서울로 간 형이 '그 집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 여기 와서 농사지어라'고 해서 그 형이 임대한 집을 저희한테 다시 소개해주고 간 경우 예요. 여긴 논도 20마지기 정도 되어서 정확하게 19마지기인데... 그리고 홍동이랑 좀 가깝고 그 산골보다 좀 좋고, 버스정류장에서 5분밖에 안 걸어도 돼요. 읍내는 아니고 광천읍에서 좀 떨어진 마을이고요. 그해 12월 달에 그런 경제적인 것과 교통이 편리한쪽이 낫게다 싶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질문자 : 그럼 여기서 농사지은 게 3년째 되는 거예요?

귀농자 : 2001년부터 여기서 농사를 지었으니깐, 4년째예요. 여기로 오면서는 일단 논이 규모가 커졌고 아직 산 땅은 없고, 농사기술도 좀 늘었고, 그리고 풀무 생협이랑 가깝다 보니깐 물건 내기도 좋고, 하여튼 여기 오면서 경제적으로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2001년도 여기 와서 농사짓고서 부터는 신랑은 논농사에 주력하고, 저는 계속 생강, 고추,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것은 많아요. 감자, 양파, 마늘 여러 가지를 텃밭작물까지 하면 거의 50~60가지 넘게 재배할겁니다. 여기 와서 많이 안정이 되었고요. 제가 3년차고 신랑이 5년차니깐 많이 안정이 되고 생강 재배량도 좀 늘렸어요. 지금 현재 규모는 논이 19마지기, 밭이 1500평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한 밭을 주인이 다시 달라고 해서 없어지거든요.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그런 경우에 생겨요. 관행농과는 다르게 유기농은 밭에 정성을 쏟는데, 그 주인은 저희가 볼 때는 그 밭을 산밭이라 가꾸지를 못해요. 1년 있다가 다시 지어라 할 것이 뻔한데, 비료랑 농약 다 쳐놓고... 임대농의 서러움은, 소작농의 서러움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니깐... 사실 저희 땅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별로 저희 눈에 맞는 게 없어서인지 인연이 못 만나서인지 아직 땅을 못 샀고요. 전부 지금 임대예요. 도지는 어차피 쌀값 떨어지니깐 도지는 내릴 것 같아요.

질문자 : 서해안 개발바람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귀농자 : 논도 오르고, 밭도 올랐어요. 그 투기바람이, 개발 바람이라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작년 봄에 딱 투기바람이 불었어요. 서해안 개통되면서 실제 땅값이 올랐고, 그다음에 충남도청이 한 대 여기로 유치된다고 하면서 서울사람들이 많이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값만 오르고, 도지문제는 앞으로도 농사포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니깐 별로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내 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서적인 것부터 실제적인 필요까지 해서 내 땅에 대한,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들이 내 땅에 대해서 좀 합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통로들이 별로 없어요.

질문자 : 농지은행제도는 아시나요?

귀농자 : 저희가 전업농을 신청을 했었어요. 저희가 오는 해에 신청을 했으니깐, 2001년도에 전업농을 신청했고, 전업농을 하면 2만 7천원까지는 국가가 융자를 해주니깐, 저희가 논을 사더라도 그것이 좋게다 해서 전업농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논 값이 여기는 4, 5만원 때에 형성되고 있고

질문자 : 4, 5만원 밖에 안돼요? 좋은 땅이?

귀농자 : 농사짓기 좋은 땅이요. 투기지역은 아니고 6, 7만원으로 솟았다가 4, 5만 원대로 내렸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논이 2만 5천 원 이상이면 농사지을 경제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2만 5천원 이상은 무리라 생각돼요. 농지를 원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특히, 귀농자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고, 가격도 적당한 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귀농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물으면 절대로 먼저 농토를 구입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조금 저희가 미미하지만 작년 겨울에 귀농한 사람들 여러 명, 귀농한 사람들이 부류가 다양한데, 저희 남편이 민주노동당 당원 이예요.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 당원 중에 특히 귀농한사람들이 술 파티를 자주 벌이고 잘 모여 다니는데, 민주노동당 강연을 공부하면서, 농업강연 부분을 하면서 환경농업정책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어 농민들이 제안을 해보자 해서 겨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국유지나 개인이 판매하는 매물 등을 사들였다가 다시 농지은행제도로 하고 임대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 측면에서 환경농업이나 귀농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정보를 주고 만약 같은 조건이라면 귀농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제도는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농공단지 만들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사단지를 그런 식으로 모범사례들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귀농자들이 좋은 농지 혹은 적합한 농지를 찾기는 참 어려운 점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논이 전혀 물길이 지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솟는 논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것 2개 있는데, 수로가 지나가지 않는데도 물이 솟아요. 손모내기 하고 손으로 낫질하는데 근데 요즘은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정말 더 이상 어떤 경제성도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귀농자들이 농지를 매입하기에는 땅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해 이곳에 와서는 농사가 참 잘되었어요. 생강도 잘 되고, 밭농사도 잘 되고... 그때

쌀을 조금 생협 에다 출하했어요. 일부는 직거래를 하고,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나니깐, 저희가 생협에 마음대로 출하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는 참 좋은 조건 이예요. 사실 생강 같은 경우도 돈이 잘 되는데 생강에서 200~300만원을 버는데 순 환금 작물 이예요. 그래서 그해 아마 1700만 원가량 수익을 올렸던 것 같고, 논농사 에서 1000~1200만원, 밭농사에서 5~7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여기 와서 큰 전환점이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가 가족농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옛날에 생강도 산골마을에 있을 때는 단짝이라 해서 50평정도 심었는데, 여기 와서는 200평, 300평 심으면 한꺼번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많아요. 나 혼자서 못하니깐 품을 사게 되고, 이런 문제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자가 노동력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할 수 없고 차이점은 품을 사게 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긴 70세 이하가 없어요. 올해 품삯이 올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2만5천원에 아침 7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일을 하다가요. 올해는 3만원이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유기농 한다는 핑계로 그 할머니들 등쳐먹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심란한 부분도 있고, 규모를 늘리면서 그런 고민도 하고, 지금은 많이 안정되면서 확실히 환금작물을 구별하고 논농사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저희가 논농사가 잘되면 1000만 원 이상은 나와요. 1500만 원 이상을 하려면 이미 가족 농으로도 이미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심리적으로 저를 많이 괴롭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해서 도지로 2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기계 값, 융자 500만원의 이자 3%정도 내고, 그것 빼고 나면 1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되거든요. 작년에는 저금도 조금하고, 애기 보험도 하나 들어주고 이 정도는 됐어요.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원에서 1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건강보험 한 2만 원 정도 나가고 전화세, 전기세, 인터넷 정액제로 3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것도 부담 이예요. 다달이 나가는 거라서, 그렇게 공과금 나가고 15만원 그리고 시할머니 돈 드리는 것 있고 교육비는 아직 안 들고...

질문자 : 아이는 얘 하나죠?

귀농자 : 예.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내는데... 홍동은 교육기관이 일단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도 놀이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고, 학교 운영하는데도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질문자 : 여기는 생협 때문에 그런가요?

귀농자 : 예. 어린이집도 평범한 어린이집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공동육아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들었고 그런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운영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그나마 귀농여건이 좋은 곳 이예요. 아이들 문제로. 그래서 센터에서 방과 후 교실도 아마 제가 알기로 전국 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는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방과 후 교실 이예요. 그러니깐 학교 측에서 안하고, 여성의류센터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이 학습지도, 문제집 지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취미교실로 운영되고 음악교실 담당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지금은 고학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좀 하고요. 시골이 학습도 문제지만 다른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문화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가 담당해준다면 참 좋은데, 여기는 그게 가능해요. 아이들이 수시로 생각도 못한 것 많이 만들어 오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여기서 요가도 했고요. 그다음에 풍물도 했고, 홈패션 이런 것들이 내부에 있는 지역구성원들만으로도 선생님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 홈패션은 정말 그걸로 몇 십 년 일하시다 귀농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분이 양복 만드시던 분이라 옷을 굉장히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돼요. 홍성은 인력이 돼요. 인력이 중요한 힘이잖아요. 홍성은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적인 것이나 물론 도시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시보다 장점은 자체 내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되고 이런 구조도 가지고 있고, 자체 내 인력으로... 외부강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부강사에 의해 이런 것들이 구성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저력이라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홍성이 내년에 지역학교 얘기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순환, 내지는 지역중심 사회의 좋은 토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들이 많아요. 기존에는 다른 귀농지도 많이 돌아보곤 했는데, 애기 낳고 나서는 땅값만 해결된다면 이 지역에서 남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동네에 아이들이 보이는 게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귀농자금을 2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 신랑도 받았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사업자금이더라고요. 그것이 사업계획서를 5000만원인가 해서 내야 되고 그 일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귀농을 무슨 사업 그러니깐 특별히 산업 분류하자면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귀농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땅이거든요. 땅을 확실히 자기 것을 가지면 귀농이 성공할거라고, 저는 그게 50%정도는 성공의 요소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농정책 중에서는 최우선으로 귀농지 구입자금을 정부에서 융자금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주면 귀농을 해서 정착하는데, 마을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돼요. 다른 것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 돈을 받으면 농기계를 사야해요. 농기계를 사면 그게 다 부담이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다 빚이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귀농지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서 정보가 갖춰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귀농에 대한 정책을 정리해서 귀농본부나 이런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되니깐 어차피 아직까지 우리나라 행정서비스는 그것을 알고 찾아가는 것하고, 모르고 찾아가서 귀농 정책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틀려요.

질문자 : 환경농업 교육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가 있는지 아세요?

귀농자 : 이번에 정농회 교육 때 한번 써봤습니다.

질문자 : 적응을 대충 기술적인 수준이 지역수준에 도달한 게 한 2년째 된 것입니까?

귀농자 : 뭐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작물을 그 밭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봐요. 3, 4년 정도면 농사짓는 기술은 많이 정리되고요. 보통 귀농 적응 못하고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민 고민 끝에 귀농하신 분들은 3, 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적응하리라 생각돼요.

질문자 :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잘 정착하셨다고 생각되시나요?

귀농자 : 일단은 농사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사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생협의 유통단계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 생강 가공하는 문제도 제가 자원해 이제 농민들 스스로 가공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농사 마무리 안 되었는데 팽개쳐두고 그 일 때문에 뛰어다니고 있는데 농민들에 의한 가공사업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귀농 하실 분들은 그런 유통이나 농산물 가공 등의 정보들도 주고 방법들도 교육해주면 귀농해서 많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가공 사업은 반드시 농민이 해야 해요. 현재는 농민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하는데... 지금 고춧가루를 파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말린 고추를 팔면 괜찮은데 빻은 고춧가루를 팔면 불법이에요. 식품제조법에 걸려요. 농산물에 단순가공에 대한 법적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완화 내지 수정 되어주면 농민들이 귀농 정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질문자 :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은데, 심층면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귀농자 S씨

(귀농 3년차, 귀농유형 : I형, 귀농 지역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질문자 :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귀농자 : 50이요

질문자 : 그럼 귀농하신지는?

귀농자 : 3년 정도 됐어요.

질문자 : 원래 고향이 여기세요?

귀농자 : 고향은 서울이구요.

질문자 : 이곳으로 귀농하신 이유가?

귀농자 : 아시는 분이 이곳에 귀농을 해서 살고 있어요.

질문자 : 귀농에 대해서, 기존에 농촌에 살던 분들하고 비교해서 농업과 거리감이 더 느껴지잖아요.

귀농자 : 원래 이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졌고, 방송대학에서 농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농장도 몇 년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IMF도 오고해서 이쪽으로 왔죠.

질문자 : 굳이 작목 중에서 복숭아를 택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귀농자 : 이곳을 소개한 사람이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고, 과수 중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과일 중 숙기가 빨라서요.

부인 : 일이 길지가 않아서, 짧게 끝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자 : 귀농할 당시 갈등이나 어려웠던 부분들은?

귀농자 :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그러니깐 경제적으로... 복숭아를 심고 지금이 3년째인데, 올해에서야 복숭아를 몇 박스 수확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깐 몇 박스 땄을 정도니깐 최소 3년은 소득이 없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빵이에요.

질문자 : 후회는 안하세요?

부인, 귀농자 : 후회는 안 해요.

귀농자 : 우리가 택한 건 친환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업하려고... 남들보다 더 힘들죠. 무농약 올해 7월 8일 인증 받았거든요.

질문자 : 귀농을 하기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셨어요?

귀농자 : 주말 농장 한 것 까지 4년 정도요.

질문자 : 주말농장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부인 : 처음에는 그냥 강원도 가평에서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이 땅이 있어서 같이 다니면서 하자고 해서 한 10평정도 채소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오고가고 기름 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질문자 :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정부 지원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귀농자 : 아무것도 없었어요.

질문자 : 초기자본 얼마나 예상하시고 들어오셨어요?

귀농자 : 저는 1억 정도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 2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자 : 땅 사는 것 말고 1억이요?

귀농자, 부인 : 예. 우리가 더 들어갔나?

질문자 :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부인 : 3천 평 정도 되요.

질문자 : 영농 기술 같은 것은 주말농장 하시면서 습득하신 거예요? 아까 아시는 분을 통해서...

부인 : 그 분 때문에 복숭아 택하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깐 복숭아도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가 밤낮의 기온차가 많이 나서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과수하기에는 좋아요.

질문자 : 농기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귀농자 : 아직은 없죠.

부인 : 신청만 해놓고... 농협 같은 곳에서 신청만 해라 하면서 많은걸 요구하더라고요. '너희는 여기에 출자해라.' '자금을 투자해라' 그런 게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출자 해야만

뭐 혜택을 준다! 그런 식이 되니까

귀농자 : 기계에 투자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돈 끌어다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초창기에 귀농하신 분들이 정부에서 귀농자금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거의 깨져 나간 경우가 많아요.

질문자 : 생활하시는 것이나 농사지으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은 없으세요?

귀농자 : 농사의 흐름을 모르니깐 남들 쫓아가야 하고.

부인 : 남들이 알려주지 않아요. 보고 배워야 하고..굽혀 들어가야 하고... 주말부부인데 텃세만 심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마을사람들이랑 트러블도 많았던 것 같아요. 힘겨루기도 하고...

질문자 : 지금도 마을 분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세요?

귀농자 : 겉으로는 없어요.

부인 : 농사기술은 그런 게 좀 있고요. 동네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아요.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김장도 냉장고 꽉 찰 정도로 서로가 나눠주고

질문자 : 마을사람들하고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귀농자 :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질문자 : 주말부부라 하셨는데 부인께서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 : 교사예요. 여기에서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사표를 내면 그다음에 대책이 안서니까 사표를 낼 수가 없고...

질문자 : 그럼 농사짓는데 실질적인 도움 같은 거는 어디서 받으세요?

귀농자 :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녀요. 작목반에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부인 : 그리고 흙살림 연수를 계속 했었거든요.

질문자 : 흙살림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이 되요?

귀농자 : 흙살림 연구하고, 유기농 협회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요.

부인 : 농사짓는 것보다 더 바빠요.

귀농자 : 그리고 먼저 내려온 친구들한테 배우고... 귀농학교 프로그램 같은데도 쫓아다니고요.

질문자 : 내년부터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인데 어떻게 판매 하실 계획이세요?

귀농자 : 아시는 분들께 판매도 하고... 개인적으로 인터넷 판매도 생각하고 있고요. 무농약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판매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서는 값을 쳐주지를 못해요. 과일 상태가 일반 과일하고는 다르고, 모양도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질문자 : 수익은 아직 투자하는 단계이시고...

부인 : 계속 투자죠. 여기서 나오는 게 없어요. 올해 감자 심었는데...저 아래 논에 항공방제가 들어와서 감자가 친환경 인증이 계속 보류가 된 거예요. 박스는 무농약 박스로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내 놓으면 식파라치가 우릴 가만 안둔다고 하드라고요. 그러니까 출하도 못하고, 감자농사 망했어요. 그러고 나중에서야 인증 나니깐 감자 값은 떨어져서 손해만 봤죠. 박스에 걸려서

질문자 : 다른 귀농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귀농자 : 농촌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흘러가는 거니까... 농촌의 현실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질문자 : 다른 분들이 귀농하신다면 반대 하실 생각인지...

귀농자 : 뜻은 환영하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들다고 봐요. 귀농해서 힘들다고 술 먹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질문자 : 귀농정책에 있어서 정부에 바라는 점 같은 것 없으세요?

귀농자 : 그거는 뭐. 귀농은 전체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으로 스스로 돌아오는 세대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 인 것 같아요.

4) 귀농자 J씨

(귀농 5년차, 귀농유형 : I형, 귀농 지역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질문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부 인 : 남편은 42살 저는 43살이고요.

질문자: 귀농하신지 6년 되었다고 하셨는데?

귀농자: 네. 저는 2001년 6월 결혼하면서 내려왔고, 남편은 2000년 8월에 내려왔어요.

질문자: 귀농은 언제부터 생각 하셨어요?

귀농자: 예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은 귀농 1년 전에요.

질문자: 어떤 계기로 귀농을 하셨나요?

귀농자: 도시에서 살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니깐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사는 유기농이 귀농이 매력적이었어요.

질문자: 처음 귀농하실 때 어디서 귀농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정착을 하셨나요?

귀농자: 귀농에 관심에 있어서 한국 귀농본부의 학교도 다녀봤고 녹색청년회에도 찾아가봤고... 그러다 너무 맘에 들어서 결심했어요.

질문자: 지금은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시나요?

귀농자: 유기농으로 하니깐 다양한 작물을 하기는 힘들고 3년 동안은 콩만 했습니다. 콩은 특별한 병도 없어서 좋았고 2년 전부터는 부추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들은 자급자족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질문자: 농업기술은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귀농자: 따로 배워서 온 것은 없고, 와서 직접 몸으로 느끼며 배웠습니다. 도시에서 살아서 상추 하나 키운 적이 없어요. 처음에 와서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나왔을 때 잡초인지 상추인지 구별도 잘 못했고 항상 모르는 것들은 가까운 이웃에 가서 물었습니다.

질문자: 영양은 어떻게 아시고 이곳에 귀농하셨어요?

귀농자: 남편이 책을 보다가, 여기에 먼저 오셔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았는데 마침 귀농지를 찾던 터였고 초기 자본이 적었고, 땅값이 정말 쌌고, 물도 참 깨끗했고, 맘에 들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처음 귀농 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면?

귀농자: 생활이나 기타 것들은 이미 각오를 했기에 어려운 게 없었는데, 주민들과의 동화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기 주민 사람들은 관행농을 하는데 우리는 유기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유기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기농으로 재배했을 때 작물보다도 잡초가 더 많았고요. 이러한 것을 보고 마을사람들은 저희가 부자라서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쓰는 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많아서 유기농을 한다고 생각하여서 처음엔 엄청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이러한 점으로 인해 마을사람들과의 동화가 가장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렇게 힘든 점이 없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귀농을 하면 정부의 많은 보조가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억울합니다. 저희가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 탓입니다. 우리가 귀농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실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만 하라고 말만이 아닌 실제 우리 같은 귀농자들에게 직접 찾아온다든지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 지금도 마을주민들과 관계가 안 좋으세요?

귀농자: 아니요. 지금은 좋아요. 그 분들이 지금은 저희를 인정합니다. 비료를 안줘도 농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하고요 다른 곳에서 손님이 와도 저 집은 유기농으로 농사짓는다고 소개도 해주시고요. 요즘 TV에서 유기농 유기농 하니깐 마을 주민 분들도 유기농에 대해 좋게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유기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게 파니깐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데요.

질문자: 농산물은 어떻게 판매하나요?

귀농자: 소량은 지인을 통해서 팔고요. 대량은 인터넷을 통한 인근 도심의 성당에 판매합니다. 저희가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고요. 그 분들은 다른 유기농 농산물보다 싸게 사서 애용하시더라고요. 중간 단계가 없으니깐 저렴하게 판매 할 수 있어 한 번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사가요.

질문자: 농사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귀농자: 밭으로는 1500평정도 되고요. 상추는 700평, 콩이 600평, 나머지 텃밭이고요.

질문자: 정부에서 귀농자들에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요?

귀농자: 영양군 빼곤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요. 귀농자들의 대부분은 30~40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말하던데 '귀농자들은 먹물들의 잔치이다.'라고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겠다는 인재들이 귀농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귀농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귀농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귀농을 해서 마을사람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느꼈을 텐데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실제로는 정책적인 도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 년에 귀농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많아야 10명 하나요? 이렇게 적은 귀농자들을 정책적으로 돌봐 주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중요하니깐 혜택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읍내에 귀농자들을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기는 한데 전혀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실제 귀농자들은 이렇게 산속에서 사는데 실제 도움을 주는 기관은 읍내에 있어서 오라면 오라 이런 식이니깐 귀농자들을 도와준다는 단체는 전시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자들이 귀농했을 때 정착하기 전까지 돈이나 땅들을 대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농을 하면 임대를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혜택은 전혀 없어요.

질문자: 귀농자들 간의 교류는 어떠한가요?

귀농자: 귀농을 하면 실제 교류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다들 너무 바쁘다 보니...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질문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을만한가요?

귀농자: 유기농은 사실 일반 관행농에 비해서 더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자연을 지키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하지 유기농을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5) 귀농자 N씨

(귀농 5년차, 귀농유형 : I형, 귀농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질문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귀농자: 42살입니다.

질문자: 귀농 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귀농자: 그때가 38살이었습니다.

질문자: 귀농을 대부분 퇴직 후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귀농자: 그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젊었을 때 새로운 삶을 생각했었습니다.

질문자: 농촌 삶은 힘들지 않나요?

귀농자: 처음 귀농 했을 때에 귀농학교 동기가 그 곳에 살았기 때문에 처음 귀농해서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자: 귀농 할 때에 농업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졌었나요?

귀농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귀농이 직업의 연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관련 된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자: 귀농에 관련 된 정보는 어디서 얻었나요?

귀농자: 전국귀농본부의 귀농학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 귀농 학교 하는데 그곳에서 귀농 정보라든지 경험 등을 접했습니다.

질문자: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막상 반대 없었나요?

귀농자: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질문자: 귀농 하고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귀농자: 불편한 점 많지요.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했고요. 귀농 주택은 대부분 빈집을 얻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 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스쿨버스가 들어오는데 처음 귀농 한 경남 합천에서는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타기위해서는 4km 걸어서 나가야 탈 수 있었습니다.

질문자: 그럼 귀농을 여기에 처음 하신 것이 아닌가요?

귀농자: 예. 2001년에서 서울에서 경남 합천으로 처음 귀농했습니다. 이곳은 올 초 봄에 왔습니다.

질문자: 이곳에 오게 된 동기는요?

귀농자: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합천은 귀농 할 마음을 먹고 귀농학교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많이 찾아 봤는데 귀농 같이 다녔던 동기가 합천에 살아서 그곳 구경 갔다가 마을이 좋아서 여기가 좋겠다. 해서 처음에 합천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나 막상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데 농지 규모가 작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에도 농사 규모를 크게 할 마을이 없고 기존에 살던 집도 집 주인이 비워 달라 해서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자: 이곳에서 고추를 하시는데 유명해서 하시나요?

귀농자: 유명하다고 보기 보다는 고추가 잘되는 지역이고 해서 고추 한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솔직히 이러한 작목을 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 지역 특용작물이 괜히 특용 작물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이 맞고 판로도 많아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 귀농 할 시에 준비 기간은 얼마정도였나요?

귀농자: 준비 기간은 1년 반 정도였습니다.

질문자: 이곳에 와서 농사는 혼자 하셨나요?

귀농자: 마을에 들어와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서로 도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농사 기술은 어디서 배웠나요?

귀농자: 농사라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면서 경험하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실제로 하면서 일을 도와주면서 해야 배우는 것이 진짜 기술이지 앉아서 책으로 배우는 것은 실제 농사에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질문자: 귀농학교에서는 농업 기술을 안 배우나요?

귀농자: 안 배웁니다. 그곳에서는 기초적인 것이랑 실습만 조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태적 농업을 잘 할 수 있나나 왜 해야 하나 생태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등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질문자: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 텃세는 없었나요?

귀농자: 예.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학교도 다니니깐 노인 분들이 오히려 좋아 했습니다.

질문자: 합천에 있을 때는 농사 규모가 작아서 옮겼다 하셨는데 여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귀농자: 합천에서 농사 규모가 작았다는 것은... 밭농사를 했는데 논농사는 산골짜기라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밭작물을 해서 살아야 했는데 그곳은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 음성은 밭작물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질문자: 판매는 어떻게 하나요?

귀농자: 고추를 여기서 직거래 합니다. 도시에 상인들이 직접 와서 직거래로 사갑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와서 산다든지 많은 판매 방향이 있을 듯해서 희망적입니다.

질문자: 생각 하시기에 보통 사람들이 한다면 귀농 하시면 몇 년 정도 지나야 기반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려운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귀농자: 3년 정도로 생각 합니다. 귀농 초기 3~5년 정도는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귀농자들 대부분들이 그 사이에 자리를 잡거나 적응을 못하면 귀농을 포기 한다던지 바른 방향으로 바꿉니다. 농사 자체가 바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특성이라서 작물을 심음으로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귀농 하자마자 바로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는

도시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말입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요.

초창기에는 농지 확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땅도 뜬금이 없이 팔지도 않고 초기는 안 해 본 일을 하기에 일정 기간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점은 규모가 작고 소득이 바로 안 나옵니다. 예외는 있겠지만 대부분 귀농자들은 도시 사람들이기에 경험이 없어서 도시에는 매달 소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안 나오니깐 이런 것에서 나오는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간의 융화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들이 있습니다.

질문자: 귀농 초기에는 수입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도시에서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는 것은 어떤가요?

귀농자: 그것은 귀농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하는 것이죠. 농사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귀농 하실 때 초기 자본은 어떻게 되시나요?

귀농자: 남의 집을 얻어서 수리를 했기에 많은 돈은 안 들었습니다. 다 더해서 500만 원 정도입니다. 땅도 얻었고 경운기는 중고로 사고 ... 여기는 집수리 비용도 안 들었으니깐 돈은 거의 안 들었다고 봅니다.

질문자: 월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귀농자: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월수입을 말 하라는 게 힘든 일이고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농외소득이 귀농초기에는 더 많았습니다. 집사람이 공부방 지도비 60만원하고 제가 겨울에 산불 감시원으로 5개월에 400만 원 정도 받았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주말에 했습니다. 사실 농외소득 + 농사 소득 더하여서 초기에는 농외소득으로 버텼습니다.

질문자: 귀농 하셨을 때 정부 지원이 있었나요?

귀농자: 정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필요 하지도 않았고 빚내서 귀농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귀농을 했다고 해서 면 단위 군단위에서 특별한 도움을 준다든지 도시에서 왔으니깐 우리 지역은 어떤 작물이 좋다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도움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즉, 행정적인 면에서 도움 하나 없었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질문자: 귀농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귀농자: 개인적으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농을 하겠다고 맘을 먹으면 헤쳐 나갈 수 있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금방 포기할 수 있으니깐 귀농 생활이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 게 현실이죠. 현실적으로는 귀농해서 초기에 버티어 낼 수 있는 자금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기에 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버티어 낼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난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 귀농 자금으로 경운기를 구입 하셨다 했는데 농기계는 경운기만 구입 하셨나요?

귀농자: 네. 농기계 중에서는 경운기만 중고로 샀습니다. 저는 트랙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1년에 한번 쓰는데 소규모 농사에 다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랙터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질문자: 앞으로 귀농 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는?

귀농자: 첫 번째는 결혼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합의해서 배우자의 합의를 받아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들어오면 결혼을 못해서 베트남 처녀들과 종종 결혼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사실 결혼 생활도 귀농 생활의 한 일부라면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과 사는 게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서 살려 하지 말고 마을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넓게는 지역과 더불어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귀농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농업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특용 작물이 있는 지역을 가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 벌기도 쉽고 기술도 배울 것이 많고 판로도 많고 해서 혼자서 것 보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정말 귀농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시행착오를 5년을 해서 정착을 할 것을

3년 만에 했다면 자금적인 것도 노력적인 면에서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질문자: 지금 귀농생활에 만족 하시나요?

귀농자: 네 만족 합니다.

질문자: 지금 생활과 도시 생활과 비교 한다 면요?

귀농자: 도시생활도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여기는 평화롭다고 할까요.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까요. 표현하기가 참 힘드네요. 여기의 맑은 하늘 아래서 땀 흘리며 일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떠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 귀농자 심층면접사례의 종합 요약

고향으로 귀농한 U형 귀농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귀농초기에 마을사람들에게 경계심, 텃세 등으로 인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노령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나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귀농준비기간을 오래 가진 귀농자일수록 빨리 정착할 수 있었다. 귀농을 위해 사전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귀농 교육의 이수,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했다.

귀농자들 대부분이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생활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I형 귀농자 L씨와 J형 귀농자 G씨의 경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여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자녀를 가진 귀농자들의 경우 자녀가 놀 상대가 없거나, 학교에 가기위해서는 4km를 걸어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귀농을 하면서 땅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농지의 규모가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임대농지가 여러 군데 흩어져 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I형 귀농자들의 경우 대부분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마을주민들이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적응하는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

<표 121> 귀농 유형에 따른 귀농자 심층 면담 분석 요약

귀농자	귀농년도	귀농 유형	귀농 준비기간	귀농지역	귀농 이유
K씨	1995년	U형	직장 사표낸 후 준비	경기도 이천시 율면	농사를 짓고 싶어서
K씨	1997년	U형	1년	전북 임실군 지사면	IMF로 회사 문을 닫음(자영업)
J씨	2004년	J형	5년	전남 화순군 이서면	농업이 적성에 맞음-대학교 농촌 일손 돕기
S씨	1997년	J형	1달	경북 봉화군 명호면	농사를 짓고 싶어서
K씨	2002년	J형	직장 사표낸 후 준비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농사를 짓고 싶어서, 도시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함.
M씨	1998년	J형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유산양을 키우기 위해서
L씨	2000년	J형	10년	경북 영주시 부석면	젊었을 때부터 귀농을 생각 직장 생활에 재미가 없었음
H씨	2000년	I형	남편-5년	충남 홍성군 광천읍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서울에서 귀농
S씨	2002년	I형	4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IMF로 회사 문을 닫음(자영업) 방송통신대학 농학과 다니고 있었음 주말농장 4년
J씨	2000년	I형	1년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도시에서의 힘든 삶,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서
N씨	2001년	I형	1년 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표 122> 귀농 시기별 귀농자가 겪었던 어려웠던 점

귀농자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후기	기타
K씨	-가족들의 반대 -귀농 초기 자본 부족 -농지부족(과수대신 버섯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다님 -정부기관의 지원
K씨	-귀농 자금과 귀농자금 지원에 대한 정보의 부족 -투입 후 곧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농업의 특수성에 의한 실패에 대한 불안감			-고향으로 귀농하여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현재 마을이장).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초기 투자 자본을 적게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J씨	- 가족,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귀농, 농업에 대한 편견과 시선 - 귀농자금 - 판로 - 농산물의 낮은 환금성 -농가부채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99년 귀농하여 실패 후 다시 도시에 나가 직장생활 후 2004년 재귀농
S씨	-마을사람들의 경계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부정확한 귀농정보(언론매체, 인터넷) -많은 초기투자자본(특히 농지)			-정부에서 바라는 점 -귀농 후에도 관리 -귀농자들 네트워크망 조성
K씨	-농사지을 농지가 없음.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농업을 통한 수익이 없음.	-판매망 미개척 -자녀문제(같이 놀 상대가 없음.)		-홈페이지 구축하여 직거래 -다른 곳으로 이농하려함(농사지을 여건이 안됨-농지) -정부의 행정단위의 지원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
M씨	-초기 귀농자금(빚)			-유산양 사육(농업의 범위 넓다.) -순간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탕발림'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각
L씨	-귀농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었음.			
H씨	-농업기술(유기농-잡초방제 등) -초기 투자자본이 많다. -시골생활에 대한 적응문제(ex. 버스시간을 기다리는 것) -농기계구입에 대한 자금과 정보(중고농기계-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물값에 판매) - 노동력(힘에 부침) -유기농업에 대한 마을분들의 낮은 인식	- 농지문제 - 임대농, 높은 농지가격에 비해 적은 융자금 -임대농지의 불안정성(농지 주인이 언제 땅을 다알고 할지 모름) -노동력(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가 노동력으로 해결 못함으로써 품을 사게 되나 일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심적 부담)		-지역 내 자체인력으로 센터 운영-교육여건 좋음. -이미 귀농을 한사람들의 마을이 형성되어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문제가 해결 -풀무 생협이 있어서 판로문제에 대한 어려움 없었음

귀농자	귀농 초기	귀농 중기	귀농 후기	기타
S씨	-투자보장이 없음(과수)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농사의 흐름을 모름(남들이 알려주지 않고 눈치껏 해야 하는 어려움)			-투자(출자)를 해야만 농협혜택이 있다는 등 복잡함
J씨	-농업기술 -주민들과의 동화 -유기농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따가운 시선 -귀농지원정책이 있었으나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함			-고학력자들의 귀농에 대한 관심이 필요 -주민들의 배타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음. -귀농 도움을 주는 기관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
N씨	-귀농 주택 빈집 임대-불편하고 수리가 필요 -자녀-버스타기위해서 4km 걸어 가야함. -도시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매달 소득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마을사람들과의 융화			-2001년 경남 합천으로 귀농하였다가 다시 이농-작은 농지규모, 임대하던 집 주인이 비워 달라고 함 -귀농교육은 실제적인 농사기술교육 부족 -공동으로 농기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잘되어있음.

Ⅳ. 결론과 제언: 귀농지원 방안

1. 귀농자 지원 정책의 전제

귀농 지원 방안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협의, 심층 면접, 방문 및 면접을 통하여 도출된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귀농자들의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타당성은 적절한 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농업에 대한 개방화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면 학력이나 경험 측면에서 비교적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유입은 당장에는 농업생산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별 가구의 측면에서 유지가 어려울 것이나, 이들의 정착은 지역 농업의 혁신을 위한 혁신전파자로서 기능할 것이고, 세계에 경쟁할 수 있는 우리나라 농업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스스로 농업을 결정하였고, 농업에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몇 년간의 농촌적응기간의 어려움을 감수할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모든 귀농자가 동일한 사정은 아니나 적어도 새로운 형태의 유기농업을 전제로 유입된 인력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이 부분은 도시에서의 취업기회 감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우리나라에서 식량이 어느 정도는 국내 공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면, 농업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회비용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귀농자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40대 이후로 청년층의 유입은 비율이 낮은 실정이나,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농가인력 구조 하에서는 10년 이후면 농업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으로서 농촌도 붕괴될 것으로 보여, 도시 유입 인력의 증가가 예측되므로 도시지역의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이고, 저성장 시대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신규 일자리의 창출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의 출현으로서나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에서 일정한 정도의 소득 창출과 그로인한 농촌의 유지는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급증을 지체할 수 있고, 농촌이 존립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농촌에 존립할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회비용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은 기존농업인에 대한 정책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귀농에 대한 탐색과 준비 단계부터 귀농이 어느정도 성공할 때 까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귀농자들은 정착에 성공하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농업인이 될 것이나, 귀농 초기에는 귀농지에 대한 적응과 취농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충분한 독립경영도 어려운 단계이므로 초기 단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단계의 지원은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원과 교육 지원, 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만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다른 농업인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자금이나 기술 능력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귀농인들이 취농을 준비하는 것은 농촌에서 성장하여 농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승계형 농업인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불리하고, 지역단위의 추천에서도 정보 부족이나 심사자나 담당자의 편견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착이 이루어지기 전의 창업후 5년 이내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 농업인이나 창업농과는 구분이 되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존 농업인 지원과는 다른 창업농 수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취농 창업농 단계의 지원은 농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태이고, 농촌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나, 35세이하의 젊은 층 유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술적 준비 상태도 귀농자들보다는 나은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경쟁 수준으로 본다면 귀농자 집단이 선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연령이나 기술부족에 따른 불리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는 기존 농업인들과는 구분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집단이 유입될 수 있고, 이들 자원은 농촌개발의 주요한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귀농자들의 자발적 노력 부분을 반영하되 불만 해소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귀농자 모두를 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귀농자들이 귀농을 준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불신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귀농자들은 귀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몸으로 겪으면서 정착한 사람들로서, 외지신이 귀농할때의 여러가지 한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더구나 의식이나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농업인들과의 심리적 괴리감과 의사소통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정기적인 언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출발점이 동일한 상태가 아닌 귀농인들에게 기존 농업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한 지원이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편한 점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실제로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생각하고 유입되나 점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실제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서는 귀농자를 얼마나 유치하여야 하는가와 어떤 사람이 적절한 귀농자인가를 고려하여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귀농자의 적정 규모는 농업 인력의 감소 부분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입을 희망하는 인력의 연령 구조와 어려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귀농인력의 연령은 40대를 평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귀농 동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연령층은 노후의 삶이나 도시에서의 부적응을 고려하여 귀농하는 집단으로 농업의 영위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집단 층과, 어느 정도 자금도 있고 주거장소로서 농촌을 생각하여 유입된 은퇴자 집단(주로 귀촌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은퇴자 집단은 농업에 대한 개선보다는 농촌지역의 삶의 조건에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귀농 적응에 따라서는 지역개발과 산업창출을 지원할 전문적 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 지원과 적용이 필요하다. 귀농자들은 대체로 3-5년 정도의 적응과정을 거치므로, 50세 집단으로 바뀌게 되어 실제로 농업생산에 종사하여, 지역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귀농적응기간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는가에 정책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경로의 선택은 개별 귀농인이 선택하도록 하며, 그들의 목적이나 동기를 고려하여 자발적 선택과 정책에 대한 수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귀농적응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U-TURN귀농자나 J-TURN귀농자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농촌의 출생률 저하로 공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에서 성장한 I-turn 인력의 취농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도시 출신자의 귀농은 교육과 자금,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적응 과정 역시 더욱 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적응기간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농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수한 자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같이 중요한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외연수까지 연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학령기의 농업교육에 대한 강화와 함께, 취농을 결심한 준비 단계 이후의 교육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귀농자들간의 연계과 정보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전제라기보다 지원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단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귀농자들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단체나 주도체를 협의체 형태로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전국농업회의소와 각 시군현단위의 귀농회의소, 각 현단위의 농림어업담당자 육성공사라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미국 역시 FFA재단과 관련단체들이 있고, 전국 FFA단체가 있으며, 이들 관련단체들이 농업교육을 지원하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귀농자 단체만이 아닌 농업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 실천 조직, 작목 조직 등의 다양한 농업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들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재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형태는 협의체일수도 있고, 귀농을 지원하는 귀농지원센터에서 주관할 수도 있다. 이들 협의체에는 정부의 담당부서 협의체, 전문 학술 단체, 교육 단체, 귀농자 단체, 자금 지원 단체들이 참여하여 실행기구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이는 지역단위의 귀농지원기구체가 존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2. 귀농 단계별 지원 방안

귀농자들을 귀농단계에 따라 구분하면 귀농인식단계, 귀농탐색과 결심단계, 귀농준비단계, 귀농실행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같은 단계는 귀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의사결정과 준비, 취농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선행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귀농을 준비한 집단이 적응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 선택이나 전환을 준비하는 집단들에 대한 귀농에 대한 인식, 귀농 탐색 및 결심, 귀농 준비, 귀농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용은 귀농단계를 귀농결심단계, 가족동의단계, 작목선택단계, 영농기술습득단계, 정착지 물색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단계, 영농계획수립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인력의 귀농, 준비된 귀농자로 무장, 주변의 관심을 필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계는 귀농결심후의 가족 동의와 작목 선택, 영농 기술 습득, 정착지 물색, 주택 및 농지구입, 영농계획 수립과 귀농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기 전까지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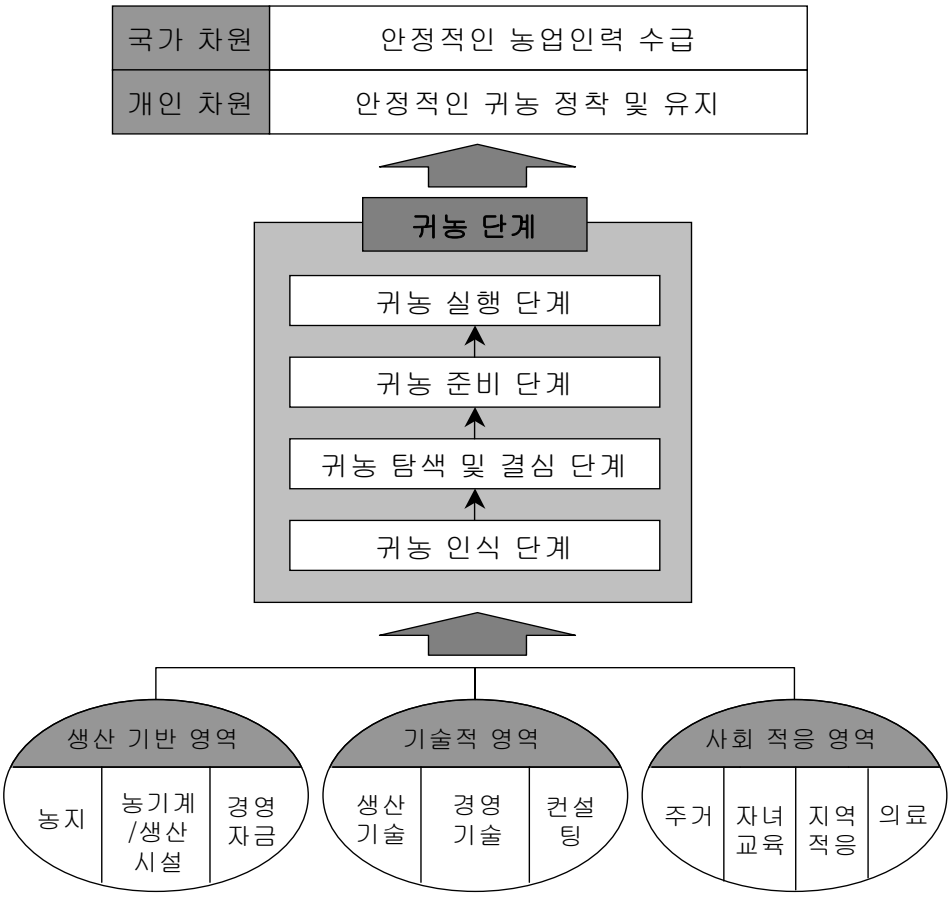
그러나 영농 단계가 개인의 직업 선택과 전환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귀농이나 농업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인식하는 단계와 귀농이 실제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험하며 확신하여 동기를 설정하는 탐색 및 결심 단계, 귀농 결정에 따라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력하여, 귀농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농업의 형태를 결정하며, 귀농지를 결정하며, 자금과 생산기반을 준비하는 귀농 준비 단계, 마지막으로 귀농 실행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실행 단계는 귀농의 준비 정도에 따라 정착 과정이나 단계가 달라질 것이다. 귀농 단계는 귀농인식단계, 귀농탐색단계, 귀농결심단계, 귀농준비단계, 귀농실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들 단계중 탐색단계나 귀농결심단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나, 두 단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으로 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더구나 정책적 적용에 있어서도 탐색활동에 대한 부분이나 인식 부분은 정책적 지원 방안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귀농결심단계는 이들 제시된 방안을 통하여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이므로 정책적 적용에 있어서 두 단계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단계적 성격이나 실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탐색과 결정을 합하거나, 결정과 준비를 합하는 방향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보다 타당한 방안은 귀농 결정이 순간적이고, 결정이 탐색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귀농탐색과 결심단계를 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귀농단계는 인식, 탐색과 결정, 준비, 실행의 4가지 단계가 타당할 것이고, 이들 단계별로 문제 영역을 고려하여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귀농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 영역은 생산 영역(농지구입과 임대, 농기계와 시설 확보, 경영자금 등), 기술적 능력 영역(생산기술, 경영기술, 마켓팅 능력), 사회 적응 영역(주거, 자녀교육, 의료, 지역주민 및 변화된 환경과의 적응 문제)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23>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 대책 유형

	생산 기반 영역			기술적 영역			사회 적응 영역			
	농지	농기계/생산시설	경영자금	생산기술	경영기술	마켓팅	주거	자녀교육	의료	지역적응
귀농인식			견학비	기술체험	체험	판매체험	농촌주거 체험			
귀농탐색 및 결심	농지특성안내	기계조작 기술관찰 생산시설 활용관찰	과제운영 자금	생산기술의 체험, 실습체험	시기별 적절한 경영활동 관찰	시장가격 조사	농가주택체험 실습	일일교사 체험	의료체계관찰, 견학	농촌생활실습
귀농준비	실습지 확보 농지정보제공	기계조작 기술습득, 생산시설 활용기술 습득	연수비 지급, 과제자금 지급	희망작목의 결정, 희망작목별 필요한 생산기술 습득실습	적정생산시기의 파악, 생산요소의 배분방식 체험. 년중계획표 작성과 실습, 예비 컨설팅	시장조사, 농산물수요조사, 판매방식의 장단점 비교와 결정	주거지 결정, 주거방식결정, 주거방식에 따른 건축과 수리능력확보	대안학교운영 체험, 교사체험	의료지원상황 파악, 전통의학 검토, 건강유지법 습득	지역주민과 얼굴익히기, 귀농지 알기, 귀농방식에 따른 적응
귀농실행	농지확보(임대, 구입)	부족한 능력의 보충	생산기반 구입/임대자금, 운영자금	희망생산기술교육 제공, 품목별 단체(연구회,작목반등) 구성 지원	작목별 적정경영방식 보급,상담, 컨설팅	적절한 출하시기 결정, 작목별 판매방식 결정, 공동판매 망구축	주거방식의 실천. 부족부분 개선	대안학교 운영진이나 후원자 구성/참여	의료지원체제 형성, 의료보험/건강보험 확보	이질적 농업생산방식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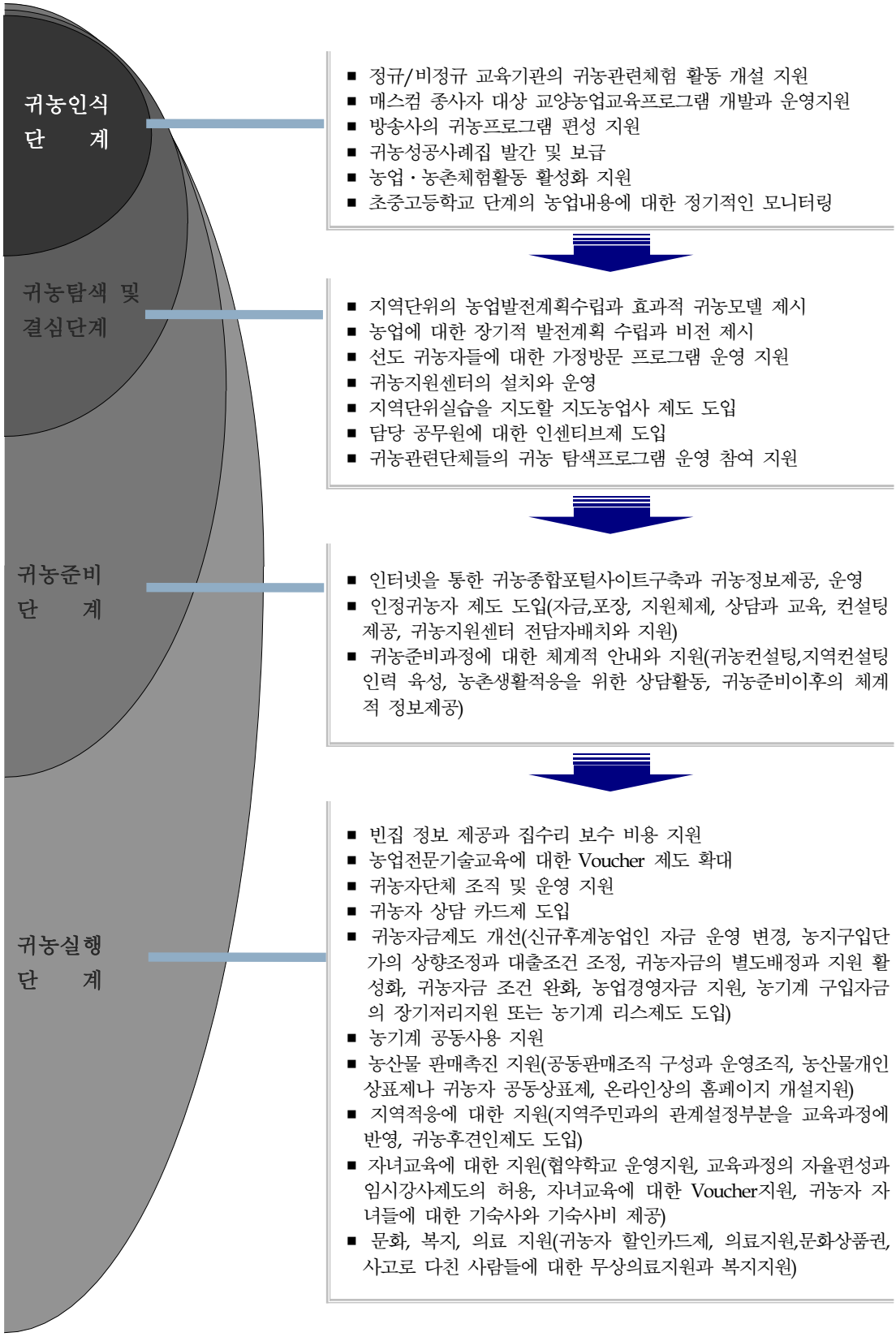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각 귀농단계에 따라 각 문제영역에서의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의 수급'이며, 귀농자 개인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귀농 정착 및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귀농단계와 문제영역별 지원 대책 유형

이 연구에서는 위 논의에 따라 귀농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였다(<그림 9> 참조).



<그림 9> 귀농단계별 귀농지원방안

가. 귀농 인식 단계의 지원 방안

1) 정규 교육기관과 비정규교육기관에서의 귀농에 관련된 직간접적 체험활동 개설 지원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는 늘 강조되어야 하나 상당부분 농업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이 피상적으로 묘사되거나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농업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안내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이 발달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를 제공하도록 한다.

농업관련내용을 가르치는 부분은 학교 교육기관과, 학생들 대상의 각종 행사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성인 학생들 대상의 귀농교육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나 노후의 목적으로 귀농을 생각하는 집단은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하여 농업전망을 밝게 보는 집단이나 농촌생활을 선호하는 집단, 영농승계를 생각하는 집단은 농업의 장래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이들의 최초의 귀농정보원도 가족이나 이웃, 친척으로부터 받거나, 농업관련교육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매스컴 이외의 방법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다양한 경로의 농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들 프로그램을 통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전망을 밝게 보는 집단은 자녀들의 농업 종사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권유하려는 생각들이 많았다.

이는 귀농과 관련된 정보들이 주로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였으나, 농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귀농하려는 집단은 그들의 정보 접촉이 가족, 이웃, 친구 등의 경로와 농업관련교육을 통하여 접하였으므로, 적어도 농업관련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귀농교육을 실시한다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강좌를 운영하기 어려우나, 운영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의 노력에 의하여 비용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년 정도의 지원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잘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2) 매스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양 농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귀농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는 곳이 매스컴으로 나타났으므로 매스컴 관련 종사자들이 귀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양 농업교육에 대한 강좌를 만들고, 참가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1박2일이나 1일 코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학교 농장이나 농업기술센터,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팜스테이 농가 등의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각 장소에 적절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방학기간,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시에 홍보도 실시하여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에게 농업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여주자영농고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그린피아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어서 호평을 받았던 프로그램으로 실제적 운영에 있어서는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지원을 한국농업교육협회나 한국농업교육학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이들 효과를 적절히 자문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그 예가 될 것이다.

대한교보생명그룹의 대산생명교육문화재단은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해외연수 지원을 통하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는 농촌문화행사에 대한 지원과 농촌체험학습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교양농업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의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방송사의 귀농에 대한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 지원

정규 방송에 농업과 귀농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방송함으로써 국민들이 농업, 농촌, 농민, 귀농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잊혀져 가는 '우리 말'에 대해 퀴즈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우리말에 대해 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일반인들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흥미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를 이해하고 이들 자료를 교육용 자료로서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높을 것이다.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소재는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각종 자료나 외국의 귀농 사례, 우리나라에서의 귀농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각 지역 단위의 마을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애쓰고 있는 귀농인의 모습이나, 새로운 형태로 농업을 영위하는 귀농인의 모습등도 사례로서 중요할 것이다.

4) 귀농성공사례집이나 취농성공사례집의 발간과 보급

귀농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귀농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일차적으로 귀농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귀농자가 귀농 후 노력한 경험이나 사례, 귀농준비과정과 귀농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사례집을 인쇄하여 각 지역단위의 농업기술센터나 귀농지원센터의 담당자들에게 보급하고, 일반 출판사에서 인쇄하여 일반인들이 쉽사리 접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귀농에 대한 도서가 여러권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귀농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으로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의 글이나, 귀농 사례 등이 간간히 소개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귀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귀농 과정을 담은 자료를 올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사례집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귀농이라는 행동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귀농행동을 한 가지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들 자료가 귀농을 지원하는 부서나 귀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방송에 정규 프로그램으로 보급할 때 방송을 위한 참고자료로서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격월간으로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연구결과의 보급 활동을 위하여 농업기술소식지를 보내는데, 이때 성공사례를 함께 발굴하여 언론에 보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농업계 고등학교 영농학생회원들이 모이는 영농학생전진대회나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과정에서 도서코너를 함께 운영하여 판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5) 농업·농촌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농업·농촌에 대한 체험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행자부의 지역 가꾸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아름 마을 가꾸기 사업,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

업,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가꾸기 사업, 농협의 Farm Stay사업 안내, 정보통신부의 농촌정보화 마을 사업, 산림청의 산촌문화마을사업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농촌지역의 지역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로 일정한 문화적 소재를 테마로 삼아서 개발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Green Tourism이라는 녹색관광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휴양과 관광을 겸하고 체험하라는 의미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지역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었는가가 핵심요소이고, 그 지역에 적절한 인력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귀농인들은 그들의 학력이나 기본적 배경으로서는 지역개발의 주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일차적으로 이들이 각 지역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부여하여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의 하나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농업과 농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홍보하며, 안내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농촌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삼성을 시작으로 기업이 각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홍보도 하고 마을도 돕고, 휴식도 하는 1사1촌 운동은 기업이 특정 마을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형태이나 이들은 기업에는 한번 휴가를 가는 형편으로 그칠 수 있으므로, 이들 마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지역에서 희망하는 지역에서의 2-3박정도의 휴식기간을 가지면서 농촌의 일도 체험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일본의 각 현에서 지역별로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숙박시설을 확보하여 체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도 대개 마을 회관의 개보수로 숙박이 가능한 실정이며, 주변의 유휴 농지를 이용하여 체험 과정을 운영하되 이들 전체를 총괄하여 안내하고 연계해줄 수 있는 기관을 중앙과 시도 단위에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6)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농업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 도입

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귀농은 가장 바람직한 자원이나, 실제로 농업계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가정이 농업 기반이 있는 집안이라기보다 생활이 어렵거나 개인의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취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대학을 마치고 일정한 정도의 경험을 통하여 귀농하는 모습을 전제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귀농자들이 영농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하여 마지못하여 농업을 배운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이 귀농하기에는 부정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귀농하기에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모든 교과에 대한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참고자료 등의 서적들을 학회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진술사항을 검토하고 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제로 농업을 아는 전문가나 교수 집단의 참가는 제한된 반면 교육학 분야의 학자나 보통교과는 보통교과의 전문가들이 집필하다보면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농업에 관련된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집필하거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의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심의회 심의위원이나 검토전문가 집단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표 124> 귀농 인식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주체 / 지원방안	정부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센터	귀농단체	농업 교육기관
정규/비정규 교육기관의 귀농관련체험 활동 개설 지원	○	●	●	●	●
매스컴 종사자 대상 교양농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	●	○	○	▲	▲
방송사의 귀농프로그램 편성 지원	●	○	○	○	○
귀농성공사례집 발간 및 보급	●	○	○	○	○
농업·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	▲	▲	▲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농업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	-	-	○

* 주 : ● 주관, ○ 협조, ▲ 활용

나. 귀농 탐색과 결심단계의 지원 정책

1) 지역단위의 농업 발전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귀농 모델의 제시

대개의 귀농희망자가 부딪치는 일차적인 문제는 가족들의 반대이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뚜렷하지 않으면 귀농을 못하게 된다. 가족의 반대의 일차적인 부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일 것이고,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왜 귀농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하며,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역단위의 농업발전계획을 최소 5년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예산이 반영된 지역농업과 농촌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 지역에 적합한 귀농 모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지역 자체의 분석과 지원 조건을 제시한 책자들이나 각종 자료들을 각 시군단위의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담당부서의 협조로 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귀농모델은 전국적인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각 지역별로 적절한 모델이 있을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60여 가지의 작물별 수익성 분석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개별 농가들의 경제성 분석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작물별 수익성 분석을 제시하고, 각각의 수익성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들 모델에 기초하여 각 시군, 더 나아가 면단위의 모델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농장설립부터 운영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와 책자들이 마련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지역 단위의 농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컨설팅업체 신청을 받고 있고 농림부에 등록된 업체도 있으나, 지역의 농업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집단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언하는 방안들이 이미 이루어진 농장에 대한 수익성 분석이나 문제

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가능한 농업모델을 제시하고, 수익 분석을 제공하며 각 모델에 적절한 수준의 기술 수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각 현마다 자신의 지역에서 귀농과 귀농실습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을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귀농한 사례 모델을 각 현마다 여러 건씩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귀농 모델의 하나일 것이다. 귀농 모델은 농촌과 농업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는 집단부터 그렇지 않은 집단까지 다양하게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링크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지역단위의 농업발전계획의 제시도 있어야 할 것이다.

2)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비전 제시

농업 전문가와 농민 대표, 대통령 산하의 정책 집행자들이 모여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농업과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현재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농업·농촌 기본법으로 정리되고 있으나, 각 지역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 농업·농촌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지역단위의 농업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국가가 수립한 예산 계획안에 따른 5년차 계획으로 각 지역별 발전계획으로 끝나고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국가수준에서 전문가 집단들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복수 방안들 간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결정적인 문제이므로 일차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농림부의 정책 연구과정에서도 그런 연구자들을 발굴하는 일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하다면 발전계획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잡아서 2-3년간의 긴 기간으로 과정을 공개하여 매 단계마다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농업교육을 위한 국가전략계획과 실행일정”을 제시한 “RAE 2020(2020년을 향한 농업교육의 재발견:Reinventing Agricultural Education for the year 2020)”이라는 실행계획에 따르면 1996년-1999년의 3년에 걸쳐서 "RAE 2020"의 제목으로 전국에서 10,000명 이상의 다양한 집단들이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여 농업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농업의 성격과 비전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와 교육자단체, FFA전국조직, FFA재단 등의 관련단체들의 종합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미래의 농업교육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10매의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TeamAgEd를 통하여 다양한 실행계획과 지원정책을 만들고 개선하고 있다.

3) 선도 귀농자들에 대한 가정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족들의 불안감과 귀농이 자신에게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설득하기 위한 농촌지역에 방문하여 관찰하고 체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숙소를 만들고, 지역의 선도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 이들과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계기로 삼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우선적인 문제가 상대방의 여건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므로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각 현단위별로 적절한 숙소를 저렴한 비용을 받고 사용을 하며, 지역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기간은 2박 3일정도이나 그 이상의 실습도 상담에 따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귀농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족들 모두가 같이 귀농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한다. 이때는 귀농자들이 있는 마을이 좋을 것이고, 귀농자들이 먼저 귀농을 실천한 사람의 관점에서 어려운 점이나 귀농에서의 문제들을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이들 프로그램 운영은 여름이나 겨울과 같은 농한기를 이용하는 방안과 일이 바쁜 농번기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농번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긴 시간 귀농자에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우므로 일을 도와주면서 간접적인 체험도 하면서 하는 단계로 운영하되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있고, 자신이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과정도 체험하는 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며, 농한기에 하는 경우는 농업을 체험하기는 어려우나 먼저 귀농한 귀농자의 경험이나 내용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귀농자들과 귀농 탐색자들을 누가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 업무를 담당할 귀농지원센터나 귀농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이 귀농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체로 분산하여 운영하되 이들 간의 협의체 형태를 두어서 협력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이들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방단위는 이들 업무를 독자적으로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적으로 운영하되 업무상의 연계를 잘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숙소를 마을 단위로 만들어서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마을회관인데, 마을 회관 시설을 개조하고 확대하여 숙소를 여러 개 확보하고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여 단기 숙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개 귀농인이 있는 지역에 새로운 귀농자들이 모이고, 귀농자들이 적절히 적응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자신만의 귀농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2차에 걸쳐서 귀농과 역귀농, 재 귀농의 단계를 거친 경우도 있었고, 처음 귀농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귀농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귀농자들의 지역 선택에서 중요한 사항이 그 지역의 인심이나 동향인데, 이들 조건에 대한 정보는 그 지역에 유입하여 정착한 귀농인들이며, 귀농인들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적절한 조언하므로 초기 귀농자들이 선배 귀농인을 찾아서 귀농하고, 그에 따라 정착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연계를 맺은 경우는 귀농을 결심한 후배 귀농자가 선배 귀농자를 후견인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적절히 보상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귀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귀농 지원 센터는 귀농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귀농 상담, 귀농자의 적응과 발전을 관리하고 전담할 부서이다. 현재 귀농지원센터는 없고 귀농에 대한 인터넷 카페나 각종 소모임, 전국귀농운동본부를 비롯한 귀농학교, 국가기관으로서 농촌공사의 도농교류센터,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정보문화센터, 농업인교육원이나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전문교육원등의 농업자

교육기관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단체는 학교 중심의 운영으로 동문회의 운영은 대개 졸업생들의 몫이고, 대개의 지역 귀농학교에서는 학생 부족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전국귀농본부 역시 연수생들의 소극성 때문인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교육이수자에 비하여 귀농자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그 정도는 학교에 따라 달랐다. 대개 도시 지역은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담당 간사의 노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귀농을 실행하는 수준도 낮았다. 그에 비하여 학교 실습농장도 있고, 지역이 농촌에 속하는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귀농하여 정착하는 비율도 높고 귀농 실천자도 높은 실정이었다. 결과적으로 학생 모집의 어려움이 약간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숙사도 있고 강의동도 있어서 어느 정도 체계화가 이루어졌으며, 졸업생 중심으로 유통조직도 만들었고, 졸업자들이 생산 농업이외의 일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복합기업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업무의 분업화가 되었고, 운영도 비교적 괜찮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조직에 따라 귀농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이나, 귀농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기관의 안내, 귀농 지원정책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고, 귀농 탐색단계의 사람들이나 준비단계의 사람들이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보급하며, 각 지역의 귀농지원인력이나 부서와 협력하여 개별적인 상담과 체험시설을 활용해보도록 시도함이 필요하다.

이들 기관은 농촌공사 도농교류센터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중앙단위의 다른 부서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같은 귀농교육기관, 귀농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농업인교육기관이나 농어민생산자 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귀농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탐색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정보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준비단계에서도 활용되고 귀농실행단계에서도 활용하려면 관련 단체들의 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체제가 가장 중요하다. 귀농자들은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있어야 하므로 농업관련연구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제공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더구나 지역 단위의 정보들은 지역단위 담당부서의 협력이 있어야 하므로 국가수준의 정책이나 기준들은 소개할 수 있으나 귀농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은 각 지역의 귀농지원부서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농지에 대한 정보는 농촌진흥청의 토양분석과 적절한 작목에 대한 분석 자료가 이용되어야 하며, 농지가격이나 농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농촌공사의 농지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 사람들이 희망하는 각 시군단위 농촌마을의 구체적 통계과정이나 귀농자 사례는 그 지역의 귀농지원인력이나 상담원이 협력을 하여야 할 부분이고, 이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부분은 중앙수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이에 적절한 기관들이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만을 이용한다면 각 지역의 귀농담당인력이 우선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초기에는 농업 인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담당하면서 점차 인력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는 국가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에 대한 안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귀농 모형을 농촌진흥청과 지방단위의 농업기술센터, 지역국립대학과 협력하여 다양하게 만들고, 이들이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숙박과 소규모농장시설을 제공하고, 각 지역단위의 실험이나 실습을 위한 상담자를 배치하며, 국가수준에서는 이들 귀농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상담 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귀농지원센터는 업무의 성격상 귀농상담을 지역단위의 귀농지원부서와 협력하여 제공하며, 인터넷 상담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각종 귀농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귀농자와 귀농준비자나 탐색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귀농카페들은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다. 이때는 인터넷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과정인데, 정기적인 만남 행사를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귀농지 선정이나 농지 구입, 주택 부분 등의 부분은 농지은행과 지역단위의 귀농지원부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 지역별로 귀농알선센터가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담당인력이 다른 일과 함께 겸임하여 일을 맡고 있어서 종합적 시야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인력 배치 역시 형식적으로 담당인력을 겸임하여 배치한 정도로서, 이들의 귀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낮은 실정이다. 그로 인하여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단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함께 종합적 귀농 안내 센터를 설치하고, 그 일을 담당할 전담자를 배치하며, 지역단위의 귀농지원인력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관련 지역에 대한 마을사람들과의 관계나 자금 지원, 기술 지원 등의 부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의 인력이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체제를 만들고, 정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취농알선센터나 농업회의소, 농업 공사 등 명칭은 다르나 신규취농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취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시설은 대도시 단위의 센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 센터는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들이 관련된 다른 단위의 조직으로도 편성할 수 있으며, 이들 기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4-H재단이나 농촌청소년육성재단, 농촌경제연구원의 도농교류센터와 한국농촌공사(기 농업기반공사)의 농어촌 종합정보 포털, 농어촌 연구원, 농협문화복지재단과 같은 농업관련 단체들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 농과계 대학, 연구기관, 농업교육학술단체와 단체들이 참여하는 종합적 지원센터와 교육, 행정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자금을 모우며 정책적 지원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이 센터에서는 귀농에 대한 지원부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귀농상담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귀농을 탐색하고 결심하는 단계는 귀농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관찰하여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기이므로 2-3년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지원센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과 자료 검색을 지원하며, 희망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의 날을 제공하여 지역 조사와 면담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둘째로, 지역 귀농지원센터에서 귀농 성공 사례 농가를 소개하도록 한다.

귀농을 생각하고 있으나 귀농에 대한 불안전성 때문에 귀농을 망설일 수 있다. 그런 귀농준비자에게 귀농지원센터에서 이미 귀농하여 성공적인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를 소개하여 관계를 맺도록 해준다. 이때는 귀농성공사례를 인터넷에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인터넷 상에 많은 귀농인들의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셋째로, 지역 귀농지원센터나 담당자와 협력하여 실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의 귀농지원센터나 담당자의 협력을 얻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실습포장이나 mentor의 땅이나 유휴농지를 이용하여 작물 재배나 동물 사육을 실제로 해보도록 2년 정도 과제자금을 지원한다. 이때는 지역에 내려온 경우이므로 숙소를 해결하도록 한다. 숙소를 실비로 빌려주고, 실습할 수 있도록 과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때의 단계는 인식단계는 아니고 탐색상태이므로 후견인이나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5) 지역단위실습을 지도할 지도농업사 제도 도입

대개의 지역에서 귀농자나 귀농을 생각하고 탐색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지도할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지역의 선도농가일수도 있으며, 일정한 교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들은 과거 전문지도사와 특기지도사 제도가 있어서 관련된 연수를 받고 시험을 거쳐 특기지도사나 전문지도사로 선발되었었음으로, 전문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역단위에서 실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이나 mentor, 모두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지도농업사가 되려면 일정 정도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성공적인 농사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며, 농업 분야의 기사나 기능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자격 검증의 형태나 농업 경험 정도로서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과 실천이 겸비된 인력이 필요하므로 지도농업사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지도농업사들은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지도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6)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귀농을 하고 싶어서 정보를 얻기 위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연락이나 질문을 하면 실제로 군・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준비도 부족하고 관심이 없으며, 준비가 부족하므로 대체로 귀농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귀농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지역별로 귀농자를 유치하고 성공적 정착에 대한 기여정도를 고려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귀농지원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7) 귀농관련단체들의 귀농 탐색프로그램 운영 참여 지원.

귀농을 인식한 후 귀농을 결심하는 기간인 귀농탐색기간은 이 연구에 따르면 평균 2.23년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귀농에 대한 인식을 가진 이후 2-3년 내에는 귀농을 결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들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후견인을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더라도 그 이후의 단계를 축소시키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귀농관련단체들이 졸업생을 이용하건 신규입학생을 활용하건, 귀농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귀농관련단체들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도 활용하여 신속히 적응하고 귀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의 즉각적인 개선과 변화를 주도하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표 125> 귀농 탐색 및 결심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주체 / 지원방안	정부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센터	귀농단체	농업 교육기관
지역단위의 농업발전계획수립과 효과적 귀농모델 제시	●	●	○	○	○
농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비전 제시	●	○	○	○	○
선도 귀농자들에 대한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	▲	▲
귀농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	●	○	○	○
지역단위실습을 지도할 지도농업사 제도 도입	●	○	-	-	-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	-	-	-
귀농관련단체들의 귀농 탐색프로그램 운영 참여 지원	○	○	○	●	○

* 주 : ● 주관, ○ 협조, ▲ 활용

다. 귀농 준비단계의 지원 정책

1) 인터넷을 통한 귀농종합포털사이트의 구축과 귀농에 필요한 정보(자금, 농지, 주택, 지역여건등)와, 각 지역별 농업 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운영

인터넷을 통한 귀농정보는 실제적으로는 귀농준비단계보다는 탐색단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나,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직접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 상담과 각 지역 귀농지원센터의 담당자를 이용하여 접촉하게 하고,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주는 형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이들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여도 괜찮으나, 각 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농지가격에 관련된 정보는 농촌공사의 자료를 이용하면 될 것이고, 농지의 성격이나 특성은 각 지번별로 구축된 농촌진흥청 토양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번지만 치면 그 지번의 토양속성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작목까지 판정되는 시스템이 좋을 것이다. 또한 각 작목에 적절한 경제성의 분석은 농업경영담당관실에 의뢰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되, 경영기술과 진단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진단하고 부족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함께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금 확보에 대한 정보는 지역단위의 접촉 부서를 제공하고, 금리나 해당하는 자금 종류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며, 기술이나 경영상의 상담 의견들은 상담자를 배치하여 즉각적인 답변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작목에 대한 전문적 답변을 알기 어려우므로 농과계 대학을 전공하였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농업에 대한 경험을 갖춘 전문연구원급의 인력을 배치하고, 복잡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그에 관련된 부서와 농촌지도사를 배치하여 협력하여 의견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은 귀농자들에 대한 정보 지원에 대한 대안책 부분에서와 중복되는 내용이다.

귀농종합포털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추진하고, 가입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란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자료로 각 지역별 토양도나 농업여건등과 지역단위의 주산물, 집중화 정도, 주산업, 농업인구 동향 등의 기본적인 지역별 농업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는 지역단위에서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다중처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지역별 인구, 지역 특성, 기후특성, 지역특산물, 농민자수, 귀농자수, 농사여건에 대한 정보 등을 잘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귀농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며, 그 지역에 귀농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여 제공한다. 이때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적으로 우수한 농업형태나 장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털사이트는 성격상 농업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나, 모든 지역의 정보를 자세하게 얻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지가격과 같은 수시로 변동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때는 국세청 고시 가격과 실제 가격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필지별 특이 사항에 대한 정보도 지역의 귀농지원센터 인력과 협력하여 모두 조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지하수 용출 사항 등의 부분이다.

가) 각 지역에 적합한 작목과 토지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지번 단위로 경지에 대한 토양분석결과가 제공되고 있고, 적절한 상태의 작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고, 작목별 경영 분석도 제공되고 있다. 이들 자료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귀농가들이 인터넷을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적절한 비용 지불 부담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어려우며, 자료 역시 모든 작물에 해당되는 자료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자료의 제작과 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예산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인정귀농자 제도 도입

일본의 경우 인정취농자 제도를 두어 취농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교육비, 해외연수비 등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다. 선정후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도 5년 이내에 농촌에 정착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그 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 이상 취농을 하면 상환을 면제하거나 신청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삭감한다.

연구결과 귀농을 준비하는 경우 귀농 정보를 처음 접하고 귀농을 결심하고 귀농을 준비하는 시간은 2.23년 정도로서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도 귀농을 알고 귀농하기까지의 기간이 3.33년의 평균기간으로 나타나 2년 정도의 준비와 1년 정도의 귀농준비기간은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U-turn 귀농자나 J-turn 귀농자는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직접 농사경험도 58%로 적고, 농업교육에 대한 이수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도 37%나 되고 있고, 귀농자들이 신규창업이 45%정도이고, 농업승계가 37%로서 기술습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바로 귀농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귀농준비기간이 평균 3.68년, 귀농정착소요기간이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상적인 수준보다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귀농자의 답변이나, 귀농이 실제로 준비와 능력의 부족으로 귀농 정착 기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인식후 귀농

까지 8년을 전제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귀농준비기간을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정착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더나가 지역에 대한 공헌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일본처럼 귀농계획서를 제출하여 각 시군단체의 심의를 거쳐 인정귀농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교육비와 생활비의 무료나 저금리로 대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농업에 대한 배경이나 교육경험을 가진 경우는 그 능력과 계획서를 검토하여 연령에 관련 없이 인정귀농자로 지정, 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하다.

가) 인정귀농자에게 실습 포장과 과제 이수 자금 지원

귀농을 준비하거나 귀농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농업직과는 무관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가 많고, 기술 수준도 재배와 사육기술이 부족하므로 적절히 실험할 수 있는 실습포장이나 농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귀농자들은 5000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투자하나 경험이나 기술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격적인 투자이전에 어느 정도 농업기술에 대한 습득과 실습과정이 필요하다. 해외의 농업과 경쟁을 통하여 성공하려고 하는 인정취농자는 당사자의 귀농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하다면 해외 연수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대체로 귀농자들의 능력을 파악하면 경영능력과 재배(사육)기술에 속하는 능력으로서, 농업경영능력의 부족을 고려하여 실제적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을 할 수 있는 과제자금과 포장을 제공하고, 연수자금을 지원하며, 농업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거두도록 지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귀농을 하더라도 실패하기 쉽다. 그러므로 지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휴경지를 제공하여 먼저 영농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들 업무는 지역단위의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자, 귀농지원센터의 지역 담당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귀농 작목에 대한 인정귀농자의 실습 체험을 위한 지원 체제 구성

막상 귀농을 하려고 할 때 막상 어떤 작목을 선택하여야 할지 고민이다. 처음부터 많은 땅을 임대하여 여러 작목의 작물을 재배하기보다는 우선은 귀농하고자 하는 지역의 특산물을 소규모로 재배하여 농업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익힌 후 본격적인 정착 과정에 대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계 학교, 멘터, 지역인사의 협력을 얻어 농장을 운영하여 보도록 지원한다. 협정 농업의 형태가 한 예가 될 것이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멘터나 농업기술센터의 농장, 또는 지역인사가 갖고 있는 땅을 빌려서 경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최소 1년 이상의 농장경영을 하여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체험의 단계가 될 것이다. 이 경우는 일정 정도의 노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귀농자들의 실습 체험을 위한 자문 집단을 구성함이 필요하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선도적 농민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계 학교, 지역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협력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귀농자의 실습 지원은 후견인일 수도 있고, 별개의 직업인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실습지원은 적절한 멘터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은 귀농탐색단계부터 귀농실행단계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인정귀농자의 농업기술이 일정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들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다) 인정 귀농자의 나이 제한 없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규정하며, 적절한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제공할 것.

현재 인정귀농자 제도는 없으므로 새로 신설하되, 신규후계농업인자금이나 농업종합자금은 성격상 농업기반을 갖추었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선발된 이후 교육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받아서 농업을 하려는 귀농준비자들에게는 불리하므로 이들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규후계농업인의 연령이 45세미만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귀농자들의 평균 연령이 처음 귀농할 때 41세라는 점을 보면 현재와 같은 신규농업인 후계자 사업을 신청하기에는 연령만이 아닌 기반확보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하는 자금도 2000-5000만원수준으로 대개의 귀농인들이 주택에 평균 1483만원, 농장에 3340만원, 기타가 436만원으로 5000만원을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금의 부족만이 아닌 연령의 제한으로도 신규 창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서 제출과 심사를 통한 3년 정도의 교육을 허용하는 인정 귀농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이 교육을 마치면 1-2년 이내에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때 일본과 같이 연수자금과 연수시에 필요한 숙박자금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해외 연수자금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 자금에 대한 대여는 자금 규모에 따라 다르나 5년 정도의 취농으로 반환을 탕감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려 잡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각 시군의 인정과정을 거친 인정 귀농자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연수자금으로서 농업기술교육을 받기 위한 다양한 연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들은 귀농에 필요한 농지자금이나 농기계 구입자금, 경영자금등의 제공에 영향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비의 지원은 인정귀농자의 자격 유지조건의 하나로서 적절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연수와 능력 획득(농업사 자격의 취득과 같은), 적절한 상담과 조사, 컨설팅을 명시하고, 교육비를 직접적으로 인정귀농자에게 지불할 수 있으나, 교육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비용을 교육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귀농학교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성군의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분야의 활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귀농자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비는 교육을 수료하고, 주어진 성취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 한하여 차등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개개 교육기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질적으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Voucher제도와 비슷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귀농자들은 성격상 작목의 선정이나 필요한 자금 규모, 적절한 경영형식 등 농업의 형태와 운영방식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들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일은 컨설팅업체나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유통업체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라) 귀농지원센터 전담자 배치와 지원

중앙의 귀농지원센터와 지역의 귀농지원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그 지역에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귀농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이들의 귀농지원성과를 기초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공될 수 있다.

귀농준비와 실행과정에서 있어서 귀농자의 지역 적응을 돕기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기적인 상담과 귀농자 상담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업무

는 귀농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고, 농업종합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3) 귀농준비과정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지원

가) 귀농 컨설팅 제도 도입과 운영 지원

현재 컨설팅은 경영에 대한 부분만 진단하고 있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도의 자금 지원에 앞서서 심사하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귀농준비과정에 있어서 농지, 작목, 적절한 경영규모, 판매망, 경영형태 등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농민이 모든 분야를 개인적으로 부딪쳐 확보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풀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의 전 분야로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산하의 농촌지도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농림부의 컨설팅업체 등록은 대체로 자격 요건이 대학의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 외에도 농신보의 신용평가팀이나 기업단위의 신용평가를 담당했던 사람들이나, 농업경영을 오랫동안 실시하였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도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역주민 대상의 컨설팅 인력 육성

농촌진흥청에서 각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을 대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있으나 대개 공무원 신분으로 적극적인 컨설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인력과 선도농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별 농가단위의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컨설팅 업체는 전국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으나, 간이 경영 상담에 대한 부분은 지역 단위의 컨설팅 담당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다) 농촌 생활에 대한 생활 적응을 돕는 상담 활동 지원

귀농자들에 대한 상담은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주변사람들과의 적응이나, 자금 문제, 자녀교육의 문제, 기술교육에 대한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탐색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며,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력은 귀농지원센터의 담당 인력일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Mentor일수도 있다.

라) 귀농준비단계이후의 귀농과정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현재 귀농자들이 귀농을 생각한 이후부터 귀농을 하여 영농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겪는 문제가 바로 정보에 대한 문제이다. 귀농지, 귀농농지, 귀농작목, 영농지식 등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트 접속이며, 현재 귀농과 관련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의 자료들이 초기 단계의 귀농자나 귀농준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금 부분이나 정책의 변화 등은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농촌공사에서 만든 '농어촌 종합 정보 포털'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귀농과 관련된 자료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

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귀농자들이 그들의 귀농동기나 유형에 따른 요구정보의 유형을 구분하고 적절한 검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이들은 인터넷 상의 홍보와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기관, 농업관련단체들의 참여를 조장하며,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연령층을 위한 인쇄물의 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26> 귀농 준비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주체 / 지원방안	정부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센터	귀농단체	농업 교육기관
인터넷을 통한 귀농종합포털사이트구축과 귀농정보제공, 운영	●	○	○	○	○
인정귀농자 제도 도입	○	●	-	○	-
귀농준비과정에 대한 체계적 안내와 지원	○	●	▲	▲	▲

* 주 : ● 주관, ○ 협조, ▲ 활용

라. 귀농 실행 단계의 지원 대책

1) 빈집 정보 제공과 집수리 보수비용 지원

귀농자가 처음 농촌에 정착할 때 우선적인 문제가 주거문제이다. 주거는 빈집을 빌리거나, 신축 또는 구입하는 방안이 있다. 신축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므로 빈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구입을 하여야 하므로, 그에 적절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인정 귀농자가 되면 연수교육을 받는 기간이나 취농한 이후의 얼마간은 임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 신규 귀농자의 유입이 불리한 지역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농업종합포털'이나 귀농지원센터에서 지역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빈집은 오래 비어 있거나 집을 지은 지 오래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집을 수리할 경우 보수비용을 지원해주도록 한다. 특히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2) 농업전문기술교육에 대한 Voucher 제도의 확대

현재 친환경농업에 대한 각종 교육은 voucher제도가 도입되어 교육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귀농자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 없이 교육을 통해 영농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voucher제도를 확대하여 일반 귀농교육을 받을 때에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무료로 받는 경우를 지양하고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인정 귀농자인 경우는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거나, 국내연수인 경우는 Voucher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정 귀농자는 일정 수준의 영농 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수와 과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과제자금과 실습기관에 대한 정

보를 지원하고, 교육비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인정귀농자가 선택하여 이수하면, 국가에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 귀농자 단체 조직 및 운영 지원

귀농한 사람들이 서로의 영농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귀농자단체를 조직하는 방안은 신규로 구성하거나 현재 있는 기존 단체들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다. 이 부분은 미국의 Team AgEd나 FFA Foundation등의 농업교육과 인력 육성에 관련된 단체들은 각각 설립 목적은 다르나 국가 차원에서의 농업교육발전을 위하여 협의체를 만들고, 농업분야 기업, FFA재단과 FFA모임의 참가를 통한 협력체로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들 단체는 미국 내의 농업교육활성화와 취농자 교육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취농을 지원하는 취농지원센터가 있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농업회의소가 있으므로 이들처럼 귀농자를 지원하고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이들 단체들이 모여서 농업교육과 농업인력개발에 대한 연구의 지원과, 실천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귀농자 상담 카드제 도입

귀농자 개인 정보를 확보한다는 것은 보안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귀농자들의 동향과 바라는 점, 정착에 성공할 때까지의 적절한 상담과 관리는 이들의 정착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관련을 맺을 수 있고, 정책의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인정귀농자가 되면 이들을 종합적으로 상담카드제를 개발하여 귀농 실행자의 성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귀농자 상담카드제를 도입한다. 이들에 대한 상담은 귀농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귀농지원센터의 협력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나 관련부서의 참여를 통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귀농상담카드는 귀농자 동향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통계를 만들고, 정기적인 관리와 피드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상담 시행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5) 귀농 자금 제도 개선

가) 신규후계농업인 자금 운영의 변경

현재 국가에서는 신규후계농업인 사업 자금과 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가축입식자금, 개보수자금,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이 제한은 45세 미만으로 2-5천만원이 지급되며, 금리 3%, 5년 거치/10년 상환으로 지원되고, 농지구입 단가는 평당 논 4만원, 밭 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들은 농업을 처음 실시한 집단이므로 농업기반을 확대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귀농자들은 농업기술능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초기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리한 초기 투자는 실패로 이어져 재 탈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40대 이후에 귀농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후계농업인이 되기에는 기반도 없고, 교육 경험도 적으므로 선정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귀농자들이 자금을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종합자금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나, 종합 자금제는 신용평가와 경합이 되므로 실제로 자금을 대출받기는 어렵고 대출된다고 하더라도 5년 내에 적절한 수익을 내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귀농 정착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년 정도로 판단된다. 게다가 귀농준비기간이 3.68년이므로 7-8년 정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개의 귀농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는 3년 이상의 친환경재배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5년 이내에 적당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태이다. 그러므로 상환 시작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여 작목에 따라 개인별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창업 수준에 속하면서 나이 제한으로 인하여 종합 자금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귀농자들은 나이 문제를 고려함 없이 일정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영농에 참여하여 자금 대출에 불리하지 않도록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연령제한을 없애고, 각각의 사업여건에 따라 생산자금이나 토지 자금 등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농지 구입 지원 단가의 상향조정과 대출 조건 조정

현재 농지가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논의 경우 평야 42,771원, 도시근교는 69,705원이고, 밭의 경우는 평야 46,645원, 도시근교는 88,954원으로 농림부 농지 조사가격으로 나와 있다. 실제 농지 거래 가격은 이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견되며, 그로 인하여 현재 지원 단가는 현실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산간지나 임야를 제외하면 구입이 어려움으로 지원 단가를 해당 지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농지자금의 지원 기준을 높여서 현실적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목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다르므로 5년 이상의 거치 기간을 인정하고, 개인의 여건에 따라 대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다) 귀농 자금의 별도 배정과 지원 활성화

귀농자들은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귀농하는 경우가 많고, 귀농 실패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초기에 과도한 투자의 실패로 인한 부채로 역귀농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금의 활용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능력은 충분하되 대출이 곤란한 경우는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창업자금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소규모의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을 하기위한 준비자금과 운영자금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귀농 정착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초기에 과도한 자금을 지원해주기보다는 2~3년의 정착과정을 거친 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에 필요한 문제가 연령 제한에 해당하거나, 자금의 연속적인 대여로 실제 필요한 투자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금의 대여를 초기의 과제 자금은 Mentor나 농업기술센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실제적인 교육자금이나 실습자금을 무이자나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고, 5년 이내에 귀농하였을 때는 실습 자금의 상환을 탕감하거나 축소시키며, 본격적으로 취농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귀농 자금 지원 조건 완화나 귀농자의 수요에 적절한 별도의 귀농 자금 설치

지방자치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귀농자들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자가 전남도내에 귀농하고, 귀농한지 1년 이내에 영농기반시설에 5000만원 이상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귀농정착자금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하 농어업인에게 융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귀농가구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이 개인은 5000만원, 단체는 2억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이밖에 현장실습비와 귀농 기초교육비가 지원되는데, 그 자격요건들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에 귀농하여 전 가족이 주소지를 옮기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라고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귀농가구의 경우, 가족 전체가 귀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녀의 교육 등의 상황들로 인해 가장이 먼저 귀농을 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다른 가족들이 이주해오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므로 전 가족이 주소지를 옮긴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하다. 즉 순차적 귀농과정을 고려하여 귀농시점을 융통성있게 인정하거나 부분 귀농자들에 대한 훈련기간을 인정하여주어, 이들이 적응하여 정착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하지 않되, 인정 취농자 신청을 통하여 선정된 경우는 귀농연수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는 나이 제한이나 귀농이후의 기간 제한을 융통성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시장군수의 합리적 허가가 있으면 50세 이후자도 인정 귀농자가 되면 귀농연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50대이후 사람은 귀농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마) 농업경영자금 지원

귀농자들은 2-3년간은 초기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때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농협에서 제공되는 농업경영자금이다. 그러나 자금의 규모가 작은 대신 매년 상환하여야 하므로 귀농 초기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의 자금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 상환 형태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되 과제 자금의 형태로서 1-2년 정도 소액을 지급하면 영농기술도 확보되고 적절한 농업형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개별 귀농자가 국가나 농협과 같은 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받거나, 미국처럼 정당한 대출이 곤란한 개별 귀농자들의 대출 보증을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보증을 하는 경우는 개별 농가단위의 사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집단들에 대한 취농자금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태형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농 재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3년 정도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3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각 귀농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 농기계 구입자금의 장기 저리 지원이나 농기계 lease제도 도입

초기 귀농자는 비교적 농기계의 용도가 적으나 일정기간 농사를 지은 귀농자들은 초기의 문제들이 감소하고, 노동력확보문제나 생산물 판로 문제, 판매기술 부족, 농기계(시설) 자금 문제, 자녀교육문제가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농기계(시설) 자금 문제는 귀농자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귀농초기와 현재의 가장 어려운 점을 비교한 결과 두 번째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이었다. 초기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사 규모가 늘어나거나, 농가단위의 농기계 공동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져 결과적으로는 고가의 농기계를 사놓고 쓰는 날은 얼마 되지 않아서 비효율적인 농사를 짓기 쉬운 실정이다. 또한 농사일이 일정시기에 다른 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동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에 따라 농기계의 대여가 가능한 지역이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서 농기계 리스나 구입자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여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한다. 전남 영암군의 경우 농기계 구입시 가구당 200백만 원 내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자금

은 적절하게 지원하되 개인적 부담이 적게 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인 상환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트랙터와 같은 기계는 가격이 비싼 대신에 융자 부분이 감축되어 실제적 구입이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기계의 구입을 위한 자금 융자와 같은 지원 필요하다.

6) 농기계 공동 사용 지원

농기계 중에서 활용이 높고,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가는 기계를 구입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계화영농단이 조직된 지역에서는 이들 단체가 농기계를 일정 비용을 받고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특히 트랙터와 같이 활용일수가 많은 것은 공동이용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농과 그렇지 않은 귀농인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동사용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귀농자 대부분이 농기계에 대한 지식 없이 귀농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고 트랙터를 사용하기에도 부담도 크고, 사용법도 모르고, 관리 잘못으로 중고 트랙터나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나, 사용법을 몰라 얼마 사용도 하지 못하고 고물값 가격에 폐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기계를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지역자치단체에 농기계를 배치하고, 관리비용을 제공하며, 적절한 수리와 보관으로 오래도록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농업의 계절적 편중으로 인하여 실제로 농기계의 공동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을 지역의 기계화 영농단 같은 조직이나 농협에서 기계를 정기적으로 대여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기업단위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기계를 대여료를 내고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와 같은 경우가 농업 기계 사용에 있어서도 검토될 수 있다.

7)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가) 공동판매조직 구성과 운영 지원

귀농을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태농업형의 일종으로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유기농업으로 영농을 하는 경우는 수량도 적고, 상품성도 뛰어나지 않아 판매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나기 쉽다.

그러므로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도 초기 적응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인근에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지역적응이 잘된 귀농인들은 유통을 지원할 단체가 있다거나 귀농자들이 많아서 귀농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제공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귀농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소재지역인 남원시 산내면은 귀농자들이 많아서 이들이 운영하는 작은 학교와 '한살림'이라는 유기농 농산물 유통 단체가 있으며, 이들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리산생명연대'와 '문화회관'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귀농자들이 모여 있고 이들과 연대가 있는 생협등이 있으므로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마저도 어느 정도의 판매처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홍성 역시 '홍동 생협'이 있어서 귀농자들의 정착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량일 경우는 도시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생산량도 많지 않고 도시의 지인들이 있으므로 초기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규모가 증가하고, 특정 농작물을 연중 생산하는 경우는 영속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동으로 판매 조직을 운영하거나, 농협이나 각 백화점의 농산물 코너에 납품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곳은 주기적으로 일정 양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에나 가능한 방안이므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비롯한 주요 거점 지역의 농산물 시장에 귀농자 코너를 두어서 판매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판매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농산물의 개인 상표제나 귀농자 공동상표제 도입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개인 상표제를 이용하거나, 귀농자들의 공통적인 심사기구를 만들어서 인정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인정보다는 전문적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지원

귀농자들은 농산물을 생산한 후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생협이나 공판장에 출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나은 편이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 못하므로 직거래를 통한 판매가 요구된다. 직거래 형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1농가 1가구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홈페이지 개설이 요구되며, 홈페이지 개설시 구축 자금과 기술을 전수하여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홈페이지의 운영과 개설은 인터넷 사용료를 비롯한 전화료 등의 고정비용이 있으므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나올 때 까지는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각 지역에 농촌정보화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때 컴퓨터를 보급하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이들에 대한 교육과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지역 단위로 구성한다. 현재 우체국이나 농협, 케이블 홈쇼핑 등에서 각종 농산물이나 선물을 우편이나 통신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들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8) 지역적응에 대한 지원

가) 지역주민과의 관계 설정 부분을 귀농교육과정에 반영.

지역주민들과의 동화가 귀농 정착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귀농자들 상당수가 도시에서 실패한 경우나 적응이 어려운 경우의 회피성 귀농이 많아서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귀농자에 대한 교육에서 이들 부분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개인적 성격 차이로 인하여 적극적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은 공동행사를 제기함으로써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맺도록 일도 도와주며, 주민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귀농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귀농후견인제도의 도입

지역의 선도농가나 40-50대의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있는 인사를 후견인으로 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후견인은 기존의 창업후견인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의 성격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이들의 추천을 통하여 인정 취농자도 신청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후견인제도는 귀농 농지 구입이나 주택의 임대차, 기계나 기술의 안내를 지원할 수 있으며,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둘 중의 어느 하나가 그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협약서 형태로 작성하되 공공 기관의 공증을 받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9)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자녀교육은 일차적으로 귀농자의 연령과 관련을 맺는다. 귀농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는 자녀들의 학교교육이 중요한 사항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집단이 귀농한 경우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옮기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 부분은 서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가) 협약학교 운영 지원

농어촌 지역은 취학연령층의 감소로 학교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귀농한 가정은 그곳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관계로 귀농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 지역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도시에서 유입되기전에는 대안학교의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안학교의 학생 모집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 규정에 있어서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상의 설립자에 대한 규정을 확대해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초등학교는 실제적으로 국가나 도교육청이 설립하지 않으면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설립을 제한하지 말거나, 정기적으로 검정고시를 실시하여 그들이 정규학교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계학제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거나, 설립은 국가나 도교육청이 지원하되, 그 지역의 희망인사나 단체가 참여하여 도교육청이나 국가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질 관리, 학교 운영계획서등의 구체적 협정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대안학교 운영 형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모델은 미국의 charter school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과 임시강사제도의 허용

대안학교는 교육과정과 교사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임시강사나 산학겸임교사제도를 활용하여 자격이 없는 교사들의 수업 담당을 허용하되 일정기간 내에 자격 취득을 요구하거나, 무자격 강사의 비율을 일정정도까지는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들 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문제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적 부분 역시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학교들이 학생 수 확보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정규 교사의 확보가 어렵고, 고정적 지출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정부분은 학부모나 무자격 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운영문제 때문에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교사 확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귀농자들은 학력이 고졸이 47%정도, 대졸이 21%정도 되며, 귀농준비자 역시 대졸이 44.5%, 고졸이 38.7%정도로 학교를 운영할 교사들의 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자녀교육에 대한 Voucher 지원

현재 중등학교는 어느 정도 사립이 허용되고 있으나, 귀농하여 결혼하고 지역에 정착하

는 경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초등학교 자녀들이나 취학 전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게 charter school 운영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학생들이 있는 집단적 지역에 해당하나, 또한 배타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에게 Voucher를 주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된다. 이때 지원되는 Voucher 비용은 학교교육에 대한 납부금을 비롯한 교재대, 기숙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귀농자들이 겪는 문제가 초기 단계와 현재 단계가 다른데, 그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3번째 순위에 자녀 교육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비율상으로도 5위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자녀 교육의 문제는 고교와 대학 단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농자들이 인근의 학교가 자신들의 자녀에게 부적절하다면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타당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농어촌 교육제도에 있어서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기준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게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성취가 나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는 첫해는 그 학생의 성취 저하에 대한 보충수업비용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지원을 늘리며, 두번째 해는 자녀에 대한 전학 권리와 보충수업비용을 지원하며, 이들 학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과 시설 지원을 실시하고, 3년째에서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전학권과 보충수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자녀의 보충수업비용 지원과 같은 Voucher제도의 활용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학생 성취와도 관련을 맺을 수 있다.

라) 귀농자 자녀들에 대한 기숙사와 기숙사비 제공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장선상에서 귀농자들이 정착하여 적정한 소득을 낼 때까지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귀농을 결심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관행농업을 영위하기보다는 친환경 농업을 선택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농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존 농지가 전환기 단계로 바뀌기 위해서는 초기 수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익은 커녕 가족의 식량 확보도 어려울 것이므로 최소한 5년 정도의 정착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기숙사 제공을 검토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사항은 귀농자의 자산이나 배경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10) 문화, 복지, 의료 지원

가) 귀농자 할인 카드제 도입

대개의 지자체나 영화관등은 정기적으로 반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을 제공하거나, 관광지의 입장료를 면제하여 주는 날이 정하여 있다. 도시민들의 이런 혜택을 귀농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1년에 일정횟수 이상의 문화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인카드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대개의 귀농자 집단은 생태형 농업을 선택하고 있고, 초기에는 투자만 있고 수익이 전무한 형태이므로 이들의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착초기단계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식량과 의료비, 생활비의 할인카드제를 이용하여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방식은 기존과는 달리 활용한 만큼 보충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들 결재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보상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들 기간은 대략 5년 이내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나) 의료지원의 제공

귀농초기단계는 사람들이 일에 적응이 안된 시기로 농사일이 벅찬 경우가 있고, 농기계 사고도 나기 쉬우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들이 개인 부담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자금에 대한 여유가 없어서 의료보험의 부담이 어려우므로 다수 귀농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보험 지원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귀농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인 경우 신체적 적응 부족과 신체의 적응능력 저하 단계가 함께 오기 시작하는 단계로 농사일이 벅찬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에 대한 지원,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자녀 보육에 대한 지원 등이 있으면 귀농자들의 겪는 어려움을 상당 부분 완화 시켜 줄 것이다.

다) 사고로 다친 사람들에 대한 무상 의료 지원과 복지 지원

실제로 장수군의 하늘소 마을을 방문한 결과 그곳에서 처음 마을을 시작한 때의 사람들 중 일부 이탈자가 있었는데, 주요한 이유가 사고로 다친 분이었다. 이분은 치명적인 사고로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치료비 역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 마을을 떠나는 경우가 되었다. 초기 귀농자들, 특히 정착이 되지 않은 귀농자들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나 국민건강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집단에 속하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구나 그 기간 중에 발생한 여러 가지 중병은 병의 발생만이 아닌 치료 과정에서의 지출로 인하여, 귀농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가 된 경우는 비교적 나으나, 준비가 없는 경우는 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지방공사나 국공립병원과 복지 시설을 이용한 치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안동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은 각 기관의 수익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생태귀농자들에 대한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개별 병원 차원의 활동일 뿐이다. 이 부분은 전국 단위의 지방공사나 국가관리 병원들 간의 연계를 구축하여 심각한 병에 대한 진료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127> 귀농 실행 단계의 지원방안에 대한 주체별 역할

주체 / 지원방안	정부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센터	귀농단체	농업 교육기관
빈집 정보 제공과 집수리 보수 비용 지원	○	●	○	-	-
농업전문기술교육에 대한 Voucher 제도 확대	●	○	▲	▲	▲
귀농자단체 조직 및 운영 지원	●	○	○	○	○
귀농자 상담 카드제 도입	●	○	▲	▲	▲
귀농자금제도 개선	●	○	○	-	-
농기계 공동사용 지원	○	●	▲	○	-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	●	○	○	-
지역적응에 대한 지원	●	○	○	○	○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	○	○	○	○
문화, 복지, 의료 지원	●	○	○	○	○

* 주 : ● 주관, ○ 협조, ▲ 활용

※ 참고문헌

강대구, 정철영, 이근수(2003).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농림부 정책연구보고서.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2004). 농업인력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 방안 연구, 농림부 정책연구보고서.

구본석(1999). 歸農者의 營農定着 滿足度에 關한 硏究.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金再洪(1998). 歸農이 農村社會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忠南大學校 농업과학연구 25(1). pp.138-147.

김경덕(2005), "농업인력 구조의 현황과 전망", 2005년도 한국농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성수 외(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pp. 53-65.

김재홍(1998), 귀농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 25(1), pp.138-147.

김주현(1999).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 획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형용(1998). 歸農者의 實狀과 定着方案에 관한 연구. 韓國畜産經營學會誌. 14(1). pp. 205-223.

남정덕(2000). 귀농형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귀농복덕방.

농림부 경영인력과(2004), 최근귀농동향 및 지원대책, 내부자료.

농림부(2004), 농림통계연보.

농림부(2005), 농림업주요통계

농림부, 농촌진흥청(1998),농업인후계자・전업농가 경영실태조사보고서, 경기: 농림부ㆍ농촌진흥청.

농림수산부(1984-1996). 농림수산주요통계. 경기: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1998. 귀농농가의 경영모형 길잡이. 수원: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999. 1998연구사업보고서.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촌진흥청. 1999.6. 귀농현황과 안정적 정착방안. 연구와 지도.

매일경제신문. 1998.02.21.

박공주(2005), 실버농업인의 농촌정착과정 실태, 농촌자원과 생활, 2005년 여름호, pp.21-35.

박영일(1998). 成功的인 歸農을 위한 硏究-歸農事例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성의 외(1998),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복근채(1999). 農業人後繼者의 成功的 營農定着과 關聯된 特性分析.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규선,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7(1), pp.137-153.

신정수・이병오(1999). 귀농의 현황과 과제. 江原大學校 農村開發硏究所 論文集 第3輯.

안덕현 외(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정책연구과제.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2005). 도시장년층의 은퇴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5(3), pp.139-153.
윤호섭, 박동규, 이영대(1992). 농업인력의 확보 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동하(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병철(2000). "특집/한국 환경운동의 새로운 모색1-귀농운동 생태적 가치와 자립적 삶을 위해 토착민으로 살기. 한국환경운동의 새로운 모색-1".환경과 생명 20. pp.22-31.
이상용(1998) 귀농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진흥청.
이영대(1981). 성공적인 영농정착자의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대, 정명채(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환 외(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서울: 농림부.
이정관(1998). 歸農者의 營農定着과 關聯된 特性分析.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본농림수산성(1965-1999). 농림수산통계. 동경: 일본농림수산성.
일본농업연감간행회(19975-1998). 일본농업연감.
임정빈(2001). 최근 미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에서의 전략.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혜영(1999). 歸農者의 適應과 社會에 關한 硏究-全羅南道를 中心으로,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원(1998). “땅과 밥과 뭇생명을 살릴 삶을”,. 사회평론 길-1998년 5월호, pp. 186-188.
정대영(2001).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의 농촌정착에 관한 연구-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1991).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석 외(1998) U-턴(歸) 農家의 定着方案에 관한 硏究, 農經・農機械論文集 40(2). pp.16-25.
정철영 외(2001). 지식기반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3(1),pp.1-24.
정철영 외(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 방안.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정철영 (2000),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pp.1-26.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남철(1989). 귀농과 이농의 역설적 의미-1940년대 농민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 1 권, pp.208-249
조동석(1998). 地域 歸農人들의 營農實態와 그 改善對策 硏究-漆谷郡 事例 硏究를 中心으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록환(1998). 귀농자의 생활실태 분석. 농촌회생과 자립적 농업을 위한 귀농정책 세미나

자료집.
천규식(1997). “귀농(歸農), 왜 어떻게 해야하나”, 경향잡지-1997년 7월호, pp.33-40.
최현주(1994). 영농후계자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혜숙(1981). 離農자의 都市定着 實態와 離農動機 및 形態에 關한 分析-零細離農民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식량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승옥(1985). 知識人의 歸農 意味 提高-「흙」과 「故鄕」을 중심으로, 于雲 朴炳采博士 還曆紀念論叢. pp.833-844.
Fielding. G. J. 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cations.
Jimerson, L.(2003). "The Competitive Disadvantage: Teacher Compensation in Rural America", Policy Brief, Rural Trust Policy Brief Series on Rural Education.
National FFA Organization(2005). FFA Programs and Awards, Retrieved 2006.1.6. from http://www.ffa.org/programs/index.html.
National PAS(2004), PAS Mission and Values, Retrieved 2006.1.6. from "http://www.nationalpas.org/about.html“.
Reeves, C.(2003). Implementing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Implications for Rural Schools and Districts, the North Central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Wonacott, M.E.(2001). Secondary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Brief;Fast Facts for Policy and Practice, National Dissemination Center for Career & Technical Education.

부록 1. 설문지

<귀농 인식 단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강 대구입니다.
저는 <최근 귀농 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농림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귀농자나 귀농희망자가 귀농을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귀농자나 귀농희망자들의 실태와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이렇게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정책적 방안의 도출에만 사용할 것이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설문지에서 보듯이 개개인의 신상 자료는 무기명으로 기록되므로 합산 결과로만 쓰이게 됩니다.
혹시 조사과정에서 귀농이나 귀농과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타 항목이나 마지막 문항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조사원들에게 질문하시거나, 제게 전화나 e-mail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강 대구 교수
전화 061-750-3355
kang@sunchon.ac.kr

*다음 문항을 읽고 ( )안에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 앞 ( )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 )② 여
2.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십시오. ( )세
3. 귀하의 전공은 어떻게 됩니까? ( ) 과

4. 귀하의 농업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해당되는 _____위에 ∨표해 주세요.)

	① 정말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직업으로서의 농업은 매력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2) 농업은 장래성이 있는 산업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3) 앞으로 농촌은 발전가능성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4) 자녀가 농업에 종사하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5. 귀하가 맨 처음 귀농 관련 사항을 어디에서 제공받았습니까?
( )① 매스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 )② 가족, 친구 및 이웃
( )③ PC통신 및 인터넷 ( )④ 농업 관련 교육
( )⑤ 기타:_____

6. 귀하가 귀농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 )①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② 퇴직 후 여생을 위해
( )③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 ( )④ 농촌생활이 좋아서
( )⑤ 농업전망이 밝아서 ( )⑥ 취업을 못해서
( )⑦ 영농승계를 위해 ( )⑧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 )⑨ 인간다운 삶을 위해
( )⑩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생태, 대안교육, 소박한 삶, 종교적 가치 등)
( )⑪ 기타(구체적으로:_____)

7. 귀하의 귀농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 )① 귀농에 대해 알고만 있다.
( )② 귀농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
( )③ 귀농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중이다.
( )④ 귀농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8. 귀하는 직접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9. 귀하는 현재 귀농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① 귀농 관련 인터넷 동호회 활동

( )② 귀농과 관련된 책의 구입
( )③ 귀농교육을 계획 중이거나 수료
( )④ 현재 농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동 중
(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10. 귀하는 귀농을 할 의향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은 편이다. ( )⑤ 매우 적은 편이다.

11. 귀하가 귀농 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 귀농을 할 계획입니까? ( )년 후

12. 귀하가 귀농시 선택하고 싶은 주요 작목은 무엇입니까?
( )① 논벼 ( )② 채소 ( )③ 과수 ( )④ 화훼 ( )⑤특용작물
( )⑥ 두류/서류/잡곡 ( )⑦ 대가축 사육(한우, 젖소, 고기소, 말 사육 포함)
( )⑧ 양돈 ( )⑨ 양계(닭/관상용 조류) ( )⑩ 양잠/양어 ( )⑪ 기타

13. 귀하가 귀농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배(사육)기술 ( )② 경영 기술 ( )③ 판매 기술
( )④ 운영자금 기술 ( )⑤ 토지구입자금 능력 ( )⑥ 농기계(시설)자금
( )⑦ 노동력 확보 ( )⑧ 생산물 판로 ( )⑨ 기술 조언자 확보
( )⑩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 )⑪ 마을 분위기 적응
( )⑫ 작목 선택 ( )⑬ 결혼 및 자녀교육 ( )⑭ 여가나 문화 활동
( )⑮ 의료·복지시설 ( )⑯ 농업·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 )⑰ 확고한 신념 ( )⑱기타(구체적으로:_____)

14. 귀농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현재 귀하의 영농 능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매우 우수 - 5	우수 - 4	보통 -3	약간 낮음 - 2	매우 낮음 - 1

① 영농계획 수립( ) ② 재배(사육)기술( )
③ 농업경영능력( ) ④ 농산물 판매와 구매능력( )
⑤ 경영분석과 진단능력( ) ⑥ 농업 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
⑦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 ⑧ 기타(구체적으로:)( )

♥ 감사합니다 ♥

<귀농 준비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강 대구입니다.
저는 <최근 귀농 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농림부의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귀농자나 귀농희망자가 귀농을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귀농자나 귀농 희망자들의 실태와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이렇게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문의 결과는 정책적 방안의 도출에만 사용할 것이며, 개개인의 신상 자료는 무기명으로 기록되고 합산 결과로만 쓰이게 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혹시 조사 과정에서 귀농이나 귀농 과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타 항목이나 마지막 문항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조사원들에게 질문하시거나, 제게 전화나 e-mail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강 대구 교수
전화 061-750-3355
kang@sunchon.ac.kr

*다음 문항을 읽고 ( )안에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 앞 ( )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올해 연세를 적어주십시오 ( )세
2. 선생님의 성별은? ( ) ① 남 ( ) ② 여
3. 처음 귀농에 대한 글이나 정보를 접한 시기는? ( )세
4. 선생님의 현재 직업 상태는?

( )① 자영업 ( )② 사무직 ( )③ 영업직 ( )④ 공무원 ( )⑤ 주부
( )⑥ 퇴직 ( )⑦ 실직 ( )⑧ 학생 ( )⑨기타(구체적으로:_____)

5.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 )세

6. 선생님이 귀농을 결심하고 준비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 )②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③ 퇴직후 여생을 위해 ( )④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 )⑤ 농촌 생활이 좋아서 ( )⑥ 농업 전망이 밝아서
( )⑦ 취업을 못해서 ( )⑧ 영농 승계를 위해서
( )⑨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 )⑩ 인간다운 삶을 위해
( )⑪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생태, 대안교육, 소박한 삶, 종교적 가치 등)
( )⑫ 기타(구체적으로:_____)

7.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 정도는?

( )① 아주 많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은 편이다. ( )⑤ 아주 적다.

8. 선생님은 직접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9.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 )① 중졸이하 ( )② 고 중퇴-고졸 ( )③ 전문대 중퇴-전문대 졸
( )④ 대학중퇴-대졸 ( )⑤ 대학원 졸 이상

10. 선생님은 농업계 학교(농고, 농전, 농대)를 나오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1. 선생님의 현 직업은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련이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은 편이다. ( )⑤ 전혀 관련 없다.

12. 선생님은 농업 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조금 있다.
( )④ 없는 편이다. ( )⑤ 거의 없다.

13. 선생님은 귀농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농 조언자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4. 선생님 부모님의 직업은 농업입니까(이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5. 선생님이 처음 귀농을 결심하였을 때 주변 사람(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적극 찬성하였다. ( )② 찬성하는 편이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반대하는 편이었다. ( )⑤ 적극 반대하였다.

16. 현재 선생님의 귀농 준비에 대한 주변 사람(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원은 어떠합니까?

( )① 적극 지원한다. ( )② 지원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 )⑤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

17. 현재 선생님의 영농능력을 평균적인 농업인들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매우 우수' 5, '우수' 4, '비슷한 수준' 3, '약간 낮음' 2, '매우 낮음' 1로 문항 뒤 ( )에 ∨표하여 주십시오.

① 영농계획 수립 ( ) ② 재배(사육)기술 ( )

③ 농업경영능력 ( ) ④ 판매 능력 ( )

⑤ 경영분석과 진단 능력 ( ) ⑥ 농업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 )

⑦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 )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20. 선생님의 귀농 준비정도는 어떠합니까? 다음 항목에 대한 선생님 자신의 여건을 해당 칸에 ∨표하여 주십시오.

	매우 잘됨	잘 된 편	보통	미 흡 한편	매 우 미흡
귀농과 관련된 정신적 무장					
정착 자금의 확보					
재배(사육)지식과 기술					
경영기법(의사결정/유통망 파악)					
주변 사람의 지지					
귀농 지역 선정					
농지의 확보					
거주지 확보					
농기계와 시설의 확보					
교육 시설의 확보					
농촌지역 주민과의 관계 준비					
기타(구체적으로:)					

21. 선생님은 앞으로 귀농할 의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높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은 편이다. ( )⑤ 매우 적다.

22. 선생님께서 앞으로 귀농한다면 얼마 후로 예상하십니까? (　　)

(　)① 1-2년이내　　(　)② 3-4년이내　　(　)③ 5년-6년

(　)④ 7-8년이내　　(　)⑤ 9-10년이내　　(　)⑥ 10년 이상

23. 선생님께서 귀농하신다면 어떤 형태를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농업을 승계

(　)② 신규 창업

(　)③ 일용 노동자로 농업 취업

(　)④ 친구, 친지와 협업

(　)⑤ 아는 분의 집에 실습자겸 보조자로 취업

(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

24. 귀농하신다면 귀농지는 어느 곳입니까?

(　)① 고향 농촌　　(　)고향 인근의 농촌　　(　)③ 전혀 무관한 농촌

(　)④ 기타(구체적으로:_____)

25. 선생님은 귀농시 어떤 영농 작목(가축 포함)을 선택하실 예정입니까?

(　)① 논벼　　(　)② 채소　　(　)③ 과수　　(　)④ 화훼　　(　)⑤ 특용작물

(　)⑥ 두류/서류/잡곡　　(　)⑦ 대가축 사육(한우, 젖소, 고기소, 말 사육 포함)

(　)⑧ 양돈　　(　)⑨ 양계(닭/관상용 조류)　　(　)⑩ 양잠/양어　　(　)⑪ 기타

26. 선생님께서 귀농을 준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　)① 재배(사육)기술 문제　　(　)② 경영 기술 문제　　(　)③ 판매 기술 부족

(　)④ 운영자금 문제　　(　)⑤ 토지구입자금 문제　　(　)⑥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　)⑦ 노동력 확보 문제　　(　)⑧ 생산물 판로 문제　　(　)⑨ 기술 조언자 확보 문제

(　)⑩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　)⑪ 마을 분위기 적응 문제

(　)⑫ 작목 선택 문제　　(　)⑬ 자녀교육문제　　(　)⑭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　)⑮ 의료·복지시설부족　　(　)□ 농업·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　)□ 확고한 신념　　(　)□ 기타(구체적으로:_____)

27. 귀농을 결심하여 귀농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년

28.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귀농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정기적인 취농 박람회 개최　　(　)② 농가·농장체험프로그램 제공

(　)③ 취농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　)④ 취농자 교육 및 연수

(　)⑤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　)⑥ 농지 구입 정보 제공

(　)⑦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　)⑧ 지역주민과의 인간관계 형성지원

(　)⑨ 주거지 정보 안내와 지원　　(　)⑩ 정기적인 농사기술교육과 지도

(　)⑪ 기타(자세히:_____)

♥ 감사합니다 ♥

<귀농자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강 대구입니다.
저는 <최근 귀농 실태와 지원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농림부의 연구 용역을 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귀농자나 귀농희망자가 귀농을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귀농자나 귀농희망자들의 실태와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이렇게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로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정책적 방안의 도출에만 사용할 것이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설문지에서 보듯이 개개인의 신상 자료는 무기명으로 기록되므로 합산 결과로만 쓰이게 됩니다.
혹시 조사과정에서 귀농이나 귀농과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타 항목이나 마지막 문항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가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조사원들에게 질문하시거나, 제게 전화나 e-mail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강 대구 교수
전화 061-750-3355
kang@sunchon.ac.kr

*다음 문항을 읽고 ( )안에 해당사항을 직접 기입하거나, 해당 번호 앞 ( )에 ○표 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올해 연세를 적어주십시오 ( )세
2. 선생님의 성별은? ( ) ① 남 ( ) ② 여
3. 처음 귀농하신 시기는? ( )세
4. 선생님의 귀농전 직업 상태는?

( )① 자영업 ( )② 사무직 ( )③ 영업직 ( )④ 공무원 ( )⑤ 주부
( )⑥ 퇴직 ( )⑦ 실직 (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5. 선생님이 귀농하시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사업실패나 실직으로 ( )② 자신/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③ 퇴직후 여생을 위해 ( )④ 도시생활의 어려움으로
( )⑤ 농촌 생활이 좋아서 ( )⑥ 농업 전망이 밝아서
( )⑦ 취업을 못해서 ( )⑧ 영농 승계를 위해서
( )⑨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 )⑩ 인간다운 삶을 위해
( )⑪ 추구하는 이상을 위하여(생태, 대안교육, 소박한 삶, 종교적 가치 등)
( )⑫ 기타(구체적으로:_____)

6. 선생님의 귀농 유형은?

( )① 어릴 때 농촌 거주->교육받은 후 도시 취업->고향 농촌으로 귀향
( )② 어릴 때 농촌 거주->교육받은 후 도시 취업->타 지역 농촌으로 귀향
( )③ 출생이후 도시에서 자람->농업 관련 단체 취업->농촌 정착
( )④ 출생이후 도시에서 자람->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농촌 정착
( )⑤ 출생이후 도시에서 자람->농업과 무관 업무에 종사->농촌 정착
(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

7. 선생님께서 최초 귀농하여 시작한 귀농 형태는?

( )①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농업을 승계
( )② 신규 창업
( )③ 일용 노동자로 농업 취업
( )④ 친구, 친지와 협업
( )⑤ 아는 분의 집에 실습자겸 보조자로 취업
(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

8. 선생님께서 귀농 당시 초기 자본을 어느 정도 투자하였습니까?

-주택( )만원, 농장( )만원, 기타(구체적으로:_____)( )만원

8-1. 초기자본은 주로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자기 자본:_____%, 금융기관 대출:_____%, 사채:_____%, 기타:_____%

9. 귀농에 대하여 알고 생각한 후 귀농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되었습니까? ( )년

10. 선생님은 귀농전에 직접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11.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 )① 중졸이하 ( )② 고 중퇴-고졸 ( )③ 전문대 중퇴-전문대 졸
( )④ 대학중퇴-대졸 ( )⑤ 대학원 졸 이상

12. 선생님은 농업계 학교(농고, 농전, 농대)를 나오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3. 선생님은 귀농전에 농업관련 사회생활(직장, 자영업 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조금 있다.
( )④ 없는 편이다. ( )⑤ 거의 없다.

14. 선생님은 귀농전에 농업관련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은 편이다. ( )③ 조금 있다.
( )④ 없는 편이다. ( )⑤ 거의 없다.

15. 선생님은 귀농전에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던 영농 조언자가 있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6. 선생님 부모님의 직업은 농업입니까(이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7. 선생님이 처음 귀농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떠하였습니까?
( )① 적극 찬성하였다. ( )② 찬성하는 편이었다. ( )③ 보통이다.
( )④ 반대하는 편이었다. ( )⑤ 적극 반대하였다.

18. 현재 선생님의 농사에 대한 주변 사람(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원은 어떠합니까?
( )① 적극 지원한다. ( )② 지원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 )⑤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

19. 현재 선생님의 농사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의 지원은 어떠합니까?
( )① 적극 지원한다. ( )② 지원하는 편이다. ( )③ 보통
( )④ 지원하지 않는 편이다. ( )⑤ 거의 지원하지 않는다.

20. 영농중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께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 )① 관련 책자 검색 ( )② 인터넷 검색 ( )③ 교육, 연수 참가
( )④ 관련기관 방문 ( )⑤ 전문가와 상담 ( )⑥ 선도농가와 상담
( )⑦ 마을사람과 상담 (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21. 귀농 초기에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 )① 재배(사육)기술 문제 ( )② 경영 기술 문제 ( )③ 판매 기술 부족
( )④ 운영자금 문제 ( )⑤ 토지구입자금 문제 ( )⑥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 )⑦ 노동력 확보 문제 ( )⑧ 생산물 판로 문제 ( )⑨ 기술 조언자 확보 문제
( )⑩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 )⑪ 마을 분위기 적응 문제
( )⑫ 작목 선택 문제 ( )⑬ 자녀교육문제 ( )⑭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 )⑮ 의료·복지시설부족 ( )⑯ 농업·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 )⑰ 확고한 신념 ( )⑱기타(구체적으로:_____)

22. 귀농 초기 선생님의 영농능력을 이웃 농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매우 우수' 5, '우수' 4, '비슷한 수준' 3, '약간 낮음' 2, '매우 낮음' 1로 ( )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영농계획 수립 ( ) ② 재배(사육)기술 ( )
③ 농업경영능력 ( ) ④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 ( )
⑤ 경영분석과 진단 능력 ( ) ⑥ 농업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 )
⑦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 능력 ( )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23. 현재 선생님의 영농능력을 이웃 농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매우 우수' 5, '우수' 4, '비슷한 수준' 3, '약간 낮음' 2, '매우 낮음' 1로 ( )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영농계획 수립 ( ) ② 재배(사육)기술 ( )
③ 농업경영능력 ( ) ④ 농산물 판매와 구매 능력 ( )
⑤ 경영분석과 진단 능력 ( ) ⑥ 농업정보 수집과 활용 능력 ( )
⑦ 지역주민과의 관계형성 및 유지 능력 ( )
⑧ 기타(구체적으로:_____) ( )

24. 귀농 초기에 선택한 주요 작목은 무엇입니까?
( )① 논벼 ( )② 채소 ( )③ 과수 ( )④ 화훼 ( )⑤ 특용작물
( )⑥ 두류/서류/잡곡 ( )⑦ 대가축 사육(한우, 젖소, 고기소, 말 사육 포함)
( )⑧ 양돈 ( )⑨ 양계(닭/관상용 조류) ( )⑩ 양잠/양어 ( )⑪ 기타

25. 선생님은 귀농후 현재까지 몇 번이나 주 작목을 바꾸었습니까? ( )회
26. 선생님의 현재 농업 유형은?
( )① 농사는 짓고 있으나 자가 소비 식량만 생산함
( )② 농사를 지어 식량하고 조금 남은 것을 팔고 있음
( )③ 농산물을 생산·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있음
( )④ 농촌에서 거주하나 농업과 무관한 일을 함(텃밭을 이용하는 정도)
( )⑤ 농사는 짓지 않으나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음
( )⑥ 가족 중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농업 관련 일을 하고 있음
( )⑦ 기타(구체적으로:_____)
27. 선생님의 현재 주 소득 작목은?
( )① 논벼 ( )② 채소 ( )③ 과수 ( )④ 화훼 ( )⑤ 특용작물

( )⑥ 두류/서류/잡곡 ( )⑦ 대가축 사육(한우, 젖소, 고기소, 말 사육 포함)
( )⑧ 양돈 ( )⑨ 양계(닭/관상용 조류) ( )⑩ 양잠/양어 ( )⑪ 기타

28. 선생님께서 영농을 하면서 현 단계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 )① 재배(사육)기술 문제 ( )② 경영 기술 문제 ( )③ 판매 기술 부족
( )④ 운영자금 문제 ( )⑤ 토지구입자금 문제 ( )⑥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 )⑦ 노동력 확보 문제 ( )⑧ 생산물 판로 문제 ( )⑨ 기술 조언자 확보 문제
( )⑩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 )⑪ 마을 분위기 적응 문제
( )⑫ 작목 선택 문제 ( )⑬ 자녀교육문제 ( )⑭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 )⑮ 의료ㆍ복지시설부족 ( )□ 농업ㆍ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 )□확고한 신념 ( )□ 기타(구체적으로:_____)

29.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① 농사규모나 종류를 확대하여 농업을 계속할 것이다.
( )② 농사규모나 종류를 그대로 유지하며 농업을 계속할 것이다.
( )③ 농사규모는 유지하되 농사작목을 바꿀 것이다.
( )④ 농사규모나 농사작목을 줄일 것이다.
( )⑤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다른 부업을 가질 것이다.
( )⑥ 다른 직업을 갖고 농업을 부업으로 할 것이다.
( )⑦ 농업을 포기할 것이다.

30. 농촌에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앞으로도 농촌에 살겠다. ( )② 가능하면 농촌에 살겠다.
( )③ 가능하면 도시로 가겠다. ( )④ 곧 도시로 가겠다.

31. 선생님의 올해 농업 소득은 귀농 목표에 비하여 얼마나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귀농 목표를 (_____)% 도달했다.

31-1. 소득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아주 만족한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불만족한다.

31-2. 올해 농업 소득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500만원 이하 ( )② 500만원-1000만원 ( )③ 1000만원-2000만원
( )④ 2000만원-3000만원 ( )⑤ 3000-4000만원 ( )⑥ 4000만원-5000만원
( )⑦ 5000만원-6000만원 ( )⑧ 6000만원-7000만원 ( )⑨ 7000만원-8000만원
( )⑩ 8000만원-9000만원 ( )⑪ 9000만원-1억 ( )⑫ 1억 이상

32. 지금 생각해볼 때 선생님의 귀농 결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잘한 결정이다. ( )② 잘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잘못한 편이다. ( )⑤ 아주 잘못한 결정이다.

33. 현재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34. 여러분이 귀농한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는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만족하는 편이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35.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신규로 귀농을 하여 정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것 하나를 고르신다면?
( )① 재배(사육)기술 문제 ( )② 경영 기술 문제 ( )③ 판매 기술 부족
( )④ 운영자금 문제 ( )⑤ 토지구입자금 문제 ( )⑥ 농기계(시설)자금 문제
( )⑦ 노동력 확보 문제 ( )⑧ 생산물 판로 문제 ( )⑨ 기술 조언자 확보 문제
( )⑩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 )⑪ 마을 분위기 적응 문제
( )⑫ 작목 선택 문제 ( )⑬ 자녀교육문제 ( )⑭ 여가나 문화 활동 부족
( )⑮ 의료·복지시설부족 ( )□ 농업·농촌 정책 및 제반 환경변화
( )□ 확고한 신념 ( )□ 기타(구체적으로:_____)

36.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귀농자가 처음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 ( )년
37. 선생님께서는 귀농을 결심한 후 귀농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년

38.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귀농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기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정기적인 취농 박람회 개최 ( )② 농가·농장체험프로그램 제공
( )③ 취농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 )④ 취농자 교육 및 연수
( )⑤ 취농 정착 자금 융자 지원 ( )⑥ 농지 구입 정보 제공
( )⑦ 지속적인 영농상담과 컨설팅 ( )⑧ 지역주민과의 인간관계 형성지원
( )⑨ 주거지 정보 안내와 지원 ( )⑩ 정기적인 농사기술교육과 지도
( )⑪ 기타(자세히:_____)

39.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귀농자들에 대한 선발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부록 2. 일본 각 현의 귀농 자료

● 나가노현 취농 준비 과정

《STEP 1》 [상담] 우선은 정보나 기초지식을 수집하자

▼

《STEP 2》 [체험] 농업·농촌의 생활을 체험하자

▼

《STEP 3》 [결단] 농업을 시작하는 결단을 하자

▼

《STEP 4》 [목표] 하고 싶은 농업의 이미지를 구체화하자

▼

《STEP 5》 [연수] 연수 기술이나 노하우를 몸에 익히자

▼

《STEP 6》 [자금]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자

▼

《STEP 7》 [확보] 취농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자

▼

《STEP 8》 [계획] 영농 계획을 세우자

▼

《STEP 9》 [취농] 응원해 주는 기과·선배·친구를 가지자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nagano

● 니가타현 취농 준비 과정

1.취농 상담
희망 작목, 취농지, 취직까지의 순서

- 니가타현 청년 농업자 육성 센터
- 현내의 각 농업 개량 보급 센터
- 시읍면, 각 농업 위원회
- 농업 협동 조합

▼

2.기술 습득
각종 연수

- 연수생 수락 조건 정비 사업(연수 기간의 체재비 보조)
- 신규취농지원 특별 대책 사업(취농준비 연수)
- 취농지원 자금(무이자)
- 선진지 농가 유학 연수

▼

3.취농 준비
농지의 확보, 주택의 확보, 기계 시설의 확보

- 취농준비자금

▼

4.취농
당신의 센스가 무한의 가능성을 이끄는

- 농지등 취득 자금
- 각종 농업 제도 자금
- 니가타현 취농지원 특별 대책 사업(자본 장비 지원)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niigata/

● 니가타현의 귀농 연수

	내 용	대 상(연 령)	연수 기관	기간
농업 종사 전	농촌 청소년 선진지 농업 유학 연수	30세 이하	국내 선진 농가	2개월 이상
취농	뉴 농업학원 연수	-	농업 개량 보급 센터	1~2년간
	농업 대학 강좌	-	농업 대학교	-
해외 농가 연수	장기 해외 농업연수	파견에 따라 다름	미국, 유럽 각국	1~2년간
	단기 농업 해외 연수	-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	2주~3개월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niigata/ippo.html

● 미야기현 귀농 연수

	내 용	대상자	연수 기관		기 간
기초적 기술, 지식	농업 전반에 걸치는 기초 연수	농업 하고 싶은 40세 정도	뉴파마즈・컬리지		4~10월
응용 기술, 지식			미야기현 농업 실천 대학교		2년
			미야기현 농업 단기 대학		2년
			농림 수산성 농업자 대학교		3년
			구 후치 학원		4년
			아츠카타케 중앙 농업 실천 대학교		1~2년
실천적 기술이나, 경영방법			국내	농업사	3개월~2년
			해외	현재 파견군, 미국 본토	1, 2년
				덴마크, 하와이, 스위스, 네덜란드	1년
정단위에서 운영하는 연수 시설	야채·화초양액재배 코메노야마마치 코메노야마마치 화초 원예 센터야채·양액재배 오노다쵸약래펌				

이 외에 각종 연수 법인이 있음.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miyagi

● 미에현 연수강좌

	강좌명	내용	기간	정원	내용
농업자 대학교	농업 기초 강좌	신규취농자등 , 취농희망자	11개월간 월 2회 개최	20명 정도	토양 비료, 농업 경영, 작물등 10 교과
	농업기계 연수	농업자 (취농희망자를 함)	7,11,12,11월 4회 8일간	각 8명	농업기계 2급 (강좌, 실습)
	농산 원예 축산	다업 과수 야채 축산 화초	40명	2년	전 기숙사 제
국제농업자 교류협회		해외파견연수	1~2년		25만엔/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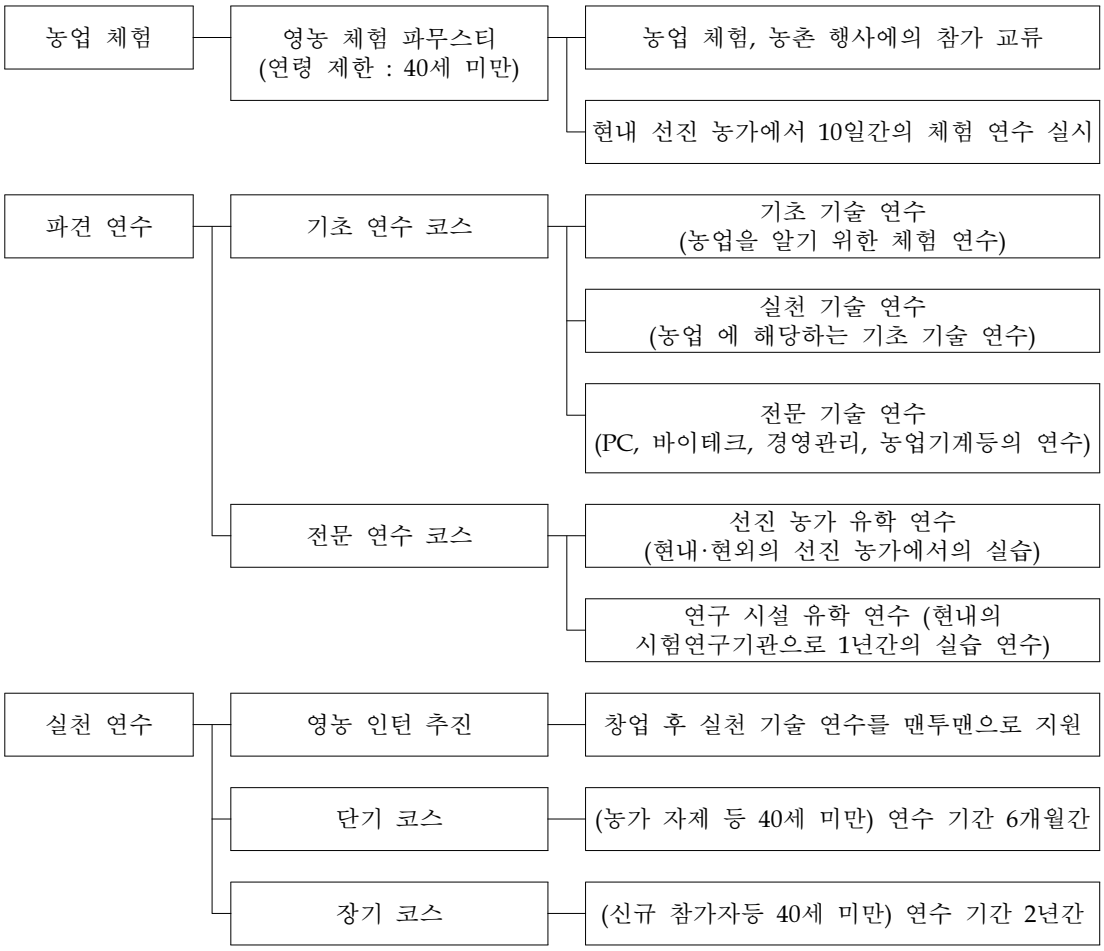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mie/kyoiku.html

● 아키타현 취농 연수 유형

연 수	연 수 기 관(장 소)	기 간	조 성
국내 선진지 농가 유학 연수	국내의 선진지 농가	1~2년	월 2만엔의 연수 장려금
농업 청년 해외 파견 연수	미국, 유럽등의 선진지 농가	1~2년	도항전에 50만엔 연수 장려금
농업 후계자 기술 습득 연수	현의 농업 시험장, 과수 시험장, 축산 시험장	2년	월 10만엔의 연수 장려금
기업적 농업 경영 실천 연수	현 농업 담당자 연수 교육 센터, (유) 오노합그린 펌	2년	월 10만엔의 급여 지급
지역내 기술 습득 연수	시읍면 실험 농장등	2년	월 10만엔의 연수 장려금

자료 : http://nca.or.jp/Be-Farmer/akita/

● 에히메현 취농 연수 유형



● 에히메현의 취농 지원 내용

	내용	관련 기관
농지	차입이나 구입에 의한 취득, 농지법에 근거한 수속이 필요	농업 회의, 농업 위원회, 농업 개발 공사
기술	영농 체험 파무스티 사업, 영농 인턴 추진 사업, 선진 농가 유학 연수, 해외 선진 농가 유학 연수, 입학/농업 기초 기술 연수, 연구생/연구 시설 유학 연수	선진 농가, 농업 협동 조합, 에히메현립 농업 대학교, 시험연구기관
자금	취농상담/농지의 알선, 수속, 시설, 장비, 농업개량자금, 취농 지원 자금의 알선 및 융자	현 농업 회의, 농업 협동 조합, 지역 농업 개량 보급 센터
그외	농업전반에 걸치는 상담, 영농 지도, 생산물의 판매, 자재 구입, 공제, 융자, 경영 기술 지도, 상담, 농작물등 보험	농업 위원회, 농업 협동 조합, 지역 농업 개량 보급 센터, 농업 공제 조합
	농업 기초 기술 연수, 농업의 구조와 제도 강좌, 실습 연수	현립 농업 대학교, 지역 농업 개량 보급 센터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ehime/

● 오이타현의 취농 준비 과정 안내

1 취농에 해당하는 각오
・정열과 의욕을 가지는 것
-농업에의 꿈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욕과 정열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농촌에서의 생활
・지역사회에 융화되도록 근무하는
-농업의 공동 작업외 농촌의 전통 행사나 습관 등에 참가, 협력, 사귐, 만남 대화를 거듭하고 지역 융화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

3. 지역의 선정
・자신의 농업 경영의 이미지화를 하는
-자신의 희망하는 작목에 있던 기상 조건이나 토질, 수질, 토지가 있는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4. 농지의 취득
・농지법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택지와 다름)
-농지의 매매에 대해서는 농지가 잇는 농업 위원회에 신고라고 농지법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

5. 기술의 습득
・농업은 교과서에 없는
-취농의 전에 농업 개량 보급 센터나 전업 농가나 시장에 나가 재배 기술이나 가축의 사육기술, 생산물의 상황 등 공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6. 자금의 준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
-농지나 농기구의 구입 자금, 수입을 얻을 수 잇을 때까지의 생활 자금, 운용자금 등 자금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이타현 취농 지원 사업 내용

1. 신규취농 장점 소개	2. 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가지 상담
・자연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발상, 계획으로 자유롭게 일 ・많은 동료와의 만남	농가의 실정, 농지 대여 또는 구입 시 주의점 : 제도금융, 보조사업 내용 등 기본사항 설명
3. 신규취농 정보 제공	**4. 취농 가능지역 안내**
・사거나 빌리거나 하는 농지의 정보 ・주택의 정보 ・기계, 시설의 정보	・취농 가능 지역 소개 ・농업 실습 희망자, 실습 농가, 기관 등의 소개 ・농업 실정, 기술, 경영관련 전문 기관 단체소개

● 오이타현의 취농 연수 유형

단 계	취농 기간	상태	연수 자금	비 고
warming-up period	1년째	농업 장소, 품목 등이 정해짐 1년간의 농업 실습	월액 15만엔	연수 자금은 5년 이상 취농 하면 반환 면제
studying period	2~5년째	농지는 이자보급 제도 소작료 보조 제도 5년간 경영 실습 기간	취농후 연간 200만엔	3년간 무이자
trying period	6년째	스스로 농업 창조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oita

● 와카야마현 롱고향학원의 체험 과정

	기간	내용	숙소비용과 운영
체험형	3일/월 1회	체험 형식의 전원생활, 식사는 자취, 식사재료제공, 장기체험희망자에 대한 별도 상담	가족 : 10,000엔/1개월 독신자용 10,000엔/1개월
실습형	1주~1년	취농실습단계. 오리엔테이션과 실습단계로 구분. 오리엔테이션 수시 제공, 숙박비나 중식비 부담 실습비는 무료, 상해보험가입요구. 실습지까지의 교통비 자부담	1,000엔/1일 연수실/커뮤니티룸: 1,000엔/1일(숙박은 1명 1일 1,000엔)
정주형	5일(정주후 상의)	신규 정주 촉진반, 5일간의 정주체험, 고향정주 촉진 주택의 건설(집세 15000엔/1개월)	1개월전-1주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연중무휴. 신청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wakayama/kyoiku.html

● 이시카와현 귀농 연수 사업

	연수명		기간	대상	내용	실시 주체
취농전	농업 체험 홈스테이		3 일7정도	비농가 출신 청년등	농가에서의 홈스테이를 통해서 농업의 이해 촉진과 취농의욕을 양성	(재) 이시카와21세기 농업 육성 기구
	취농준비교	(1) 연중 코스	1년	취농전의 사람	농업 경영을 실시하는 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이시카와현
		(2) 기초 코스	펴 10일	취농예정자 또는 신규취농자		
		(3) 예과 코스	펴 6일 (일요일등에 실시)	외 산업 종사의 취농희망자		
	선진 농가·법인 위탁 연수 (위크엔드 농업 연수)		1년 이내 펴 30일	농업기술·경험을 약간 가져, 취농의욕이 강한 청년등	선진적인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농가·법인에 대하고, 실천적인 농업 경영의 습득	(재) 이시카와21세기 농업 육성 기구
취농후	신규취농청년 세미나 및 격려회		1일	신규취농자	새롭게 취농 한 청년에 대해, 농업자로서 자랑과 의식의 양성	(재) 이시카와21세기 농업 육성 기구
	툽파마 육성 연수		연중	취농 1년째의 신규취농청년	농업 개량 보급원의 맨투맨 지도에 의한 기술 습득	이시카와현
	취농준비 학교 부지역판 아그리학원		별도 지정	신규취농자등	지역의 실태에 맞은 실천적인 영농 기술등의 습득	이시카와현
	농업 청소년 해외 단기 연수		20 일정도	농업 후계자	홈스테이를 주체로 한 농업 연수로, 국제적인 넓은 시야를 가진 농업자를 육성	(재) 이시카와21세기 농업 육성 기구

출처: http://www.nca.or.jp/Be-farmer/ishikawa/kyoiku.html

● 히로시마현 교육·연수 기관

교육 기관	대상자	작목	기간	연수 내용	비 고
히로시마현립 농업 대학교		원예코스 야채, 과수, 화초	신규취농자 6월~1월		
		가축 코스 낙농, 육용소	농기계 6월~12월		
히로시마시 농림 수산 진흥 센터	연수 종료후 시내에 취농 하는 사람 원칙 40세까지	연약 야체	2년	1년째는 센터에서 강의・실습 2년째는 현장연수 취농때는 농지・재배용 시설등 알선	
히가시히로시마시 원예 센터		야채, 화초	1년	센터에서 강의・실습	연수 기간중 월액 10만엔 정도 장려금 지급
후쿠야마시 원예 센터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 60세 미만	야채, 화초, 과수	1년	주 1회, 센터 및 시내 농가에서 강의・실습	
키타히로시마마치신규취농농업연구시설	동내에서 핵심이 되고 농업을 하는 사람 40세	화단모종, 야채모종, 딸기, 엽채류	2년 이내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hirosima.

● 코치현 취농 지원

		코스	내용		방법	시기 및 날짜	대상 및 인원수
			연수 목적	연수 내용			
연수	실천농업대학교 쿠보카와교	하계농업강좌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집중 강좌 실시와, 원활한 취농을 향한 과제 해결의 장소로 하며 동시에,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	흙만들기, 퇴비 만들기, 농약의 안전 사용,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 취농시의 제제도 등.	강의	7월 하순 5일간	취농희망자등
		취농희망자 기본기술 연수	A코스 기본적인 농사일에 대해, 실천 주체로 한 체험적 연수 실시.	낫을 갈고, 풀베기, 경운, 수도·생강 수확, 엽채류 파종, 가축의 사육관리 등.	현장연수	A-1 8월하순 5일간 A-2 11월 하순 5일간	신시골 비즈니스 스쿨 수강생 중 희망자(A-1) 그 외취농희망자 등 (A-2) · 각 15명 이내
			B코스 농대 쿠보카와교의 재배 작업 계획(1년간)에 맞춰 수시로 기초적 농업기술에 대한 연수 실시.	경운 등 농장 관리나 농사일의 기초 기술 실습 등.	강의 및 현장연수	연중(11월 개시) 총계 15일간	취농희망자등 15명 이내
			C코스 농사일 실습을 주체로 3개월 이상의 계속 연수 실시.	농업기계의 사용법, 병해충 방제 등의 농사일 일반.	현장연수	연중(6월 개시) 3개월 이상	취농예정자등 약간명
	코치현 신시골 비즈니스 스쿨	제1회	입학식·코치현의 자연과 문화 풍토		인터넷 동영상 강의	7월	제한 없음
		제2회	코치현의 농업·농업자의 생활			8월	
		특별	schooling(농업 체험 실습)			8월	
		제3회	농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			9월	
		제4회	신규 취농자로부터의 어드바이스·생활			10월	
		제5회	농업기술 1(토양 비료·병해충 방제)			11월	
		제6회	농업기술 2(야채·화초)			12월	
		제7회	농업기술 3(과수·수도)			1월	
		제8회	신규취농과 관련된 지역의 지원책·진로 상담			2월	
		제9회	졸업식			3월	

자금	구분	내용	
	사업주체	· 시읍면·농협	
	지원내용	· 시읍면이나 농협이 원예용 비닐 하우스 렌탈 · 경비를 현이1/3(나카야마간 지역의 경우1/2), 시읍면이 1/3(동1/4), 농협이 남아1/3(동1/4)를 각각 부담해, 농협의 부담분 등이 매년 렌탈료	원칙 5년간의 대차 계약, 재차 5년간의 계약도 가능

	대출한도액	상환(거치) 기한	이자보급 기간	대상자
신규취농자 영농자금	개인 2,100만엔 단체 2,100만엔×구성원수(상한 6,300만엔)	농업 근대화 자금, 농림 어업 금융 공고 자금, 농업 경영 개선 촉진 자금은 각 원자금에 같을, 농협 계통 자금은 상환 기간 5(1) 년 이상	자금 차입 후 10년간	신규취농 (40세미만)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kouchi/seido_new.html

● 쿠마모토현 주요 농업 연수 기관 및 연수제도 일람표

쿠마모토현립 농업 대학교	키쿠치군 코우시마치영3805 TEL(096)248-1188	2년	100	농학과(농산, 있어 업, 특산) 원예 학과(야채, 화훼, 과수) 축산학과(낙농, 육용우)
농수성 농업자 대학교	도쿄도 타마시 렝코우지 3-23-1 TEL(0423)75-8511	3	50	농업 및 사회·인문에 관한 지식 및 선진 농가등 파견 실습에 의한 전문 기술의 습득 전 기숙사 제
야채·다업 시험장 쿠루메지장 농업기술 연수제도	후쿠오카현 쿠루메시 미마치 1823 TEL(0942)43-8271	2	25	야채·화훼의 학리와 전문 기술의 습득
야채·다업 시험장· 카나야 농업기술 연수	시즈오카현봉원군 카나야마마치 카나야2769 TEL(0547)45-4101	2	40	다업에 관한 전반을 배워, 다업 후계승자로서 필요한 지식·기술의 습득
과수 시험장 쿠치노츠지장 농업기술 연수	나가사키현 미나미타카키군 쿠치노츠쵸을870 TEL(0957)86-2306	2	14	과수에 관한 학리와 전문 기술의 습득
농촌 청소년 선진지 유학 연수 (회사) 전국 농촌 청소년 교육 진흥회	청년 농업자등을 국내의 선진 농가등에 파견해, 현장에 농업 경영 및 생산 기술등을 체득시킨다	0.3~1	국내 선진 농가, 농업 생산 법인등으로의 연수	
농업 연수생 해외 파견 사업 (회사) 국제 농업자 교류 협회	농업 청년을 해외 농업처 진국에 파견해, 국제적 시야와 뛰어난 농업기술, 경영 능력을 체득시키는	1~2	해외에서의 선진 농업기술등의 연수 미국(1년·2년) 덴마크, 독일, 스위스, 네델란드 (각국 모두 1년)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kumamoto/kyoiku.html

● 토야마현 취농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활동	취농희망자의 발굴과 모집	정주하면서 종사하여, 자립할 수 있는 농업으로 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발굴·모집			
	취농상담	①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의 습득 방법 ②경영 개시에 필요한 기계·시설의 취득 대책 ③농지의 이용 집적 방책 ④경영 개시 자금의 조달 방법			
	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취농희망자나 핵심 농가등의 경영 확립에 필요한 경영 자원 정보 ②취농계획이나 농업 경영계획의 책정등에 필요한 정보 ③신규취농희망자 및 청년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의향 ④핵심 농가등의 후계자 확보 상황과 후계자 확보에 대한 의향			
	구분	대상자	기간	지원 조치	비 고
교육·연수기관	취농계발 촉진 농업 체험 사업	40세 이하의 신규 취농희망자	10일간		식사비 등의 부담 없음
	취농희망 청년 등 취농촉진 장기 연수 사업		1년간	취농지원 자금[1]을 빌릴수 있음	
	실천 기술 강습 등 원활화 추진	-50세 미만의 신규취농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의 습득 희망자	1년 이내		
	주[1] : 취농지원 자금 대출 제도란, 선진 농가에서 1년 이상 계속하고 연수를 받을 때 월액 15만엔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것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toyama

● 홋카이도

	대상	과정		내용
홋카이도 도립 농업 대학교	고교 이상 졸업	양성 과정 (2년제)		축산 경영, 밭농사, 원예 경영과 벼농사 경영 전공 코스
	취농 지원자	연구과정도		농업 경영 연구과
		연수 부분	일반 연수	뉴 리더-연수 U턴 신규 참가자 기초 연수 지역 만들기 세미나 농촌 여성 세미나 농업 대학교 오픈 컬리지북의 농학교
			기계 연수	농업기계 고도 이용 연수(초급·중급·상급) 용접 기능 연수 콤바인 연수 건조 시설 이용 연수 낙농 기계 시설 이용 연수 농업 토목 기계 운전 기능 연수 무인 헬리콥터 조작 기능 연수
취농 준비교	일반인	홋카이도 농업 전문학교		주말을 이용해 농업의 기초 학습 가능
도내 농업고교	사회인도 입학 가능	3년제		33교의 농업계 고등학교
		특별전공과		사회인이 입학 가능한 사황고등학교, 벳카이 고등학교, 후라노 농업 고교
대학·단기 대학	일반인도 수강 가능	단과대 오픈컬리지		농업 강좌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hokkaido

자료 : http://www.agri.pref.hokkaido.jp/college/index.htm

자료 : http://www.hakkougakuen.ac.jp/

● 효고현의 취농 지원 사업

	자금 명	세부 자금 명	대상자 (대상 조건)	자금 지원액	이 율	상 환
자금조달	농림 어업 금융 공구 자금	경영체 육성 강화 자금		사업비 80%	1.7%	25년 이내 (집거치 3년)
	농업 근대화 자금	기계・시설・장기운용자금 등		융자 한도액 1,800만엔	0.5%~1.1%	10~18년 이내 (집거치 5~7년)
		농업개량자금	농업 후계자, 신규취농자[1]		1.1% (신규취농자 0.5%)	
	농업개량자금	청년 농업자 등 육성 확보 자금 (무이자)	인정 취농자	경영 개시 자금 대출 한도액 1,800 방원		10년 이내 (집거치 3년)
	취농지원 자금 (무이자)	취농연구자금	농업기술이나 경영 방법을 현장	필요한 자금		12년 이내 (집거치 4년)[2]
			농업 대학교 등 연수 기관	월 5만 엔 (재학기간)		
			국내외 선진 농가	월 15만 엔(연간)		
			지도 연수 (18~40세)	200만 엔		
		취농준비자금		200만 엔		
연수			연수 기관		연수 내용	
	신규취농자 연수		효고현립 농업 대학교		신규취농자 단기 기술 연수, 신규취농 실천 농장 연수(원칙 1년간) 실시	
	취농준비교		홋카이도, 칸토, 토카이, 나가노, 킨키, 큐슈, 6지구 12교실		도시 생활자 중 타산업종사자에게 농업지식이나 기술, 체험 학습 제공	

주[1] : 18세 이상 45세 이하인자, 농업개량보급 센터 소장이 인정한 자
주[2] : 조건 불리 지역에 취농 했을 경우에는 20년 이내(9년 이내)

자료 : http://www.nca.or.jp/Be-farmer/hyogo

● 후쿠시마현 신규 취농 과정 안내

신규취농희망자
신규 농업 희망자
농업・농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자

▼

○상담	**농업에 대한 상담 창구**	・후쿠시마현 신규취농상담센터 ・지역의 농업 보급부 ・후쿠시마현 청년 농업자 등 육성 센터

▼

○취농전에 기술의 습득	**지역의 농업 보급부**	-개별취농계획/선진지 유학 연수
	현립 농업 단기 대학교	-입학/단기 연수 코스
	농업 시험장	-연수생/단기 연수 코스

▼

○취농 준비 -농지의 확보 -주택의 확보 -기계・시설의 확보	**농업 위원회**	-상담/농지의 알선/수속
	지역의 농업 보급부	-농업개량자금/취농지원 자금
	농업 협동 조합	-농기구・시설 등 알선/융자・자금의 알선

▼

취농

▼

○취농 후 -농업 경영의 전개	**지역의 농업 보급부**	-영농기술지도/경영개선지도/생활개선지도
	농업 협동 조합	-영농 지도/농산물의 판매/공제・융자
	시읍면 농업 위원회	-농업 전반

자료: http://www.nca.or.jp/Be-farmer/fukusima/ippo.html